

제 1 교시

2007-2002학년도 사관학교 1차 선발시험 문제지

국어 영역

홀수형

성명

수험 번호

- 문제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히 쓰시오.
- 답안지의 필적 확인란에 다음의 문구를 정자로 기재하시오.

그대의 오늘 국군의 내일 조국의 미래

- 답안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쓰고, 또 수험 번호, 문형 (홀수/짝수), 답을 정확히 표시하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릅니다. 3점 문항에는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입니다.

※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

사관학교출제위원회

盡人事待天命



2007학년도 육군사관학교 1차 선발시험 문제지

제 1 교시

언어 영역

공 통

성명	
----	--

수험번호							
------	--	--	--	--	--	--	--

1

- 먼저 문제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기입하십시오.
- 답안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하게 표기하십시오.
- 문제는 2점 20문항, 3점 20문항 총 40문항입니다.(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조하십시오.)

[5~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흔히 지방은 비만의 주범으로 지목된다. 대부분의 영양학자들은 지방이 단백질이나 탄수화물보다 단위 질량당 더 많은 칼로리를 내기 때문에 과체중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래서 저지방 식단이 비만을 막는 것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하지만 저지방 식단의 다이어트 효과는 오래 가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비만을 피하는 최선의 방법은 섭취하는 지방의 양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섭취하는 총열량을 제한하는 것이다.

또한 ‘지방’ 하면 여러 질병의 원인으로서 인체에 해로운 것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문제가 되는 것은 ‘전이지방’이다. 전이지방은 천연 상태의 기름에 수소를 첨가하여 경화시키는 특수한 물리·화학적 처리에 따라 생성되는 것으로서, 몸에 해로운 포화지방의 비율이 자연 상태의 기름보다 높다. 전이지방은 ‘부분경화유’나 ‘야채쇼트닝’ 등의 형태로 치킨, 케이크, 라면, 쿠키 등 각종 식품에 첨가된다. 전이지방은 각종 신선식품의 신선도를 유지하고 과자류를 잘 부서지지 않게 하기 때문에 그 유해성에도 불구하고 식품 첨가물로 흔히 쓰인다. 전이지방을 섭취하면 동맥경화, 협심증, 심근경색 등 심혈관계 질환이나 유방암 등이 발병할 수 있다. 이러한 전이지방이 지방을 대표하는 것으로 여겨지면서 지방이 심장 질환을 비롯한 여러 질병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것이다.

그렇다면 지방의 누명을 어떻게 벗겨줄 것인가? 중요한 것은 지방이라고 모두 같은 지방은 아니라는 사실을 일깨우는 것이다. 지방은 인체에서 비타민이나 미네랄만큼 유익한 작용을 많이 한다. 견과류와 채소기름, 생선 등에서 얻는 필수 지방산은 면역계와 피부, 신경 섬유 등에 이로운 구실을 하고 정신 건강을 유지시켜 준다. 불포화지방의 섭취는 오히려 각종 질병의 위험을 감소시키며, 체내의 지방 세포는 장수에 도움을 주기도 한다. 그렇다고 해서 불포화지방을 무턱대고 많이 섭취하라는 것은 아니다. 인체의 필수 영양소가 균형을 이루는 선에서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람들 중에는 지방을 제거하기 위해 ① 체내의 지방 흡수를 인위적으로 차단하는 비만치료제를 이용하는 이도 있는데, 이러한 비만치료제는 인체 시스템에 악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만일 이 비만치료제가 몸에 좋은 지방과 그렇지 않은 지방을 구별하는 눈을 가졌다면 권장할 만하다. 하지만 모든 유형의 지방이 우리 몸에 흡수되는 것을 막는 것이 문제다. 게다가 이 비만치료제는 지방질만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질과 함께 소화 흡수되어 시력 보호나 노화 방지를 돕는 지용성 비타민까지 걸러내게 마련이다. 시력을 떨어뜨리고 노화를 촉진하는 약품을 먹을 이유는 없다. 그것도 만만찮은 비용까지 부담하면서 말이다.

지방이 각종 건강상의 문제를 야기하는 것은 지방 그 자체의 속성 때문이라기보다는 지방을 섭취하는 인간의 ‘자기 관리’가 허술했기 때문이다. 체지방의 경우 과다하게 축적되면 비만한 체형을 형성하는 주요인이 되기도 하고 건강을 위협할 수도 있지만, 적당히 신체에 고루 분포된 체지방은 균형 잡힌 체형의 필수 조건이다. 그러므로 지방과 다른 영양소와의 조화를 염두에 두고, 좋고 나쁜 지방을 분별력 있게 가려 섭취한다면 ‘지방 걱정’은 한낱 기우에 불과할 수도 있다.

5.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2점)

- ① 지용성 비타민 중에는 시력을 보호하고 노화를 방지하는 데 이로운 것도 있다.
- ② 전이지방은 신선 식품의 신선도를 유지하고 과자류를 잘 부서지지 않게 하는 기능이 있다.
- ③ 지방이 단백질과 탄수화물보다 단위 질량당 칼로리가 높다는 것은 최근에 오류로 밝혀졌다.
- ④ 지방을 섭취함에 있어서 ‘자기 관리’가 철저하면 지방이 야기하는 여러 질병을 피할 수 있다.
- ⑤ 필수 지방산은 면역계와 피부, 신경 섬유에 유익할 뿐 아니라 정신 건강 유지에도 도움을 준다.

6. 위 글의 논지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점)

- ① 새로운 용어를 소개하고 그 유래를 밝히고 있다.
- ② 대상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있다.
- ③ 서로 대립하는 견해를 비교하고 이를 절충하여 통합하고 있다.
- ④ 현재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미래를 전망하고 있다.
- ⑤ 대상에 대한 통념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올바른 이해를 유도하고 있다.

7. <보기>와 같은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 위 글의 글쓴이가 조언하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20대의 날렵한 몸매는 이제 추억 속의 사진에만 남아 있다. 이리저리 쏘리며 출렁이는 뱃살은 거추장스럽기 그지없다. 내 키가 170cm인데 체중이 90kg이다. 물론 체지방 수치도 정상치를 훨씬 넘긴 지 오래다. 스스로 생각해도 확실히 비만은 비만이다. 가끔씩 이전의 몸매에 대한 향수와 건강상의 문제로 다이어트를 시도해 봤지만 그때마다 치킨, 피자, 라면, 불고기, 삼겹살, 아이스크림, 땅콩 등 내가 좋아하는 음식들의 고소한 유혹에 넘어가 매번 실패했다.

이번 달부터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시 한번 마음을 단단히 먹고, 식사 때마다 지방이 포함된 음식은 아예 입에도 대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랬더니 맛있는 것들이 항상 눈앞에 어른거려 미치겠다. 과연 건강도 회복하고 균형 잡힌 몸매로 돌아갈 수 있을까…….

- ① 비만 문제를 해결하려면 섭취하는 총열량을 제한해야 할 것입니다.
- ② 몸에 좋은 지방과 몸에 나쁜 지방을 분별력 있게 가려 섭취하십시오.
- ③ 균형 잡힌 몸매와 건강을 위해서는 과다 축적된 체지방을 줄여야 합니다.
- ④ 치킨이나 라면 등 전이지방이 많이 포함된 음식의 섭취는 가급적 줄이십시오.
- ⑤ 비만을 극복한 후에도 질병 없이 장수하려면 불포화지방의 섭취를 피해야 합니다.

8. ㉠에 대한 글쓴이의 입장을 나타내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2점)

- ① 교각살우(矯角殺牛)
- ② 부화뇌동(附和雷同)
- ③ 양약고구(良藥苦口)
- ④ 토사구팽(免死狗烹)
- ⑤ 표리부동(表裏不同)

[9~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양복점 안에서 떼어 입은 대마직¹⁾ 국민복은 양복장²⁾보다도 조금 더 청백 순사를 얼굴 간지럽게 하였다. 작년 초가을, 좋지 못한 풍문이 들리는 파출소 건너편의 양복점에서 맞추어 입은 것이었다. 공정가격 삼십이 원 각순³⁾데, 양복을 찾아 들고는 지갑을 꺼내는 체하면서,

“얼마죠?”

하고 물었다. 지갑에는 돈이라야 삼 원밖에 없었다.

양복점 주인은, 온 천만에 말씀을 다 하신다면서, 어서 가시라고 등을 밀어 내었다.

이 양복장이나 양복은 한 예에 불과하고, 팔 년 동안 순사를 다니면서, 그 중에서도 통제경제가 강화된 이삼 년, 육십 몇 원이라는 월급으로는 도저히 지탱해 나갈 수 없는 생활을 너물 받는 것으로써 보태어 나왔다. 몇 십 원씩, 돈 백 원씩 쥐어 주는 것을, 사양하다가 못 이기는 체 받아 넣기 열말는지 모른다. ㉠ 자청해 주는 것을 따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아권 때면 그럴싸한 사람을 찾아가서,

“수히 값을 테니 백 원만…….”

하고 가져다 쓰기도 여러 번이었다.

술대접을 받기는 실로 부지기수였다. 쌀, 나무, 고기, 생선, 술 모두 다 그립지는 아니할 만큼 들어도 오고, 청해다 먹기도 하고 하였다. 못 해주었네 못 해주었네 하여도, 아낙의 옷감도 여러 번 얻어다 준 것이었다. 공교로이 그 뉴똥치마만은 기회가 없고서 8·15가 덜컥 달려들고 말았지만.

이렇게 그는 작은 것이나마 너물을 먹지 아니한 것이 아니면서도, 스스로 청백하였노라고 팔분의 자신이 있었다. 맹순사의 생각엔 양복벌이나 빼앗아 입고, 돈이나 몇 십 원, 돈 백 원 받아 쓰고, 쌀, 나무며 찬거리나 조금씩 얻어먹고, 술대접이나 받고 하는 것은, 아무나 예사로 하는 일이요, 하여도 죄 될 것이 없고, 따라서 ㉡ 독직이 되거나 죄가 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이 적어도 독직이나 죄가 되자면, 몇 만 원 집어먹고서 소위 팔자를 고친다는 등, 허리띠를 푼다는 등의 수준에 올라야 비로소 문제가 되는 것이였었다. 맹순사는 몇 만 원은커녕, 한 번에 백 원 이상을 얻어먹어 본 적이 없었다. 그런고로 맹순사는 스스로 청백타 하던 것이였었다.

주위의 동간들은 가만히 눈치를 보면, 열에 아홉은 들뭇들뭇한 한몫을 보고 늘어져 만 원짜리 집을 사느니, 오십 석 추수의 땅을 양주에다 사놓았느니, 상사회사를 꾸며 가지고 대주주가 되어 사직하고 나가느니 하였다. 맹순사는, 나도 제발 그런 거리가 하나 걸렸으면…… 하다못해 집 한 채 살 거리라도 좀 걸렸으면…… 하고 초조와 더불어 연방 그런 구멍을 여새겨 보았었다. 그러나 어인 일인지, 한 번도 걸리는 적이 없었다. 그래서 끝내야 쓰레기판만 뒤지다가, 소위 청백한 채로 칼을 풀어 놓고 말았다.

큰 덩치를 먹을 욕심과 기대가 있기는 하였으나, 그 의사는 문제가 아니었다. 아무튼지 큰 것을 먹지 아니하였으니, 따라서 부자가 되지를 아니하였으니, 나는 청백하였노라, 이것이 맹순사의 청백관이었다.

부슬비를 우산으로 가리면서, 맹순사는 군정청 경찰학교로 향하였다. 품에는 진작부터 써가지고 다니던 지원서와 이력서가 들어 있었다.

8·15 직후, 줄곧 누가 몽둥이로 후려갈기는 것만 같아서, 으스스한 골목을 지나노라면 시퍼런 단도가 옆구리를 푹 찌르는 것만 같아서, 예라 사람 감수하겠다고 칼을 풀어 놓기는 하였었다. 그러나 그것이나마 직업을 잃고 나니, 하루하루 다가든다는 것이 반갑지 아니한 생활난이었다. 아까 아낙이 하던 말이 아니라도, 수중에 돈냥 있는 것은 거진 밑바닥이 보이고, 비로소 쌀, 나무 들일 길이 ㉢ 막연할 판에 이르렀다.

세상은 돈도 흔하고, 일거리도 많고, 펍으나 풍성풍성한 것 같았다. 그러나 순사밖에 다닐 줄 모르는 전순사 맹아무에게는 그리 수월히 탄 직업이 ㉣ 친신되어지지를 아니하였다.

‘배운 도적질이 그뿐이니 ㉤ 무가내하로다. 쫓, 세상도 새 세상이니, 설마 어떠리.’

마침내 이렇게 단념 같은 결심을 하기에 이르렀던 것이였었다.

모자도 정복도 패검도 다 옛것이요, 완장 한 벌로써 해방조선의 새 순사가 된 맹순사는 ××파출소로 가기 위하여 종로를 동쪽으로 걸었다. 팔 년이나 다닌 경험자라서, 그 경험을 증명할 만한 몇 마디 테스트를 하더니, 그 당장 채용을 하였고 ××경찰서로 배속⁴⁾을 시켰다. 그리고 이튿날 출근을 하였더니, ××파출소에 근무를 하라는 영이어서 시방 그리로 가고 있는 참이였었다.

옛날의 순사와 꼭 같이 차리고 하였건만 맹순사는 웬일인지 우선 스스로가 위엄도 없고, 신도 나는 줄을 모르겠고 하였다. 만나거나 지나치는 행인들의 동정이, 전처럼 조심하는 것 같은, 무서워하는 것 같은 기색이 없고, 그저 분승만승이었다. 더러는 다뼉 적의와 경멸의 눈초리로 흘겨보기까지 하였다.

함부로 체포도 아니 하고, 위협도 아니 하고, 뺨 같은 것은 물론 때리지 못하게 되었고 하니, 전보다 친근스러하고 안심한 얼굴로 대하고 하여야 할 것인데, 대체 웬일인지를 모르겠었다.

- 채만식, <맹순사>

- 1) 대마직 : 삼실로 짠 천.
- 2) 양복장 : 양복을 넣거나 걸어 두는 옷장.
- 3) 각수 : 돈을 '원' 단위로 셀 때, '원' 단위 아래에 남는 몇 전이나 몇 십 전을 이르는 말.
- 4) 배속 : 사람을 어떤 곳에 배치하여 종사하게 함.

9. 위 글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점)

- ① 작품 밖의 서술자가 주인공의 입장에서 서술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 ② 작품 밖의 서술자가 인물의 행동을 객관적인 위치에서 관찰하고 있다.
- ③ 서술자가 사건과 관련을 맺고 있으나, 일정한 거리를 두고 서술하고 있다.
- ④ 주인공이 경험한 사건을 작품 속 다른 인물이 전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 ⑤ 주인공의 다양한 성격을 드러내기 위해 서술 시점에 변화를 준 부분이 있다.

10. 대상에 대한 화자의 태도가, 위 글에 나타난 서술자의 태도와 가장 유사한 것은? (2점)

- ① 눈 마자 휘여진 대를 뉘라셔 굽다턴고. / 구불 節(절)이면 눈 속의 프를소냐. / 아마도 歲寒孤節(세한고절)은 너뿐인가 하노라.
- ② 이련들 엇더하며 저련들 엇더하리. / 萬壽山(만수산) 드렁츨이 얼거진들 기 엇더하리. / 우리도 이갓치 얼거져 百年(백년)까지 누리리라.
- ③ 두터비 파리를 물고 두협 우희 치다라 안자 / 건넌 山(산) 바라보니 白松骨(백송골)이 떠 잇거늘 가슴이 금즉하여 풀덕 뛰어 내닷다가 두협 아래 잣바지거고. / 모쳐라 날랜 널식만정 에혈질 변하괘라.
- ④ 귀또리 저 귀또리 어엿부다 저 귀또리 / 어인 귀또리 지는 달 새는 밤에 긴 소리 차른 소리 節節(절절)이 슬픈 소리 제 혼자 우러 네어 紗窓(사창) 여윈 잠을 살뜨리도 깨우는구나. / 두어라, 제 비록 微物(미물)이나 無人洞房(무인동방)에 내 뜻 알 이는 너뿐인가 하노라.
- ⑤ 한숨아 세한숨아 네 어느 틈으로 드러온다. / 고모장지 세살장지 들장지 열장지에 암돌저귀 수돌저귀 배 목결새 똑닥 박고 크나큰 자물쇠로 숙이숙이 차연는디 병풍이라 덜걱 잡고 簇子(족자)라 맥대골 말고 네 어느 틈으로 드러온다. / 어인지 너 온 날이면 잠 못 드러 하노라.

11. 위 글의 ‘맹순사’와 <보기>의 ‘이인국’이 대화를 나눈다고 가정하였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벽 쪽 책꽂이에는 『이조실록(李朝實錄)』, 『대동야승(大東野乘)』 등 한적(漢籍)이 빼곡이 차 있고 한 쪽에는 고서(古書)의 질책(帙冊)이 가지런히 쌓여져 있다.

맞은편 책장 위에는 작은 금동불상(金銅佛像) 곁에 몇 개의 골동품이 진열되어 있다. 십이 폭 예서(隸書) 병풍 앞 탁자 위에 놓인 재떨이도 세월의 때묻은 백자기다.

저것들도 다 누군가가 가져다 준 것이 아닐까 하는 데 생각이 미치자 이인국 박사는 얼굴이 화끈해 졌다.

그는 자기가 들고 온 상감진사(象嵌辰砂) 고려청자 화병에 눈길을 돌렸다. 사실 그것을 내놓는 데는 얼마간의 아쉬움이 없지 않았다. 국외로 내어 보낸다는 자책감 같은 것은 아예 생각해 본 일이 없는 그였다.

차라리 이인국 박사에게는, 저렇게 많으니 무엇이 그리 소중하고 달갑게 여겨지겠느냐는 망설임이 더 앞섰다.

브라운 씨가 나오자 이인국 박사는 웃으며 선물을 내어놓았다. 포장을 풀고 난 브라운 씨는 만면에 미소를 띠며 기쁨을 참지 못하는 듯 생큐를 거듭 부르짖었다.

[중 략]

이인국 박사는 지성이면 감천이라구, 나의 처세법은 유에스에이에도 통하는구나 하는 기고만장한 기분이었다.

청자병을 몇 번이고 쓰다듬으면서 술잔을 거듭하는 브라운 씨도 몹시 즐거운 기분이었다.

“미국에 가서의 모든 일도 잘 부탁드립니다.”

- 전광용, <꺼삐딴 리>

- ① 맹순사 :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국보급 보물을 외국 사람에게 뇌물로 줄 생각을 하다니, 당신 참 나쁜 사람이군요.
- ② 이인국 : 당신도 뇌물을 즐겨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 당신이 내가 뇌물을 줌 주었다고 해서 나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 ③ 맹순사 : 그래도 난 한 번에 백 원 이상 받아먹은 적은 없습니다. 몇 만 원씩 뇌물을 받아먹고서 팔자를 고친 사람들도 있는데…….
- ④ 이인국 : 내 행동도 그리 큰 잘못 같지는 않은데요. 나 말고 다른 사람들도 값비싼 물건들을 무수히 갖다 바쳤잖아요.
- ⑤ 맹순사 : 하지만 중요한 건 자신의 의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나는 큰돈을 뇌물로 받아 팔자를 고치려고 한 욕심은 없었습니다.

12. 위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방 전후의 사회상을 추리해 보았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2점)

- ① 해방 직후 순사는 철저한 심사 과정을 거쳐 선발되었다.
- ② 해방 직후 순사를 대하는 일반인들의 자세는 많이 달라졌다.
- ③ 해방 전에는 순사에게 생필품을 뇌물로 주는 경우도 있었다.
- ④ 해방 전에는 순사에게 술대접을 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 ⑤ 해방 직후 일반인을 대하는 순사의 태도에는 변화가 있었다.

13. <보기>의 내용을 참고하여 ㉠~㉥의 의미를 짐작해 보았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단어의 의미를 파악하는 방법에는, 문맥을 활용하여 단어의 의미를 짐작하는 방법도 있다. 이때 ‘문맥’이란 말은 글과 문장에 표현된 의미의 앞뒤 연결을 의미한다. 따라서 문맥을 활용하여 단어의 의미를 짐작하는 것은 그 단어가 사용된 앞뒤 구절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그 의미를 추리하는 것이다.

- ① ㉠ : 스스로 청함
- ② ㉡ : 이익을 혼자서 다 차지함
- ③ ㉢ : 갈피를 잡을 수 없게 아득함
- ④ ㉣ : 얻을 수 있게 됨
- ⑤ ㉤ : 어찌할 도리가 없음

[14~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역사적으로 볼 때, 인간의 삶은 과학의 발전에 힘입어 놀라울 정도로 향상되어 왔다. 철학은 이러한 삶의 향상과 무관한 듯 보인다. 그렇다면 세계를 바꾸겠다는 철학의 야심은 단지 헛된 망상에 불과한 것이라 할 수 있을까?

마르크스는 “㉠ 지금까지 철학은 세계를 해석해 왔을 뿐이다. 이제 철학은 세계를 변화시켜야 한다.”라고 했다. 하지만 이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플라톤 이래로 철학이 현실을 변화시켰던 역사적 사실은 철학사에 언제나 내재해 있었다. 예컨대 루소가 《사회계약론》을 집필한 것은 (㉡)을(를) 위 해서가 아니라 동시대의 불행을 치유하기 위해서였다. 그의 저서가 프랑스 혁명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이미 잘 알려져 있다. 데카르트의 《방법 서설》 또한 근대 서구 문명의 혁명적 진보의 기틀이 되었다. 플라톤 철학이 기독교 신학에 이론적 기반을 제공한 결과, 서구 문명이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해서는 재론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분명히 과학에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엄청난 (㉢)이 있다. 이것은 그동안의 많은 과학적 결과들이 현실에 적용되어 온 사실에서 충분히 확인되고 있다. 이에 반해 철학은 ‘하루 일과를 마친 후 하늘로 날아 오르는 새’라는 헤겔의 표현처럼, 근본적으로 유용성과는 거리가 좀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철학은 단순히 (㉣)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인간과 세계를 변화시키는 실천적 힘을 가지고 있다. 마르크스가 ‘지금까지 철학은 세계를 해석해 왔을 뿐’이라고 하면서 해석 행위를 평가 절하하였지만, 이 행위는 어떠한 의미를 태어나게 하는 것으로서 하나의 사건·사실을 ㉤ 의미의 우주로 밀어 넣는 것이다.

과학이 현실을 직접 변화시키더라도, 인간이 이를 의식하고 재해석하여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기 전까지 그러한 변화는 아무것도 아니다. 또한 그 의미는 고정적인 것이 아니어서, 철학의 해석 작업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며 세계에 대한 우리의 지각을 지속적으로 바꾸어준다. 이는 결코 작은 것이 아니다. 우리가 세상을 다르게 인식하게 되면 그에 따라 다른 태도를 가지게 되고, 결국 이전과는 다른 행동을 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철학은 실천의 문제와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 둘은 서로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해석 자체가 세상을 직접 바꿀 수는 없지만 세상을 변화시킬 행동의 가능성을 열어준다는 점에서 철학은 (㉣)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14.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점)

- ① 권위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 ② 구체적 사례 제시를 통해 글의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 ③ 의문을 제기하고 이에 답하는 구성 방식을 취하고 있다.
- ④ 핵심 개념을 정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도출하고 있다.
- ⑤ 특정 견해를 비판적으로 검토한 후,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15. <보기> 중, ㉠에 대한 반론의 근거로 사용하기에 적절한 내용을 골라 바르게 묶은 것은? (2점)

— < 보 기 > —

가. 철학은 과학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치명적 위험에 대해 경고해 왔다.
 나. 철학은 사유와 성찰을 통해 이론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 왔다.
 다. 철학은 인간의 행동 양식을 바꾸려는 윤리학적 기획의 일환이기도 했다.
 라. 철학은 삶과 죽음, 존재의 본질과 같은 관념적 내용을 다루어 왔다.

- ① 가, 나
- ② 가, 다
- ③ 나, 다
- ④ 나, 라
- ⑤ 다, 라

16. ㉡과 바꿔 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2점)

- ① 기억(記憶)하는 것
- ② 초월(超越)하는 것
- ③ 상상(想像)하는 것
- ④ 답습(踏襲)하는 것
- ⑤ 인식(認識)하는 것

17.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	㉤	
①	지적 만족	경제적 기능	종교적 차원	개념적 유희
②	사회 개혁	자아성찰 기능	개념적 유희	학문적 성과
③	개념적 유희	실제적 효용	지적 만족	실천적 기능
④	종교적 신념	가치해석 기능	사회 개혁	자아성찰 기능
⑤	경제적 이익	실천적 기능	정신적 차원	종교적 신념

[18~2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때 항의가 무사에게 눈짓하여 성의를 죽이려고 하는데 무사 중 태연이라 하는 사람이 큰 소리로 이르기를, “세자께서 비록 왕명을 칭하나 어찌 동기간의 인륜을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하고 칼을 들어 모든 무사를 물리쳤다. 항의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달려들어 성의의 두 눈을 칼로 찔러 빼니 성의가 배 안에 엎어지며 피가 흘러 얼굴을 적셨다. 이어서 성의가 탄 배의 조각을 깨뜨려 한 조각 위에 그를 얹히고 물결 위로 밀어버리니 궁금하도다. ㉠ 그가 죽을지 살지를 누가 알 수 있겠는가. 천지신명께서 효자를 보존케 하실지 그 종말을 두고 볼지어다.

[중 략]

각설 안평국 왕비가 기러기 발에 편지를 매어 보내고 회답 오기를 밤낮으로 기다리고 있었는데, 하루는 왕이 내전에 들어 왕비와 더불어 옥루에 올라 난간에 비기어 앉아 성의를 생각하시고 슬픔을 금치 못하였다. 홀연 기러기가 중천에 높이 떠서 긴 소리로 아뢰는 듯하더니 순식간에 쏜살같이 내려와 왕비 앞에 앉거늘, 왕비가 기러기만 보아도 성의를 본 듯하여 손으로 기러기를 덥석 안고 어루만지며 살펴보니 기러기가 발에 한 통의 편지를 매고 왔는지라. 일희일비하여 급히 풀어 뜯어 보니 그 사연에 이르기를,

“불효자 성의는 삼가 백배(百拜)하옵고 부왕 전하와 모비 마마께 올리나이다. 이별이 오래되었사온데 양 전하의 기후 강녕하심을 기러기 편으로 듣자오니 반갑고 설운 마음 헤아릴 길이 없사옵습니다. 연전에 모비의 병환을 위하여 슬하를 떠나 서역을 갈 때에 천신만고 끝에 십생구사(十生九死)로 수만 리 서천에 이르러 일영주를 얻었습니다. 돌아오던 도중 바다 가운데에서 포악한 변을 만나 뱃사람 일행을 모두 죽이고 장차 소자를 죽이려 할 때 거느린 군사 중에 태연이라 하는 사람의 힘을 입어 목숨은 보전하였으나 두 눈을 잃고 한 조각 나무판에 태워져 푸른 파도 속으로 밀렸으니 십이 세 어린 것이 어찌 살기를 바라리오? 파도에 밀려서 지향 없이 가옵더니 여러 날만에 겨우 한 섬에 다달았습니다. 짐작하니 언덕이어서 더듬어 보니 바위가 있기에 바위 위에 올라 정신을 수습하였더니 바람결에 대 우는 소리가 들려 내려가 더듬어 보니 과연 대밭이 있었습니다. 대를 베어 단저¹⁾를 만들어 슬픈 마음을 덜고 앉아 오작에게 실과를 얻어 먹고 있었더니 천지신명이 도우사 중국 호승상이 남일국의 사신으로 다녀오시는 길에 소자를 데려다가 보살핌을 입어 승상부에 머물게 되었던 일이며, 과거에 급제하여 부마된 전후 사연과 호승상의 수양자된 말씀을 낱낱이 아뢰고, 공주와 더불어 고국으로 즉행하오니 또 중도에 무슨 변이 있을지 모르오니 엎드려 바라옵건대 양친은 살피옵소서.”

하였더라. 왕비가 읽기를 마치매, 전하는 다 듣고 나서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시더라. 왕비가 기러기를 붙들고 통곡하여 슬퍼하시더니, 이때 세자 항의가 왕비의 곡성을 듣고 크게 놀라 들어가 엎드려 여쭙기를,

“모후는 무슨 까닭으로 이렇듯이 비창(悲愴)²⁾하십니까?”

왕비가 항의를 보고 잠잠하시거늘 항의가 일어나 사면을 살펴보니 서안에 일봉 서찰이 놓였고 또 기러기를 어루만지시거늘 자세히 보니 이는 곧 성의의 필적이었다. 항의가 말하기를,

“㉡ 서간을 보오니 성의가 중국에 들어가 입신양명하여 부마가 되었다 하니 이는 부왕의 성덕이거늘 어찌 그리 슬퍼하십니까? 빨리 예단을 갖추어 마중 나가시옵소서.”

하더라. 왕비가 그날로 예단을 갖추어 중로에 사신을 보내었다. 이때 전하가 항의에게 척교(勅敎)하기를, ‘중전을 모시고 떠나지 말라.’ 하였다.

차설, 항의가 마음속으로 헤아리되, ‘성의가 틀림없이 죽은 줄로 알았는데 어찌하여 살았으며 이다지 영귀하게 되었고. 만일 성의가 오면 나의 전후 행적이 발각되겠구나.’ 하고 매우 근심하다가 한 계교를 생각하고 노복에게 분부하여 적부리를 부르니, 이 사람은 지혜와 용기가 매우 많았다. 적부리가 말하기를 “내 남일국을 쳐 항복 받아 우리나라 지방을 넓히겠습니다.” 하니 그 용맹이 매우 뛰어난 자인지라. 이날 항의가 적부리를 청하여 후히 대접하고 말하기를,

“㉢ 그대가 나를 위하여 오백 군사를 거느리고 중로에 나가 매복하였다가 성의 일행을 쳐서 함몰시키고 돌아오면 천금의 상을 아끼지 않겠다. 그리고 내 장차 왕이 되는 날 무거운 소임을 맡길 것이니 그대는 힘을 다하여 성사케 하라.”

<뒷부분의 줄거리> 적부리는 항의의 명을 받아 성의의 귀환을 저지하다가, 기러기의 도움을 받은 채란공주와의 싸움에서 목숨을 잃는다. 그리고 항의도 직접 나와 싸우다가 죽게 된다. 이런 우여곡절 끝에 성의는 안평국에 귀환하여 왕위를 계승하고 태평성대를 누리게 된다.

- 작자 미상, <적성의전>

- 1) 단저 : 짧은 피리.
- 2) 비창 : 마음이 몹시 상하고 슬픔.

18. ‘편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삽화를 그리려고 한다. <보기>에서 ‘편지’의 내용과 잘 어울리는 것을 골라 바르게 묶은 것은? (2점)

<보 기>

가. 일영주를 구하러 떠나는 어린 성의에게서 비장한 의지가 엿보이도록 한다.
 나. 혼자 앉아 피리를 불고 있는 성의에게서 쓸쓸함과 처량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다. 바다에서 표류하다 뱃사람들에게 구조되어 안도하는 성의의 모습이 부각되도록 한다.
 라. 편지를 쓰는 성의의 표정을 밝은 모습으로 하여 평탄한 귀향길을 예감할 수 있게 한다.

- ① 가, 나 ② 가, 라 ③ 나, 다 ④ 나, 라 ⑤ 다, 라

19. ㉠과 같은 성격의 목소리가 나타나는 것은? (2점)

- ① 기생에게 술을 권커니 기생은 마다커니, 밀치락달치락 허다 술이 자리에 쏟아지니
- ② “허, 이 점잖은 자리를 버려 냐구나.” 도포 자락에 술을 적시어 좌우로 뿌려노니 좌중이 소란커날
- ③ 본관이 화를 내어 “오오, 운봉은 우스운 것을 다 청해 좌석이 이리 요란허우?” 이렇듯 요란하니 잔치가 되겠느냐.
- ④ 본관이 운자를 내는디, 기름 고 높을 고 두 자 운을 내노니, 어사또 한 수 해야 허는 말이 “여보, 운봉 영감, 부모덕에 추구권(抽句卷)이나 읽었으니, 나도 한 수 짓고 가겠소.”
- ⑤ 운봉 눈치 있어, 통인 불러, “너, 저 양반 지필묵 갖다 드러라.” 통인이 갖다 어사또 앞에 노니, 어사또 일 필휘지하여 글 지어 운봉 주며, “운봉은 밖으로 나가 조용헌 틈을 타서 한번 떼 보시오. 자, 나는 갑니다.”

20. ㉡에 나타난 ‘항의’의 인물됨을 평가할 때, 인용할 수 있는 작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피흔 길고 길고 물은 멀고 멀고, / 어버이 그린 뜻은 많고 많고 하고 하고. / 어디서 외기러기는 울고 울고 가느니.
- ② 가마귀 검다하고 백로야 웃지 마라. / 곁이 검다한들 속조차 검을소냐. / 곁 회고 속 검은 짐승은 내가 긴가 하노라.
- ③ 당시에 가던 길을 몇 해를 버려두고 / 어디 가 다니다가 이제야 돌아왔는고. / 이제나 돌아왔나니 딴 데 마음 두지 않으리.
- ④ 반중(盤中) 조홍감이 고와도 보이나다. / 유자(柚子) 아니라도 품음직 하다마는 / 품어가 반길 이 없음으로 그것을 설워하나니.
- ⑤ 풍상이 섞어친 날에 갓 피운 황국화를 / 금분에 가득 담아 옥당(玉堂)에 보내오니 / 도리(桃李)야 꽃인 체 마라 님의 뜻을 알페라.

21. <보기>의 관점에서 위 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점)

<보 기>

문학은 단순히 상상력의 산물이 아니라 우리를 둘러싼 구체적인 현실 세계를 반영한 결과물이기도 하다. 따라서 소설 작품을 감상할 때에는 현실 세계의 모습을 어떻게 반영했는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 ① 왕위 계승을 두고 빛어지는 형제간의 갈등은 조선 후기 정치에서는 흔히 일어났던 일이라.
- ② 주인공이 부모의 병을 고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보고 새삼 효도란 것이 무엇인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
- ③ 주인공의 어머니에 대한 지극한 효성이 작품 전체에 일관되게 나오는 것으로 보아 주인공은 평면적 인물인 것 같아.
- ④ 주인공이 일영주를 구해 와서 어머니의 병을 고치고 왕위를 계승한다는 것은 서사무가 ‘바리테기’와 유사한 점이 있어.
- ⑤ 기러기는 부모와 성의를 이어주는 매개체일 뿐 아니라 적부리와 싸우는 데 도움을 주는 소재로서, 이는 고전 소설의 특징인 전기성(傳奇性)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

22. ㉠에 나타난 말하기 방식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점)

- ① 상대방의 마음이 상하지 않게 완곡하게 표현하고 있다.
- ② 구체적인 실리를 내세워 상대방의 행동을 유도하고 있다.
- ③ 현재의 상황을 이해시키기 위해 쉽게 풀어 설명하고 있다.
- ④ 어려운 상황을 강조함으로써 상대방의 감정에 호소하고 있다.
- ⑤ 상대방이 지닌 능력을 칭찬하여 스스로 행동에 나서도록 하고 있다.

[23~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경제학자들은, 거래 당사자 중에서 어느 한쪽이 정보를 갖고 있고 다른 한쪽은 갖고 있지 않을 경우, 시장이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의 기능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였다. 이처럼 정보 파악이 공평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를 경제학자들은 ‘정보의 비대칭’이라고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경제학자 애컬로프는 중고차 시장을 예로 들면서, 자유로운 경쟁이 보장되는 시장이라 하더라도 판매자만 자동차의 품질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구매자들은 전혀 모르고 있다면, ㉠ 이 중고차 시장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된다고 하였다.

(나) 다음과 같은 중고차 시장이 있다고 가정해 보자. 이 중고차 시장에서 팔고 있는 자동차의 절반은 ‘복숭아(훌륭한 자동차)’이고 나머지 절반은 ‘레몬(결함이 있는 형편없는 차)’이다. 판매자들은 자신들이 팔고 있는 차가 레몬인지 복숭아인지 알고 있지만, 구매자들은 자동차가 레몬일 확률과 복숭아일 확률이 50%임을 알고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구매자가 중고 자동차를 구입한다고 하자. 구매자가 중고 자동차의 적정 가격이 200만 원에서 250만 원이라 생각하고 판매자와 흥정을 하게 된다면 100만 원도 안 되는 레몬을 갖고 있는 판매자는 주저함 없이 이 자동차를 200만 원에 팔 것이다. 하지만 400만 원 이상의 가치를 지닌 복숭아를 갖고 있는 판매자는 손해를 볼 수는 없으므로 팔지 않을 것이다. 판매자들은 이익의 극대화를 목표로 삼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거래가 몇 번 반복되다 보면 구매자는 판매자들이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 채게 될 것이다.

- (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이 시장은 그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될 것이다. 판매자를 신뢰할 수 없는 상황에서 레몬일 확률이 50%나 되는데 이러한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 그 차를 400만 원씩이나 주고 사려는 구매자는 없을 것이다. 제값을 받지 못하게 된 복숭아는 시장에서 점차 사라질 것이고, 가치가 거의 없는 레몬들만이 시장에 남게 될 것이다. 판매자들은 레몬을 팔기 위해 가격을 낮출 것이고, 결국 구매자들은 이전보다는 낮은 가격이지만 형편없는 레몬을 사게 될 것이다. 이런 현상이 반복되다 보면 복숭아를 갖고 있는 판매자들은 이 시장을 떠날 것이고, 구매자들은 복숭아는 없고 레몬만을 팔고 있는 이 신뢰할 수 없는 시장을 더 이상 이용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정보의 비대칭이라는 상황 때문에 이 중고차 시장은 매매 기능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 (라) 편중된 내부 정보가 상호 이익이 될 수 있는 거래를 방해하고 있다면,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정보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만 할 것이다. 경제학자 스펜서는 유용한 정보를 많이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이익을 늘리려면 비용을 들여서라도 정보를 소유하지 못한 사람에게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예컨대 중고차 시장에서 복숭아를 팔려고 하는 판매자라면 제대로 된 자동차 쇼룸을 구비해 놓고 구매자들이 자동차 내부를 확인해 보거나 시승해 볼 수 있게 하는 방법을 통해 구매자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판매자는 복숭아를 제값을 받고 팔 수 있게 되고 구매자도 그 품질에 만족하게 될 것이다. 결국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가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수년에 걸친 판매 이익은 쇼룸에 대한 투자도 보상해 줄 것이다.
- (마) 경제학자 스티글리츠는 스펜서와는 정반대 방식으로 시장에서 정보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그는 정보가 적은 사람이 필요한 정보를 얻어내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강조하였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 ‘심사’가 중요하다고 역설하였다. 예컨대 ‘정보의 비대칭’을 해결하기 위해 구매자는 레몬을 복숭아로 속여 파는 판매자들을 사전에 ‘위험 부류’로 분류하거나, 레몬인지 복숭아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미리 익혀 중고 자동차를 사기 전에 이를 적용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23. (가)~(마)의 중심 내용을 정리해 보았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가) : ‘정보의 비대칭’의 개념과 그것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
- ② (나) : 정보가 편중된 시장의 상황 가정
- ③ (다) :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한 시장 기능의 상실
- ④ (라) : 제공된 정보의 신뢰성을 확인할 필요성
- ⑤ (마) :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한 노력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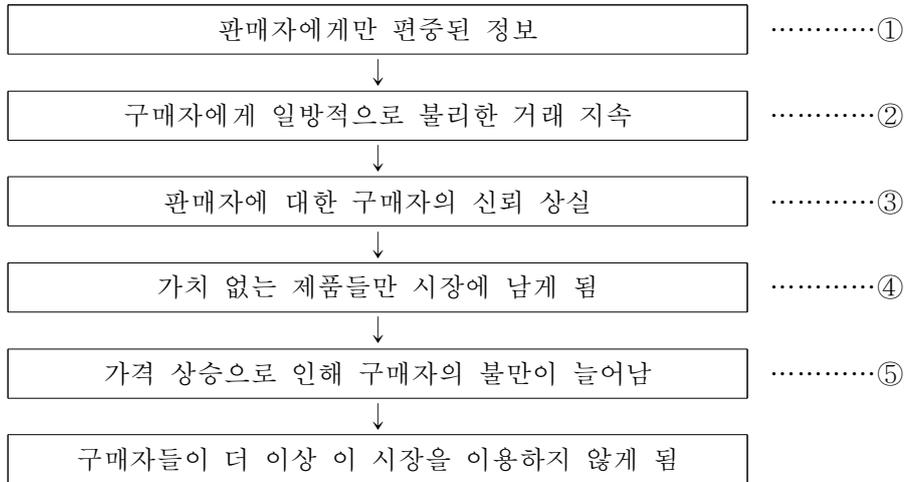
24. 위 글의 글쓴이가 <보기>의 사례를 분석해 보았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특 하면 아픈 A와 건강을 잘 유지해 온 B는 장래를 대비하기 위해 C라는 생명 보험 회사의 건강 보험 상품을 계약하려고 한다. A와 B에 대한 정보가 없는 C는 A와 B에게 나이가 몇인지, 담배를 피우는지, 병으로 입원한 적은 없는지, 부모나 가까운 친척 중에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가 있는지 등에 대해 물었다. C는 A와 B의 답변을 바탕으로 A와 B의 보험료를 다르게 책정하려고 하였다.

- ① C의 입장에서 볼 때, A는 ‘레몬’, B는 ‘복숭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 ② C가 A와 B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갖게 된다면 손해 볼 확률은 낮아질 것이다.
- ③ C가 A와 B에게 질문을 한 것은 일종의 ‘심사’로, 이는 정보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이다.
- ④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보험 가입자들이 정보를 노출하지 않아야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 ⑤ 생명 보험 회사가 보험 가입자들의 신상에 대해 모르고 있는 상황은 ‘정보의 비대칭’에 해당한다.

25. ㉠이 발생하는 과정을 정리한 내용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2점)



26. ㉡의 구체적인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농산물 매장에서 판매되는 상품의 원산지과 출하 시기, 생산자 등에 대해 확인해 보았다.
- ② 백화점 정육 코너에서는 판매하고 있는 고기가 최상품임을 알리기 위해 무료 시식 행사를 하였다.
- ③ 회사에서 경력사원을 뽑을 때 경력 확인을 위해 입사 지원자들에게 경력증명서를 제출하게 하였다.
- ④ 예비신랑이 예물로 다이아몬드 반지를 구입할 때,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의 감정 결과와 품질 보증서를 요구하였다.
- ⑤ 대출 담당 직원은 대출을 원하는 고객의 연봉과 소유하고 있는 재산 정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검토해 보았다.

[27~31] 다음 작품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폭풍이 지나가기를 / 기다리는 일은 옳지 않다.

[A]

폭풍을 두려워하며 / 폭풍을 바라보는 일은 더욱 옳지 않다.

스스로 폭풍이 되어
머리를 풀고 하늘을 뒤흔드는 / 저 한 그루 나무를 보라.

스스로 폭풍이 되어
폭풍 속을 날으는 / 저 한 마리 새를 보라.

은사시나뭇잎 사이로 / 폭풍이 휘몰아치는 밤이 깊어갈지라도

폭풍이 지나가기를 / 기다리는 일은 옳지 않다.

폭풍이 지나간 들녘에 핀 / 한 송이 꽃이 되기를
기다리는 일은 더욱 옳지 않다.

- 정호승, <폭풍(暴風)>

(나) 발돋움하는 발돋움하는 너의 자세는 왜
이렇게 / 두 쪽으로 갈라져서 떨어져야 하는가.

그리움으로 하여
왜 너는 이렇게 / 산산이 부서져서 흩어져야 하는가.

모든 것을 바치고도 / 왜 나중에는
이 찢어지는 아픔만을 / 가져야 하는가.

내가 네 스스로에 보내는
이별의 / 이 안타까운 눈짓만을 가져야 하는가.

왜 너는 / 다른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가.

떨어져서 부서진 무수한 내가
왜 이런 선연(鮮然)한 무지개로
다시 솟아야만 하는가.

- 김춘수, <분수(噴水)>

(다) 그대 아는가 / 나의 등판을
어깨에서 허리까지 길게 내리친 / 시퍼런 칼자국을 아는가.

질주하는 전율과 / 전율 끝에 단말마(斷末魔)를 꿈꾸는
벼랑의 직립(直立) / 그 위에 다시 벼랑은 솟는다.

그대 아는가 / 석탄기(石炭紀)의 종말을
그 때 하늘 높이 날으던 / 한 마리 장수잠자리의 추락(墜落)을.

나의 자라는 자멸(自滅)이다. / 무수한 복안(複眼)들이
그 무수한 수정체(水晶體)가 한꺼번에
박살나는 맹목(盲目)의 눈보라.

그대 아는가 / 나의 등판에 폭포처럼 쏟아지는
시퍼런 빛줄기 / 2억 년 묵은 이 칼자국을 아는가.

- 이형기, <폭포(瀑布)>

27.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가), (나)의 화자는 선택 상황에서 심리적 갈등을 겪고 있다.
- ② (가), (다)의 화자는 현재의 상황을 회의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 ③ (가), (다)의 화자는 자신이 처한 현실을 의지적으로 극복하고 있다.
- ④ (나), (다)에는 존재의 비극적 상황에 대한 인식이 나타나 있다.
- ⑤ (가), (나), (다) 모두 부정적 현실에 대한 비판적 태도가 드러나 있다.

28. [A]에 나타난 화자의 태도와 가장 유사한 것은? (3점)

- ① 동방은 하늘도 다 끝나고 / 비 한 방울 내리잖는 그때에도
오히려 꽃은 빨강게 피지 않는가.
내 목숨을 꾸며 쉬임 없는 날이여. - 이육사, <꽃>
- ② 마음 어두운 밤 깊을수록 / 우리러 쳐다보면
반짝이는 그 맑은 눈빛으로 나를 씻어 / 길을 비추어주는
그런 사람 하나 갖고 싶다. - 이성선, <사랑하는 별 하나>
- ③ 너는 내 속에서 샘솟는다.
갈증이며 샘물인 / 샘물이며 갈증인
너는 / 내 속에서 샘솟는 / 갈증이며
샘물인 / 너는 내 속에서 샘솟는다. - 고정희, <지울 수 없는 얼굴>
- ④ 우리가 눈발이라면 / 허공에서 쭈뼛쭈뼛 훑날리는 / 진눈깨비는 되지 말자.
세상이 바람 불고 춥고 어둡다 해도
사람이 사는 마을 / 가장 낮은 곳으로
따뜻한 함박눈이 되어 내리자. - 안도현, <우리가 눈발이라면>
- ⑤ 친구가 원수보다 더 미워지는 날이 많다.
티끌만한 잘못이 땃방석만하게 / 동산만하게 커 보이는 때가 많다.
그래서 세상이 어지러울수록
남에게는 엄격하고 내게는 너그러워지나 보다.
돌처럼 잘아지고 굳어지나 보다. - 신경림, <동해 바다>

29. (나)에서 영감을 얻어 <보기>의 시를 썼다고 가정할 때, 고려했을 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웠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 도종환, <흔들리며 피는 꽃>

- ① 연의 수를 줄여서 시의 주제를 뚜렷하게 전달하는 것은 어떨까?
- ② 아픔을 통한 재탄생의 기쁨을 표현할 수 있는 다른 소재는 없을까?
- ③ 의문형 어미의 사용 효과가 좋으니 이를 살려 의미를 강조하면 어떨까?
- ④ 좀 더 친근함을 느낄 수 있도록 다정하게 호칭을 사용하는 것은 어떨까?
- ⑤ 인공적인 '분수'에서 파악했던 시련의 상황을 자연 현상에 비유하면 어떨까?

30. <보기1>은 (다)에 대한 해설의 일부이다. <보기1>과 같은 설명이 적용될 수 있는 시어를 <보기2>에서 찾을 때,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1> —

4연의 마지막 시어인 ‘눈보라’에 사용된 ‘눈’은 복안(複眼), 수정체(水晶體), 맹목(盲目) 등과 관련된 ‘눈[眼, 目]’과, 겨울에 하얗게 내리는 ‘눈[雪]’이라는 이중적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눈보라’는 장수잠자리의 수많은 ‘눈’들이 쏟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하늘에서 하얀 ‘눈’이 휘몰아쳐 날리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 <보 기 2> —

초 한 대 —

내 방에 품긴 향내를 맡는다.

광명의 제단이 무너지기 전
나는 깨끗한 제물을 보았다.

염소의 갈비뼈 같은 그의 몸
그의 생명인 심지

백옥 같은 눈물과 피를 흘려
불살려 버린다.

그리고 책상머리에 아롱거리며
선녀처럼 촛불은 춤을 춘다.

- 윤동주, <초 한 대>

- ① 향내 ② 광명 ③ 심지 ④ 백옥 ⑤ 선녀

31. (가)와 (다)에 나타난 표현상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2점)

- ① 시구의 반복과 변형을 통해 주제를 강화하고 있다.
② 명령형 어미를 구사하여 소망의 간절함을 드러내고 있다.
③ 과거와 현재의 상황을 대비시켜 삶의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
④ 사실에 바탕을 둔 묘사를 통해 대상의 속성을 표현하고 있다
⑤ 대립적 시어를 구사하여 비극적 상황을 역설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32~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일반적으로 건축은 비어 있는 공간에 구조물을 만들어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특정 용도의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여겨지곤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건물을 세울 수 있는 장소는 아무 것도 없는 텅 비어 있는 곳이 된다. 우리는 건물을 바라보면서 흔히 “빈 공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세웠구나.”라는 말을 하는데 이 말에 나타난 ‘빈 공간’이 바로 텅 빈 곳이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뜻으로 공간이란 용어를 이해하게 되면 비어 있는 장소보다는 구체적인 모습을 가진 건물을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게 된다.

[A]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건축을 통해 새롭게 만들어진 건물의 내부 공간 역시, 또 다른 텅 빈 곳이 된다. 따라서 사람들은 이 내부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초점을 두기 쉽고, 사용 목적을 얼마나 제대로 충족시킬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사용을 통해서 얼마나 감각적 만족을 얻을 수 있는가라는 기준에 의해 공간의 가치를 평가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만약 수용 인원을 늘리는 것이 목적이라면 내부 공간이 클수록 그 가치가 높다고 평가받게 되는 것이다.

이런 공간관을 가지고 건물을 짓다 보면 비어 있는 곳을 측량하고 이를 목적에 맞게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공간에 대한 수리적·형상적 연구가 발전하게 된다. 하지만 이런 공간관은 공간을 건물이나 그 공간의 용도에 종속시키는 결과를 낳게 된다.

그런데 우리 조상들은 공간을 비어 있음 즉 ‘없음’의 상태로 보지 않았다. 이들에게 공간은 빈 곳이 아니라 천지(天地)의 기운, 즉 자연과 인간의 본질이 되는 힘이 존재하는 곳이었다. 이런 관점에서는 공간이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가진 대상이 된다. ㉠ 천지의 기운이 사라지거나 소통하지 못하여 그 흐름이 ㉡ 막히게 되면 천지 속에 존재하는 인간의 삶 역시 생동감을 잃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 공간관은 조상들의 건축에 나타나 있다. 조상들은 건물의 입지(立地)를 중시하여 ㉣ 다른 곳보다 천지의 기운이 충만하고 잘 흐르는 공간을 찾아 이곳에 건물을 지으려 했다. 담장을 높이 치지 않고, 완전한 폐쇄 구조로 만들지 않은 것에도, 마당을 하늘과 땅의 기운이 집 안으로 흐르는 곳으로 보았던 조상들의 관점이 반영되어 있다. 집의 내부 공간인 ㉤ 대청마루가 건물 내부의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문을 달지 않은 ㉥ 채로, 마당을 향한 구조로 만들어진 것에서도 마당의 기운을 실내 공간으로 유입하기 위한 의도를 엿볼 수 있다. 만약 (가)에 목적을 두었다면 이러한 구조로 집을 만드는 것은 잘못 되었다고 평가받았겠지만 오랫동안 우리 옛집의 구조는 변함없이 지속되었다.

우리는 주변에서 조상들의 공간 인식과는 다른 공간 인식이 반영된 건물을 쉽게 볼 수 있다. 빈 곳만 있으면 최신 재료와 공법을 사용하여 높은 건물로 채워 넣는다. 그리고 이를 통해 얻은 크고 많은 ㉦ 공간들을 장식물로 채워 화려하게 만든다. 우리 옛 건축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한 건물은 삶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공간인 셈이다. 감각적 아름다움과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기능을 우선시하는 ㉧ 건축가들, 그리고 그러한 건축에 감탄을 표하는 사람들에게 비어 있음의 가치에 대한 성찰이 속히 요구되고 있다. 건축은 채움을 통해 새로운 공간을 창조하는 일이 아니라 비어 있음과 채움의 조화 속에 인간 삶에 생명력을 주는 일이기 때문이다.

32. 구술·면접 시험에서 위 글에 대해 설명하라는 요구를 받았을 때, 그 대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현대 건축의 최신 기술을 활용하여 새로운 공간을 창조해야 함을 제안하고 있는 글입니다.
- ② 새로운 공간을 창조하는 일의 가치와 현대 사회에서 건축이 갖는 중요성을 강조한 글입니다.
- ③ 건축물에 대한 분석을 통해 동·서양의 공간관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음을 주장한 글입니다.
- ④ 전통 주택 구조에 나타난 장점과 단점을 고찰하고 이를 현대적으로 계승할 방안을 논의한 글입니다.
- ⑤ 공간에 대한 대조적인 관점을 소개하고 전통적 공간관이 현대 건축에 시사하는 바를 제시한 글입니다.

33. [A]를 <보기>와 같이 정리해 보았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2점)

<보 기>

공간에 부여된 의미		빈 곳	
'빈 곳'에 해당하는 공간의 종류		건물을 세울 수 있는 공간 ...①	건물의 내부 공간
공간에 대한 가치 평가		구조물보다 낮은 가치를 지닌 대상으로 여김.②	수용 능력보다 높은 가치를 지닌 대상으로 여김.③
공간을 '빈 곳'으로 인식한 결과	긍정적 결과	공간에 대한 수리적·형상적 연구가 발전함.④	
	부정적 결과	공간이 건물 및 용도에 종속됨.....⑤	

34. <보기>와 ㉠~㉣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가. 그는 문제를 풀 때 한 번도 막히지 않고 정답을 모두 맞혔다.
 나. 고장이 난 문을 감쪽같이 고치다니 기술자는 역시 다르구나.
 다. 날이 채 어두워지기도 전에 그는 소파에 기대앉은 채로 잠들었다.

- ① <보기> 가.의 '막히지'는 ㉠과 달리 '어려운 대목에서 일이 잘 풀리지 않다.'라는 의미를 갖는다.
- ② ㉠의 '-히-'와 <보기> 가.의 '맞혔다'에 있는 '-히-'는 모두 결합된 어휘에 피동의 의미를 덧붙인다.
- ③ ㉡과 <보기> 나.의 '다르구나'는 서로 문맥적 의미가 다르다.
- ④ ㉢과 <보기> 다.의 '날이 채 어두워지기도 전에'에 사용된 '채'는 서로 품사가 다르다.
- ⑤ ㉣과 <보기> 다.의 '소파에 기대앉은 채로'에 사용된 '채'는 문맥적 의미가 서로 같다.

35. 문맥을 고려할 때,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은 ㉡를 중시한다.
- ② ㉠은 ㉣를 비판한다.
- ③ ㉢은 ㉡가 반영된 대상이다.
- ④ ㉢은 ㉣와 기능이 유사하다.
- ⑤ ㉣은 ㉡가 추구하는 대상이다.

36. (가)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세련된 외양과 화려한 장식보다는 소박한 자연미를 중시한 집을 짓는 일
- ② 하늘과 땅의 기운을 얻어 거주자에게 활력을 주고자 집을 짓는 일
- ③ 건물 그 자체보다는 공간의 의미를 더 중시하면서 집을 짓는 일
- ④ 자연과 인간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 살도록 구조물을 세우는 일
- ⑤ 효율적인 난방과 같은 기능성을 고려하여 공간을 만드는 일

[37~4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서커스단에서 일하던 난장이 김불이는 서커스단이 문을 닫게 되어 집으로 돌아온다. 집에는 부인, 큰아들 영수, 작은아들 영호 그리고 딸 영희가 있다. 영수는 직장의 부당한 처사에 저항하다 구속되어 교도소에 수감되었다가 막 출감했다. 영호는 세차장에서, 영희는 빵집에서 일을 한다. 불이는 동네의 술집에 웨이터로 취직을 한다.

#39. 불이의 집 마당(아침)

(망치질 소리. 영수와 어머니 마주 본다. 대문을 향해 나오는 영수. ㉠ 염전 직원이 알미늄으로 된 일련번호를 대문 기둥에 박는다.)

직원 : 번호판을 잘 지키십시오. 이 딱지가 없으면 보상을 못 받게 됩니다.

(영수의 얼굴에 불길함이 생겨난다. 언제 나왔는지 어머니도 나와 사실을 알아버린다.)

직원 : (서류장을 내밀며) 여기다 도장을 찍어 주십시오. 없으면 지장을 찍어도 되고…….

(영수가 어두운 얼굴로 지장을 찍어 준다. 직원은 봉투를 내밀고 사라진다. 영수는 봉투에 든 인쇄물을 빼어 읽는다.)

어머니 : 뭐니?

영수 : (다 읽고 난 후 망연하여) 염전이 폐쇄되구 공장이 들어서기 때문에 땅을 비워 달래요.

(순간 어머니의 얼굴에서 표정이 사라진다.)

어머니 : …… 올 것이 (목이 막힌다.) 기어코 오고 말았구나.

(잠시 침묵이 흐른다.)

어머니 : 어젯밤엔 불길한 꿈도 꾸지 않았는데…….

(들어가 억제하려는 듯, 하던 장갑 일을 한다.)

어머니 : 뭐라 했는지 더 읽어 봐라.

영수 : 회사 부지 내에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은 8월 30일까지 자진 철거하래요.

어머니 : (아무렇지도 않은 듯) 놀랄 것 없다. 우리에게 꼭 찾아들 것들 중 하나니까. 그거 이리 다오.

(계고장을 받아 부엌으로 향한다.)

어머니 : (뒷모습인 채) ㉡ 이제 우리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이로구나.

(어머니는 부엌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건다. 영수는 그 모습을 물끄러미 본다.)

#40. 부엌

(어머니가 죽은 듯이 슬뚜껑을 잡은 채 이마를 대고 엎드려 있다. 영수가 어머니를 부른다. 어머니의 대답이 없자 부엌문을 열려 한다. 열리지 않는 문, 문을 흔들며 어머니를 부르는 영수의 목소리 점점 커진다.)

어머니 : 난 괜찮다. 아버지를 찾아와 다오. 아버지께 알려야지.

(영수, 더 이상 어머니를 부르지 않고 집밖으로 나간다. 비로소 숨을 몰아쉬며 헐떡이던 어머니가 오열을 터뜨리며 바닥에 주저앉는다.)

[중 략]

#53. 방죽

(황혼의 물 위에 조그만 배가 떠 있다.)

영수 : 아버지! / 불이 : 타라.

영수 : 아버지, 왜 그러세요? / 불이 : 타라니까!

(영수, 배에 오른다.)

불이 : 아무리 네 어머니라도 여기서 하는 애긴 듣지 못할 거다.

영수 : 예, 아버지.

불이 : 넌 장남이다. / 영수 : 예.

불이 : 아버지를 믿지 마라.

영수 : 아버진 이제 쉬실 때도 되셨어요.

불이 : 내 말은 그게 아니다. / 영수 : …….

불이 : ㉠ 나는 달나라로 가고 싶다. / 영수 : …….

불이 : 거기서 천문대 일을 보고 싶다. 망원경으로 오십억 광년 저쪽에 있는 머리카락좌의 별구름을 보는 거다.

영수 : 아버진 달나라로 갈 수 없어요.

불이 : 너는 내가 언제까지나 칼이나 갈아주고 술집에 나갈 수 있다고 생각되니. 서커스단을 따라 다니려고 해도 한물갔어. 약장수 따라다니는 건 네 어머니가 좋아하지 않고. 이제 이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란 너희들에게 짐이 되는 것뿐이다.

영수 : 아버지! 아버진 저희들을 위해 평생을 일했어요. 이젠 저희들이 일할 차례예요.

불이 : 나는 남들처럼 너희들을 학교에도 보내지 못했다.

영수 : 저희들을 낳아 주셨어요.

불이 : 그래, 그것 하나만은 사실이다. 모두가 네 어머니를 잘 얻은 덕분이야.

영수 : 어머니 이 세상 어느 어머니보다도 훌륭하세요.

(두 사람은 한동안 함께 킬킬 웃는다. 그 얼굴에 번득이는 눈물.)

불이 : 그래서 말인데, 내겐 꿈이 있다. ㉡ 난 네 어머니를 위해 달나라에다가 릴리프트 마을을 건설할 참이다.

영수 : 릴리프트. (킬킬 웃으며) 걸리버 여행기를 읽으셨군요.

불이 : (신나서) 그래, 너도 알고 있었구나. 달에다 난장이 마을을 건설하는 거야. 그곳엔 난장이 남편을 두었다고 네 어머니를 업신여길 사람은 아무도 없단다.

영수 : …….

불이 : 그곳에 평등하지 않은 것은 없다. 폭력도, 공포도, 억압도, 가난과 고통 또한 그곳에선 찾을 수 없다. 그곳은 오직 사랑만이 존재한다. 사랑으로 바람을 부르며 사랑으로 비를 내리게 하고 사랑으로 일하며 사랑으로 이웃을 대한다. 그곳에서 강요되는 것은 오직 사랑뿐이어야 한다. ㉢ 그곳에도 법은 만들어져야겠지. 하지만 그건 오직 사랑을 베풀지 않는 자들을 벌주기 위해 만들어질 것이다. 그런 릴리프트 마을로 네 어머니를 모셔다가 여왕으로 삼을 작정이다.

37. 위 글의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점)

- ① ‘난장이’ 가족의 적개심이 표출되면서 이들을 둘러싼 세계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 ② ‘난장이’ 가족 그리고 이들과 유사한 처지의 사람들이 현실에 적극적으로 저항하고 있다.
- ③ 주어진 운명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위해 노력하는 ‘난장이’ 가족의 행동이 드러나고 있다.
- ④ ‘난장이’ 가족은 가지지 못한 자들과 가진 자들의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⑤ ‘난장이’ 가족의 외부로부터 발단이 된 사건이 가족 구성원들에게 절망과 자괴감을 유발하고 있다.

38.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점)

- ① ㉠ - 금속의 차가움 및 번호의 비인격성을 동시에 지닌 번호관은 비인간적 사회의 냉정함을 상징한다.
- ② ㉡ - 가족에게 닥쳐 온 불행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강한 의지가 단호하게 드러나고 있다.
- ③ ㉢ - 더 이상 안식을 얻을 수 없는 지상의 현실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의 표출이다.
- ④ ㉡ - 고달픈 삶에 지친 아내를 위로하고 그녀에게 휴식과 기쁨을 주고 싶은 소망이 나타나 있다.
- ⑤ ㉢ - 그곳과는 달리 현실에는 사랑을 베풀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39. 수업 시간에 ‘불이’의 태도에 대해 논의한 것을 <보기>와 같이 정리하였다. ㉠~㉥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논의의 과정	논의의 초점	학생들의 의견
대상의 파악	자신의 삶에 대한 ‘불이’의 태도	‘불이’는 세상 속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점점 사라지고 있으며 자신이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존재일 뿐이라고 단정하였다. ----- ㉠
↓		
대상의 문제점 인식	‘불이’의 태도가 가진 문제점	자신의 삶에 대한 ‘불이’의 비관적 태도는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들 것이다.
↓		
문제 해결을 위한 전제	가. 인간은 노력을 통해 상황을 바꿀 수 있다. 나. 이 세상에 무가치한 인간은 없다.	가. ‘불이’가 처한 부정적인 상황은 ‘불이’의 노력에 의해 극복될 수 있다. ----- ㉡ 나. ‘불이’는 자식에게 짐이 되는 존재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
↓		
문제 해결을 위한 제안들	가.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다는 적극적 태도를 가져야 한다. 나. 아버지로서 가족에게 소중한 존재임을 알아야 한다.	가. ‘불이’가 장애인인긴 하나 최선을 다하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어, 하고 있는 일도 오래 할 수 있을 것이고 의지만 있다면 어떤 일이든 새롭게 찾아 할 수 있을 것이다. ----- ㉢ 나. 자식들이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해 준다면 자식들은 ‘불이’를 짐이 되는 존재가 아니라 가치 있는 존재라 여길 것이다. ----- ㉣
↓		
제안에 대한 비판	* ‘제안 가.’에 대하여 - 현실에는 사회적 약자가 아무리 노력해도 극복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다.	‘난장이’ 남편을 둔 아내를 업신여길 정도의 세상에서는 ‘불이’가 적극적 태도로 일했다 할지라도, 난장이인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는 매우 어려웠을 것이며, 일반인들이 갖는 직업을 새롭게 찾는 일도 거의 불가능했을 것이다. ----- ㉤

① ㉠

② ㉡

③ ㉢

④ ㉣

⑤ ㉤

40. <보기>는 위 글과 관련된 소설의 일부이다. 위 글과 <보기>를 고려하여 내린 판단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영호 : 아버지와 큰오빠의 이야기를 할 때는 자세를 바로 해.

영희 : 그렇게.

영호 : 아무 때나 이야기하지도 말구.

영희 : 알았어. 오빠가 화를 낼까 봐 말도 잘 못 하겠어. 그렇지만 행복동(幸福洞)에서 우리를 지키기 위해 싸운 병사가 아버지였다는 생각, 오빠는 안 들어? 아버지는 작고 투명한 유리병정이었어. 누구나 아버지 속을 환히 들여다볼 수 있었지. 약한 아버지는 무엇 하나 숨길 수도 없었어. 하루하루의 싸움에서 유리병정은 후퇴만 했어. 어느 날, 더 이상 후퇴해 디딜 땅이 없다는 걸 작고 투명한 유리병정은 알았어. 유리병정은 쓰러지고 깨어져 피를 흘렸어. 그렇게 작고 그렇게 투명한 몸 어디에 그것이 있었을까. 큰오빠도 아버지와 같은 유리병정이었어. 난 알아. 큰오빠는 후퇴를 하지 않았어. 큰오빠 이야기를 난 길게 하래도 못 하겠어. …… 뜨거운 무엇이 내 목을 막아.

- 조세희, <신에게는 잘못이 없다. : 난장이 마을의 유리병정>

- ① <보기>에 제시된 '행복동(幸福洞)'은 반어적 성격을 가진 표현이라 볼 수 있을 거야.
- ② <보기>에서 '아버지'에게 '디딜 땅'이 없었다고 한 말은, '불이'가 한계 상황에 처했다는 사실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어.
- ③ <보기>에 나타난 '유리병정'의 깨짐은 '불이'가 결국 현실의 모순을 극복할 수 없었음을 나타내고 있어.
- ④ <보기>에서 언급된 '유리병정'이 흘린 '피'는 '불이'의 전부였던 '아내'와 '자식들'을 상징한다고 해석할 수 있어.
- ⑤ <보기>에서 '영수'가 '후퇴'를 하지 않았다는 말은 그가 부당한 처사에 저항하는 태도를 가졌음을 짐작하게 해주는군.

언어 영역 정답표

문항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정답	③	⑤	④	⑤	③	⑤	⑤	①	①	③	⑤	①	②	④	②	⑤	③	①	③	②
문항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정답	①	②	④	④	⑤	②	④	①	④	③	①	⑤	③	②	④	⑤	⑤	②	④	④



2006학년도 육군사관학교 1차 선발시험 문제지

제 1 교시

언 어 영 역

공 통

성명

수험번호

B 형

1

- 먼저 문제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하게 기입하십시오.
- 답안지에 성명, 수험 번호, 문형을 표기하십시오.
- 문제는 2점 20문항, 3점 20문항 총 40문항입니다.(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조하십시오.)

1. 일상 생활의 소재를 활용하여 글쓰기를 한 것이다. <보기>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것은? (2점)

_____ <보 기> _____

ㄱ.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할 것.
 ㄴ. 대상의 부정적인 면을 부각시킬 것.
 ㄷ. 점층의 기법으로 내용을 전개할 것.

- ① 사람들은 나를 바보상자라고 부른다. 나는 사람들에게 흥미와 오락거리를 주고, 새로운 소식은 물론 교양까지 주는데 나를 나쁘다고만 하니 정말 억울하다.
- ② 담배는 중독성이 심한 마약이다. 그래서 한번 담배를 피우기 시작한 사람은 쉽게 끊기 어렵다. 왜냐하면 흡연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니코틴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 ③ 나는 사람들에게 지식이라는 선물을 가져다준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나를 많이 찾아 비록 바쁜 생활을 해도 보람이 있었는데, 요즘 사람들은 영상 매체에 길들여져 나를 찾지 않는다.
- ④ 불은 인간의 문명을 발전시킨 원동력 중의 하나이다. 불은 잘 사용하면 한없이 많은 이익을 가져다주지만, 자칫 잘못 사용하게 되면 엄청난 재앙을 가져오기에 조심해서 사용해야 한다.
- ⑤ 컴퓨터 게임은 마법의 힘을 가진 괴물이다. 컴퓨터 게임에 길들여진 사람은 일을 할 때도, 심지어 식사를 하면서도 게임을 생각하게 되고, 중독이 심해지면 잠을 자면서까지 게임하는 꿈을 꾸게 된다.

2. <보기>에 나타난 국어의 경어법을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_____ <보 기> _____

㉠ 영희야, 할머니 잘 모시고 가야 한다.
 ㉡ 선생님, 그 일은 제가 하겠습니다.
 ㉢ 할머니께서는 진지를 맛있게 드셨다.
 ㉣ 자네는 아직도 그 일을 하고 있나?
 ㉤ 할아버지, 아버지가 방금 퇴근했습니다.

- ① ㉠ : 행위의 주체와 객체를 동시에 높이고자 하는 의도가 드러나 있다.
- ② ㉡ : 청자를 높이고 자신을 낮추고자 하는 표현이 드러나 있다.
- ③ ㉢ : 행위의 주체가 높임의 대상이기에 높임말이 사용되었다.
- ④ ㉣ : 청자가 화자보다 아랫사람일 때 사용하는 표현이 있다.
- ⑤ ㉤ : 청자가 행동의 주체보다 높아서 주체를 높이지 못했다.

3. <보기>는 ‘현대인이 추구하는 왜곡된 아름다움’이라는 제목으로 교지에 실을 기사의 일부이다. 글을 수정, 보완하기 위한 제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현대인은 ‘아름다움’을 추구한다. 개인들은 대중매체를 통해 주어지는 미적 기준을 자신의 모습에 적용한다. 대중매체에 등장하는 연예인들처럼 되기 위해 무리하게 ㉠ 다이어트를 하거나 트렌드에 맞는 옷을 입는 경우가 바로 그 예이다. ㉡ TV, 라디오에는 무리한 다이어트를 하다가 목숨을 잃은 사건이 자주 보도되고 있다. 이 사람들은 대중이 아름답다고 인정하는 특정인의 외모와 자신의 외모를 비교하여 그 비슷함의 여부에 따라 자신의 아름다움을 판단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름다움은 ‘주체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이 된다. ㉢ 그런데도 그들은 이러한 노력들이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는 ㉣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은 자신에 대한 미적 판단이 외부적 기준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 개성의 추구인 동시에 개성의 포기가 되는 셈이다.

- ① ㉠ : 불필요한 외국어 표현이므로 ‘음식 조절을 하거나 유행에 맞는’과 같은 우리말 표현으로 바꾸어야겠어.
- ② ㉡ : 글의 전개상 불필요한 내용이므로 삭제하는 것이 적절할 거야.
- ③ ㉢ : 두 문장을 자연스럽게 연결하기 위해서는 ‘그래서’로 교체하는 것이 좋겠어.
- ④ ㉣ : 문장 성분이 서로 호응되지 않으므로 ‘행동이라고 생각한다.’로 고쳐서 써야 해.
- ⑤ ㉤ : 앞의 진술된 내용으로 보아 ‘개성의 추구가 아니라 개성의 포기가 되는 셈이다.’로 수정하는 것이 좋겠군.

4.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이라는 주제로 글을 쓰기 위해 개요를 작성한 후, 각 항목에서 다른 내용을 메모한 것이다. 논지 전개상 적절하지 않은 것은? (2점)

제 목 :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

I. 서론 : 원자재 가격 상승의 현황
 국제 시장에서 원자재 가격이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는 상황을 언급함. ……㉠

II. 본론

1.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문제점
 가. 경제적 측면 : 상품의 가격 상승으로 수출 둔화
 수출 상품의 경쟁력 상실, 외국 바이어 방문의 감소 ……㉡
 나. 사회적 측면 : 내수 부진으로 소비 생활 위축
 경기 침체로 실업자 증가, 소득 감소로 가계 소비의 위축 ……㉢

2.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한 대책
 가. 경제적 측면 :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
 품질이 뛰어난 신상품 개발, 새로운 시장 개척으로 판로 확보 ……㉣
 나. 사회적 측면 : 소비 활성화 정책 시행
 수입 원자재 상품에 대한 과세 강화, 사치성 소비재 유통 억제 ……㉤

III. 결론 : 경쟁력 확보와 소비 활성화 방안 모색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고 소비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시행함.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5~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사진이 외형상 현실을 있는 그대로 재현한 것이라는 특성을 가지면서도 현실을 넘어 예술로 전이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사진가의 주관적 변용이라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일상적 사물은 창조적 영상으로 다시 태어난다. 즉,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의 감각을 자극하는 것이다. 사진은 애초부터 ‘찾는’ 작업이다. 사진가는 눈이 아니라 렌즈를 통해 보는 현실을 찍는다. 그래서 ‘보는’이라는 말은 눈으로 피사체의 존재 또는 그것의 형태적 특징을 안다는 뜻 외에 ㉠ 는 뜻으로 확장된다.

사진을 일컬어 ‘발견의 예술’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여기에 근거한다. 어떤 사람들은 사진은 발로 찍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주장은 발견의 예술이라는 의미를 표면적으로 이해한 것에 불과하다. 저널리스트라고 해도 흥미 있는 혹은 독점적인 사건이나 대상을 발견하여 이를 사진에 담아내는 작업만으로는 예술성을 획득할 수가 없다. 그 대상과 사건에 나타난 이면의 의미를 찾아낼 때, 또는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때 비로소 ‘발견’이라는 말의 의미가 살아나는 것이다. 따라서 그 발견은 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하는 것이 된다.

그러나 사진은 사진가에 의해 완전히 통제되지 않는다. 현실 그대로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진의 영상 자체가 사진가가 부여한 의미를 가로막는 것이다. 그래서 사진 감상자는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영상을 해석할 여지를 갖게 된다. 사물의 모습을 비교적 사실적으로 그린 그림의 경우에도 비슷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 그렇지만 그림에 그려진 사물의 경우 그것은 화가의 붓에 의해 변형된 사물이라는 관념이 강하게 작용하여 감상자들은 자신의 자의적 해석에 앞서 작가의 의도를 먼저 찾으려는 경향이 훨씬 강하다.

그래서 사진에서는 영상의 해석을 통제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게 된다. 언어적 표현으로 사진을 보완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사진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없는 이들은 사진이 언어로 보완된다는 것을 부정하려 한다. 이것을 능력 없는 사진가의 행태로, 일종의 수치라고도 생각한다. 그러나 언어를 통해 발견의 의미가 명확히 드러난다면 그것은 사진의 예술성을 더욱 높여주는 긍정적 기능을 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사진가들은 사진을 여러 장 함께 제시함으로써 이러한 효과를 거두기도 한다. 어떤 사람의 어렸을 때, 학생 때, 청년일 때, 장년일 때, 노년일 때의 모습을 찍어 순차적으로 보여주면 감상자들은 그 개인의, 일생에 걸친 모습의 변화라는 사진의 주제 의식을 쉽게 찾아낼 수 있다. 함께 제시된 사진들이 관계를 만들어 내면서 그 안에 사진가가 전달하려는 의미의 맥락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사진가의 의도와 무관한 외적 정보들이 부각되어 그 의도의 전달을 방해한다면 그 사진은 서툰 사진에 불과하다. 사진은 사실적 정보의 창고가 아니다. 사진 감상자들은 단순한 사물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진에 부여된 의미를 이해하고 사진가와 교감하기 위해 사진을 본다. 따라서 사진가는 자신의 의도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 없이 ‘결작’ 사진을 남긴다는 것은 그저 요원한 이야기일 뿐이다.

5.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2점)

- ① 감상자들은 사진을 통해 사진가와 교감하게 된다.
- ② 다양한 의미가 부여된 사진일수록 결작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 ③ 독점적 사건을 담은 사진이라고 해서 예술성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 ④ 사진 영상의 현실성으로 인해 감상자의 주관적 해석이 유발되기도 한다.
- ⑤ 사진가의 의도와 관련이 없는 외적 정보가 의도의 전달을 방해하기도 한다.

6. 위 글의 필자가 사용한 글쓰기 전략으로 볼 수 없는 것은? (3점)

- ①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 ② 상반된 견해를 반박함으로써 자신의 견해를 뒷받침하고 있다.
- ③ 다른 대상과의 비교와 대조를 통해 대상의 속성을 설명하고 있다.
- ④ 대상의 특성과 관련된 어휘들에 담긴 본질적 의미들을 규정하고 있다.
- ⑤ 대상의 개념에 대한 여러 견해를 종합하여 새로운 속성을 도출하고 있다.

7. ㉠에 들어갈 표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점)

- ① 피사체에 부여된 보편적 개념들을 분석하게 된다
- ② 피사체의 물리적인 구성 요소들을 파악하게 된다
- ③ 피사체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견해들도 수용하게 된다
- ④ 피사체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까지도 구체적으로 이해하게 된다
- ⑤ 피사체의 겉모습에 드러나지 않은 새로운 의미를 인식하게 된다

8. 위 글을 읽고 <보기>의 사진에 대해 학생들이 서로 견해를 나누고 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제목 : 나무

- ① 규하 : 사람의 얼굴 모양을 한 실제의 나무를 피사체로 했다는 점에서 현실의 재현이라고 할 수 있어.
- ② 준하 : 만약 이 나무의 모습을 그림으로 제시했다면 사진으로 제시했을 때보다 감상자들의 자의적인 해석은 줄어들게 될 거야.
- ③ 예석 : 저런 나무를 찾기 위해서 사진가는 곳곳을 돌아다녀야 하기 때문에 사진을 찍는 것은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보다 창조적인 작업이라고 말할 수 있어.
- ④ 재원 : 제목에 “나무를 통해 현실을 살아가는 인간의 얼굴을 보여 주고 싶었다.”와 같은 표현을 덧붙인다면 사진에 대한 통제가 강화될 거야.
- ⑤ 진욱 : 재원이 의견처럼 표현을 덧붙여 놓았는데도 대부분의 감상자들이 “왼쪽 아래 있는 잎은 어떤 식물의 잎일까?”라는 질문을 주로 한다면 이 사진은 그야말로 서툰 사진이 되는 거겠지.

[9~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지난 여름에 시골서 교장 노릇하는 G군이 오래간만에 찾아왔다.

“자네 웬일인가?” / “나? 감투하나 쓰러 왔네.” / “정말인가?” / “그럼 거짓말로 아냐?”

정계에 매일같이 감투 씌미 벌어지고, 장안 안 여관마다 감투 사러온 친구들이 뒷간에 구더기 끓듯 한다는 소문이 신문마다 벽적거리는데, 난생 처음으로 교장 노릇도 해보니 그놈의 것 아무것도 아닐레, 나라고 감투 못 쓰란 법 있을라고, 예라,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다. 그는 이러한 생각 끝에 전후(前後) 불고(不顧)하고 서울로 튀어 올라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막상 올라와서 동정을 살펴보아 한즉, “그 감투란 것 좀체 쓰기 어렵데. 10만원은 있어야 겨우 술잔 값이나 될는지 모르겠데.” 하나 이 기회에 꼭 감투는 쓰고 내려가야겠는데, “자네는 광명한 친구이니까 혹 그럴듯한 굵*이 없겠느냐.”라는 것이다.

나 는 웃을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현상은 G 한 사람에 한한 것이 아니요, 이렇기 때문에 세상은 썩을 대로 썩어가는 것이지만, 우선 아쉬운 대로 나는 G에게만이라도 충고할 의무를 느끼고 이렇게 권고해 돌려보냈다.

“실례일지 모르나, 자네는 세상을 좀더 알아야 하네. 껍데기 세상만 보지 말고 속껍질을 벗기고 그 속에 있는 세상을 보아야 하네. 감투란 원래 값이 비싼 것이 아닐세. 아니라기보다 한 푼어치 값도 없는 것

이요, 또 값이 있을 수도 없네. 감투가 돈으로 환산되는 날 세상은 망하는 날일세. 왜 그러냐 하면, 감투를 밑천을 들여서 사는 날 벌써 감투 밑천을 뽑아야 할 생각이 안 나겠나? 가령 책 장수가 강희자전 한 권을 50원이구 100원이구 주구 샀다 치세. 학자 아닌 책장수가 자기 신주 덩어리가 아닐 바에야 그 책을 가보로 모셔들 리 없고, 팔게 될 경우에는 본전 안 받고 팔겠나? 5백 원이구 6백 원이구 흠뻑 이(利)를 남겨야 팔 것 아닌가. 이를테면 자네는 책장수요, 감투는 강희자전이란 말일세.”

꽤 모욕적인 언사로 이렇게 말했는데도 G는 껄껄 웃기만 했고, 그가 돌아가면서 종시 해결을 못 지은 것 같은 눈치로 가고 말았지만, 그를 돌려보내놓고 나는 나대로 괜히 웃음이 터져 올라서 못 견디었다.

- 김용준, <강희자전과 감투>

(나) 혹은 부유하다 하며, 혹은 빈곤하다 말하나 대체 부유는 어디서 시작되는 것이며 빈곤은 어디서 시작되는 것이냐? 사람이 부자이기 위해서는 대체 얼마나 많이 가져야 되고, 사람이 가난하기 위해서는 대체 얼마나 적게 가져야 되느냐? 그러나 물론 이것을 아는 이는 없다.

보라! 이 세상에는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가난하다 생각하며 사실에 있어 또 이 느낌을 항상 지니고 다니는 도배(徒輩)*는 허다하지 않은가? 그들은 어느 날에 이르러도 자족함을 알지 못하고, 전연히 필요치 않은 많은 것을 요망한다. 말하자면 위에는 위가 있다고 할까, 도달할 수 없는 상층만을 애써 쳐다보곤 아직도 자기에게 없는 너무나 많은 것을 헤아리는 것이다. 포만함을 알지 못하고 충분하다 하는 아름다운 말을 이미 잊은 바 그러한 도배를 본 사람은 도와줄 도리가 없다.

그런데 또 보라! 이 세상에는 극도로 어려운 처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넉넉하다 생각하며 사실에 있어 또 이 느낌을 항상 지니고 다니는 사람은 허다하지 않은가? 이 사람들에게엔 명색이 재산이라 할 만한 것이 없음은 물론이요, 대개는 손으로 벌어서 입으로 먹는 생활이 허락되어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들은 정말로 필요한 것조차 필요하다고 여기지 않고, 말하자면 밑에는 밑이 있으니까 밑만 보고 또 이외에도 더욱 가난할 수 있을 모든 경우를 생각하고 그리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절박된 곤궁 속에 주리고 있는가를 생각한다. 이리하여 이 위안(慰安)의 명류(名流)*들은 마치 그들이 그들의 힘과 사랑을 어딘지 다른 곳에다 두는 듯한 느낌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원래가 빈부의 객관적 표준은 있을 수 없으므로 빈궁의 문제를 쉽사리 규정하여 버릴 수는 없다. 문제는 오직 조그만 주머니가 곧 채워질 수 있음에 대하여 구멍난 대낭(大囊)*이 결코 차지 않는 물리적 이유에만 있을 따름이다. 그리하여 결국은 빈부의 최후의 결정자는 그 사람 자신일 뿐이요, 주위의 제삼자가 아니다. 그러므로 또한 사람이 참된 부유를 자손을 위하여 남기려거든 드디어 한(限)이 있는 물질보다는 밑을 보는 재조(才操)와 결핍에 사는 기술을 전함에 지남이 없을 것이다. 자족(自足)의 취미와 자기의 역량을 어딘지 다른 곳에다 전치(轉置)할 수 있는 정신적 재능이야말로 사람을 부자이게 하는 바 2대 요소이다.

- 김진섭, <청빈예찬>

- * 굽 : 한쪽으로 트여 나가는 방향이나 길
- * 도배(徒輩) : 함께 어울리는 무리
- * 명류(名流) : 세상에 널리 알려진 사람들
- * 대낭(大囊) : 큰 주머니

9. <보기>의 ㉠~㉣ 중, (가)와 (나)의 서술자와 관련된 적절한 진술로만 묶인 것은? (3점)

<보 기>

- (가) - 비유적 표현을 통해 대화의 상대방이 가진 삶의 태도를 비판하고 있다. ... ㉠
-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독자에게 교훈을 전달하고 있다. ... ㉡
- (나) - 자신에 대한 반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깨달음을 도출하고 있다. ... ㉢
- 전달하려는 의도와 반대되는 표현을 통해 주제를 강화하고 있다. ... ㉣
- 설의법을 사용하여 현실의 세태를 드러내고 있다. ... ㉤

-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 ⑤ ㉢ ㉣ ㉤

※ <보기>는 (가)와 (나)의 화자가 만나 대화를 나누는 상황을 가정한 것이다. 잘 읽고 10번과 11번 두 물음에 답하시오.

————— <보 기> —————

- (가)의 화자 : 요즘 세상에 현재의 자기 지위보다 더 높은 지위를 얻고자 애쓰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a
- (나)의 화자 : 아래를 보려하지 않고 위만 바라보며 살아가려는 풍조가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b
- (가)의 화자 : 더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지위를 얻기 위해서 ‘돈’을 사용하려 한다는 것이지요. 이게 세상이 부패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닐까요? -----c
- (나)의 화자 :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높은 지위를 얻는 사람들은 결국 허망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허망감을 다시 돈으로 채우려 하겠지요. -----d
- (가)의 화자 : 돈으로 지위를 얻었으니 그 지위를 가지고 다시 돈을 벌어들이려고 할 것은 뻔합니다. 부패의 악순환이 이루어지는 셈입니다. -----e
- (나)의 화자 :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자신의 처지에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이미 우리 조상들이 추구했던 삶의 모습과도 일치됩니다. 이 노래를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요즘 사람들에게 이 노래를 들려주고 싶습니다.

10. <보기>의 a~e 중, 대화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a ② b ③ c ④ d ⑤ e

11. <보기>의 밑줄 친 ‘이 노래’에 해당하는 작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점)

- ① 검음면 희다흐고 희면 검다흐네 / 검거나 희거나 올타흐리 전혀 업다
츄라리 귀 막고 눈 감아 듯도 보도 말리라
- ② 늪이 해홀지라도 나는 아니 겨로리라 / 춤으면 덕이오 겨로면 곶으리니
굽으며 체게 잇거니 상대홀 줄이 이시라
- ③ 밋음아 너는 어이 밋양에 저멧는다 / 내 늘글 적이며 넌들 아니 늘글소나
아마도 너 좃녀 둔니다가 늪 우일가 흐노라
- ④ 태산(泰山)이 높다흐되 하늘아리 피히로다 / 오르고 쏘 오르면 못 오를 리 업건마는
사름이 제 아니 오르고 뵈홀 높다 흐더라
- ⑤ 밋얍이 밋다 울고 쓰르람이 쓰다우니 / 산채(山菜)를 밋다는가 박주(薄酒)를 쓰다는가
우리는 초야에 못쳐시니 밋고 쓴 줄 몰너라

12. 나 와 G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점)

- ① ‘나’의 웃음이 ‘G’의 어이가 없는 말과 행동 때문에 나온 것이라면, ‘G’의 웃음은 무안한 상황에 대응할 수 없어 마지못하여 나온 것이라 할 수 있다.
- ② ‘나’의 웃음에는 ‘G’의 처지를 이해하는 연민의 정서가 담겨 있고, ‘G’의 웃음에는 ‘나’의 말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수용의 태도가 드러나 있다.
- ③ ‘나’는 ‘G’의 행동이 재미가 있어 웃었고, ‘G’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숨기기 위해서 웃었다고 할 수 있다.
- ④ ‘나’는 ‘G’에 대한 친근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G’는 ‘나’를 무시하려는 의도에서 웃음으로 답했다.
- ⑤ ‘나’와 ‘G’의 웃음 모두 상대방을 경멸하는 심리를 담고 있는 비웃음이라고 할 수 있다.

[13~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전략 줄거리 : 형사인 키 큰 사내와 범인인 역구가 동행이 되어 눈 덮인 산길을 가며 춘천에서 벌어진 살인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역구는 과거 6·25의 혼란 속에서 좌익에 이용당해 득수를 살해했고, 그 보복으로 득수의 동생 득침이가 역구의 아버지를 죽였다. 그 후 10여 년이 지난 어제 역구는 득침이를 만났으나 술자리 끝에 그를 살해하게 된다. 그리고 오늘 고향을 찾아가는 중이다.

㉠ 큰길에 이르고서부터 그들은 서로 나란히 서서 걸었다. 두 사내의 발이 터벌터벌 발목까지 빠지는 눈길 위에 점을 찍어 나가고 있었다. 먼저보다 바람기가 스러지면서 눈발은 이제 조용한 흩날림으로 변하고 있었다. 옆 산 소나무 위에 앉혔던 눈무더기가 쵸르르 쏟아져 내렸다. 마치 자기 무게를 그렇게 ㉡ 나약한 소나무가지 위에선 더 이상 지탱할 수 없다는 듯이……. 그때 좀 먼 곳에서 푹 우지끈 소나무가지 부러져 내리는 소리가 들려 왔다. 그러자 이때 역구가 느닷없이 키 큰 사내의 앞을 막아서며,

“선생, 난 득수 동생놈을, 그 김득칠일 어제 죽였단 말이오. 이렇게 온통 눈이 내리는데 그까짓 걸 숨겨 뭘 하겠소. 선생은 아주 추악한, 사람을 몇씩이나 죽인 무서운 놈과 함께 서 있는 거유. 자, 날 어떻게 하겠수?”

그러면서 한 걸음 큰 키의 사내 앞으로 다가섰다. 큰 키의 사내는 후딱 몇 걸음 물러서며 오버 주머니에 오른손을 쥘싸게 넣었다. 그의 시선은 역구가 양복 윗주머니의 불룩한 것을 움켜쥐고 있는 것에 머물러 있었다.

“아까두 말했지만, 그 술집에서 난 놈에게 이주격됐죠. ㉢ 그래 자넨 분명 우리 아버질 잡았겠다? 그래 별초를 매년 해 왔다구? 아 고마워, 고마워……”하고 말입네다. 헌데 그 득칠일 난 그날 밤 죽이고야 만 것입니다. 글썄, 나두 그걸 모르겠수다. 왜 내가 그 득칠일 죽였는지.”

여직 들어보지 못한 맥빠진, 그렇게 풀이 죽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나 큰 키의 사내는 묵묵히 역구의 얼굴을 뜯어보고만 있었다. 이윽고 역구가 큰 키의 사내 앞에서 몸을 돌리며 저쪽 산등성을 가리켜 보였다.

“바루 저 산에 ㉣ 가친 산소가 있답니다. 우리 조부님 산소 옆이라는군요. 난 지금 거길 가는 겁니다. 가서 우선 무덤의 눈을 쳐 드려야죠. 그러구 술을 한 잔 올릴랍니다. 술을 올리면서 가친의 음성을 들을 겁니다. 올해두 눈이 펍 내렸구나. 눈 온 짐작으로 봐선 내년두 분명 풍년이겠다만, 하실 겁니다. 그리고 폭 한숨을 몰아쉬시겠죠. 그 한숨 소릴 들으면서 가친 옆에 누워야죠. 이젠 가친을 혼자 버려두고 달아나진 않을 겁니다.”

그는 산으로 향한 생눈길을 몇 걸음 건다가 다시 이쪽을 향해,

“참, 바루 저기 보이는 저 모퉁일 돌아감 거기가 바루 와야됩니다. 가서서 우선 구장네 집을 찾아 몸을 녹이시우. 뜨끈뜨끈한 아랫목에 폭 몸을 녹이셔. 자, 그럼 난.”

산을 향해 생눈길을 걸어가는 그의 언 바짓가랑이가 서걱서걱 요란한 소리를 냈다. 어깨를 잔뜩 구부리고 흡사 한 마리 흰 곰처럼 산을 향해 걷는 역구의 ㉤ 울썩년스럽고 초라한 뒷모습에 눈을 주고 선 큰 키의 사내는 한참이나 그렇게 묵묵히 섰다가 문득 큰길 아래로 내려서서 역구 쪽을 따라가며,

“노형, 잠깐!”

말소리 속에 강인한 무엇인가 깔려 있는 듯싶었다. 언 바짓가랑이를 데걱거리며 걸어가던 역구가 주춤 멈춰서 이쪽으로 등을 돌렸다. 큰 키의 사내가 성큼성큼 다가왔다. 오버 안주머니에 손을 넣어 무엇인가 움켜쥔 그런 자세였다.

역구가 짐짓 몸을 추스르며 자기에게로 다가서는 큰 키의 사내 거동을 바라보고만 있었다. 역구 앞에 멈춰 선 큰 키의 사내가 할 말을 잊은 듯 멍청하니 고개를 위로 향했다. 고개를 약간 젓히고 입을 헤- 벌린 채. 그의 이러한 생각하는 표정 위에 눈이 내려앉고 있었다.

- 그날 밤 난 생물 선생네 담을 빙빙 돌고만 있었지. 내 키보다두 낮은 담이었어. 난 거푸 담을 돌고만 있었지. 만약 내가 담을 넘어 들어간다면, 그러나 난 담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담이란 담이 들어오지 말라고 만들어 놓은 거니까. 들어오지 말라는 걸 들어가면 그건 나쁜 것이니까, 그건 도둑놈이지. 난 나쁜 놈이 되는 건 싫었으니까. <중략> 결국, 난 새끼 토끼 구할 생각을 거두고 담만 돌아 돌아오고 말았지.

“아니 선생, 남을 불러 놓곤 왜 그렇게 하늘만 쳐다보슈?” / 억구가 말했다.

- 나쁜 놈이 되기가 싫었던 거야. 담을 넘는다는 건…….

큰 키의 사내가 한 걸음 물러섰다. 생각하는 표정을 거두지 못한 채. 산 속 소나무 위에서 다시 눈무더기가 썩르르 쏟아져 내렸다. 마치 그 연약한 나뭇가지 위에선, 그리고 거꾸 내려 쌓이고 있는 눈의 무게를 더 이상 지탱할 수 없다는 듯. 억구가 다시 다그쳤다.

“선생, 발이 시립니다. 내가 여기 얼어붙어야 좋겠소? 원 별 양반도…… 자, 그럼…….”

억구가 다시 몸을 돌려 산을 향했다. 그가 몸을 돌리는 순간 그의 강퍽한 양복 윗주머니에 빼죽하니

㉠ 2흡들이 소주병 노란 덮개가 드러나 보였다.

순간 망설이던 큰 키의 사내 얼굴에 어떤 결의의 빛이 스쳤다.

“아, 노형, 잠깐?”

억구가 바짓가랑이를 테격거리며 다시 몸을 돌렸다. 순간 큰 키의 사내는 오른쪽 오버 주머니에서 서서히 손을 뺐다. 그리고 무엇인가 불쑥 억구 앞으로 내밀었다.

- 나는 담만 돌았지. 무서웠던 거야.

“이걸 나한테 주시는 겁니까?” / 억구가 물었다.

“예, 드리는 겁니다. 아까 두 개비를 피웠으니까 꼭 열여덟 개비가 남아 있을 겁니다. 눈이 이렇게 많이 왔으니 올해 담배도 풍년이겠죠. 그러나 제가 지금 드린 ㉡ 담배는 하루에 꼭 한 개씩만 피우셔야 합니다.”

큰 키의 사내 얼굴에 얽은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담배 한 갑을 받아 든 채 명칭히 서 있는 억구에게서 몸을 돌려 마치 눈에 홀린 사람처럼 비척비척 큰길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잔기침을 몇 번 콧콧 하면서 걸어가는 그의 등 뒤로 마치 울음 같은 억구의 외침이 따랐다.

“하루에 꼭 한 개씩 피우라구요? 꼭, 한 개씩, 피, 우, 라, 구요?”

그러면서 그는 느닷없이 웃음을 터뜨리는 것이었다. ㅎㅎㅎㅎㅎㅎ.

눈 덮인 산 속, 아직 눈이 조용히 비껴 내리고 있는 밤이었다.

- 전상국, <동행>

13. ‘키 큰 사내’의 과거와 현재 상황을 다음과 같이 대응시킬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2점)

	요소	과거	현재
①	처한 상황	새끼 토끼를 살려주려 감	억구를 잡으려고 동행함
②	갈등의 핵심	담을 넘느냐 마느냐	억구를 잡느냐 풀어주느냐
③	갈등의 표출 양상	담을 빙빙 돌기만 함	억구의 가슴속 불룩한 것을 주시함
④	심적 결정	담을 넘지 않기로 함	억구를 풀어주기로 함
⑤	심리적 태도	후회하고 있음	편안하게 여김

14. 위 글을 읽고 감상을 심화·발전시킨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산 속의 밤길을 걷어가는 과정에서 두 사람의 심리가 변화하는 것을 엿볼 수 있어. 작품에서 여로(旅路)가 인물의 심리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
- ② 이 작품은 이데올로기로 인한 민족사의 비극을 반영하고 있어. 키 큰 사내의 결정에는 우리 민족의 아픈 상처를 보듬고자 하는 작가의 의도가 담겨 있는 거야.
- ③ 한 사람은 계속 다가가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은 일정한 거리를 두려 하고 있어. 인간 간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한지를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어.
- ④ 세상을 하얗게 덮으며 내리는 눈은 두 사람이 길을 가는 데에 단순히 고난을 주는 것만이 아니라, 억구의 잘못을 덮어주는 관용의 정신을 담아내고 있는 것 같아.
- ⑤ 억구는 비록 거둬 살인을 저질렀지만 그래도 인간다운 면모를 지니고 있어. 작품 속에서 억구의 삶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키 큰 사내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거야.

15. <보기>의 대화에서 ㉠의 어조와 가장 유사한 것은? (2점)

_____ <보 기> _____

① “애들아, 기말시험도 끝났는데 이번 여름방학에 우리 학급 차원에서 봉사활동을 해 보는 것이 어떨겠니? 장소는 내가 알아볼게.”

② “그래, 시험은 못 봤지만 무엇인가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도 괜찮을 거야. 가뜩이나 스트레스도 쌓였는데 좋은 일 하면 풀리지 않을까 싶어.”

③ “봉사활동? 좋지. 하지만 시험도 못 봐 놓고 무슨 남 걱정이나. 자기 할 일도 못하는 애들이 무슨 얼어 죽을 봉사활동이냐 말야.”

④ “맞아, 가뜩이나 시험도 못 봐서 기분도 우울한데 몸까지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 난 방학 때 해야 할 공부도 많단 말이야.”

⑤ “너희들 정말 이기적이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너희들 같다면 봉사활동 할 사람이 어디 있겠니? 하고 싶지 않으면 너희들은 빠져!”

16. <보기>에서 ㉡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골라 묶은 것은? (3점)

_____ <보 기> _____

㉡. 상대 인물의 의중을 저울질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 속마음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다.

㉣. 상대 인물에게 불편한 심기를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인물 간 긴장 관계가 완전히 해소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17. ㉠~㉣ 중, 인물에게 심리 전환의 계기를 제공하는 것은? (2점)

- ① ㉠ ② ㉡ ③ ㉢ ④ ㉣ ⑤ ㉣

[18~2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생명체의 환경은 대부분 다른 생명체들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함께 살아가는 모든 것은 그 어떤 식으로든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조율되어 있다. 이 스펙트럼의 한쪽 끝에는 공생 형태, 즉 양자의 이익을 위한 긴밀한 형태가 있다. 그리고 다른 한쪽 끝에는 약육강식이라는 덜 유쾌한 관계가 있는데, 이것은 생존을 위한 투쟁이라는 형태를 취한다.

자연은 협조뿐만 아니라 경쟁을 통해서도 고루 관계를 맺으며 짜여 있다. 그래서 진화는 ㉠ ‘공동 진화’이기도 하다. 한 종이 어떤 속성의 변화를 일으키면 그 변화는 다른 종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영양이 달리기를 잘하게 되면, 사자도 더 빨라져야 하거나 새로 사냥할 ㉡ 먹잇감을 다른 환경에서 찾아야 하는 식이다. 바로 이것이 자연의 ‘군비 경쟁’이다. 이것은 ㉢ 예삿일 같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로 인해 창조주에 대한 신앙심을 순식간에 갖게 되기도 한다. 관계되는 모든 생명체가 지극히 경이로운 방식으로 서로 조화를 이루며 기적 같은 앙상블을 자주 드러내기 때문이다.

생물학자 도킨스는 벌레잡이통풀을 통해 이를 설명하고 있다. 이 식충 식물은 긴 잎 끝에 꽃병처럼 생긴 멧진 통을 달고 있어 보는 이의 감탄을 자아내며, 통의 3분의 1 정도가 물로 채워져 있다. 도킨스는 일부러 만든 것과 같은 이런 형상을 ‘디자인노이드’라고 불렀다. 디자인노이드는 본질적으로 두 가지 원칙을 따른다. 첫 번째 원칙은 자연 어디서든 발견되는 효율성이다. 어떤 생물이든 생존을 위해 지나치게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면 원칙적으로 불리하다. 따라서 되도록 적은 재료를 가지고 꼭 필요한 만큼의 견고한 몸매를 만들어 낸다. 그 결과는 대개 극도로 기교적이며 금실 세공처럼 정교하다. 이것만 봐도 그 우아한 형태를 확인할 수 있다. 두 번째 원칙은 합목적성이다. ㉠ 벌레잡이통풀은 곤충을 유인하기 위해 향기를 내뿜고, 통의 입구 가장자리를 색무늬로 장식한다. 이 가장자리는 매끈하고 미끄러워서, 한번 들어온 곤충은 들어오자마자 급행열차를 타듯 섬모에 실려 눈 깜짝할 사이에 물 속으로 빠진다. 그러나 이 식물은 통 속에 익사한 파리만으로는 직접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다고 위와 장을 갖춘 소화 메커니즘을 개발하는 일은 식물에게는 별로 효율적이지 못한 사업이다. 그래서 벌레잡이통풀은 이 일을 대신 해줄 자와 제휴하겠다고 공고를 낸다. 그리하여 통의 물 속에 ㉡ 특정의 구더기와 그 밖의 여러 생물이 살게 된 것이다. 그것들은 파리를 먹어 치우고, 대신 식물이 필요로 하는 물질을 배설한다. 그 대가로 식물은 직접 물 속 생물들에게 산소를 배출해 물의 신선도를 유지한다.

합목적성 원칙은 자연에서 ㉢ 종류가 아주 다른 동식물들이 어째서 선호되는 형태를 동일하게 갖추게 되는지도 설명해 준다. 이것은 마치 어떤 초월자가 계획에 따라 형상화했다는 환상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외견상 비슷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돌고래뿐만 아니라 어룡과 펭귄에게서 확인되는 유전형이 그 좋은 예이다. 우리는 이처럼 자연 곳곳에서 효율성과 합목적성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런 형상들은 누가 빚어낸 것이 아니라 사실은 생물들이 환경에 적응한 결과이다.

18. 위 글을 읽고 추리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점)

- ① 자연의 생물들이 이런 조화가 경이로워서 많은 사람들은 자연을 창조주의 산물로 의심하기도 한다.
- ② 지렁이가 땅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살수록, 지렁이를 잡아먹는 두더쥐의 땅 파는 실력도 늘어날 것이다.
- ③ 모든 생물은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기에 생물 다양성의 파괴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 ④ 벌레잡이통풀은 처음부터 벌레를 잡아먹을 수 있는 뛰어난 구조를 지니고 있었기에 번식 능력이 강했을 것이다.
- ⑤ 피식자의 개체수가 줄어들었을 때, 포식자가 새로운 먹이에 적응하지 못한다면 포식자의 개체수도 감소할 것이다.

19. ㉠을 인간 사회에 적용하여 설명하고자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2등을 하던 철수가 1등으로 올라가자, 1등에서 밀려난 영수가 자극을 받아 공부에 더욱 매진하게 되었다.
- ② 중국이 저임금으로 시장을 점령해 나가기 시작하자, 우리나라는 전략을 바꾸어 고가 상품으로 이에 대응하고 있다.
- ③ 병원이 있는 건물에 약국이 들어서자 편리성 때문에 병원의 손님이 많아졌고, 덩달아 약국의 매상도 오르게 되었다.
- ④ 전자 제품 업계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A전자의 막강한 영향력으로 다른 업체들의 영향력은 갈수록 위축되고 있다.
- ⑤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며 아이를 맡기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탁아 시설의 수입이 늘었고 그에 따라 서비스도 좋아졌다.

연기는 돛대처럼 내려 항구에 들고
 옛날의 들창마다 눈동자엔 짜운 소금이 저려

바람 불고 눈보래 치잖으면 못 살리라
 매운 술을 마셔 돌아가는 그림자 발자취 소리

숨막힐 마음 속에 어데 강물이 흐르노
 달은 강을 따르고 나는 차디찬 강 맘에 드리라

수만 호 빛이래야 할 내 고향이언만
 노랑나비도 오잖는 무덤 위에 이끼만 푸르리라 - 이육사, <자야곡>

(다) 샅샅개 짓는 소리 / 눈보라에 얼어붙은 선달 그믐 밤이
 날갯은 손을 하도 곱게 흔들길래 / 술을 마시어 불타는 ㉠ 소원이 이 부두로 왔다.

걸어온 길가에 짙레 한 송이 없었대도 / 나의 아롱범은
 자옥 자옥 뉘우칠 줄 모른다. / 어깨에 쌓여도 하얀 ㉡ 눈이 무겁지 않고나.

철없는 누이 고수머릴랑 어루만지며
 우라지오의 이야길 캐고 싶던 밤이면 / 울 어머니

서투른 마우재 말도 들려 주셨지. / 줄음줄음 귀 밝히는 누이 잠들 때꺼정
 등불이 깜빡 저절로 눈감을 때꺼정

다시 내게로 헤어드는 / 어머니의 입김이 무지개처럼 어질다.

나는 그 모두를 살뜰히 담았으니 / 어린 기억의 새야 귀성스럽다.
 기다리지 말고 마음의 은줄에 작은 날개를 털라.

드나드는 배 하나 없는 지금 / 부두에 호젓 선 나는 ㉢ 멧비둘기 아니건만
 날고 싶어 날고 싶어 / 머리에 어슴푸레 그리어진 그 곳
 우라지오의 바다는 ㉣ 얼음이 두껍다.

등대와 나와 / 서로 속삭일 수 없는 생각에 잠기고
 밤은 알팍한 꿈을 끝없이 찌인다.

가도오도 못할 ㉤ 우라지오. - 이용악, <우라지오 가까운 항구에서>

23. (가)~(다)의 시적 화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가)와 (나)는 현실적 장애를 극복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 ② (나)와 (다)에는 자신이 처한 현실에 대한 냉소적 인식이 드러나 있다.
- ③ (가)와 (다)에는 지향하는 공간에 도달할 수 없는 심정이 나타나 있다.
- ④ (가)~(다) 모두 현실을 운명으로 간주하며 체념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 ⑤ (가)~(다) 모두 자신이 처한 현실과 이상이 공존하는 세계를 지향하고 있다.

24. (가)와 <보기>의 공통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점)

<보 기>

맥의 나라 이 땅에 첫눈이 날리니,
 춘성에 나뭇잎이 들성해지네.
 가을 깊어 마을에 술이 있는데,
 객창에 오랫동안 고기 맛을 못보겠네.
 산이 멀어 하늘은 들에 드리웠고,
 강물 아득해 대지는 허공에 붙었네.
 외로운 기러기 지는 해 밖으로 날아가니,
 나그네 발걸음 가는 길 머뭇거리네. - 김시습, <도중>

- ① 객지에서 유랑하는 시적 화자의 신세가 나타나 있다.
- ② 지향하는 대상에 대한 그리운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③ 계절적 배경을 통하여 쓸쓸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④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부각하고 있다.
- ⑤ 시적 화자의 처지를 객관적 상관물을 통해 표현하고 있다.

25. (나)의 시적 의미를 파악하기 위하여 <보기>와 같이 메모하며 시구를 제시할 때, ㉠~㉥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1. 상황

- 시적 화자가 있는 시·공간 → 어두운 밤, 어느 항구

2. 정서

- 고향 상식으로 인한 안타까움
→ 노랑나비도 오잖는 무덤 위에 이끼만 푸르리라 ……㉠
- 유량으로 인한 객수(客愁)
→ 달은 강을 따르고 나는 차디찬 강 맑에 드리라 ……㉡

3. 태도

- 현실적 상황에 대한 역설적 인식
→ 바람 불고 눈보래 치잡으면 못 살리라 ……㉢
- 고향 상식으로 인한 절망감 인식
→ 매운 술을 마셔 돌아가는 그집자 발자취 소리 ……㉣

4. 이미지

- 시상의 흐늬상 긴밀하게 연결되는 이미지
→ 수막 호 빛, 노랑나비, 연기, 그집자, 무덤 ……㉤

- ① ㉠ ② ㉡ ③ ㉢ ④ ㉣ ⑤ ㉤

26. (다)의 창작 과정을 추리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2점)

- ① 유년 시절에 대한 회상을 시상 전개 과정에 삽입하면 어떨까?
- ② 절망적 상황 제시로 시적 화자의 단절된 처지를 드러내면 좋겠어.
- ③ 힘겨운 현실에 맞서 온 시적 화자의 모습은 비유적으로 표현해야지.
- ④ 동일한 통사 구조의 반복으로 암울한 심정을 강조하는 것도 좋을 거야.
- ⑤ 시간적 배경을 의인화하여 표현함으로써 시적 화자의 심리를 드러내야겠어.

27. (다)의 ㉠~㉣ 중, <보기>의 **산**과 함축적 의미가 유사한 것은? (2점)

— <보 기> —

물로 사흘 배 사흘 / 먼 삼천 리 / 더더구나 걸어 넘는 먼 삼천 리
 삭주구성은 산(山)을 넘은 육천 리요

물 맞아 함빡이 젖은 제비도 / 가다가 비에 걸려 오노랍니다.
 저녁에는 높은 산 / 밤에 높은 **산**

삭주 구성은 산 넘어 / 먼 육천 리
 가끔가끔 꿈에는 사오천 리 / 가다오다 돌아오는 길이겠지요

서로 떠난 몸이길래 몸이 그리워 / 님을 둔 곳이길래 곳이 그리워
 못 보았소 새들도 집이 그리워 / 남북으로 오며가며 아니합디까

들 끝에 날아가는 나는 구름은 / 반쯤은 어디 바로 가 있을텐고
 삭주 구성은 산 넘어 / 먼 육천 리 - 김소월, <삭주 구성>

① ㉠

② ㉡

③ ㉢

④ ㉣

⑤ ㉤

[28~3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오늘날 인간의 욕망은 더 이상 정지해 있으려 하지 않는다. 세계도 욕망의 자유로운 이동 공간으로 바뀌기 시작한 지 오래다. 이미 욕망의 새로운 이동화 시대가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공중 전화보다 휴대 전화를 좋아하듯 우리는 정지하기보다 이동하고 싶어한다. 우리의 생활은 벌써 그것을 더욱 즐기고 선호한다. ㉠ 우리는 정주보다 유목에 길들어가고 있다. 어느새 우리는 욕망에 따라 이동하는 신유목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다.

정주 문화를 상징해 온 인문학은 신유목 시대와 갈등하고 있다. 그것은 새로운 문화 양식과의 갈등이다. 문화 기반이 전면적으로 교체되는 상황에서 인문학은 암흑 시대를 경험한 중세 이래 오랜만에 갈피를 잡지 못해 방황하고 있다. 더구나 인간의 욕망이 경제 논리에 따라 이동하는 신유목 시대에, 경제 속도에 뒤지고 경제 논리에 어두운 인문학은 새로운 시스템에서 배제를 강요받는다. 무엇이 인문학을 이토록 벼랑 끝에 서게 하는 것일까?

먼저 시대 변화에 따른 가치의 전도가 가장 근본적인 이유일 것이다. 정주에서 신유목으로의 문화 양식의 전환과 욕망의 고정화에서 이동화으로의 생활 양식의 전환은 인류가 이제까지 경험해 온 어떤 변화와도 견줄 수 없을 만큼 혁신적인 것이다. 특히 힘의 문화에서 속도 문화으로의 전환은 모든 기존의 문화 틀과 가치를 쓸모없게 하거나 전도시키기에 충분하다. 정신 문화의 근본보다는 물질 문명의 첨단을 더욱 쓸모 있는 것으로 간주하기에 이른 것이다. 신유목 문화는 인간 정신의 변할 수 없는 내면적 가치의 향유와 진작보다는 물질 문명의 활용 수단과 전달 방법의 개발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한다.

인문학의 입지가 어느 때보다 좁아진 이유 중 하나는 대학이 앞장서서 그것을 외면하기 시작한 데도 있다. 대학을 가리켜 상아탑이라고 부르는 것은 현실에 영합하지 않는 대학 본래적인 사명과 역할 때문이었다. 그러나 대학들은 신유목 시대의 경제 원리에만 경도되어 대학 교육의 새틀짜기에 매달려 왔다. 교양학으로서 인문학의 축소와 배제에 초점을 맞춘 교양 교육의 개편이 그것이고, 국문학과 영문학의 짝짓기를 강요하여 학제의 기형아를 탄생시킨 이른바 학부제로의 개편이 그러하다. 이것은 시대의 변화와 같이 달라진 외부 환경에서 비롯된 인문학의 위상 변화보다 더욱 심각한 원인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인문학자 자신들에게서 찾지 않을 수 없다. 지나치게 말하면 오늘의 위기는 인문학자의 위기라고 해야 옳을지도 모른다. 이것은 정주민이기를 고수하며 인문학의 내용과 방법, 그 지위와 가치를 초시간적·초공간적이기를 고집하는 데서 비롯된 위기이다. 이것은 신유목 시대가 변신하지 않으려는 정주적 인문학자의 권위주의적 오만을 어느 때보다 용인하지 않으려는 데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다. 또한 인문학이 유물

32. ㉠에 나타난 의미를 표현하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②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③ 처음이 좋으면 반은 성공한 것이다. ④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
 ⑤ 바다도 물 한 방울로부터 시작된다.

[33~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이때 춘풍이 비장 덕에 돈 받아 실어 놓고 갓, 망건, 의복 차려 입고 경성으로 올라와서 제 집을 찾아간다. 춘풍의 처 문 밖에 썩 나서서 춘풍의 소매 잡고 깜짝 놀라 하는 말이,

“어이 그리 더디던고. 장사에 재미 보고 평안히 오시니까?”

춘풍이 반기면서,

“그새 잘 있었는가.”

㉠ 춘풍이 이십 바리 돈을 여기저기 벌이고 장사에서 남긴 듯이 의기양양하니, 춘풍 아내 거동 보소. 주찬을 소담히 차려 놓고,

“자시오.”

하니 ㉡ 저 잡놈 거동 보소. 없던 교태* 지어 내어 제 아내 꾸짖으되,

“안주도 좋지 않고 술 맛도 무미하다. 평양서는 좋은 안주로 매일 취하여 입맛이 높았으니, 평양으로 다시 가고 싶다. 아무래도 못 있겠다.”

젓가락을 그릇에 던져 박고 고기도 씹어 뱉어 버리며 하는 말이,

“평양 일색 추월이와 좋은 안주 호강으로 지냈더니 집에 오니 온갖 것이 다 어설프다. 호조 돈이나 갓고 다시 평양으로 내려가서, 작은집과 한가지로 음식을 먹으리라.”

㉢ 그 거동은 차마 못 볼러라. 춘풍 아내 거동 보소. 춘풍을 속이려고 상을 물려 놓고 황혼 때에 밖에 나가 비장 차림 다시 하고, 대문 안에 들어서서 기침하고,

“춘풍아, 왔느냐?”

춘풍이 자세히 보니 평양서 돈 찾아 주었던 비장이라. 춘풍이 깜짝 놀라 버선발로 뛰어 내달아 엎드려 말하기를,

“소인이 오늘 왔으나 날이 저물어 내일 댁에 문안코자 하였는데, 나으리 먼저 행차하옵시니 황공하여이다.”

“내 마침 이리 지나가다가 너 왔단 말 듣고 네 집에 잠깐 들렀노라.”

방 안에 들어가니, 춘풍이 아무리 제 안방인들 어찌 들어올까? 문 밖에 섰노라니,

“춘풍아, 들어와서 게 앉거라.”

“나으리 좌정하신 테를 감히 들어가오리까?”

“잔말 말고 들어오라.”

춘풍이 마지못하여 들어오니, 비장이 말하되,

“그때 추월에게 돈은 받았느냐?”

“나으리 덕택에 즉시 받았나이다. 못 받을 돈 오천 냥을 하루아침에 다 받았사오니, 그 은혜가 태산 같사이다.”

“그때 맞던 매가 아프더냐?”

“소인에게 그런 매는 상(賞)이로소이다. 어찌 아프다 하리이까?”

“네 집에 술이 있느냐?”

춘풍이 일어서서 주안을 들이거늘 비장이 꾸짖어 말하되,

“네 계집은 어디 가고 네가 일을 하느냐? 네 계집 불러 술 준비 못 시킬까?”

춘풍이 황급하여 아무리 찾은들 있을쏘냐. 들떠나며 찾아도 무가내*라 제 손수 거행하니 한두 잔 먹은 후 비장이 하는 말이,

“네 평양에서 추월의 집 사환 할 제, 모습도 참혹하고 걸인 중 상거지라. 추월의 하인 되어 봉두난발 현 누더기 어떻더냐?”

춘풍이 부끄러워 제 계집이 문 밖에서 엿듣는가 민망하건마는, 비장이 하는 말을 제가 어찌 막을손가.

㉔ 좌불안석(坐不安席) 하는 꼴은 혼자 보기 아깝더라. 비장 말하되,

“남산 밑 박 승지 댁에 갔다가 술이 취하여 네 집에 왔더니 시장도 하거니와, 갈증도 나는구나. 어서 가서 갈분*이나 한 그릇 해 오너라.”

춘풍이 황공하여 밖으로 내달아서 아무리 제 처를 찾은들 어디 간 줄 알리요. 주저주저하더라. 비장이 꾸짖어 말하기를,

“네 계집을 어디 숨기고 나를 아니 뵈는고?”

차월피월*하니,

“너는 벌써 잊었느냐? ㉕ 평양 일을 생각하여 보라. 네가 집에 왔다고 그리 체중*한 체 하느냐?”

㉖ 춘풍이 갈분을 가지고 부엌에 내려가 죽 쑤는 꼴은 차마 볼 수 없더라. 한참 꿈적여서 쑤어 들이거늘, 비장이 조금 먹는 체하고 춘풍을 주며,

“먹으라. 추월의 집에서 깨어진 현 사발에 누른 밥 된장덩이를 찌그러진 숟가락도 없이 먹던 생각하고 먹으라.”

㉗ 춘풍이 받아 먹으며 제 아내가 밖에서 다 듣는가, 속으로 민망히 여기더라.

비장이 말하되,

“밤이 깊었으니 네 집에서 자고 가리라.”

하고 의복 벗고 갓, 망건을 벗으니, 춘풍이 감히 가란 말을 못 하고 여러 해 만에 그리던 아내 만나서 잘 잘 까 하였는데 비장이 잔다 하니 속으로 민망히 여기더라. 갓, 망건 벗어 놓고 옷옷을 훑훑 벗은 후 일어서니 완전한 제 계집이라. 춘풍이 깜짝 놀라 다시 자세히 보니 분명한 제 계집이라. 춘풍이 어이없어 말없이 앉아 있으니 춘풍의 처 달려들며,

“여보소. 아직도 나를 모르시오?”

춘풍이 그제야 깨닫고 깜짝 놀라며, 두 손을 마주 잡고,

“이것이 웬일인가? 평양 비장이 지금 내 아내 될 줄 어이 알리. 이것이 꿈인가 생신가?”

하며 ㉘ 원앙금침에 옛정을 다시 이루니 은근한 정이 비할 데 없더라.

* 교태(驕態): 교만한 태도 혹은 마음.

* 무가내(無可奈): 어찌 할 수 없음.

* 갈분(葛粉): 칩뿌리를 짓이겨 양금을 물에 가라앉히어 말린 가루.

* 차월피월(此月彼月): 이달, 저달로 미루는 것이나 또는 그러한 태도.

* 체중(體重): 지위가 높고 중함.

33. 위 글을 읽은 독자들의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점)

- ① 이춘풍과 아내는 상호 대립하며 불화를 일으키고 있다.
- ② 추월은 이춘풍의 권세에 의지하여 신분 상승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 ③ 이춘풍은 허세와 위선에 가득 찬 양반들의 전형적인 행태를 보여준다.
- ④ 아내는 남녀의 지위를 역전시킴으로써 여성의 우월성을 드러내고 있다.
- ⑤ 화목하고 안락한 가정을 이루고자 하는 이춘풍의 소망이 나타나고 있다.

34. ㉔~㉗ 중, 인물에 대한 서술자의 태도가 다른 것은? (3점)

- ① ㉔ ② ㉕ ③ ㉖ ④ ㉗ ⑤ ㉘

35. 화자가 의도한 ㉠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2점)

- ① 비장에게 잡혀가 매를 맞은 일 ② 호조에서 빌린 돈을 탕진한 일
 ③ 추월이의 사환이 되어 고생하던 일 ④ 아내가 비장이 되어 남편을 찾아온 일
 ⑤ 비장의 도움으로 추월에게서 돈을 되찾은 일

36. ㉠과 ㉡의 상황에 어울리는 속담으로 알맞게 짝지어진 것은? (3점)

	㉠	㉡
①	눈 가리고 아웅 한다.	죽제비도 낮짜이 있다.
②	거적문에 돌찌귀 단다.	처갓집 말뚝에 절한다.
③	개구리 올챙이 적 생각 못한다.	고양이 쥐 사정 보듯 한다.
④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	마과람에 게 눈 감추듯 한다.
⑤	개똥밭에도 별들 날이 있다.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

[37~4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오늘날 사용되는 지식인이라는 집단적 계층 형성에 직접적이고 지배적인 역할을 한 것은 프랑스다. 지식인이라는 용어는 ‘드레퓔스 사건’으로 불리는 인종 차별적 진실 은폐를 둘러싼 공방에서 출현한다. 이 사건은 1894년 프랑스에서 발생한 간첩 조작 사건이다. 유대계의 드레퓔스 대위가 독일을 위해 간첩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군사재판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음으로써 촉발된 이 사건은 드레퓔스의 무죄를 주장하는 증거를 제시하고 직접 보고한 지휘관이 좌천되면서 사회적으로 부각되었다. 당시 재심 요구서와 함께 졸라의 유명한 <나는 고발한다>라는 공개 서한이 발표된다. 그러자 사회 지도자들—문학자, 예술가, 교수, 변호사—은 자신들의 활동 영역과는 상관없이 스스로를 지식인이라 칭하면서 드레퓔스의 재심과 석방을 위한 성명에 참여한다. 이것이 프랑스에서 ‘지식인 선언’으로 나타난다. 당시 지식인은 드레퓔스의 무죄와 석방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가리켰고, 이 사건 이후 자신들의 전문 활동 영역을 넘어 보편적인 가치, 즉 실제적 진실이나 인간으로서의 권리와 관련된 사회 운동이나 활동에 적극 참여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사람들을 일컫는 용어로 정착되었다.

지식인이라는 용어가 정착되던 당시 분통을 터뜨리는 사람과 분별력 있는 사람들이 ‘드레퓔스 파’라는 이름 아래 집결하였다. 옹호자들은 ‘정의를 위한 연대’를 결성하려 했지만, ‘진실을 위한 연대’라는 좀 더 겸손한 이름을 채택했다. 왜냐하면 무엇이 정의인가 하는 논란 때문에 정의로운 것에 대해서는 서로가 망설일 수 있지만, 누구나 사실을 확인하면 수긍할 수밖에 없는 진실한 것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으리란 논리 때문이었다. 이렇듯 지식인은 추상적이고 이념적인 정의로움보다는 참과 거짓에 우선적인 관심을 가지는 집단이며, 거짓에 분노하고 저항하는 집단이었고, 그들의 역할은 사실을 사실로서 드러내고 참과 거짓을 판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었다. 이러한 사실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정의로움으로 이어지는 것은 자명했다. 사실과 다르게 관념적으로 무엇을 만들어 차별적으로 재단하는 정의의 부당함을 준엄하게 고발하고, 사실에 입각한 참을 가지고서 적진을 돌파하는 지식인, 이것이 ㉠ 드레퓔스 파 지식인의 모습이다.

그런데 오늘날 지식인은 사실에 대한 왜곡에 눈감고 분노를 억제하고 준엄한 고발도 하지 못한다. 그들은 사실에 입각해 진실을 밝히려는 실질적인 노력보다 자신의 활동이 만드는 사회적 효과에 매달리며, 사실 자체보다는 자신이 그러한 사실에 접근했을 때 생길 수 있는 개인적 가치나 효용을 ㉡ 따진다. 무엇이 어떻게 시작해 어떻게 진행되는가 하는 물음보다 늘 내가 무엇을 하면 이 상황에서 가치 있게 될지를 셈한다. 하지만 최초 지식인의 출현이 보여주듯이 교양인 또는 교육받은 자라면 사회적 지성의 기능을 자임하고 시대의 고통을 덜고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관심을 포기하면 안 된다. 사상과 이론가들이 그 사상과 이론에 담길 사회성과 역사성을 놓친다면 이미 지식인일 수 없다. 따라서 오늘날 지식인의 활동에서 지극히 개인적인 신념과 계산에 따른 개인적 활동만이 강조되는 것은 병폐가 아닐 수 없다.

37.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2점)

- ① 드레퓌스 사건은 프랑스에서 발생한 간첩 조작 사건이었으나 인종 차별 문제가 핵심이었다.
- ② 드레퓌스 옹호자들은 ‘정의를 위한 연대’를 결성하여 사회의 잘못을 바로잡으려고 노력하였다.
- ③ 오늘날 지식인은 왜곡된 사실의 진실을 밝히고 시대의 고통을 덜어주는 행동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 ④ 지식인 선언은 보편적 가치에 대해 의사 표시를 하고 잘못을 고치려는 사람들의 적극적인 행동이었다.
- ⑤ 드레퓌스 대위의 무죄를 주장한 지휘관이 좌천되자 각계 사회 지도자들은 그의 재심과 석방을 요청했다.

38. 위 글에서 말하는 ‘참된 지식인’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2점)

- ① 지금은 뭐니 뭐니 해도 세계화 시대잖아. 영어 실력이 최고지 뭐! 컴퓨터 실력도 갖춰야 하고. 경쟁 사회에서 인정받기 위해 난 이 분야의 최고 전문가가 되겠어.
- ② 나는 역사박물관에 갈 거야. 옛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궁금하거든. 난 과거 역사를 통해 현재를 배우고 사회를 보다 바람직한 모습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할 거야.
- ③ 순수학문이 잘 갖춰지지 않으면 실용학문은 다양하게 발전하기 어려워. 그래서 나는 앞으로 순수학문을 공부해 실용학문의 폭을 넓히고 새로운 이론 개발에 힘쓸 거야.
- ④ 아인슈타인 박사가 아이들에게 보낸 편지 모음집을 읽었어. 세계적인 학자가 아이들의 물음에 일일이 답해주셨다는 사실에 난 감동했어. 나도 커서 아인슈타인 같은 물리학자가 될 거야.
- ⑤ 아는 것이 힘이라고 했어. 난 이번 방학 동안 책 30권을 읽을까 해. 책은 국어 선생님이 추천해 주셨는데 어머니와 함께 사기로 했어. 일단 책을 읽으면서 내가 사는 세상의 힘을 알아낼 거야.

39. ㉠의 내용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것은? (3점)

- ① 맑은 햇빛으로 반짝반짝 물들으며 / 가볍게 가을을 날고 있는 / 나뭇잎, / 그렇게 주고받는 / 우리들의 반짝이는 미소로도 / 이 커다란 세계를 / 넉넉히 떠받쳐 나갈 수 있다는 것을 / 믿게 해 주십시오.
- ②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 한점 부끄럼이 없기를, /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 나는 괴로워했다. /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 걸어가야겠다.
- ③ 그 날이 오면 그 날이 오면은 /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 한강물이 용솟음칠 그 날이 / 이 목숨이 끊기기 전에 와 주기만 하량이면 / 나는 밤 하늘에 나는 까마귀와 같이 / 종로의 인경을 머리 로 들이받아 울리오리다.
- ④ 나 두 야 간다. / 나의 이 젊은 나이를 / 눈물로야 보낼 거냐 / 나 두 야 가련다. // 아늑한 이 항구인들 손쉽게야 버릴 거냐 / 안개같이 물어린 눈에도 비치나니 / 골짜기마다 발에 익은 땀부리 모양 / 주름살도 눈에 익은 아! 사랑하는 사람들
- ⑤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 누가 구름 한 송이 없이 맑은 /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 네가 본 건, 먹구름 / 그걸 하늘로 알고 / 일생을 살아갔다. // 네가 본 건, 지붕 덮은 / 쇠 항아리, 그걸 하늘로 알고 / 일생을 살아갔다. // 닭아라, 사람들아 / 네 마음 속 구름 / 찢어라, 사람들아 / 네 머리 덮은 쇠 항아리

40. ㉡과 문맥적 의미가 가장 유사한 것은? (3점)

- ① 관계 당국에 사고의 원인을 따지다.
- ② 우리 회사는 학력 같은 것은 안 따진다.
- ③ 득실을 따져 보고 그 일을 시작하도록 하자.
- ④ 어제 일을 따지고 보면 나도 잘못된 점이 많다.
- ⑤ 회사의 매출액으로 따지면 20위 정도는 될 것이다.

이 권

'06학년도 육군사관학교 1차시험 답안

□ 언어영역

○ A형

문항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정답	1	5	5	3	3	3	3	4	5	4	4	3	4	2	3	2	5	4	4	1
문항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정답	5	3	1	1	3	5	4	1	2	2	5	3	2	5	5	3	2	4	5	1

○ B형

문항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정답	5	1	3	5	2	5	5	3	2	4	5	1	3	3	3	4	5	4	4	3
문항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정답	4	2	3	2	5	4	4	1	5	3	1	1	3	5	4	1	2	2	5	3



2006학년도 육군사관학교 1차 선발시험 문제지

제 1 교시

언 어 영 역

공 통

성명

수험번호

A 형

1

- 먼저 문제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하게 기입하십시오.
- 답안지에 성명, 수험 번호, 문형을 표기하십시오.
- 문제는 2점 20문항, 3점 20문항 총 40문항입니다.(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조하십시오.)

[5~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전략 줄거리 : 형사인 키 큰 사내와 범인인 역구가 동행이 되어 눈 덮인 산길을 가며 춘천에서 벌어진 살인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역구는 과거 6·25의 혼란 속에서 좌익에 이용당해 득수를 살해했고, 그 보복으로 득수의 동생 득침이가 역구의 아버지를 죽였다. 그 후 10여 년이 지난 어제 역구는 득침이를 만났으나 술자리 끝에 그를 살해하게 된다. 그리고 오늘 고향을 찾아가는 중이다.

㉠ 큰길에 이르고서부터 그들은 서로 나란히 서서 걸었다. 두 사내의 발이 터벌터벌 발목까지 빠지는 눈길 위에 점을 찍어 나가고 있었다. 먼저보다 바람기가 스러지면서 눈발은 이제 조용한 흩날림으로 변하고 있었다. 옆 산 소나무 위에 얹혔던 눈무더기가 쵸르르 쏟아져 내렸다. 마치 자기 무게를 그렇게 ㉡ 나약한 소나무가지 위에선 더 이상 지탱할 수 없다는 듯이……。 그때 좀 먼 곳에서 푹 우지끈 소나무가지 부러져 내리는 소리가 들려 왔다. 그러자 이때 역구가 느닷없이 키 큰 사내의 앞을 막아서며,

“선생, 난 득수 동생놈을, 그 김득칠일 어제 죽였던 말ियो. 이렇게 온통 눈이 내리는데 그까짓 걸 숨겨 뭘 하겠소. 선생은 아주 추악한, 사람을 몇씩이나 죽인 무서운 놈과 함께 서 있는 거유. 자, 날 어떻게 하겠수?”

그러면서 한 걸음 큰 키의 사내 앞으로 다가섰다. 큰 키의 사내는 후딱 몇 걸음 물러서며 오버 주머니에 오른손을 쥘싸게 넣었다. 그의 시선은 역구가 양복 윗주머니의 불룩한 것을 움켜쥐고 있는 것에 머물러 있었다.

“아까두 말했지만, 그 술집에서 난 놈에게 이주격됐죠. ㉢ 그래 자넨 분명 우리 아버질 잡았겠다? 그래 별초를 매년 해 왔다구? 아 고마워, 고마워……”하고 말입네다. 헌데 그 득칠일 난 그날 밤 죽이고야 만 것입니다. 글썸, 나두 그걸 모르겠수다. 왜 내가 그 득칠일 죽였는지.”

여직 들어보지 못한 맥빠진, 그렇게 풀이 죽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나 큰 키의 사내는 묵묵히 역구의 얼굴을 뜯어보고만 있었다. 이윽고 역구가 큰 키의 사내 앞에서 몸을 돌리며 저쪽 산등성을 가리켜 보였다.

“바루 저 산에 ㉣ 가친 산소가 있답니다. 우리 조부님 산소 옆이라는군요. 난 지금 거길 가는 겁니다. 가서 우선 무덤의 눈을 쳐 드려야죠. 그러구 술을 한 잔 올릴랍니다. 술을 올리면서 가친의 음성을 들을 겁니다. 올해두 눈이 펍 내렸구나. 눈 온 짐작으로 봐선 내년두 분명 풍년이겠다면, 하실 겁니다. 그리고 폭 한숨을 몰아쉬시겠죠. 그 한숨 소릴 들으면서 가친 옆에 누워야죠. 이젠 가친을 혼자 버려두고 달아나진 않을 겁니다.”

그는 산으로 향한 생눈길을 몇 걸음 건다가 다시 이쪽을 향해,

“참, 바루 저기 보이는 저 모퉁일 돌아감 거기가 바루 와야됩니다. 가서서 우선 구장네 집을 찾아 몸을 녹이시우. 뜨끈뜨끈한 아랫목에 폭 몸을 녹이셔. 자, 그럼 난.”

산을 향해 생눈길을 걸어가는 그의 언 바짓가랑이가 서걱서걱 요란한 소리를 냈다. 어깨를 잔뜩 구부리고 흡사 한 마리 흰 곰처럼 산을 향해 걷는 역구의 ㉤ 울썩년스럽고 초라한 뒷모습에 눈을 주고 선 큰 키의 사내는 한참이나 그렇게 묵묵히 섰다가 문득 큰길 아래로 내려서서 역구 쪽을 따라가며,

“노형, 잠깐!”

말소리 속에 강인한 무엇인가 깔려 있는 듯싶었다. 언 바짓가랑이를 데걱거리며 걸어가던 역구가 주춤 멈춰서 이쪽으로 등을 돌렸다. 큰 키의 사내가 성큼성큼 다가왔다. 오버 안주머니에 손을 넣어 무엇인가 움켜쥔 그런 자세였다.

역구가 짐짓 몸을 추스르며 자기에게로 다가서는 큰 키의 사내 거동을 바라보고만 있었다. 역구 앞에 멈춰 선 큰 키의 사내가 할 말을 잊은 듯 멍청하니 고개를 위로 향했다. 고개를 약간 젓히고 입을 헤- 벌린 채. 그의 이러한 생각하는 표정 위에 눈이 내려앉고 있었다.

- 그날 밤 난 생물 선생네 담을 빙빙 돌고만 있었지. 내 키보다두 낮은 담이었어. 난 거꾸 담을 돌고만 있었지. 만약 내가 담을 넘어 들어간다면, 그러나 난 담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담이란 담이 들어오지 말라고 만들어 놓은 거니까. 들어오지 말라는 걸 들어가면 그건 나쁜 것이니까, 그건 도둑놈이지. 난 나쁜 놈이 되는 건 싫었으니까. <중략> 결국, 난 새끼 토끼 구할 생각을 거두고 담만 돌아 돌아오고 말았지.

“아니 선생, 남을 불러 놓곤 왜 그렇게 하늘만 쳐다보슈?” / 억구가 말했다.

- 나쁜 놈이 되기가 싫었던 거야. 담을 넘는다는 건…….

큰 키의 사내가 한 걸음 물러섰다. 생각하는 표정을 거두지 못한 채. 산 속 소나무 위에서 다시 눈무더기가 썩르르 쏟아져 내렸다. 마치 그 연약한 나뭇가지 위에선, 그리고 거꾸 내려 쌓이고 있는 눈의 무게를 더 이상 지탱할 수 없다는 듯. 억구가 다시 다그쳤다.

“선생, 발이 시립니다. 내가 여기 얼어붙어야 좋겠소? 원 별 양반도…… 자, 그럼…….”

억구가 다시 몸을 돌려 산을 향했다. 그가 몸을 돌리는 순간 그의 강퍽한 양복 윗주머니에 빼죽하니

㉔ 2흡들이 소주병 노란 덮개가 드러나 보였다.

순간 망설이던 큰 키의 사내 얼굴에 어떤 결의의 빛이 스쳤다.

“아, 노형, 잠깐?”

억구가 바짓가랑이를 테격거리며 다시 몸을 돌렸다. 순간 큰 키의 사내는 오른쪽 오버 주머니에서 서서히 손을 뺐다. 그리고 무엇인가 불쑥 억구 앞으로 내밀었다.

- 나는 담만 돌았지. 무서웠던 거야.

“이걸 나한테 주시는 겁니까?” / 억구가 물었다.

“예, 드리는 겁니다. 아까 두 개비를 피웠으니까 꼭 열여덟 개비가 남아 있을 겁니다. 눈이 이렇게 많이 왔으니 올해 담배도 풍년이겠죠. 그러나 제가 지금 드린 ㉕ 담배는 하루에 꼭 한 개씩만 피우셔야 합니다.”

큰 키의 사내 얼굴에 얽은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담배 한 갑을 받아 든 채 명칭히 서 있는 억구에게서 몸을 돌려 마치 눈에 홀린 사람처럼 비척비척 큰길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잔기침을 몇 번 콧콧 하면서 걸어가는 그의 등 뒤로 마치 울음 같은 억구의 외침이 따랐다.

“하루에 꼭 한 개씩 피우라구요? 꼭, 한 개씩, 피, 우, 라, 구요?”

그러면서 그는 느닷없이 웃음을 터뜨리는 것이었다. ㅎㅎㅎㅎㅎㅎ.

눈 덮인 산 속, 아직 눈이 조용히 비껴 내리고 있는 밤이었다.

- 전상국, <동행>

5. ‘키 큰 사내’의 과거와 현재 상황을 다음과 같이 대응시킬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2점)

	요소	과거	현재
①	처한 상황	새끼 토끼를 살려주려 감	억구를 잡으려고 동행함
②	갈등의 핵심	담을 넘느냐 마느냐	억구를 잡느냐 풀어주느냐
③	갈등의 표출 양상	담을 빙빙 돌기만 함	억구의 가슴속 불룩한 것을 주시함
④	심적 결정	담을 넘지 않기로 함	억구를 풀어주기로 함
⑤	심리적 태도	후회하고 있음	편안하게 여김

6. 위 글을 읽고 감상을 심화·발전시킨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산 속의 밤길을 걸어가는 과정에서 두 사람의 심리가 변화하는 것을 엿볼 수 있어. 작품에서 여로(旅路)가 인물의 심리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
- ② 이 작품은 이데올로기로 인한 민족사의 비극을 반영하고 있어. 키 큰 사내의 결정에는 우리 민족의 아픈 상처를 보듬고자 하는 작가의 의도가 담겨 있는 거야.
- ③ 한 사람은 계속 다가가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은 일정한 거리를 두려 하고 있어. 인간 간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한지를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어.
- ④ 세상을 하얗게 덮으며 내리는 눈은 두 사람이 길을 가는 데에 단순히 고난을 주는 것만이 아니라, 억구의 잘못을 덮어주는 관용의 정신을 담아내고 있는 것 같아.
- ⑤ 억구는 비록 거둬 살인을 저질렀지만 그래도 인간다운 면모를 지니고 있어. 작품 속에서 억구의 삶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키 큰 사내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거야.

7. <보기>의 대화에서 ㉠의 어조와 가장 유사한 것은? (2점)

_____ <보 기> _____

① “애들아, 기말시험도 끝났는데 이번 여름방학에 우리 학급 차원에서 봉사활동을 해 보는 것이 어떨겠니? 장소는 내가 알아볼게.”

② “그래, 시험은 못 봤지만 무엇인가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도 괜찮을 거야. 가뜩이나 스트레스도 쌓였는데 좋은 일 하면 풀리지 않을까 싶어.”

③ “봉사활동? 좋지. 하지만 시험도 못 봐 놓고 무슨 남 걱정이나. 자기 할 일도 못하는 애들이 무슨 얼어 죽을 봉사활동이냐 말야.”

④ “맞아, 가뜩이나 시험도 못 봐서 기분도 우울한데 몸까지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 난 방학 때 해야 할 공부도 많단 말이야.”

⑤ “너희들 정말 이기적이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너희들 같다면 봉사활동 할 사람이 어디 있겠니? 하고 싶지 않으면 너희들은 빠져!”

8. <보기>에서 ㉡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골라 묶은 것은? (3점)

_____ <보 기> _____

㉡. 상대 인물의 의중을 저울질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 속마음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다.

㉣. 상대 인물에게 불편한 심기를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인물 간 긴장 관계가 완전히 해소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9. ㉠~㉣ 중, 인물에게 심리 전환의 계기를 제공하는 것은? (2점)

- ① ㉠ ② ㉡ ③ ㉢ ④ ㉣ ⑤ ㉣

[10~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생명체의 환경은 대부분 다른 생명체들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함께 살아가는 모든 것은 그 어떤 식으로든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조율되어 있다. 이 스펙트럼의 한쪽 끝에는 공생 형태, 즉 양자의 이익을 위한 긴밀한 형태가 있다. 그리고 다른 한쪽 끝에는 약육강식이라는 덜 유쾌한 관계가 있는데, 이것은 생존을 위한 투쟁이라는 형태를 취한다.

자연은 협조뿐만 아니라 경쟁을 통해서도 고루 관계를 맺으며 짜여 있다. 그래서 진화는 ㉠ ‘공동 진화’이기도 하다. 한 종이 어떤 속성의 변화를 일으키면 그 변화는 다른 종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영양이 달리기를 잘하게 되면, 사자도 더 빨라져야 하거나 새로 사냥할 ㉡ 먹잇감을 다른 환경에서 찾아야 하는 식이다. 바로 이것이 자연의 ‘군비 경쟁’이다. 이것은 ㉢ 예삿일 같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로 인해 창조주에 대한 신앙심을 순식간에 갖게 되기도 한다. 관계되는 모든 생명체가 지극히 경이로운 방식으로 서로 조화를 이루며 기적 같은 앙상블을 자주 드러내기 때문이다.

생물학자 도킨스는 벌레잡이통풀을 통해 이를 설명하고 있다. 이 식충 식물은 긴 잎 끝에 꽃병처럼 생긴 멧진 통을 달고 있어 보는 이의 감탄을 자아내며, 통의 3분의 1 정도가 물로 채워져 있다. 도킨스는 일부러 만든 것과 같은 이런 형상을 ‘디자인노이드’라고 불렀다. 디자인노이드는 본질적으로 두 가지 원칙을 따른다. 첫 번째 원칙은 자연 어디서든 발견되는 효율성이다. 어떤 생물이든 생존을 위해 지나치게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면 원칙적으로 불리하다. 따라서 되도록 적은 재료를 가지고 꼭 필요한 만큼의 견고한 몸매를 만들어 낸다. 그 결과는 대개 극도로 기교적이며 금실 세공처럼 정교하다. 이것만 봐도 그 우아한 형태를 확인할 수 있다. 두 번째 원칙은 합목적성이다. ㉠ 벌레잡이통풀은 곤충을 유인하기 위해 향기를 내뿜고, 통의 입구 가장자리를 색무늬로 장식한다. 이 가장자리는 매끈하고 미끄러워서, 한번 들어온 곤충은 들어오자마자 급행열차를 타듯 섬모에 실려 눈 깜짝할 사이에 물 속으로 빠진다. 그러나 이 식물은 통 속에 익사한 파리만으로는 직접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다고 위와 장을 갖춘 소화 메커니즘을 개발하는 일은 식물에게는 별로 효율적이지 못한 사업이다. 그래서 벌레잡이통풀은 이 일을 대신 해줄 자와 제휴하겠다고 공고를 낸다. 그리하여 통의 물 속에 ㉡ 특정의 구더기와 그 밖의 여러 생물이 살게 된 것이다. 그것들은 파리를 먹어 치우고, 대신 식물이 필요로 하는 물질을 배설한다. 그 대가로 식물은 직접 물 속 생물들에게 산소를 배출해 물의 신선도를 유지한다.

합목적성 원칙은 자연에서 ㉢ 종류가 아주 다른 동식물들이 어찌서 선호되는 형태를 동일하게 갖추게 되는지도 설명해 준다. 이것은 마치 어떤 초월자가 계획에 따라 형상화했다는 환상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외견상 비슷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돌고래뿐만 아니라 어룡과 펭귄에게서 확인되는 유전형이 그 좋은 예이다. 우리는 이처럼 자연 곳곳에서 효율성과 합목적성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런 형상들은 누가 빚어낸 것이 아니라 사실은 생물들이 환경에 적응한 결과이다.

10. 위 글을 읽고 추리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점)

- ① 자연의 생물들이 이룬 조화가 경이로워서 많은 사람들은 자연을 창조주의 산물로 의심하기도 한다.
- ② 지렁이가 땅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살수록, 지렁이를 잡아먹는 두더쥐의 땅 파는 실력도 늘어날 것이다.
- ③ 모든 생물은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기에 생물 다양성의 파괴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 ④ 벌레잡이통풀은 처음부터 벌레를 잡아먹을 수 있는 뛰어난 구조를 지니고 있었기에 번식 능력이 강했을 것이다.
- ⑤ 피식자의 개체수가 줄어들었을 때, 포식자가 새로운 먹이에 적응하지 못한다면 포식자의 개체수도 감소할 것이다.

11. ㉠을 인간 사회에 적용하여 설명하고자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2등을 하던 철수가 1등으로 올라가자, 1등에서 밀려난 영수가 자극을 받아 공부에 더욱 매진하게 되었다.
- ② 중국이 저임금으로 시장을 점령해 나가기 시작하자, 우리나라는 전략을 바꾸어 고가 상품으로 이에 대응하고 있다.
- ③ 병원이 있는 건물에 약국이 들어서자 편리성 때문에 병원의 손님이 많아졌고, 덩달아 약국의 매상도 오르게 되었다.
- ④ 전자 제품 업계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A전자의 막강한 영향력으로 다른 업체들의 영향력은 갈수록 위축되고 있다.
- ⑤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며 아이를 맡기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탁아 시설의 수입이 늘었고 그에 따라 서비스도 좋아졌다.

연기는 돛대처럼 내려 항구에 들고
 옛날의 들창마다 눈동자엔 짜운 소금이 저려

바람 불고 눈보래 치잖으면 못 살리라
 매운 술을 마셔 돌아가는 그림자 발자취 소리

숨막힐 마음 속에 어데 강물이 흐르뇨
 달은 강을 따르고 나는 차디찬 강 맘에 드리라

수만 호 빛이래야 할 내 고향이언만
 노랑나비도 오잖는 무덤 위에 이끼만 푸르리라 - 이육사, <자야곡>

(다) 삼살개 짚는 소리 / 눈보라에 얼어붙은 선달 그믐 밤이
 앞כות은 손을 하도 곱게 흔들길래 / 술을 마시어 불타는 ㉠ 소원이 이 부두로 왔다.

걸어온 길가에 찢레 한 송이 없었대도 / 나의 아롱범은
 자욱 자욱 누우칠 줄 모른다. / 어깨에 쌓여도 하얀 ㉡ 눈이 무겁지 앓고나.

철없는 누이 고수머릴랑 어루만지며
 우라지오의 이야길 캐고 싶던 밤이면 / 울 어머니

서투른 마우재 말도 들려 주셨지. / 졸음졸음 귀 밝히는 누이 잠들 때꺼정
 등불이 깜빡 저절로 눈감을 때꺼정

다시 내게로 헤어드는 / 어머니의 입김이 무지개처럼 어질다.

나는 그 모두를 살뜰히 담았으니 / 어린 기억의 새야 귀성스럽다.
 기다리지 말고 마음의 은줄에 작은 날개를 털라.

드나드는 배 하나 없는 지금 / 부두에 호젓 선 나는 ㉢ 멧비둘기 아니건만
 날고 싶어 날고 싶어 / 머리에 어슴푸레 그리어진 그 곳
 우라지오의 바다는 ㉣ 얼음이 두껍다.

등대와 나와 / 서로 속삭일 수 없는 생각에 잠기고
 밤은 알팍한 꿈을 끝없이 피인다.
 가도오도 못할 ㉤ 우라지오. - 이용악, <우라지오 가까운 항구에서>

15. (가)~(다)의 시적 화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가)와 (나)는 현실적 장애를 극복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 ② (나)와 (다)에는 자신이 처한 현실에 대한 냉소적 인식이 드러나 있다.
- ③ (가)와 (다)에는 지향하는 공간에 도달할 수 없는 심정이 나타나 있다.
- ④ (가)~(다) 모두 현실을 운명으로 간주하며 체념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 ⑤ (가)~(다) 모두 자신이 처한 현실과 이상이 공존하는 세계를 지향하고 있다.

16. (가)와 <보기>의 공통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점)

————— <보 기> —————

맥의 나라 이 땅에 첫눈이 날리니,
 춘성에 나뭇잎이 들성해지네.
 가을 깊어 마을에 술이 있는데,
 객창에 오랫동안 고기 맛을 못보겠네.
 산이 멀어 하늘은 들에 드리웠고,
 강물 아득해 대지는 허공에 붙었네.
 외로운 기러기 지는 해 밖으로 날아가니,
 나그네 발걸음 가는 길 머뭇거리네. - 김시습, <도중>

- ① 객지에서 유랑하는 시적 화자의 신세가 나타나 있다.
- ② 지향하는 대상에 대한 그리운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③ 계절적 배경을 통하여 쓸쓸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④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부각하고 있다.
- ⑤ 시적 화자의 처지를 객관적 상관물을 통해 표현하고 있다.

17. (나)의 시적 의미를 파악하기 위하여 <보기>와 같이 메모하며 시구를 제시할 때, ㉠~㉥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1. 상황
 • 시적 화자가 있는 시·공간 → 어두운 밤, 어느 항구

2. 정서
 • 고향 상실로 인한 안타까움
 → 노랑나비도 오잖는 무덤 위에 이끼만 푸르리라 ……㉠

• 유랑으로 인한 객수(客愁)
 → 달은 강을 따르고 나는 차디찬 강 뚝에 드리라 ……㉡

3. 태도
 • 현실적 상황에 대한 역설적 인식
 → 바람 불고 눈보래 치잖으면 못 살리라 ……㉢

• 고향 상실로 인한 절망감 인식
 → 매운 술을 마셔 돌아가는 그림자 밤자취 소리 ……㉣

4. 이미지
 • 시상의 흐늬상 긴밀하게 연결되는 이미지
 → 수막 호 빛, 노랑나비, 연기, 그림자, 무덤 ……㉤

- ① ㉠ ② ㉡ ③ ㉢ ④ ㉣ ⑤ ㉤

18. (다)의 창작 과정을 추리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2점)

- ① 유년 시절에 대한 회상을 시상 전개 과정에 삽입하면 어떨까?
- ② 절망적 상황 제시로 시적 화자의 단절된 처지를 드러내면 좋겠어.
- ③ 힘겨운 현실에 맞서 온 시적 화자의 모습은 비유적으로 표현해야지.
- ④ 동일한 통사 구조의 반복으로 암울한 심정을 강조하는 것도 좋을 거야.
- ⑤ 시간적 배경을 의인화하여 표현함으로써 시적 화자의 심리를 드러내야겠어.

19. (다)의 ㉠~㉣ 중, <보기>의 **산**과 함축적 의미가 유사한 것은? (2점)

— <보 기> —

물로 사흘 배 사흘 / 먼 삼천 리 / 더더구나 걸어 넘는 먼 삼천 리
 삭주구성은 산(山)을 넘은 육천 리요

물 맞아 함빡이 젖은 제비도 / 가다가 비에 걸려 오노랍니다.
 저녁에는 높은 산 / 밤에 높은 **산**

삭주 구성은 산 넘어 / 먼 육천 리
 가끔가끔 꿈에는 사오천 리 / 가다오다 돌아오는 길이겠지요

서로 떠난 몸이길래 몸이 그리워 / 님을 둔 곳이길래 곳이 그리워
 못 보았소 새들도 집이 그리워 / 남북으로 오며가며 아니합디까

들 끝에 날아가는 나는 구름은 / 반쯤은 어디 바로 가 있을텐고
 삭주 구성은 산 넘어 / 먼 육천 리 - 김소월, <삭주 구성>

① ㉠

② ㉡

③ ㉢

④ ㉣

⑤ ㉤

[20~2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오늘날 인간의 욕망은 더 이상 정지해 있으려 하지 않는다. 세계도 욕망의 자유로운 이동 공간으로 바뀌기 시작한 지 오래다. 이미 욕망의 새로운 이동화 시대가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공중 전화보다 휴대 전화를 좋아하듯 우리는 정지하기보다 이동하고 싶어한다. 우리의 생활은 벌써 그것을 더욱 즐기고 선호한다. ㉠ 우리는 정주보다 유목에 길들여가고 있다. 어느새 우리는 욕망에 따라 이동하는 신유목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다.

정주 문화를 상징해 온 인문학은 신유목 시대와 갈등하고 있다. 그것은 새로운 문화 양식과의 갈등이다. 문화 기반이 전면적으로 교체되는 상황에서 인문학은 암흑 시대를 경험한 중세 이래 오랜만에 갈피를 잡지 못해 방황하고 있다. 더구나 인간의 욕망이 경제 논리에 따라 이동하는 신유목 시대에, 경제 속도에 뒤지고 경제 논리에 어두운 인문학은 새로운 시스템에서 배제를 강요받는다. 무엇이 인문학을 이토록 벼랑 끝에 서게 하는 것일까?

먼저 시대 변화에 따른 가치의 전도가 가장 근본적인 이유일 것이다. 정주에서 신유목으로의 문화 양식의 전환과 욕망의 고정화에서 이동화으로의 생활 양식의 전환은 인류가 이제까지 경험해 온 어떤 변화와도 견줄 수 없을 만큼 혁신적인 것이다. 특히 힘의 문화에서 속도 문화으로의 전환은 모든 기존의 문화 틀과 가치를 쓸모없게 하거나 전도시키기에 충분하다. 정신 문화의 근본보다는 물질 문명의 첨단을 더욱 쓸모 있는 것으로 간주하기에 이른 것이다. 신유목 문화는 인간 정신의 변할 수 없는 내면적 가치의 향유와 진작보다는 물질 문명의 활용 수단과 전달 방법의 개발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한다.

인문학의 입지가 어느 때보다 좁아진 이유 중 하나는 대학이 앞장서서 그것을 외면하기 시작한 데도 있다. 대학을 가리켜 상아탑이라고 부르는 것은 현실에 영합하지 않는 대학 본래적인 사명과 역할 때문이었다. 그러나 대학들은 신유목 시대의 경제 원리에만 경도되어 대학 교육의 새틀짜기에 매달려 왔다. 교양학으로서 인문학의 축소와 배제에 초점을 맞춘 교양 교육의 개편이 그것이고, 국문학과 영문학의 짝짓기를 강요하여 학제의 기형아를 탄생시킨 이른바 학부제로의 개편이 그러하다. 이것은 시대의 변화와 같이 달라진 외부 환경에서 비롯된 인문학의 위상 변화보다 더욱 심각한 원인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인문학자 자신들에게서 찾지 않을 수 없다. 지나치게 말하면 오늘의 위기는 인문학자의 위기라고 해야 옳을지도 모른다. 이것은 정주민이기를 고수하며 인문학의 내용과 방법, 그 지위와 가치를 초시간적·초공간적이기를 고집하는 데서 비롯된 위기이다. 이것은 신유목 시대가 변신하지 않으려는 정주적 인문학자의 권위주의적 오만을 어느 때보다 용인하지 않으려는 데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다. 또한 인문학이 유물

24. ㉠에 나타난 의미를 표현하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②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③ 처음이 좋으면 반은 성공한 것이다. ④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
 ⑤ 바다도 물 한 방울로부터 시작된다.

[25~2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이때 춘풍이 비장 덕에 돈 받아 실어 놓고 갓, 망건, 의복 차려 입고 경성으로 올라와서 제 집을 찾아간다. 춘풍의 처 문 밖에 썩 나서서 춘풍의 소매 잡고 깜짝 놀라 하는 말이,

“어이 그리 더디던고. 장사에 재미 보고 평안히 오시니까?”

춘풍이 반기면서,

“그새 잘 있었는가.”

㉠ 춘풍이 이십 바리 돈을 여기저기 벌이고 장사에서 남긴 듯이 의기양양하니, 춘풍 아내 거동 보소. 주찬을 소담히 차려 놓고,

“자시오.”

하니 ㉡ 저 잡놈 거동 보소. 없던 교태* 지어 내어 제 아내 꾸짖으되,

“안주도 좋지 않고 술 맛도 무미하다. 평양서는 좋은 안주로 매일 취하여 입맛이 높았으니, 평양으로 다시 가고 싶다. 아무래도 못 있겠다.”

젓가락을 그릇에 던져 박고 고기도 씹어 뱉어 버리며 하는 말이,

“평양 일색 추월이와 좋은 안주 호강으로 지냈더니 집에 오니 온갖 것이 다 어설프다. 호조 돈이나 갓고 다시 평양으로 내려가서, 작은집과 한가지로 음식을 먹으리라.”

㉢ 그 거동은 차마 못 볼러라. 춘풍 아내 거동 보소. 춘풍을 속이려고 상을 물려 놓고 황혼 때에 밖에 나가 비장 차림 다시 하고, 대문 안에 들어서서 기침하고,

“춘풍아, 왔느냐?”

춘풍이 자세히 보니 평양서 돈 찾아 주었던 비장이라. 춘풍이 깜짝 놀라 버선발로 뛰어 내달아 엎드려 말하기를,

“소인이 오늘 왔으나 날이 저물어 내일 댁에 문안코자 하였는데, 나으리 먼저 행차하옵시니 황공하여이다.”

“내 마침 이리 지나가다가 너 왔단 말 듣고 네 집에 잠깐 들렀노라.”

방 안에 들어가니, 춘풍이 아무리 제 안방인들 어찌 들어올까? 문 밖에 섰노라니,

“춘풍아, 들어와서 게 앉거라.”

“나으리 좌정하신 테를 감히 들어가오리까?”

“잔말 말고 들어오라.”

춘풍이 마지못하여 들어오니, 비장이 말하되,

“그때 추월에게 돈은 받았느냐?”

“나으리 덕택에 즉시 받았나이다. 못 받을 돈 오천 냥을 하루아침에 다 받았사오니, 그 은혜가 태산 같사이다.”

“그때 맞던 매가 아프더냐?”

“소인에게 그런 매는 상(賞)이로소이다. 어찌 아프다 하리이까?”

“네 집에 술이 있느냐?”

춘풍이 일어서서 주안을 들이거늘 비장이 꾸짖어 말하되,

“네 계집은 어디 가고 네가 일을 하느냐? 네 계집 불러 술 준비 못 시킬까?”

춘풍이 황급하여 아무리 찾은들 있을쏘냐. 들떠나며 찾아도 무가내*라 제 손수 거행하니 한두 잔 먹은 후 비장이 하는 말이,

“네 평양에서 추월의 집 사환 할 제, 모습도 참혹하고 걸인 중 상거지라. 추월의 하인 되어 봉두난발 현 누더기 어떻더냐?”

춘풍이 부끄러워 제 계집이 문 밖에서 엿듣는가 민망하건마는, 비장이 하는 말을 제가 어찌 막을손가.

㉠ 좌불안석(坐不安席) 하는 꼴은 혼자 보기 아깝더라. 비장 말하되,

“남산 밑 박 승지 댁에 갔다가 술이 취하여 네 집에 왔더니 시장도 하거니와, 갈증도 나는구나. 어서 가서 갈분*이나 한 그릇 해 오너라.”

춘풍이 황공하여 밖으로 내달아서 아무리 제 처를 찾은들 어디 간 줄 알리요. 주저주저하더라. 비장이 꾸짖어 말하기를,

“네 계집을 어디 숨기고 나를 아니 뵈는고?”

차월피월*하니,

“너는 벌써 잊었느냐? ㉡ 평양 일을 생각하여 보라. 네가 집에 왔다고 그리 체중*한 체 하느냐?”

㉢ 춘풍이 갈분을 가지고 부엌에 내려가 죽 쑤는 꼴은 차마 볼 수 없더라. 한참 꿈적여서 쑤어 들이거늘, 비장이 조금 먹는 체하고 춘풍을 주며,

“먹으라. 추월의 집에서 깨어진 현 사발에 누른 밥 된장덩이를 찌그러진 숟가락도 없이 먹던 생각하고 먹으라.”

㉣ 춘풍이 받아 먹으며 제 아내가 밖에서 다 듣는가, 속으로 민망히 여기더라.

비장이 말하되,

“밤이 깊었으니 네 집에서 자고 가리라.”

하고 의복 벗고 갓, 망건을 벗으니, 춘풍이 감히 가란 말을 못 하고 여러 해 만에 그리던 아내 만나서 잘 잘 까 하였는데 비장이 잔다 하니 속으로 민망히 여기더라. 갓, 망건 벗어 놓고 옷옷을 훑훑 벗은 후 일어서니 완전한 제 계집이라. 춘풍이 깜짝 놀라 다시 자세히 보니 분명한 제 계집이라. 춘풍이 어이없어 말없이 앉아 있으니 춘풍의 처 달려들며,

“여보소. 아직도 나를 모르시오?”

춘풍이 그제야 깨닫고 깜짝 놀라며, 두 손을 마주 잡고,

“이것이 웬일인가? 평양 비장이 지금 내 아내 될 줄 어이 알리. 이것이 꿈인가 생신가?”

하며 ㉤ 원앙금침에 옛정을 다시 이루니 은근한 정이 비할 데 없더라.

* 교태(驕態): 교만한 태도 혹은 마음.

* 무가내(無可奈): 어찌 할 수 없음.

* 갈분(葛粉): 칩뿌리를 짓이겨 양금을 물에 가라앉히어 말린 가루.

* 차월피월(此月彼月): 이달, 저달로 미루는 것이나 또는 그러한 태도.

* 체중(體重): 지위가 높고 중함.

25. 위 글을 읽은 독자들의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점)

- ① 이춘풍과 아내는 상호 대립하며 불화를 일으키고 있다.
- ② 추월은 이춘풍의 권세에 의지하여 신분 상승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 ③ 이춘풍은 허세와 위선에 가득 찬 양반들의 전형적인 행태를 보여준다.
- ④ 아내는 남녀의 지위를 역전시킴으로써 여성의 우월성을 드러내고 있다.
- ⑤ 화목하고 안락한 가정을 이루고자 하는 이춘풍의 소망이 나타나고 있다.

26. ㉠~㉤ 중, 인물에 대한 서술자의 태도가 다른 것은? (3점)

- ① ㉠ ② ㉡ ③ ㉢ ④ ㉣ ⑤ ㉤

27. 화자가 의도한 ㉠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2점)

- ① 비장에게 잡혀가 매를 맞은 일 ② 호조에서 빌린 돈을 탕진한 일
 ③ 추월이의 사환이 되어 고생하던 일 ④ 아내가 비장이 되어 남편을 찾아온 일
 ⑤ 비장의 도움으로 추월에게서 돈을 되찾은 일

28. ㉠과 ㉡의 상황에 어울리는 속담으로 알맞게 짝지어진 것은? (3점)

	㉠	㉡
①	눈 가리고 아웅 한다.	죽제비도 낮짜이 있다.
②	거적문에 돌찌귀 단다.	처갓집 말뚝에 절한다.
③	개구리 울챙이 적 생각 못한다.	고양이 쥐 사정 보듯 한다.
④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	마파람에 게 눈 감추듯 한다.
⑤	개똥밭에도 별들 날이 있다.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

[29~3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오늘날 사용되는 지식인이라는 집단적 계층 형성에 직접적이고 지배적인 역할을 한 것은 프랑스다. 지식인이라는 용어는 ‘드레퓔스 사건’으로 불리는 인종 차별적 진실 은폐를 둘러싼 공방에서 출현한다. 이 사건은 1894년 프랑스에서 발생한 간첩 조작 사건이다. 유대계의 드레퓔스 대위가 독일을 위해 간첩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군사재판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음으로써 촉발된 이 사건은 드레퓔스의 무죄를 주장하는 증거를 제시하고 직접 보고한 지휘관이 좌천되면서 사회적으로 부각되었다. 당시 재심 요구서와 함께 졸라의 유명한 <나는 고발한다>라는 공개 서한이 발표된다. 그러자 사회 지도자들—문학자, 예술가, 교수, 변호사—은 자신들의 활동 영역과는 상관없이 스스로를 지식인이라 칭하면서 드레퓔스의 재심과 석방을 위한 성명에 참여한다. 이것이 프랑스에서 ‘지식인 선언’으로 나타난다. 당시 지식인은 드레퓔스의 무죄와 석방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가리켰고, 이 사건 이후 자신들의 전문 활동 영역을 넘어 보편적인 가치, 즉 실제적 진실이나 인간으로서의 권리와 관련된 사회 운동이나 활동에 적극 참여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사람들을 일컫는 용어로 정착되었다.

지식인이라는 용어가 정착되던 당시 분통을 터뜨리는 사람과 분별력 있는 사람들이 ‘드레퓔스 파’라는 이름 아래 집결하였다. 옹호자들은 ‘정의를 위한 연대’를 결성하려 했지만, ‘진실을 위한 연대’라는 좀 더 겸손한 이름을 채택했다. 왜냐하면 무엇이 정의인가 하는 논란 때문에 정의로운 것에 대해서는 서로가 망설일 수 있지만, 누구나 사실을 확인하면 수긍할 수밖에 없는 진실한 것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으리란 논리 때문이었다. 이렇듯 지식인은 추상적이고 이념적인 정의로움보다는 참과 거짓에 우선적인 관심을 가지는 집단이며, 거짓에 분노하고 저항하는 집단이었고, 그들의 역할은 사실을 사실로서 드러내고 참과 거짓을 판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었다. 이러한 사실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정의로움으로 이어지는 것은 자명했다. 사실과 다르게 관념적으로 무엇을 만들어 차별적으로 재단하는 정의의 부당함을 준엄하게 고발하고, 사실에 입각한 참을 가지고서 적진을 돌파하는 지식인, 이것이 ㉠ 드레퓔스 파 지식인의 모습이다.

그런데 오늘날 지식인은 사실에 대한 왜곡에 눈감고 분노를 억제하고 준엄한 고발도 하지 못한다. 그들은 사실에 입각해 진실을 밝히려는 실질적인 노력보다 자신의 활동이 만드는 사회적 효과에 매달리며, 사실 자체보다는 자신이 그러한 사실에 접근했을 때 생길 수 있는 개인적 가치나 효용을 ㉡ 따진다. 무엇이 어떻게 시작해 어떻게 진행되는가 하는 물음보다 늘 내가 무엇을 하면 이 상황에서 가치 있게 될지를 셈한다. 하지만 최초 지식인의 출현이 보여주듯이 교양인 또는 교육받은 자라면 사회적 지성의 기능을 자임하고 시대의 고통을 덜고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관심을 포기하면 안 된다. 사상과 이론가들이 그 사상과 이론에 담길 사회성과 역사성을 놓친다면 이미 지식인일 수 없다. 따라서 오늘날 지식인의 활동에서 지극히 개인적인 신념과 계산에 따른 개인적 활동만이 강조되는 것은 병폐가 아닐 수 없다.

29.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2점)

- ① 드레퓌스 사건은 프랑스에서 발생한 간첩 조작 사건이었으나 인종 차별 문제가 핵심이었다.
- ② 드레퓌스 옹호자들은 ‘정의를 위한 연대’를 결성하여 사회의 잘못을 바로잡으려고 노력하였다.
- ③ 오늘날 지식인은 왜곡된 사실의 진실을 밝히고 시대의 고통을 덜어주는 행동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 ④ 지식인 선언은 보편적 가치에 대해 의사 표시를 하고 잘못을 고치려는 사람들의 적극적인 행동이었다.
- ⑤ 드레퓌스 대위의 무죄를 주장한 지휘관이 좌천되자 각계 사회 지도자들은 그의 재심과 석방을 요청했다.

30. 위 글에서 말하는 ‘참된 지식인’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2점)

- ① 지금은 뭐니 뭐니 해도 세계화 시대잖아. 영어 실력이 최고지 뭐! 컴퓨터 실력도 갖춰야 하고. 경쟁 사회에서 인정받기 위해 난 이 분야의 최고 전문가가 되겠어.
- ② 나는 역사박물관에 갈 거야. 옛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궁금하거든. 난 과거 역사를 통해 현재를 배우고 사회를 보다 바람직한 모습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할 거야.
- ③ 순수학문이 잘 갖춰지지 않으면 실용학문은 다양하게 발전하기 어려워. 그래서 나는 앞으로 순수학문을 공부해 실용학문의 폭을 넓히고 새로운 이론 개발에 힘쓸 거야.
- ④ 아인슈타인 박사가 아이들에게 보낸 편지 모음집을 읽었어. 세계적인 학자가 아이들의 물음에 일일이 답해주셨다는 사실에 난 감동했어. 나도 커서 아인슈타인 같은 물리학자가 될 거야.
- ⑤ 아는 것이 힘이라고 했어. 난 이번 방학 동안 책 30권을 읽을까 해. 책은 국어 선생님이 추천해 주셨는데 어머니와 함께 사기로 했어. 일단 책을 읽으면서 내가 사는 세상의 힘을 알아낼 거야.

31. ㉠의 내용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것은? (3점)

- ① 맑은 햇빛으로 반짝반짝 물들으며 / 가볍게 가을을 날고 있는 / 나뭇잎, / 그렇게 주고받는 / 우리들의 반짝이는 미소로도 / 이 커다란 세계를 / 넉넉히 떠받쳐 나갈 수 있다는 것을 / 믿게 해 주십시오.
- ②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 한점 부끄럼이 없기를, /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 나는 괴로워했다. /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 걸어가야겠다.
- ③ 그 날이 오면 그 날이 오면은 /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 한강물이 용솟음칠 그 날이 / 이 목숨이 끊기기 전에 와 주기만 하량이면 / 나는 밤 하늘에 나는 까마귀와 같이 / 종로의 인경을 머리 로 들이받아 울리오리다.
- ④ 나 두 야 간다. / 나의 이 젊은 나이를 / 눈물로야 보낼 거냐 / 나 두 야 가련다. // 아늑한 이 항구인들 손쉽게야 버릴 거냐 / 안개같이 물어린 눈에도 비치나니 / 골짜기마다 발에 익은 땀부리 모양 / 주름살도 눈에 익은 아! 사랑하는 사람들
- ⑤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 누가 구름 한 송이 없이 맑은 /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 네가 본 건, 먹구름 / 그걸 하늘로 알고 / 일생을 살아갔다. // 네가 본 건, 지붕 덮은 / 쇠 항아리, 그걸 하늘로 알고 / 일생을 살아갔다. // 닭아라, 사람들아 / 네 마음 속 구름 / 찢어라, 사람들아 / 네 머리 덮은 쇠 항아리

32. ㉡과 문맥적 의미가 가장 유사한 것은? (3점)

- ① 관계 당국에 사고의 원인을 따지다.
- ② 우리 회사는 학력 같은 것은 안 따진다.
- ③ 득실을 따져 보고 그 일을 시작하도록 하자.
- ④ 어제 일을 따지고 보면 나도 잘못된 점이 많다.
- ⑤ 회사의 매출액으로 따지면 20위 정도는 될 것이다.

[33~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사진이 외형상 현실을 있는 그대로 재현한 것이라는 특성을 가지면서도 현실을 넘어 예술로 전이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사진가의 주관적 변용이라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일상적 사물은 창조적 영상으로 다시 태어난다. 즉,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의 감관을 자극하는 것이다. 사진은 애초부터 ‘찾는’ 작업이다. 사진가는 눈이 아니라 렌즈를 통해 보는 현실을 찍는다. 그래서 ‘보는’이라는 말은 눈으로 피사체의 존재 또는 그것의 형태적 특징을 안다는 뜻 외에 ㉠ 는 뜻으로 확장된다.

사진을 일컬어 ‘발견의 예술’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여기에 근거한다. 어떤 사람들은 사진은 발로 찍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주장은 발견의 예술이라는 의미를 표면적으로 이해한 것에 불과하다. 저널리스트라고 해도 흥미 있는 혹은 독점적인 사건이나 대상을 발견하여 이를 사진에 담아내는 작업만으로는 예술성을 획득할 수가 없다. 그 대상과 사건에 나타난 이면의 의미를 찾아낼 때, 또는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때 비로소 ‘발견’이라는 말의 의미가 살아나는 것이다. 따라서 그 발견은 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하는 것이 된다.

그러나 사진은 사진가에 의해 완전히 통제되지 않는다. 현실 그대로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진의 영상 자체가 사진가가 부여한 의미를 가로막는 것이다. 그래서 사진 감상자는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영상을 해석할 여지를 갖게 된다. 사물의 모습을 비교적 사실적으로 그린 그림의 경우에도 비슷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 그렇지만 그림에 그려진 사물의 경우 그것은 화가의 붓에 의해 변형된 사물이라는 관념이 강하게 작용하여 감상자들은 자신의 자의적 해석에 앞서 작가의 의도를 먼저 찾으려는 경향이 훨씬 강하다.

그래서 사진에서는 영상의 해석을 통제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게 된다. 언어적 표현으로 사진을 보완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사진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없는 이들은 사진이 언어로 보완된다는 것을 부정하려 한다. 이것을 능력 없는 사진가의 행태로, 일종의 수치라고도 생각한다. 그러나 언어를 통해 발견의 의미가 명확히 드러난다면 그것은 사진의 예술성을 더욱 높여주는 긍정적 기능을 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사진가들은 사진을 여러 장 함께 제시함으로써 이러한 효과를 거두기도 한다. 어떤 사람의 어렸을 때, 학생 때, 청년일 때, 장년일 때, 노년일 때의 모습을 찍어 순차적으로 보여주면 감상자들은 그 개인의, 일생에 걸친 모습의 변화라는 사진의 주제 의식을 쉽게 찾아낼 수 있다. 함께 제시된 사진들이 관계를 만들어 내면서 그 안에 사진가가 전달하려는 의미의 맥락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사진가의 의도와 무관한 외적 정보들이 부각되어 그 의도의 전달을 방해한다면 그 사진은 서툰 사진에 불과하다. 사진은 사실적 정보의 창고가 아니다. 사진 감상자들은 단순한 사물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진에 부여된 의미를 이해하고 사진가와 교감하기 위해 사진을 본다. 따라서 사진가는 자신의 의도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 없이 ‘결작’ 사진을 남긴다는 것은 그저 요원한 이야기일 뿐이다.

33.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2점)

- ① 감상자들은 사진을 통해 사진가와 교감하게 된다.
- ② 다양한 의미가 부여된 사진일수록 결작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 ③ 독점적 사건을 담은 사진이라고 해서 예술성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 ④ 사진 영상의 현실성으로 인해 감상자의 주관적 해석이 유발되기도 한다.
- ⑤ 사진가의 의도와 관련이 없는 외적 정보가 의도의 전달을 방해하기도 한다.

34. 위 글의 필자가 사용한 글쓰기 전략으로 볼 수 없는 것은? (3점)

- ①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 ② 상반된 견해를 반박함으로써 자신의 견해를 뒷받침하고 있다.
- ③ 다른 대상과의 비교와 대조를 통해 대상의 속성을 설명하고 있다.
- ④ 대상의 특성과 관련된 어휘들에 담긴 본질적 의미들을 규정하고 있다.
- ⑤ 대상의 개념에 대한 여러 견해를 종합하여 새로운 속성을 도출하고 있다.

35. ㉠에 들어갈 표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점)

- ① 피사체에 부여된 보편적 개념들을 분석하게 된다
- ② 피사체의 물리적인 구성 요소들을 파악하게 된다
- ③ 피사체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견해들도 수용하게 된다
- ④ 피사체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까지도 구체적으로 이해하게 된다
- ⑤ 피사체의 겉모습에 드러나지 않은 새로운 의미를 인식하게 된다

36. 위 글을 읽고 <보기>의 사진에 대해 학생들이 서로 견해를 나누고 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제목 : 나무

- ① 규하 : 사람의 얼굴 모양을 한 실제의 나무를 피사체로 했다는 점에서 현실의 재현이라고 할 수 있어.
- ② 준하 : 만약 이 나무의 모습을 그림으로 제시했다면 사진으로 제시했을 때보다 감상자들의 자의적인 해석은 줄어들게 될 거야.
- ③ 예석 : 저런 나무를 찾기 위해서 사진가는 곳곳을 돌아다녀야 하기 때문에 사진을 찍는 것은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보다 창조적인 작업이라고 말할 수 있어.
- ④ 재원 : 제목에 “나무를 통해 현실을 살아가는 인간의 얼굴을 보여 주고 싶었다.”와 같은 표현을 덧붙인다면 사진에 대한 통제가 강화될 거야.
- ⑤ 진욱 : 재원이 의견처럼 표현을 덧붙여 놓았는데도 대부분의 감상자들이 “왼쪽 아래 있는 잎은 어떤 식물의 잎일까?”라는 질문을 주로 한다면 이 사진은 그야말로 서툰 사진이 되는 거겠지.

[37~4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지난 여름에 시골서 교장 노릇하는 G군이 오래간만에 찾아왔다.

“자네 웬일인가?” / “나? 감투하나 쓰러 왔네.” / “정말인가?” / “그럼 거짓말로 아나?”

정계에 매일같이 감투 씌미 벌어지고, 장안 안 여관마다 감투 사러온 친구들이 뒷간에 구더기 끓듯 한다는 소문이 신문마다 벽적거리는데, 난생 처음으로 교장 노릇도 해보니 그놈의 것 아무것도 아닐레, 나라고 감투 못 쓰란 법 있을라고, 예라,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다. 그는 이러한 생각 끝에 전후(前後) 불고(不顧)하고 서울로 튀어 올라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막상 올라와서 동정을 살펴보아 한즉, “그 감투란 것 좀체 쓰기 어렵데. 10만원은 있어야 겨우 술잔 값이나 될는지 모르겠데.” 하나 이 기회에 꼭 감투는 쓰고 내려가야겠는데, “자네는 광명한 친구이니까 혹 그럴듯한 굵*이 없겠느냐.”라는 것이다.

나 는 웃을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현상은 G 한 사람에 한한 것이 아니요, 이렇기 때문에 세상은 썩을 대로 썩어가는 것이지만, 우선 아쉬운 대로 나는 G에게만이라도 충고할 의무를 느끼고 이렇게 권고해 돌려보냈다.

“실례일지 모르나, 자네는 세상을 좀더 알아야 하네. 껍데기 세상만 보지 말고 속껍질을 벗기고 그 속에 있는 세상을 보아야 하네. 감투란 원래 값이 비싼 것이 아닐세. 아니라기보다 한 푼어치 값도 없는 것

이요, 또 값이 있을 수도 없네. 감투가 돈으로 환산되는 날 세상은 망하는 날일세. 왜 그러냐 하면, 감투를 밑천을 들여서 사는 날 벌써 감투 밑천을 뽑아야 할 생각이 안 나겠나? 가령 책 장수가 강희자전 한 권을 50원이구 100원이구 주구 샀다 치세. 학자 아닌 책장수가 자기 신주 덩어리가 아닐 바에야 그 책을 가보로 모셔들 리 없고, 팔게 될 경우에는 본전 안 받고 팔겠나? 5백 원이구 6백 원이구 흠뻑 이(利)를 남겨야 팔 것 아닌가. 이를테면 자네는 책장수요, 감투는 강희자전이란 말일세.”

꽤 모욕적인 언사로 이렇게 말했는데도 G는 껄껄 웃기만 했고, 그가 돌아가면서 종시 해결을 못 지은 것 같은 눈치로 가고 말았지만, 그를 돌려보내놓고 나는 나대로 괜히 웃음이 터져 올라서 못 견디었다.

- 김용준, <강희자전과 감투>

(나) 혹은 부유하다 하며, 혹은 빈곤하다 말하나 대체 부유는 어디서 시작되는 것이며 빈곤은 어디서 시작되는 것이냐? 사람이 부자이기 위해서는 대체 얼마나 많이 가져야 되고, 사람이 가난하기 위해서는 대체 얼마나 적게 가져야 되느냐? 그러나 물론 이것을 아는 이는 없다.

보라! 이 세상에는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가난하다 생각하며 사실에 있어 또 이 느낌을 항상 지니고 다니는 도배(徒輩)*는 허다하지 않은가? 그들은 어느 날에 이르러도 자족함을 알지 못하고, 전연히 필요치 않은 많은 것을 요망한다. 말하자면 위에는 위가 있다고 할까, 도달할 수 없는 상층만을 애써 쳐다보곤 아직도 자기에게 없는 너무나 많은 것을 헤아리는 것이다. 포만함을 알지 못하고 충분하다 하는 아름다운 말을 이미 잊은 바 그러한 도배를 본 사람은 도와줄 도리가 없다.

그런데 또 보라! 이 세상에는 극도로 어려운 처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넉넉하다 생각하며 사실에 있어 또 이 느낌을 항상 지니고 다니는 사람은 허다하지 않은가? 이 사람들에게엔 명색이 재산이라 할 만한 것이 없음은 물론이요, 대개는 손으로 벌어서 입으로 먹는 생활이 허락되어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들은 정말로 필요한 것조차 필요하다고 여기지 않고, 말하자면 밑에는 밑이 있으니까 밑만 보고 또 이외에도 더욱 가난할 수 있을 모든 경우를 생각하고 그리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절박된 곤궁 속에 주리고 있는가를 생각한다. 이리하여 이 위안(慰安)의 명류(名流)*들은 마치 그들이 그들의 힘과 사랑을 어딘지 다른 곳에다 두는 듯한 느낌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원래가 빈부의 객관적 표준은 있을 수 없으므로 빈궁의 문제를 쉽사리 규정하여 버릴 수는 없다. 문제는 오직 조그만 주머니가 곧 채워질 수 있음에 대하여 구멍난 대낭(大囊)*이 결코 차지 않는 물리적 이유에만 있을 따름이다. 그리하여 결국은 빈부의 최후의 결정자는 그 사람 자신일 뿐이요, 주위의 제삼자가 아니다. 그러므로 또한 사람이 참된 부유를 자손을 위하여 남기려거든 드디어 한(限)이 있는 물질보다는 밑을 보는 재조(才操)와 결핍에 사는 기술을 전함에 지남이 없을 것이다. 자족(自足)의 취미와 자기의 역량을 어딘지 다른 곳에다 전치(轉置)할 수 있는 정신적 재능이야말로 사람을 부자이게 하는 바 2대 요소이다.

- 김진섭, <청빈예찬>

* 굿 : 한쪽으로 트여 나가는 방향이나 길 * 도배(徒輩) : 함께 어울리는 무리
 * 명류(名流) : 세상에 널리 알려진 사람들 * 대낭(大囊) : 큰 주머니

37. <보기>의 ㉠~㉣ 중, (가)와 (나)의 서술자와 관련된 적절한 진술로만 묶인 것은? (3점)

<보 기>

- (가) - 비유적 표현을 통해 대화의 상대방이 가진 삶의 태도를 비판하고 있다. ... ㉠
-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독자에게 교훈을 전달하고 있다. ... ㉡
- (나) - 자신에 대한 반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깨달음을 도출하고 있다. ... ㉢
- 전달하려는 의도와 반대되는 표현을 통해 주제를 강화하고 있다. ... ㉣
- 설의법을 사용하여 현실의 세태를 드러내고 있다. ... ㉤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

※ <보기>는 (가)와 (나)의 화자가 만나 대화를 나누는 상황을 가정한 것이다. 잘 읽고 38번과 39번 두 물음에 답하시오.

<보 기>

- (가)의 화자 : 요즘 세상에 현재의 자기 지위보다 더 높은 지위를 얻고자 애쓰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a
- (나)의 화자 : 아래를 보려하지 않고 위만 바라보며 살아가려는 풍조가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b
- (가)의 화자 : 더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지위를 얻기 위해서 ‘돈’을 사용하려 한다는 것이지요. 이게 세상이 부패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닐까요? -----c
- (나)의 화자 :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높은 지위를 얻는 사람들은 결국 허망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허망감을 다시 돈으로 채우려 하겠지요. -----d
- (가)의 화자 : 돈으로 지위를 얻었으니 그 지위를 가지고 다시 돈을 벌어들이려고 할 것은 뻔합니다. 부패의 악순환이 이루어지는 셈입니다. -----e
- (나)의 화자 :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자신의 처지에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이미 우리 조상들이 추구했던 삶의 모습과도 일치됩니다. 이 노래를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요즘 사람들에게 이 노래를 들려주고 싶습니다.

38. <보기>의 a~e 중, 대화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a ② b ③ c ④ d ⑤ e

39. <보기>의 밑줄 친 ‘이 노래’에 해당하는 작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점)

- ① 검음면 희다흐고 희면 검다흐네 / 검거나 희거나 올타흐리 전혀 업다
츄라리 귀 막고 눈 감아 듯도 보도 말리라
- ② 늪이 해홀지라도 나는 아니 겨로리라 / 춤으면 덕이오 겨로면 곱으리니
굽으며 제게 잇거니 상대홀 줄이 이시라
- ③ 밋음아 너는 어이 밋양에 저멧는다 / 내 늘글 적이며 넌들 아니 늘글소나
아마도 너 좃녀 둔니다가 늪 우일가 흐노라
- ④ 태산(泰山)이 높다흐되 하늘아리 피히로다 / 오르고 쏘 오르면 못 오를 리 업건마는
사름이 제 아니 오르고 뵈홀 높다 흐더라
- ⑤ 밋얍이 밋다 울고 쓰르람이 쓰다우니 / 산채(山菜)를 밋다는가 박주(薄酒)를 쓰다는가
우리는 초야에 못쳐시니 밋고 쓴 줄 몰너라

40. 나 와 G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점)

- ① ‘나’의 웃음이 ‘G’의 어이가 없는 말과 행동 때문에 나온 것이라면, ‘G’의 웃음은 무안한 상황에 대응할 수 없어 마지못하여 나온 것이라 할 수 있다.
- ② ‘나’의 웃음에는 ‘G’의 처지를 이해하는 연민의 정서가 담겨 있고, ‘G’의 웃음에는 ‘나’의 말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수용의 태도가 드러나 있다.
- ③ ‘나’는 ‘G’의 행동이 재미가 있어 웃었고, ‘G’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숨기기 위해서 웃었다고 할 수 있다.
- ④ ‘나’는 ‘G’에 대한 친근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G’는 ‘나’를 무시하려는 의도에서 웃음으로 답했다.
- ⑤ ‘나’와 ‘G’의 웃음 모두 상대방을 경멸하는 심리를 담고 있는 비웃음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권

'06학년도 육군사관학교 1차시험 답안

□ 언어영역

○ A형

문항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정답	1	5	5	3	3	3	3	4	5	4	4	3	4	2	3	2	5	4	4	1
문항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정답	5	3	1	1	3	5	4	1	2	2	5	3	2	5	5	3	2	4	5	1

○ B형

문항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정답	5	1	3	5	2	5	5	3	2	4	5	1	3	3	3	4	5	4	4	3
문항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정답	4	2	3	2	5	4	4	1	5	3	1	1	3	5	4	1	2	2	5	3



2005학년도 육군사관학교 1차시험 문제지

제 1 교시

언어 영역(국어)

공 통

성명

수험번호

1 쪽

- 먼저 문제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히 기입하십시오.
- 답안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컴퓨터용 수성 사인펜으로 정확히 기입하십시오.
- 문제는 40문항이며, 문제지는 17쪽입니다.
- 문제는 2점 20문항, 3점 20문항 총 40문항입니다.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조하십시오.)
- 문제지와 답안지의 해당란을 정확히 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
- 답안지의 표기가 끝나면 재확인하여 답안지는 오른쪽, 문제지는 왼쪽에 얹어 놓으시오.

[5 ~ 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우리는 흔히 낡은 낱말들을 현대적인 새로운 사상을 담을 수 없는 헌 포대처럼 멸시한다. 그러나 위대한 철학자들은 낡은 말들을 통해서 새로운 의미를 창조했다. 이런 ㉠ 말들은 처음에는 이상하게 들릴지 몰라도 점차 익숙해지면 뜻이 자명한 말들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현대 물리학의 ‘원자(Atom)’라는 말은 희랍의 자연철학자들이 사용하던 낡은 말인데, 그 동안 줄곧 여러 가지 의미들로 사용되어 오다가 오늘날에 와서는 물리학의 기초 개념을 표현하는 말이 되었다. 그것은 처음부터 오늘날처럼 과학적으로 다듬어진 말이 아니었다. 우리가 흔히 비논리적이니 혹은 비과학적이니 해서 돌보지 않는 전통적인 말들 속에는 우리 겨레의 정신 생활과 더불어 자라난 숨은 의미가 담겨져 있을 수 있다. 그것을 철학적인 직관으로 드러내어 논리적으로 전개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철학적인 의미를 표현할 수 있는 낡고 오래된 말들은 우리의 사유를 굳어버린 틀처럼 구속해서 경화시킬 가능성도 있다. 그러므로 그런 말들은 그 원초적인 생동성을 되살리면서 새로운 깊이를 드러내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나) 철학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말의 생동성을 살리고 그 창조적인 힘을 충분히 발휘시키는 것이다. 말은 그 겨레의 삶의 역사 속에서 자라난, 정신적인 깊이를 간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래를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 말은 그 자체가 고정적인 하나의 의미를 가진 것이 아니고 사용하는 데 따라서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된다. 또한 철학적인 의미를 표현하는 말들도 곧 통속적인 유행말로 굳어져 그 생동성과 깊이를 잃어버리고 의미가 변질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철학자는 알맞은 말의 발견을 통해서 큰 즐거움을 맛보기도 하지만 말의 경화와 의미상실을 통해서 큰 고통을 경험하기도 한다. 그런데 철학적인 표현뿐만 아니라 모든 언어 생활에 있어서 이러한 경화와 의미 상실을 완전히 회피할 수는 없다는 데에 말의 숙명이 있다. 따라서 우리는 말을 중요하게 다루지 않을 수 없지만, 그것은 또한 언제나 이른바 ‘말장난’으로 타락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말을 위한 말에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말을 통하지 않고는 드러날 수도 없고 파악될 수도 없는 현실, 그러나 또한 굳은 말의 틀 안에만 머물러 있을 수 없는 현실에 관심을 가지면서 말을 다루어야 한다.

(다) 말이 표현하는 이른바 ‘현실’을 꼭 물체적으로만 이해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물체’에 붙은 꼬리표처럼 의미를 고정시키고 일의적으로 정의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큰 잘못이다. 현실의 깊이 있는 의미가 거듭거듭 밝혀지는 것은 일의적으로 고정시킬 수 없는 생동적인 힘에 의한 것

이다. 스스로 과학적이라는 환각에 사로잡힌 일부 현대 철학자들이 모든 중요한 말들을 일의적으로 규정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것들을 고정적인 기호로써 대신하려고 하는데, 현실의 복잡한 구조와 생동적인 깊이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하고, 오히려 말의 생산적인 다의성(多義性)을 결함이라고 생각할 만큼 저들의 철학적인 통찰은 무디다. 말을 일의적으로 고정시키고 나면 현실은 이미 그 말을 떠난다. 그러므로 말을 일의적으로 고정시킴으로써 명확성을 확보하려는 것은 너무 안일한 방법이다.

(라) 우리의 정신 생활과 더불어 살아 있는 우리의 말을 떠난다면 참다운 철학은 나타날 수도 없고 전개될 수도 없다. 이러한 말은 우리가 사물을 이해할 수 있도록 '표시하는 힘'뿐만 아니라, 사물을 언제나 일정한 각도에서 드러내는 '표현하는 힘'을 가졌으며, 또한 현실의 숨은 깊이를 밝히는 '창조적인 힘'을 가졌다. 말은 우리의 논리적인 이성의 조작품이 아니고, 우리의 역사적인 삶의 피조물인 동시에 우리의 역사적인 삶의 창조주이다. 우리는 말 이전의 현실을 모른다. 그것은 어둠이며 혼돈이다. 말을 통해서 이 어둠과 혼돈 속에 빛이 나타나고, 이 빛을 통해서 우리의 세계가 드러나고 현실이 창조되었다. 그리고 우리는 말을 따라서 생각하고 말의 빛을 밝힘으로써 알게 되며, 말의 울타리 안에 살게 된다. 말은 이렇게 우리 열의 집이기 때문에 우리 열이 빛을 발할 수 있고, 열의 생명이 거기에 깃들어 있는 것이다.

5.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2점]

- ① 살아 있는 말을 떠나서는 참다운 철학을 하기가 어렵다.
- ② 말은 거래의 미래를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에게 열어준다.
- ③ 철학자는 말의 경화와 의미 상실을 통해 큰 고통을 경험하기도 한다.
- ④ 말의 의미를 규정하기 위해서는 현실의 복잡한 구조를 고려해서는 안 된다.
- ⑤ 철학자들은 전통적인 말들 속에 담겨져 있는 숨은 의미를 논리적으로 전개시켜야 한다.

6.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그 말은 과학적이고 논리적이 되며
- ② 그 말은 창조적인 힘의 기초를 얻게 되고
- ③ 그 말은 이미 생산적인 힘을 잃어버리게 되고
- ④ 그 말은 다의성(多義性)이라는 결함을 극복하게 되고
- ⑤ 그 말은 현실의 물체에 대해 정확한 의미 규정을 하게 되고

7. <보기>는 '말'에 대한 사전의 뜻풀이이다. ㉡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2점]

—<보 기>—

말 ㉡ ㉠ 사람의 생각이나 느낌 따위를 표현하고 전달하는데 쓰는 음성 기호. 곧 사람의 생각이나 느낌 따위를 목구멍을 통하여 조직적으로 나타내는 소리. ㉢ 말을 못하는 병어리. ㉣ 음성 기호로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하고 전달하는 행위. 또는 그런 결과물. ㉤ 말이 거칠다. ㉥ 일정한 주제나 줄거리를 가진 이야기. ㉦ 말을 꺼내다. ㉧ 단어, 구, 문장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 ㉨ 적절한 말을 찾다. ㉩ 소문이나 풍문 따위를 이르는 말. ㉪ 말이 퍼지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8. 위 글의 논지 전개 과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때, [A]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3점]

(가) 오래된 낡은 말도 새로운 의미의 말로 거듭날 수 있다.



(나) [A]



(다) 말은 그 생동적 힘에 의해 깊은 의미가 거듭해서 밝혀지게 된다.



(라) 말은 현실을 묘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역사적인 삶을 창조하기도 한다.

- ① 우리는 낡은 말의 생동성을 살리고 창조적인 힘을 발휘시켜야 한다.
- ② 말의 경화와 의미 상실은 우리의 노력에 의해 충분히 극복될 수 있다.
- ③ 말의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일의적으로 고정시켜야 한다.
- ④ 철학적인 의미를 표현하는 말들은 그 생동성과 깊이를 잃어버리지 않는다.
- ⑤ 말의 다의성(多義性)은 논리적으로 철학을 함에 있어 큰 방해 요소가 된다.

[9 ~ 12] 다음 시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A] 나는 죄인처럼 수그리고
 나는 꼬끼리처럼 말이 없다.
 두만강 너 우리의 강아.
 너의 언덕을 달리는 찻간에
 조그마한 자랑도 자유도 없이 앓았다.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다면
 너의 가슴은 열었으리라.
 그러나
 나는 안다.
 다른 한 줄 너의 흐름이 쉬지 않고
 바다로 가야 할 곳으로 흘러내리고 있음을.

지금
 차는 차대로 달리고,
 바람이 이리처럼 날뛰는 강 건너 별판엔
 나의 젊은 냇이
 무엇인가 기다리는 듯 얼어붙은 듯 섰으니
 육된 운명은 밤 위에 밤을 마련할 뿐.

잠들지 마라 우리의 강아.
 오늘밤도
 너의 가슴을 밟는 못 슬픔이 목마르고
 얼음길은 거칠다 길은 멀다.

길이 마음의 눈을 덮어 줄
 ㉠ 검은 날개는 없느냐.
 두만강 너 우리의 강아.
 북간도로 간다는 ㉡ 강원도치와 마주 앉은
 나는 울 줄을 몰라 외롭다.
 — 이용악, <두만강 너 우리의 강아>

(나)

나는 이제 너에게도 ㉢ 슬픔을 주겠다.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을 주겠다.
 겨울밤 거리에서 굴 몇 개 놓고
 살아온 추위와 떨고 있는 할머니에게
 굴값을 깎으면서 기뻐하던 너를 위하여
 나는 슬픔의 평등한 얼굴을 보여 주겠다.
 내가 어둠 속에서 너를 부를 때
 단 한 번도 평등하게 웃어 주질 않은
 가마니에 덮인 동사자가 다시 얼어 죽을 때
 가마니 한 장조차 덮어 주지 않은
 무관심한 너의 사랑을 위해
 흘릴 줄 모르는 너의 눈물을 위해
 나는 이제 너에게도 기다림을 주겠다.

이 세상에 내리던 함박눈을 멈추겠다.
 보리밭에 내리던 봄눈들을 데리고
 추위 떠는 사람들의 슬픔에게 다녀와서
 눈 그친 눈길을 너와 함께 걷겠다.
 슬픔의 힘에 대한 이야기길 하며
 기다림의 슬픔까지 걸어가겠다.
 — 정호승, <슬픔이 기쁨에게>

(다)

㉣ 어제를 동여맨 편지를 받았다.
 늘 그대 뒤를 따르던
 길 문득 사라지고
 길 아닌 것들도 사라지고
 여기저기서 어린 날
 우리와 놀아 주던 돌들이
 얼굴을 가리고 박혀 있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추위 가득한 저녁 하늘에
 찬찬히 깨어진 금들이 보인다.
 성긴 눈 날린다.
 땅 어디에 내려앉지 못하고
 눈 뜨고 떨며 한없이 떠 다니는
 ㉤ 몇 송이의 눈.
 — 황동규, <조그만 사랑 노래>

9. (가)~(다)의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점]

- ① (다)는 시각적 이미지를 통하여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
- ② (가)는 반어적인 표현 기법으로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다.
- ③ (가)와 (다)의 시적 화자는 상황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 ④ (가)에는 대상에 대한 바람이, (나)에는 비판이 드러나고 있다.
- ⑤ (나)는 역설적 표현과 함께 자연물을 상징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10. ㉠ ~ ㉤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2점]

- ① ㉠ - 괴로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은 시적 화자의 소망이 나타난다.
- ② ㉡ - 고향을 상실하고 낯선 땅을 떠돌아야 하는 유이민의 모습이다.
- ③ ㉢ - 이웃에 대한 사랑을 깨닫게 해 주겠다는 의미의 표현이다.
- ④ ㉣ - 과거의 상실과 과거와의 단절을 의미한다.
- ⑤ ㉤ - 화자의 아픔을 감싸주고 위로해 주는 존재이다.

11. <보기>의 화자 [갑]이 (나)의 ‘너’ [을]과 대화를 한다고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벼는 서로 어우러져
기대고 산다.
햇살 따라워질수록
깊이 익어 스스로를 아끼고
이웃들에게 저를 맡긴다.

서로가 서로의 몸을 묶어
더 튼튼해진 백성들을 보아라
죄도 없이 죄지어서 더욱 불타는
마음들을 보아라 벼가 춤출 때
벼는 소리 없이 떠나간다.

벼는 가을 하늘에도
서러운 눈 씻어 맑게 다스릴 줄 알고
바람 한 점에도
제 몸의 노여움을 댔는다.
저의 가슴도 더운 줄을 안다.

벼가 떠나가며 바치는
이 넓디넓은 사랑
쓰러지고 쓰러지고 다시 일어서서 드리는
이 피 묻은 그리움,
이 넉넉한 힘…….

— 이성부, <벼>

- ① 갑 : 이웃과 어우러져 살아가는 삶에서 큰 힘과 희망을 얻게 된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 ② 을 :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므로 나 자신에 대한 사랑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 ③ 갑 : 남을 위해 인내와 희생을 하며 살다보면 겸손해지고, 어려움도 잘 헤쳐 나갈 수 있습니다.
- ④ 을 :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세상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 ⑤ 갑 : 현실적인 이익도 중요하지만 내세를 위해 이웃을 돌보며 살아보세요.

12. (가)의 화자가 [A]에서 드러내고 있는 정서와 유사한 것은? [3점]

- ① 흥안령(興安嶺) 가까운 북변(北邊)의 /
이 광막(曠漠)한 벌판 끝에 와서 /
죽어도 뉘우치지 않으려는 마음 위에 /
오늘은 이레째 암수(暗愁)의 비 내리고 /
내 망나니의 본받아 / 화투장을 뒤치고 /
담배를 눌러 꺼도 / 마음은 속으로 끝없이 울리노니 /
아아 이는 다시 나를 과실(過失)함이러노.
— 유치환, <광야에 와서>
- ② 그러는 동안에 드디어 서른 여섯 해가 지나갔다. //
다시 우리러보는 이 하늘에 /
겨울 밤 달이 아직도 차거니 /
오는 봄엔 분수(噴水)처럼 쏟아지는 태양을 안고 /
그 어느 언덕 꽃덤불에 아늑히 안겨 보리라.
— 신석정, <꽃덤불>
- ③ 봄 한철 / 걱정을 인내한 / 나의 사랑은 지고 있다. //
분분한 낙화... /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에 싸여 /
지금은 가야할 때 //
무성한 녹음과 그리고 / 머지않아 열매 맺는 /
가을을 향하여 //
나의 청춘은 꽃답게 죽는다.
— 이형기, <낙화>
- ④ 아, 여기 누가 / 성(性)보다 깨끗한 짐승들을 몰고 오나 /
저무는 도시와, / 병든 땅엔 / 머먼 수평선을 그어 두고 /
오오오오 기쁨에 사나운 짐승들을 /
누가 이리로 몰고 오나 / 아, 여기 누가 /
죽음 위에 우리의 꽃들을 피게 하나.
— 김현승, <파도>
- ⑤ 가난이야 한낱 남루(襤褸)에 지나지 않는다. /
저 눈부신 햇빛 속에 갈매빛의 등성이를 드러내고 서 있는 /
여름 산(山) 같은 /
우리들의 타고난 살결, 타고난 마음씨까지야 다 가릴 수
있으랴. //
청산(靑山)이 그 무릎 아래 지란(芝蘭)을 기르듯 /
우리는 우리 새끼들을 기를 수밖에 없다.
— 서정주, <무등을 보며>

[13 ~ 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미술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는가? 미술이란 우리에게 본질적이면서도 파악하기 어려운 사고와 신념, 가치관을 구체화하는데 도움이 되는 시각적 장치를 제공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미술은 의사전달의 수단으로 작용하여 내면의 진실을 외부로 드러내는 표지로서의 역할을 한다. 하지만 명백한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텔레비전과 달리 미술은 신비에 싸인 것을 탐구해 나가는 것이다.

미술가들은 감상자가 그들 자신의 생활과 직접 연관시킬 수 있도록 실제의 체험을 꾸밈없이 표현한 사실적 이미지를 사용할 것을 주장해 왔다. 파블로 피카소가 대단한 인기를 누릴 수 있었던 한 가지 요인은 그가 작품에서 현실 세계에 대해 언급하기를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 그는 전례없는 독창성을 획득하면서도 사실주의의 외양을 계속 유지하였다. 그 결과 알아볼 수 있는 형상을 보고 싶어하는 관람자들과 창조적 탁월함을 찬미하는 관람자들 모두를 자신의 애호가로 만들 수 있었다. 반면에 어떤 미술가들은 기계시대 역동성의 본질적이면서도 눈에는 보이지 않는 성격을 드러내고, 불안감 혹은 불의에 대한 분노와 같은 감정을 따로 분리하여 표현하기 위해 추상에 의지했다.

한편 현대 작가들은 계속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지구촌의 아주 미미한 한 구성원으로서 자신에 대한 자의식의 또 다른 반응으로, 자기 자신의 독특한 개성을 주장해야 한다고 느끼며, 자신만의 고유한 주제나 재료, 기법을 구축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가운데 매우 개인적인 양식을 창조하게 되었다. 이러한 미술은 작품 감상자들에게 상당한 부담이 되었다.

다양한 표현 수단은 현대 사회의 창의성과 혁신성을 추구하는 경향 때문에 장려되기도 하였다. 미친 듯이 옛 방식을 폐기해 버리고, 뒤쫓아다니는 옛 기억들을 불태워 버리며, 미술을 새롭게 구축(構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가운데 '모더니즘'이 생겨났다. 모더니즘은 태양 아래 새로운 것을 찾아내려는 의무감과 불굴의 의지로 가득찬 탐구였다. 모더니즘의 역사는 미술의 역할이나 기법, 파라미터* 그리고 의미에 대한 재정의의 역사이다. 당연히 예술적 전통이나 현재의 제 조건들은 아무런 구속력을 지니지 못하였다. 미술가들도 과학자들과 마찬가지로 어떤 한계나 불가능도 믿지 않으려 했으며 한계를 타개하고 예상을 뛰어넘으려 노력해 왔다.

현대의 미술가들은 20세기의 특징인 테크놀로지를 미술에 도입했다. 그들은 과학기술이 제공하는 어떤 새로운 매체나 재료에도 개방적이었으며, 특히 이제까지 아무도 그 재료를 사용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 보지 않았던 것이라면 더욱 관심을 가졌다. 그리하여 미술가들은 카메라를 사용하는 다양한 방법을 착안하기 시작했으며, 네온으로 채색을 하였고, 컴퓨터로 선을 그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러나 기계나 기계적 방법을 사용하여 작품을 제작하게 되자 예술에 있어서 기교라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재정의가 내려지게 되었다. 사실상 많은 미술가들이 기술적 지식과 그 구사에 대해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으며, 기교라는 것은 더 이상 예술성을 판단하는 엄밀한 기준이 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런 사실이 재료에 대한 무관심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미술가들은 자신이 사용하는 재료인 물감뿐만 아니라 여러 종류의 천연 물질과 인공 물질, 고도의 전자 제품들에 이르는 다양한 재료의 감각적 특성을 감지하는 데에 포도주 감별사와도 같은 예민함을 보여 왔다. 과학기술 특히 통신 매체의 내용과 형식에 매료되자, 비디오나 컴퓨터로 조작하는 것과 같은 전혀 새로운 형태의 미술과 팝아트에서 보이는 것과 같은 새로운 이미지와 기법이 생겨나게 되었다.

이런 상황은 오늘날의 미술이 왜 이전의 미술과 달라 보이는지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우리가 혼란스러워하는 몇 가지 이유를 해명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미술에 대해 안다는 것은 일반적인 지식이 아니라, 특별히 습득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적어도 상당한 양의 체험과 경험을 요구하는 하나의 기술을 습득한 것이다. 그리하여 미술은 의학을 전공하는 것이나, 또는 피아트 자동차는 수리하지 못하고 시보레만을 수리할 수 있는 기계공의 작업과 다르지 않은 일이 되어 버렸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 활동 분야에서는 이런 전문화 현상을 받아들이면서도, 미술의 전문화 현상으로 인한 괴리감이나 생소함에 거부감을 갖는다.

미술의 전문화 현상이 야기하는 문제의 핵심은 대개의 경우 미술의 중심 대상이 '사물'에서 '아이디어'로 대체되었다는 사실이다. 분명히 이것은 어느 정도 실망스러운 변화이다. 우리가 아끼고 사랑할 수 있는 놀랍고 의미심장한 사물은 어디에 있던 말인가? 하지만 아이디어에 근거한 미술이 가지는 힘은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뉴스 보도는 본질적으로 정보를 우리가 소화하기 쉬운 상태로 제공해 주는 반면, 현대 미술은 그 내용을 우리 스스로 씹어서 소화시키도록 요구한다. 뉴스 보도는 어떤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해주지만, 예술성이 뛰어난 미술은 구체적인 것, 명료한 것을 넘어서 개념이나 함축적 의미로 가득 차 있다. 시각과 촉각, 청각이 복합된 정보에 깊이 몰두하여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내용 즉 아이디어를 분명히 밝혀가면서 우리는 그 작품이 지닌 미적인 매력을 발견하게 된다. 이렇게 창조적 사고는 작품 감상의 핵심을 이룬다.

*파라미터 : 매개변수. 재료.

13.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2점]

- ① 현대의 미술 작품을 감상할 때에는 창조적 사고를 바탕으로 작품에 접근해야 한다.
- ② 현대 사회의 창의성과 혁신성을 추구하는 경향 때문에 다양한 표현 수단이 나타났다.
- ③ 전문화된 현대 미술에서 느끼는 괴리감이나 생소함을 사람들은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
- ④ 현대의 미술가들에게 기교라는 것은 더 이상 예술성을 판단하는 엄밀한 기준이 되지 못한다.
- ⑤ 현대 미술에서는 과거와 전혀 다른 새로운 형태의 미술과 새로운 이미지와 기법이 생겨나게 되었다.

14. ㉠과 가장 잘 어울리는 한자 성어는? [2점]

- ① 화룡점정(畫龍點睛)
- ② 어부지리(漁父之利)
- ③ 양수겸장(兩手兼將)
- ④ 이구동성(異口同聲)
- ⑤ 온고지신(溫故知新)

15. 위 글에서 글쓴이가 제시한 현대 미술의 감상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대상을 얼마나 추상화하여 표현했는지를 살핀다.
- ② 전통적인 표현 기법을 어떻게 변용시키고 있는지 확인해 본다.
- ③ 정보화 매체들을 어떤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는지 점검해 본다.
- ④ 불안감이나 분노 등 어떤 심리적인 태도가 드러나는지 확인해 본다.
- ⑤ 작품에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숨겨진 작가의 의도를 추리해 본다.

16. 많은 텔레비전을 포개어 다양한 이미지들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백남준의 '비디오 아트'를 위 글의 관점에서 평가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예술가 자신만의 고유한 기법과 재료를 찾는데 성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② 텔레비전을 이용하여 뉴스 보도처럼 정보를 직접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대중성을 높였다.
- ③ 작품에 담겨진 개념이나 함축적 의미를 밝혀가다 보면 독특한 미적 매력을 느낄 수 있다.
- ④ 우리의 사고와 신념, 가치관을 구체화하는데 도움이 되는 독특한 시각적 장치를 제공한 것이다.
- ⑤ 새로운 소재에 대한 탐구에서 비롯된 것으로 과학기술이 제공하는 새로운 매체를 적극적으로 수용했다.

[17 ~ 20] 다음 작품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어름 우희 땃넙 자리 보와 님과 나와 어러 주글망뎡
어름 우희 땃넙 자리 보와 님과 나와 어러 주글망뎡
정(情) 둔 오늬밤 더디 세오시라 더디 세오시라

경경(耿耿)* 고침상(孤枕上)*에 어느 즈미 오리오.
서창(西窓)을 여러흐니 도화(桃花)ㅣ 발(發)호도다.
도화(桃花)는 시름 업서 소춘풍(笑春風)호는다 소춘풍
(笑春風)호는다

녁시라도 님을 혼디 녀넛 경(景) 너기다니
㉠ 녁시라도 님을 혼디 녀넛 경(景) 너기다니
벼기시더니 뉘러시니잇가 뉘러시니잇가

올하 올하 아련 비올*하
여흘란 어디 두고 소*해 자라 온다.
소랏 열면 여흘도 도하니 여흘도 도하니.
(후략)

(나) 서경(西京)이 아즐가 서경이 서울히 마르느
닷곤디 아즐가 닷곤디 쇼성경 고요마른*
여히므론 아즐가 여히므론 질삼피 브리시고
괴시란디 아즐가 괴시란디 우리곰 좃니노이다.
(중략)

대동강(大洞江) 아즐가 대동강 너븐디 몰라서
빅 내어 아즐가 빅 내어 노흔다 샤공아
네 가지 아즐가 네 가지 림난디* 몰라서
넬빅에 아즐가 넬빅에 연즌다 샤공아
대동강 아즐가 대동강 건넌편 고즐어
빅타들면 아즐가 빅타들면 것고리이다 나는

(다) 킷도리 저 킷도리 어엿부다 저 킷도리
어인 ㉡ 킷도리 지는 들 새논 밤의 긴 소리 자른 소리
절절(節節)이 슬픈 소리 제 혼자 우리 네어 사창(紗窓)
여윈 즘을 슬쁘리도 썬오논고야
두어라, 제 비록 미물(微物)이나 무인동방(無人洞房)에
내 뜻 알리는 너 썬인가 호노라.

*경경(耿耿) : 근심이 많은.
*고침상(孤枕上) : 외로운 베갯머리(잠자리).
*비올 : 비오리.
*소 : 연못.
*고요마른 : 사랑하지마는.
*림난디 : 음란한 줄.

17. (가) ~ (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가), (나)의 화자 모두 주어진 이별의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 ② (나)와 (다)에는 화자가 여성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뚜렷한 단서가 있다.
- ③ (다)와 같은 비교적 자유로운 형식은 작가의 뜻을 넓히는 데에 기여하였다.
- ④ (가)와 (나)에는 님이 다른 여인을 탐하는 것을 염려하는 상징적인 표현이 보인다.
- ⑤ (가)에는 시조의 형식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어 시조 발전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18. <보기>는 ㉠에 나타난 화자의 태도에 대한 설명이다. 밑줄 친 부분과 예시된 시가와의 연결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우리 고전 시가에 유달리 많이 나타나는 정조는 ㉠ 이별의 정한이다. 그러나 그 이별의 정한이 슬픔으로만 끝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영원한 사랑으로 승화되어 나타난다.

우리 시가에서는 주로 여성 화자를 빌어 그리움과 이별의 정한을 표현한 후, ㉡ 재회를 간절히 염원한다. 그러나 곧 시적 화자들은 ㉢ 재회의 어려움을 자각하게 되며, 그 결과 체념하거나 새로운 형태의 만남에 대한 염원을 갖게 된다. 현실적으로 다시 만날 수 없다면 ㉣ 육체가 아닌 영혼으로도 만나겠다는 욕망이 바로 그것이다. 때로는 ㉤ 님이 알아보지 못하는 다른 형태로 변화하여서라도 님과 함께 하고 싶어하는 간절한 욕망, 그것이 우리 시가에 나타나는 절절하고 영원불멸한 사랑이다.

- ① ㉠ - 어저, 내 일이야 그럴 줄을 모르드나.
이시라 후더면 가라마는 제 구투어
보내고 그리는 정(情)은 나도 몰라 호노라.
— 황진이 시조
- ② ㉡ - 잠스와 두어리마는 / 선후면 아니올세라//
설은님 보내옵노니 / 가시는 듯 도셔 오쇼셔
— 고려가요, <가시리>
- ③ ㉢ - 막음이 어린 후(後) | 니 호는 일이 다 어리다.
만중운산(萬重雲山)에 어니 님 오리마는
지는 님 부는 바람에 행어 권가 호노라.
— 서경덕 시조
- ④ ㉣ - 칠월(七月)ㅅ 보로매 아으 백종(百種) 배(排) 호야 두고,
니를 후터 너가져 원(願)을 비습노이다.
— 고려가요, <동동>
- ⑤ ㉤ - 출하리 석어디어 범나비 되오리라.
곳나모 가지마다 간디 족족 안니다가
향 뜨든 놀애로 님의 오시 올드리라
님이야 날인 줄 모르셔도 내 님 조츠려 호노라.
— 정철의 가사, <사미인곡>

19. ㉠과 유사한 시적 기능을 수행하는 시어는? [2점]

— <보 기> —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
허공 중에 헤어진 이름이여!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여!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심중에 남아 있는 말 한 마디는
끝끝내 마저 하지 못하였구나.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붉은 해는 서산 마루에 걸리었다.
사슴의 무리도 슬피 운다.
떨어져 나가 앉은 산 위에서
나는 그대의 이름을 부르노라.

설움에 겹도록 부르노라.
설움에 겹도록 부르노라.
부르는 소리는 비껴가지만
하늘과 땅 사이가 너무 넓구나.

선 채로 이 자리에 돌이 되어도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 김소월, <초혼>

- ① 이름
- ② 서산
- ③ 사슴
- ④ 소리
- ⑤ 돌

20. (가) ~ (다)의 화자들이 대화를 나누다고 할 때, 시의 내용으로 보아 적절하지 않은 것은? [2점]

- ① (가) - 님과 함께 했던 시간은 너무나 행복했는데 이제 님은 가고 없어 홀로 지내는 밤은 슬픔만 가득합니다.
- ② (다) - 그렇지 않아도 님 생각에 잠을 못 이루고 있는데 귀뚜라미가 내 마음을 더 아프게 해서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 ③ (나) - 그랬군요. 저는 님을 태우고 가는 뱃사공이 원망스러웠어요. 한번 가면 다시 제게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아서요.
- ④ (가) - 저의 님은 님이 되어서도 영원히 함께 하자고 굳게 언약했는데 그렇게 굳은 약속을 저버리고 떠나고 말았습니다.
- ⑤ (나) - 그랬군요. 사랑에 모든 것을 걸고 이제까지 살아오던 방식도 버리고 님을 따르고자 했는데, 저의 님도 무정하게 떠나버리더군요.

[21 ~ 2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정보사회를 어떻게 자리매김할 것인가의 논제는 크게 낙관론과 비관론으로 나뉘어서 전개되고 있다. 실제로 정보사회만큼 그 성격과 전망에 대해 낙관과 비판의 첨예한 논쟁을 보이고 있는 테마도 없을 것이다. 낙관론의 입장은 산업사회와 자본주의의 문제점들이 정보사회에 이르러 대부분 해소된다는 것이다. 극단적으로 컴퓨터와 유토피아의 합성어인 이른바 ㉠ 컴퓨터피아(Computopia)가 실현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실사 컴퓨터피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자본주의사회의 불평등과 갈등이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고 본다. 낙관론의 근거에는 정보사회가 산업사회나 자본주의사회와는 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사회의 도래라는 입장이 깔려 있다. 사회변동의 측면에서 ㉡ 정보사회의 사회적 독자성을 뚜렷이 인정하는 입장이다.

반면 비관론은 정보사회가 결코 새로운 사회가 아니라는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정보사회는 정보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후기 자본주의의 구조적 모순을 봉합하기 위해 등장한 사회이므로 자본주의사회와 다를 것이 없으며, 자본주의적 사회구성이 안고 있는 구조적 모순을 그대로 배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정보사회가 자본주의사회의 연장에 불과한 만큼 ㉢ 자본주의적 모순과 병폐를 그대로 ㉣ 안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더욱 악화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따라서 자본주의와 마찬가지로 극복하여야 할 대상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계급간 불평등이나 권력의 독점과 같은 현상이 정보사회라고 해서 결코 수그러들지 않는다고 강변하고 있다.

첨예한 입장 차이는 경제, 정치, 사회,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 경제 분야의 경우, 한편에서는 정보기술의 발달이 시장정보를 신속하고 광범하게 확산 시킴에 따라 시장은 점점 더 효율적인 ㉤ 완전경쟁 모델에 가까워질 것이고, 따라서 시장의 온갖 효율성이 결국은 전체 경제를 몰가 상승이나 실업의 위협 없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세로 이끌어갈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정보기술의 발달로 인해 대규모 금융자본의 이동이 더욱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이에 따라 세계경제는 점점 더 국제 금융자본의 단기적인 이해관계에 휘둘리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자본주의의 고질적인 병폐라고 할 수 있는 경기변동의 진폭과 그 파괴력만 더욱 커지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외에도 경제적 불평등은 완화되는가 아니면 악화되는가 등의 논제들이 쟁점화되고 있다.

정보화의 정치 분야의 쟁점은 민주주의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것이다. 정보기술의 진화로 말미암아 지배집단에 대해 자신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낼 수 있다는 입장과, 이와 반대로 지배자의 통제와 감시 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사회 분야의 쟁점은 공동체의 해체가 아니면 강화인가에 놓여 있다. 전자는 전자 커뮤니케이션의 발달로 일면적-단편적-선정적으로 왜곡된 의사소통이 확산되며, 대면적-정서적-전인격적 의사소통을 주축으로 하는 전통사회는 와해된다는 주장이다. 반대로 권위나 인격의 제약이 심했던 전통적 공동체와 달리 전자 커뮤니케이션의 특징인 평등성, 쌍방향성, 익명성, 분산성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을 통해 탄생한 가족 공동체에서는 진정한 의미의 가족 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화 분야의 쟁점은 문화의 다양화와 획일화이다. 누구나 원하는 정보와 메시지를 만들 수 있다는 측면에서 문화의 생산자와 소비자가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다양화 논자와, 특정 국가 중심의 거대기업이 뉴미디어 분야를 통합하는 추세로 가고 있다는 획일화 논자들의 주장이 상충되고 있다.

정보사회를 둘러싼 낙관론과 비관론의 첨예한 대립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어떤 문명에서도 그것이 바람직하고 이상적인 문명사가 되기 위해서는 생산력의 증대와 인간성의 회복이 담겨야 한다. 정보혁명에 의한 새로운 생산력의 모색은 한편으로 과거 시대의 질곡이 극복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역사 진행의 긍정적인 모습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또 다른 구획을 만드는 불확실성의 확대라는 측면이 있음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 정보화의 이중성 말이다. 정보화로 인해 장밋빛 미래가 도래할 것이라는 시각이 기술결정론, 기술공학적 유토피아론, 기술낙관론으로 비판받아야 함과 마찬가지로, 부정적이고 암울한 결과만을 강조하는 것도 그 반대의 극단에 속하는 것으로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정보혁명이 만들어내는 가공할 생산력의 증대와 취약한 인간성의 심연(深淵)을 동시에 목격하고 있다. 문명사적 관점에서 제기되는 정보사회의 과제는 정보화의 기술·경제적 추진력과 사회·문화적 견인력 간의 균형을 유지하며, 인간이 정보화의 부속물이 아니라 스스로 주인이 되는 휴머니즘의 복원 문제로 귀결된다.

21. 위 글을 주제로 토론을 하기 위해 초청장을 보낸다고 할 때, 제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정보사회의 쟁점과 전망
- ② 정보사회의 미래와 발전 방향
- ③ 정보사회의 현안과 정부의 역할
- ④ 정보사회의 성격과 우리의 자세
- ⑤ 정보사회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22. 정보사회에 대한 비관론자들의 주장과 일치하지 않은 것은? [2점]

- ① 정보기술의 발달로 계급의 세분화 현상이 심화될 것이다.
- ② 정보사회에서는 정서적 의사소통의 기회가 크게 축소될 것이다.
- ③ 정보기술의 발전이 민주주의의 발전에 저해가 될 가능성이 많다.
- ④ 소수의 거대기업에 의해 문화 시장의 독점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
- ⑤ 대규모 금융자본의 이동으로 인한 경기변동의 진폭이 확대될 것이다.

23. 위 글을 수업 시간에 설명한 후 학생들에게 ㉠ ~ ㉣에 관해 질문을 하였다. 답변한 내용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 - 자본주의사회의 문제점이 해소된 정보화 사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 ② ㉡ - 같은 시대의 다른 분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독자적인 성격을 지닌다는 의미입니다.
- ③ ㉢ - 자본주의의 구조적 특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 ④ ㉣ - 시장 정보가 신속, 광범하게 전달되어 생산과 소비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델입니다.
- ⑤ ㉤ - 정보화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뜻하는 말입니다.

24. 밑줄 친 ㉠ 과 그 용법이 같은 것은? [2점]

- ① 아기를 품에 안고 발걸음을 옮겼다.
- ② 바위 위에 무릎을 세워 안고 앉았다.
- ③ 햇빛을 안고 운전을 하려니 눈이 시리다.
- ④ 큰 빛을 안고 이 집을 산 까닭에 부담이 크다.
- ⑤ 산을 안고 흐르는 그 강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25 ~ 2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주요 내용>

조선 인조 때, 박 처사는 딸을 둘 두었는데, 둘째 딸의 배필이 병조판서 이득춘의 아들 이시백임을 알고 청혼한다. 남편은 박씨가 박색임을 알고 대면조차 하지 않았는데, 박씨는 시아버지에게 청하여 후원에 피화당을 짓고 시비 계화와 지낸다. 박씨는 3년 뒤 액운을 벗고 아름다운 자태를 드러내어 화목하게 잘 살게 된다. 그 뒤 중국의 용울대·용골대 형제가 3만의 병사를 이끌고 조선을 침략했을 때, 박씨는 남자보다 뛰어난 기상으로 오랑캐의 침입을 막아낸다.

차설(且說), 울대 군중에 영(승)하여 일시에 불을 지르니, 화약이 터지는 소리 산천이 무너지는 듯하고, 불이 사면으로 일어나며 화광이 충천하니, 부인이 계화를 명하여 부적을 던지고, 좌수에 홍화선(紅花扇)을 들고, 우수에 백화선(白花扇)을 들고, 오색 실을 매어 화염 중에 던지니, 문득 피화당(避禍堂)으로부터 대풍이 일어나며, ㉠ 도리어 호진(胡陣) 중으로 불길이 돌치며 호병(胡兵)이 화광(火光) 중에 들어 천지를 분별(分辨)치 못하며 불에 타 죽는 자가 부지기수(不知其數)라. 울대 대경(大驚)하여 급히 퇴진(退陣)하며 양천 탄식(仰天歎息)하여 가로되,

“기병(起兵)하여 조선에 나온 후 병불혈인(兵不血人)*하고 방포 일성(放砲一聲)에 조선을 도모(圖謀)하였으나, 이 곳에 와 여자를 만나 불쌍한 동생을 죽이고 무슨 면목으로 임금과 귀비(貴妃)를 뵈오리오.”

통곡함을 마지 아니하거늘, 제장(諸將)이 호언(好言)으로 권위(縉慰)*하며 의론(義論) 왈,

“아무리 하여도 그 여자에게 보수할 수는 없사오니 퇴군(退軍)하느니만 같지 못하다.”

하고, ㉡ 왕비와 세자·대군과 장안 물색(長安物色)을 거두어 행군하니, 백성의 울음소리 산천이 움직이더라. 차시 박 부인이 계화로 하여금 적진을 대하여 크게 외쳐 왈,

“무지한 오랑캐놈아. 내 말을 들으라. 너의 왕은 우리를 모르고 너 같은 구상유취(口尙乳臭)를 보내어 조선을 침노하니, 국운이 불행하여 패망은 당하였거니와 무슨 연고로 아국 인물을 거두어 가려 하느냐. 만일 왕비를 뵈셔 갈 뜻을 두면 너희 등을 함몰할 것이니 신명을 돌아보라.”

하거늘, 호장(胡將)이 차언(此言)을 듣고 소왈(笑曰),

“너의 말이 가장 녹록(碌碌)*하도다. 우리 이미 조선 왕의 항서(降書)를 받았으니, 테러가기와 아니 테러가기는 우리 장중(掌中)에 달렸으니 그런 말은 구차(苟且)히 말라.”

하며, 능욕(凌辱)이 무수하거늘 계화가 일러 왈,

“너희 등이 일향(一向) 마음을 고치지 아니하나 나의 재주를 구경하라.”

하고, 언파(言罷)에 무슨 진언(眞言)을 외오더니, ㉠ 문득 공중으로 두 줄 무지개 일어나며 우박이 닦아 붓듯이 오며 순식간에 급한 비와 설풍(雪風)이 내리고 얼음이 얼어, 호진장졸(胡陣將卒)이며 말굽이 얼음에 붙어 떨어지지 아니하여 촌보(寸步)를 운동치 못할지라. 호장이 그제서야 깨달아 가로되,

“당초에 귀비 분부하시되 ‘조선에 신인(神人)이 있을 것이니, 부디 우의정 이시백의 후원을 범치 말라.’ 하시거늘, 우리 일찍 깨닫지 못하고 또한 일시지분(一時之憤)을 생각하여 귀비의 부탁을 잊고 이 곳에 와서 도리어 양화(殃禍)를 받아 십만 대병을 다 죽일 뿐이라, 골대도 무죄히 죽고 무슨 면목으로 귀비를 뵈오리요. 우리 여차(如此)한 일을 당하였으니 부인에게 비느니만 같지 못하다.”

하고, ㉡ 호장 등이 갑주(甲冑)를 벗어 안장에 걸고 손을 묶어 팔문진(八門陣) 앞에 나아가 복지 청죄(伏地請罪)*하여 가로되,

“소장(小將)이 천하에 횡행(橫行)하고 조선까지 나왔으며 무릎을 한 번 꿇은 바가 없더니 부인 장하(帳下)에 무릎을 꿇어 비나이다.”

하며, 머리 조아려 애걸하고 또 빌어 가로되,

“왕비는 아니 되서 가리이다. 소장 등으로 길을 열어 돌아가게 하옵소서.”

하고, 무수히 애걸하거늘 부인이 그제야 주렴(珠簾)을 걷고 나오며 대질(大叱) 왈,

“㉢”

한대, 울대 다시 애걸 왈,

“소장의 아우의 머리를 내어 주시면 부인 덕택으로 고국에 돌아가겠나이다.”

부인이 대소 왈,

“옛날 조양자(趙襄子)는 지백(知伯)의 머리를 옷칠하여 술잔을 만들어 이전 원수를 갚았으니, ㉣ 나도 옛날 일을 생각하여 골대 머리를 옷칠하여 남한산성에 패한 분(憤)을 만분지일이나 풀리라. 너의 정성은 지극하나 각기 그 임금 섬기기는 일반이라. 아무리 애걸하여도 그는 못 하리라.”

울대 차언을 듣고 분심(忿心)이 충천하나 골대의 머리만 보고 대곡(大哭)할 따름이요, 하릴없어 하직하고 행군하려 하니 부인이 다시 일러 왈,

“행군하되 의주로 행하여 임 장군을 보고 가라.”

울대 그 비계(秘計)를 모르고 내념(內念)에 헤오되,

“우리가 조선 임금의 항서를 받았으니 서로 만남이 좋다.”

하고, 다시 하직하고 세자·대군과 장안 물색(長安物色)*을 데리고 의주로 갈 때, 잡혀 가는 부인들이 하늘을 우러러 통곡하여 왈,

“박 부인은 무슨 복으로 화를 면하고 고국에 안한(安閑)이 있고, 우리는 무슨 죄로 만리 타국에 잡혀 가는고. ㉤ 이제 가면 하일 하시(何日何時)에 고국산천을 다시 볼꼬.”

하며, 통곡 유체(痛哭流涕)하는 자가 무수하더라. 부인이 계화로 하여금 외쳐 가로되,

“인간 고락은 사람의 상사(常事)라. 너무 슬퍼 말고 들어가면 삼년지간에 세자·대군과 모든 부인을 뵈서 올 사람이 있으니 부디 안심하여 무사득달(無事得達)하라.”

위로하더라.

*병불혈인(兵不血人) : 군사 중에 피 흘린 자가 없음.
 *권위(纒慰) : 위로하다.
 *장안 물색(長安物色) : 한양에서 약탈한 물건들.
 *녹록(碌碌) : 변변치 못함.
 *복지 청죄(伏地請罪) : 땅에 엎드려 죄를 청함.

25. <보기>의 설명을 고려할 때, 이 작품의 주제 의식과 거리가 먼 것은? [2점]

— <보 기> —

이 작품은 병자호란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하여 창작된 군담 소설의 하나로서, 청나라에 굴욕적인 화친을 맺은 역사적 사실을 뒤집어 당시의 치욕을 되갚는 방식으로 이야기가 구성되어 있다.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26. 위 글의 내용을 단서로 하여 추측하기 어려운 것은? [3점]

- ① 조선의 국왕이 호장에게 항서(降書)를 써 주었을 것이다.
- ② 적장인 용골대를 죽여 그 머리를 효수(梟首)했을 것이다.
- ③ 조선은 호국의 침략에 대비하여 방비를 철저히 했을 것이다.
- ④ 호장은 철수하는 도중에 임경업 장군을 만나 곤욕을 치르게 될 것이다.
- ⑤ 호국(胡國)의 귀비는 호장에게 피화당을 범하지 말라고 부탁했을 것이다.

[33 ~ 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고도의 사고 기능을 가지고 있는 ㉠ 인간의 뇌신경세포와 하등동물의 뇌신경세포는 ㉡ 하나하나의 구조와 기능이 같다. 또한 천재와 보통사람의 두뇌의 신경세포수도 차이가 없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세포와 세포를 연결하는 ㉢ 시냅스회로의 다양성과 복잡성은 다르다고 보고 있다. 신생아의 뇌는 약 4백~5백g으로 성인 ㉣ 뇌의 약 30% ㉤ 정도의 무게밖에 안 된다. 그러나 신경세포의 수는 어른과 같다. 단지 성장함에 따라 신경세포의 크기와 시냅스가짓수가 훨씬 복잡해지고 많아질 뿐이다. 이러한 시냅스 네트워크의 복잡성과 정교성이 지능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즉 시냅스가짓가 덜 발달돼 있으면 지능이 낮고, 잘 발달돼 있으면 지능이 일반적으로 높다고 볼 수 있다.

우리가 흔히 '머리가 좋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보통 사람보다 학습을 통해 지식을 효율적으로 터득하고 오랫동안 학습 내용을 기억하는 경우를 일컫는다. 학습을 하면 뇌신경세포 사이의 시냅스회로가 활성화된다. 학습을 연속해서 반복하면 학습의 효과는 더욱 높아지게 되지만, 사용하지 않으면 회로는 막히고 녹이 슬어 버린다. 우수한 두뇌는 시냅스회로가 잘 발달되어 있다. 끊임없는 노력으로 반복 학습과 깊은 사고를 계속하면 뇌의 시냅스회로를 더욱 다양하게 연결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다. 치밀한 전기회로는 간단한 회로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것과 같다. 학습을 통하면 좋은 머리를 어느 정도까지 만들 수 있다는 말이다.

지능이 유전된다는 학설은 지난 19세기 말부터 주장됐다. 이러한 주장을 펴는 사람들은 일관성 및 이관성 쌍둥이의 지능의 차이 연구나 백인과 흑인 간의 IQ 차이 등의 연구 결과를 근거 자료로 제시한다. 그 중에서 IQ는 1904년 프랑스의 비네라는 사람이 교육에 의해 지적장애를 개선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지적장애아를 찾아내기 위해 정신과 의사인 시몬과 함께 고안해 낸 지능검사에서 유래한다. 그 뒤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심리학자인 터먼이, 관련된 여러 사람들의 연구 결과를 계승해서 '지능지수', 즉 IQ(Intelligence Quotient)를 등장시켰다. 그러나 현재 통용되고 있는 IQ 검사법으로 뇌의 지능을 정확히는 관찰할 수 없다. 이 지능 검사법은 상당한 오차를 보이고 있으며 측정 시기와 방법에 따라 결과가 어느 정도 변할 수 있다. IQ 측정에 사용되는 문제도 만든 곳과 측정하는 곳의 문화적 배경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다. 그러나 IQ가 지능을 정확히 반

영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는 반영한다. 그래서 IQ와 관련된 연구 결과들을 전적으로 수용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의 개연성은 받아들일 수 있다.

환경에 의해 지능이 결정된다는 주장도 많이 나오고 있다. 어떤 환경에서 자라느냐에 따라 개인의 지능이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원숭이를 교육시킨다고 해서 인간의 지능을 가질 수도 없고 인간이 될 수도 없다. 서로 다른 유전자에 의해 인간은 인간으로, 원숭이는 원숭이로 태어난다.

약 4백50만 년 전의 인간과 원숭이는 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같은 종의 동물이었다. 그러나 그 후 서로 다른 환경과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유전자의 변형이 시작되었고(특히 뇌의 변화가 두드러짐.), 이러한 변형이 누적된 결과, 인간과 원숭이의 지능은 오늘날과 같이 전혀 다르게 변화하였다. 따라서 한 개인을 두고 볼 때, 그 사람의 지능은 유전에 의해 대부분—원숭이와 인간의 차이를 보일 만큼의 부분이 결정되고, 나머지 부분—인간과 인간 사이의 차이를 보일 만큼의 부분만이 학습을 통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즉, 중요한 하드웨어는 유전자에 의해 만들어지지만 미세한 구조와 기능은 교육과 환경에 의해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유전자도 중요하고 환경도 중요한 것이다. 모든 것은 유전적으로 결정된다거나 결정되지 않는다는 극단적인 이분법은 지양돼야 한다.

앞으로 인간개놈지도와 뇌지도가 완벽히 작성되고 뇌기능과 유전자의 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진다면, 인간의 뇌와 아주 닮은 컴퓨터나 인조인간의 제조가 가능할지 모른다. 과학의 발전으로 ㉦ 생물학적 결정론(환원론)은 점점 더 큰 힘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인간은 환경적(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외부환경과의 끊임없는 교류를 통해 유전자가 변형될 것이며, 변형된 유전자를 통해 환경에 적응해서 지속적으로 진화할 것이다.

33.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2점]

- ① 최초의 지능검사는 지적장애아를 찾아내기 위해 고안되었다.
- ② 지능검사의 결과는 뇌의 지능을 정확히 반영하는 것이 아니다.
- ③ 학습의 결과로 발달한 뇌의 구조는 유전자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④ 아이가 성장하면서 학습을 하면 뇌의 시냅스회로가 발달하게 된다.
- ⑤ 신생아의 뇌는 성인의 뇌에 비해 볼 때 신경세포의 수에서 차이가 없다.

34. <보기>는 지능의 유전 여부와 관련하여 언급되는 사례를 조사한 것이다. ㉠의 입장을 지지하는 데에 사용할 수 있는 사례들로 짝지어진 것은? [3점]

<보 기>

㉠. 놀이기구가 많은 환경에서 자라난 쥐가 그렇지 않은 쥐보다 미로 학습의 성적이 높다는 결과가 나와 있다.

㉡. 평강공주를 만나기 전까지 한갓 필부에 불과했던 바보 온달은 공주의 열성어린 지도로 고구려의 국운을 걸머지는 장군으로 변신했다.

㉢. 아주 어릴 때부터 격리돼 각기 다른 환경 속에서 키워진 일란성 쌍둥이들의 지능지수 상관계수를 조사해 보니 보통의 형제·자매들보다 특히 높은 결과가 나왔다.

㉣. 1970년대에 IQ 200의 천재아로 명성을 날렸던 우리나라의 신동 김 모 군은 10여 세의 어린 나이에 미국에 있는 대학으로 유학했지만, 20대에 들어서자 여느 사람들과 다름없는 평범한 청년이 됐다.

㉤. 신경정신계 질환에 대한 현재까지의 연구 결과, 암을 비롯한 많은 질환이 유전자 차원에서 문제가 있는 유전자 질환으로 밝혀지고 있다. 정신분열증은 5번 염색체, 우울증은 11번 염색체, 노인성치매는 21번 염색체의 이상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그 원인이 되는 유전자를 찾으려고 많은 과학자들이 노력하고 있다.

- ① ㉠, ㉡ ② ㉠, ㉣ ③ ㉡, ㉢
- ④ ㉡, ㉣ ⑤ ㉢, ㉣

35. ㉠ ~ ㉣ 중에서 <보기>의 ‘의’와 쓰임이 가장 비슷한 것은? [3점]

<보 기>

그는 바지의 뒷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았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36.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점]

- ① 설득력 있는 이론을 적용하여 구체적 방법론을 이끌어 내고 있다.
- ② 상반되는 두 주장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제3의 주장을 전개하고 있다.
- ③ 현실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해 문제의 해결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 ④ 널리 알려진 서로 다른 주장들을 객관적으로 소개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 ⑤ 모범적인 사례를 통하여 현재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고 있다.

[37 ~ 4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어느 날 초어스름이었다. 좀 바쁜 일이 있어 창경원(昌慶苑) 결담을 끼고 걸어 내려오노라니까, 앞에서 걸어 가던 이십 내외의 어떤 젊은 여자가 이 이상히 또그닥거리는 구두 소리에 안심이 되지 않는 모양으로, 슬쩍 고개를 돌려 또그닥 소리의 주인공을 물색하고 나더니, 별안간 걸음이 빨라진다.

그러는 걸 나는 그저 그러는가 보다 하고, 내가 걸어야 할 길만 그대로 걷고 있었더니, 얼마쯤 가다가 이 여자는 또 뒤를 한번 힐끗 돌아다본다. 그리고, 자기와 나와서 거리가 불과 지척(咫尺) 사이임을 알고는 빨라지는 걸음이 보통이 아니었다. 뛰다 싶은 걸음으로 치맛기가 웅이하게 내닫는다. 나의 그 또그닥거리는 구두 소리는 분명 자기를 위협하느라고 일부러 그렇게 딱딱 딱딱 땅바닥을 박아 내며 걷는 줄로만 아는 모양이다.

그러나, 이 여자더러, 내 구두 소리는 그건 자연(自然)이요, 인위(人爲)가 아니니 안심하라고 일러 드릴 수도 없는 일이고, 그렇다고 어서 가야 할 길을 아니 갈 수도 없는 일이고 해서, 나는 그 순간 좀더 걸음을 빨리하여 이 여자를 뒤로 떨어뜨림으로 공포(恐怖)에의 안심을 주려고 한층 더 걸음에 박차를 가했더니, 그럴 게 아니었다. 도리어, 이것이 이 여자로 하여금 위협이 되는 것이었다.

내 구두 소리가 또그닥또그닥, 좀더 재어지자 이에 호응하여 또각또각, 굽 높은 뒤축이 어쩔 바를 모르고 걸음과 싸우며 유난히도 몸을 일어내는 그 분주함이란, 있는 마력(馬力)은 다 내 보는 동작에 틀림없었다. 그리하여, 한참 석양 놀이 내려퍼지기 시작하는 인적 드문 포도 위에서 또그닥또그닥, 또각또각 하는 이 두 음향의 속 모르는 싸움은 자못 그 절정에 달하고 있었다.

나는 이 여자의 뒤를 거의 다 따랐던 것이다. 2, 3보(步)만 더 내어디디면 앞으로 나서게 될 그럴 계제였다. 그러나, 이 여자 역시 힘을 다하는 걸음이었다. 그 2, 3보라는 것도 그리 용이히 따라지지 않았다. 한참 내 발뿌리에도 풍진(風塵)이 일었는데, 거기서 이 여자는 뚫어진 옆골목으로 살짝 빠져 들어선다. 다행한 일이었다. ㉠ 한숨이 나간다. 이 여자도 ㉡ 한숨이 나갔을 것이다.

기웃해 보니, 기다랗게 내뚫린 골목으로 이 여자는 행하니 내닫는다. 이 골목 안이 저의 집인지, 혹은 나를 피하느라고 빠져 들어갔는지, 그것은 알 바 없으나, 나로서는 이 여자가 나를 불량배로 영원히 알고 있을 것임이 서글픈 일이다.

여자는 왜 그리 남자를 믿지 못하는 것일까. 여자를 대하자면 남자는 구두 소리에까지도 세심한 주의를 가져야 짐작한다는 대우를 받게 되는 것이라면, 이건 이성(異性)에 대한 모욕이 아닐까 생각을 하며, 나는 그 다음으로 그 구두정을 뽑아 버렸거니와 살아가노라면 별(別)한 데다가 다 신경을 써 가며 살아야 되는 것이 사람임을 알았다.

— 계용묵, <구두>

(나) 나의 거처(居處)는 산중(山中)에 있었는데, 바로 문 앞에 큰 시내가 있었다. 해마다 여름철이 되어 큰비가 한번 지나가면, 시냇물이 갑자기 불어서 마냥 전차(戰車)와 기마(騎馬), 대포(大砲)와 북 소리를 듣게 되어, 그것이 이미 귀에 젖어 버렸다. 나는 옛날에, 문을 닫고 누운 채 그 소리들을 구분(區分)해 본 적이 있었다. 깊은 소나무에서 나오는 바람 같은 소리, 이것은 듣는 사람이 청아(淸雅)한 까닭이며, 산이 찢어지고 언덕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소리, 이것은 듣는 사람이 흥분(興奮)한 까닭이며, 못 개구리들이 다투어 우는 듯한 소리, 이것은 듣는 사람이 교만(驕慢)한 까닭이며, 수많은 축(築)의 격한 가락인 듯한 소리, 이것은 듣는 사람이 노한 까닭이다. 그리고, 우르릉 광광 하는 천둥과 벼락같은 소리는 듣는 사람이 놀란 까닭이고, 찬물이 보글보글 끓는 듯한 소리는 듣는 사람이 운치(韻致)가 있는 성격(性格)인 까닭이고, 거문고가 궁우(宮羽)에 맞는 듯한 소리는 듣는 사람이 슬픈 까닭이고, 종이창에 바람이 우는 듯한 소리는 듣는 사람이 의심(疑心)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모든 소리는, 올바른 소리가 아니라 다만 자기 흉중(胸中)에 품고 있는 뜻대로 귀에 들리는 소리를 받아들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내가 아직 요동(遼東) 땅에 들어오지 못했을 무렵, 바야흐로 한여름의 피약별 밑을 지척지척 걸었는데, 홀연(忽然)히 큰 강이 앞을 가로막아 붉은 물결이 산같이 일어나서 끝을 볼 수 없었다. 아마 천 리 밖에서 폭우(暴雨)로 홍수(洪水)가 났었기 때문일 것이다. 물을 건널 때에는 사람들이 모두들 고개를 쳐들고 하늘을 우러러보고 있기에, 나는 그들이 모두 하늘을 향하여 묵도(默禱)를 올리고 있으려니 생각했었다. 그러나, 오랜 뒤에야 비로소 알았지만, 그때 내 생각은 틀린 생각이었다. 물을 건너는 사람들이 탕탕(湯湯)히 돌아 흐르는 물을 보면, 굼실거리고 으르렁거리는 물결에 몸이 거슬러 올라가는 것 같아서 갑자기 현기(眩氣)가 일면서 물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그 얼굴을 젖힌 것은 하늘에 기도(祈禱)하는 것이 아니라, 솟제 물을

피하여 보지 않기 위 함이었다. 사실, 어느 거물에 그 잠깐 동안의 목숨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었으랴!

그건 그렇고, 위험(危險)이 이와 같은데도, 이상스럽게 물이 성나 울어 대진 않았다.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은 요동의 들이 넓고 평평해서 물이 크게 성나 울어 대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것은 물을 잘 알지 못하는 까닭에서 나온 오해(誤解)인 것이다. 요하(遼河)가 어찌하여 울지 않았을 것인가? 그건 밤에 건너지 않았기 때문이다. 낮에는 눈으로 물을 볼 수 있으므로 그 위험한 곳을 보고 있는 눈에만 온 정신이 팔려 오히려 눈이 있는 것을 걱정해야만 할 판에, 무슨 소리가 귀에 들어온다는 말인가? 그런데, 이젠 전과는 반대로 밤중에 물을 건너니, 눈엔 위험한 광경(光景)이 보이지 않고, 오직 귀로만 위험한 느낌이 쏠려, 귀로 듣는 것이 무서워서 견딜 수 없는 것이다.

아, 나는 이제야 **도(道)**를 알았도다. 마음을 잠잠하게 하는 자는 귀와 눈이 누(累)가 되지 않고, 귀와 눈만을 믿는 자는 보고 듣는 것이 더욱 밝아져서 큰 병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 박지원, <일야구도하기(一夜九渡河記)>

37.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3점]

- ① (가)와 (나)는 체험한 상황을 한 편의 드라마처럼 극적 반전의 요소를 갖추어 서술하고 있다.
- ② (가)와 (나)는 제시한 상황에 대한 논평이나 설명을 생략하여 독자의 상상력을 유도하고 있다.
- ③ (가)는 화자가 체험한 구체적 상황을 소재로 삼은 반면, (나)는 상상 속 상황을 소재로 삼고 있다.
- ④ (가)와 (나)는 객관적 대상을 그대로 보지 못하고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인간 심리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 ⑤ (가)는 두 대상의 공통점을, (나)는 차이점을 도출하여 가치 있는 삶을 영위하는 데에 필요한 조건에 대해 고찰하고 있다.

38. ㉔와 ㉕에 담긴 두 사람의 감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점]

- | | | |
|---|------|-------|
| | ㉔ | ㉕ |
| ① | 해방감 | - 행복감 |
| ② | 안도감 | - 아쉬움 |
| ③ | 해방감 | - 안도감 |
| ④ | 부끄러움 | - 안도감 |
| ⑤ | 안타까움 | - 해방감 |

39. (나)의 화자와 유사한 관점을 보이는 것은? [3점]

- ① 얼굴이 잘생기고 예쁜 사람은 맑고 아른아른한 거울을 좋아하겠지만, 얼굴이 못생겨서 추한 사람은 오히려 맑은 거울을 싫어할 것이다. 그러나 잘생긴 사람은 적고, 못생긴 사람은 많다. 만일 한번 보기만 하면 반드시 깨뜨려 버리고야 말 것이니, 먼지에 흐려진 그대로 두는 것이 나을 것이다. 먼지로 흐리게 된 것은 겉뿐이지 거울의 맑은 바탕은 속에 그냥 남아 있기 때문이다.
- ② 옛적에 우(禹)가 강을 건너는데, 누런 용(龍)이 배를 등으로 쳐서 지극(至極)히 위험(危險)했다 한다. 그러나 생사(生死)의 판단(判斷)이 일단 마음속에 정해지자, 용이거나 지렁이거나, 혹은 그것이 크거나 작거나 간에 아무런 관계(關係)도 될 바가 없었다 한다. 소리와 빛은 모두 외물(外物)이다. 이 외물이 항상 사람의 이목(耳目)에 누(累)가 되어, 보고 듣는 기능(機能)을 마비(痲痺)시켜 버린다.
- ③ 무릇 인간 세상이란 한 거대한 물결이요, 인심이란 한바탕 큰 바람이니, 하잘것없는 내 한 몸이 아득한 그 가운데 뗏다 잠겼다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한 잎 조각배로 만리의 부슬비 속에 떠 있는 것이 낫지 않은가? 내가 배에서 사는 것으로 사람 한 세상 사는 것을 보건대, 안전할 때는 후환(後患)을 생각지 못하고, 욕심을 부리느라 나중을 돌보지 못하다가, 마침내는 빠지고 뒤집혀 죽는 자가 많다. 손은 어찌 이로써 두려움을 삼지 않고 도리어 나를 위태하다 하는가?

④ 무릇 피[血]와 기운[氣]이 있는 것은 사람으로부터 소, 말, 돼지, 양, 벌레, 개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한결 같이 살기를 원하고 죽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어찌 큰 놈만 죽기를 싫어하고, 작은 놈은 죽기를 좋아하겠습니까? 그런즉, 개와 이의 죽음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큰 놈과 작은 놈을 적절히 대조한 것이지, 당신을 놀리기 위해서 한 말은 아닙니다. 당신이 내 말을 믿지 못하겠으면 당신의 열 손가락을 깨물어 보십시오. 엄지손가락만이 아프고 그 나머지는 아프지 않습니까?

⑤ 비가 샌 지 오래 된 것은 그 서까래, 추녀, 기둥, 들보가 모두 썩어서 못 쓰게 되었던 까닭으로 수리비가 엄청나게 들었고, 한 번밖에 비를 맞지 않았던 한 칸의 제목들은 완전하여 다시 쓸 수 있었던 까닭으로 그 비용이 많지 않았다. 나는 이에 느낀 것이 있었다. 사람의 몸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자신이 나쁘게 되는 것이 마치 나무가 썩어서 못 쓰게 되는 것과 같으며 잘못을 알고 고치기를 꺼리지 않으면 해(害)를 받지 않고 다시 착한 사람이 될 수 있으니, 저 집의 제목처럼 말끔하게 다시 쓸 수 있는 것이다.

40. (나)의 논지로 미루어 볼 때, [도(道)]를 깨닫기 위한 올바른 자세는? [2점]

- ① 편안한 삶을 추구함.
- ② 마음의 평정을 유지함.
- ③ 융통성 있는 사고를 함.
- ④ 사소한 것에 매달리지 않음.
- ⑤ 눈에 보이는 외물(外物)을 중시함.

이
권

2005학년도 육군사관학교 1차시험

언어 영역 정답표

문항 번호	정 답						
1	⑤	11	⑤	21	③	31	③
2	⑤	12	①	22	①	32	④
3	①	13	③	23	②	33	③
4	④	14	③	24	④	34	⑤
5	④	15	⑤	25	②	35	①
6	③	16	②	26	③	36	②
7	④	17	①	27	①	37	④
8	①	18	④	28	③	38	③
9	②	19	③	29	①	39	②
10	⑤	20	②	30	⑤	40	②



2004학년도 육군사관학교 1차시험 문제지

제 1 교시

언어 영역(국어)

공 통

성명

수험번호

1 쪽

- 먼저 문제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히 기입하십시오.
- 답안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컴퓨터용 수성 사인펜으로 정확히 기입하십시오.
- 문제는 40문항이며, 문제지는 14쪽입니다.
- 문제는 2점 20문항, 3점 20문항 총 40문항입니다.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조하십시오.)
- 문제지와 답안지의 해당란을 정확히 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
- 답안지의 표기가 끝나면 재확인하여 답안지는 오른쪽, 문제지는 왼쪽에 엮어 놓으십시오.

[4~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아무도 그에게 수심(水深)을 일러준 일이 없기에
흰나비는 도무지 **바다**가 무섭지 않다.

청(靑)무우밭인가 해서 내려갔다가는
어린 날개가 물결에 절어서
공주(公主)처럼 지쳐서 돌아온다.

3월달 바다가 꽃이 피지 않아서 서거꾼
나비 허리에 새파란 초생달이 시리다.
- 김기림, <바다와 나비>

(나)

아가는 밤마다 길을 떠난다.
하늘하늘 밤의 어둠을 흔들면서
수면(睡眠)의 강(江)을 건너
빛 뿌리는 기억(記憶)의 들판에,
출렁이는 내일의 바다를 날으다가
㉠ **깜깜한 절벽(絶壁)**,
헤어날 수 없는 미로(迷路)에 부딪히곤
까무라쳐 돌아온다.

한 장 검은 표지를 열고 들어서면
아비규환하는 화약(火藥) 냄새 소용돌이.
전쟁(戰爭)은 언제나 거기서 그냥 타고
연자색 안개의 베일 속
파란 공포(恐怖)의 강물은 발길을 끊어 버리고
사랑은 날아가는 파랑새
해후(邂逅)는 언제나 엇갈리는 초조(焦燥)
그리움은 꿈에서도 잡히지 않는다.

꿈에서 지금 막 돌아와
꿈의 이슬에 축축히 젖은 나래를
내 팔 안에서 기진맥진 접는
아가야!
오늘은 어느 ㉡ **사나운 골짜기**에서
공포의 독수리를 만나
소스라쳐 돌아왔느냐.
- 정한모, <나비의 여행>

(다)

현기증 나는 활주로의
최후의 절정에서 흰나비는
돌진의 방향을 잊어버리고
피묻은 육체의 파편들을 굶어본다.
기계처럼 작렬한 작은 심장을 축일
한 모금 샘물도 없는 ㉢ **허망한 광장**에서
어린 나비의 안막을 차단하는 건
투명한 광선의 바다뿐이었기에,

진공의 해안에서처럼 ㉣ **과묵한 묘지** 사이사이
숨가쁜 제트기의 백선과 이동하는 계절 속—
불길처럼 일어나는 인광과 조수에 밀려
이제 흰나비는 말없이 이즈러진 날개를 파닥거린
다.

하얀 미래의 어느 지점에
아름다운 영토는 기다리고 있는 것인가.
푸르른 활주로의 어느 지표에
화려한 희망은 피고 있는 것일까.

신도 기적도 이미
승천하여 버린 지 오랜 유역
그 어느 ㉤ **마지막 종점**을 향하여 흰나비는
또 한번 스스로의 신화와 더불어 대결하여 본다.
- 김규동, <나비와 광장>

4. (가)~(다)에 그려진 시적 대상을 <보기>에서 적절하게 고른 것은? [3점]

<보 기>

- ㉠ 부정적 현실에서 좌절하는 순수한 존재
- ㉡ 부정적 현실과 대결하는 순수한 존재
- ㉢ 부정적 현실에서 도피하는 순수한 존재
- ㉣ 부정적 현실에서 보호받는 순수한 존재

- | (가) | (나) | (다) |
|-----|-----|-----|
| ① ㉠ | ㉡ | ㉣ |
| ② ㉠ | ㉢ | ㉠ |
| ③ ㉡ | ㉣ | ㉡ |
| ④ ㉢ | ㉠ | ㉢ |
| ⑤ ㉣ | ㉣ | ㉣ |

5. (가)의 **바다**와 이미지가 대응하지 **않는** 것은? [2점]

- ① ㉠ **깜깜한 절벽**
- ② ㉡ **사나운 골짜기**
- ③ ㉢ **허망한 광장**
- ④ ㉣ **과묵한 묘지**
- ⑤ ㉤ **마지막 종점**

6.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점]

- ① (나)에서 아가는 '나비'로 형상화되고 있다.
- ② (가)의 '나비'는 수동적이지만, (나)의 '나비'는 능동적이다.
- ③ (가), (나) 모두 '떠남-시련-돌아옴'의 모티프로 이루어져 있다.
- ④ (가)의 '나비'의 시련은 '바다'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되고 있다.
- ⑤ (나)의 화자는 세상살이의 어려움을 이해하는 존재로 그려지고 있다.

7. (다)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한 것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흰나비'는 시적 화자를 대신하는 존재야.
- ② 전쟁에 대한 강한 비판 의식을 담고 있어.
- ③ 전쟁의 아픈 기억에 대한 회상으로 시작하고 있어.
- ④ 죽음에 직면한 화자의 절박한 한계 상황이 제시되고 있어.
- ⑤ 선명한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어.

8. (다)의 시어들을 이용하여 (다)와 주제 의식이 일치하도록 <보기>와 같이 4행시를 지을 때,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향기로운 꽃동산을 너울너울 날고 싶은데
보이는 건 침묵한 묘지 피묻은 통곡들

- ① 희망조차 불타 버린 허망한 광장에서
방향 잃고 헤매는 가없는 나비의 꿈
- ② 불길 같은 인광과 숨가쁜 조수에 밀려
조금씩 이즈러지는 나비의 하얀 날개
- ③ 작열하는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꿈꾸듯
현기증 나는 활주로에서 꽃향기를 그리네
- ④ 신도 기적도 승천해 버린 매마른 땅이지만
언젠가 쏟아질 빗줄기 그리며 목마름을 달래네
- ⑤ 뜨거운 불길 세찬 바람에 쪼그러지고 부서져도
아름다운 땅 그리며 다시 퍼는 나비의 날개

[9~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관직에 좋은 직책과 나쁜 직책이 있는 것이 국가의 본래 의도가 아님은 분명하다. 아무래도 문벌(門閥)이 형성되고 난 이후에 그러한 구분이 생기지 않았겠는가? ㉠한 사람이 자기의 아름다운 눈썹과 눈을 사랑하고 오줌 누는 것을 미워하여 사흘 동안 오줌을 누지 않는다면 그는 죽게 될 것이다. 따라서 한 몸 안에 있는 것은 그 어느 것이든 나의 신체 아닌 것이 없다. 마찬가지로 나라 안에 있는 것은 무엇이든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

지금 현령(縣令)이란 자리는 똑같은 직책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개 읍은 이 당파의 자리이고, 아무개 읍은 저 당파의 자리라고 한다. 이것은 관직의 좋고 나쁨의 표준이 관직 자체에 있지 않고 고을살이의 수입이 후한가 박한가에 달려 있음을 뜻한다. 관자(館閣)의 벼슬아치는 똑같은 자리이다. 그렇건만 아무개가 그 자리에 가면 더욱 높아 보이고, 아무개가 그 자리에 가면 조금 낮아 보이는 실정이다. 이것은 벼슬의 좋고 나쁨의 기준이 관직 자체에 있지 않고 문벌의 높고 낮음에 달려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관직에 과연 좋은 직책과 나쁜 직책이 있단 말인가? 옛날에는 좋은 벼슬이었던 것이 지금은 나쁜 벼슬이 되었고, 옛날에는 나쁜 벼슬이었던 것이 지금은 좋은 벼슬이 된 경우도 있다. 그렇다면 좋다 나쁘다 하는 말을 실제로는 믿을 수가 없다. 설사 관직에 좋은 직책과 나쁜 직책이 있다고 하자. 그렇게 되면 너도나도 좋은 직책은 반드시 얻으려고 다투는 것이고, 반면에 나쁜 직책은 반드시 피하려고 할 것이다. 다투면 서로를 쓰러뜨리려 들고, 피하면 어떤 직책은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당파를 만드는 습관이 군주 아래에 있는 신하들 사이에서 형성되면 위에 군림한 군주에게 권한이 속하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군주가 무엇이 즐겁다고 임금 노릇을 하려 하겠는가? 그러므로 나는 관직에 좋은 직책과 나쁜 직책이 있는 것이 국가의 본래 의도가 아니라고 말한 것이다.

대저 관직에는 반드시 녹봉이 있다. 그리고 녹봉은 반드시 경작을 대신할 수준이 되어야 한다. 그러한 다음에야 관리에게 자기가 가진 능력을 다 바치라고 요구할 수 있는 법이다. 여기에 어떤 사람이 있어 노비를 굶긴 채 날마다 부러먹었다고 하자. 주인집에서 물건을 훔치지 않을 노비는 거의 없을 것이다. 따라서 크고 작은 관직의 관리는 대개의 경우 그가 가진 권세를 이용하여 먹을 것을 마련하고 그 힘을 빌어 사람들에게 판다. 그러므로 권세가 있는 자리는 아무리 작은 직책이라도 뇌물을 받기 때문에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권세가 없는 자리는 비록 대신(大臣)이라 하더라도 규정된 녹봉만을 바라보고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처자식을 먹여 살리기에 녹봉이 턱없이 모자란다.

또 고을 지방의 관리에게는 정해진 봉급이 없다. 그래서 현령이나 현감(縣監)이 큰 고을의 목사(牧使)보다도 열 배

나 넉넉하게 수입을 거두는 일이 발생한다. 이것이 이치가 닿는 일인가? 더구나 내직(內職)의 녹봉이란 것이 벼슬을 믿고서는 생계를 꾸려갈 수가 없다 보니, 사대부는 처음부터 외직을 중시하고 내직을 가볍게 여긴다. 한번 주현(州縣)의 관원이 되면 반드시 여러 대의 자손을 위한 자산을 장만하려고 생각한다. 이로 인해 탐학(貪虐)과 *독직(瀆職)의 기풍이 날로 성행하고, 따라서 만백성의 생활이 나날이 곤궁한 처지에 몰린다. 이것은 필연적인 형세이다.

*독직(瀆職) : 직책을 더럽힘

9. 밑글에서 알 수 있는 당대 현실의 모습이 아닌 것은? [2점]

- ① 사람들은 수입이 많은 고을의 현령 자리를 선호하였다.
- ② 지방 관리의 지나친 수탈로 곤궁에 빠진 백성들이 많았다.
- ③ 동일한 직책에 있는 지방 관리들은 동일한 녹봉을 받았다.
- ④ 직책을 맡은 사람의 문벌에 따라 관직에 대한 평가가 바뀌었다.
- ⑤ 권세가 없는 자리의 관리는 녹봉이 적어 생계에 어려움을 겪었다.

10. 밑글의 논리 전개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문제 상황의 원인을 다각도로 지적하고 그 해결책을 시사하고 있다.
- ②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해 각성을 촉구하고 재발 방지를 당부하고 있다.
- ③ 문제 상황에 대한 서로 상반된 주장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소개하고 있다.
- ④ 문제 상황을 개선하고 있는 노력들이 잘못 진행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 ⑤ 문제가 되는 현실 상황을 개선하고자 하는 관계자들의 노력을 독려하고 있다.

11. <보기>의 자료에 대해 글쓴이가 보였을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점]

<보 기>

중국에서는 비록 구품(九品)의 직책에 끼이지 못하는 관리도 그 봉급이 우리나라의 대신보다 많다. 지방의 관원에게는 일상적인 녹봉 외에 직무와 등급을 감안하여 따로 이 은전을 주는 양렴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취임할 때나 퇴직할 때 생계를 마련할 재물을 만들어 주었다. 그렇게 한 다음 1백 췌미 이상의 재물을 모은 관리에게는 뇌물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 ① 낮은 관직의 사람이 지나치게 많은 녹봉을 받는군.
- ② 관리들이 축재(蓄財)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도록 만든군.
- ③ 직무와 등급보다는 능력에 따라 녹봉을 차별해서 지급하고 있군.
- ④ 맡은 직책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상의 여건을 마련해 주는군.
- ⑤ 국가의 세금을 관직의 녹봉에 다 써버리니 백성들의 삶이 힘들겠어.

12. ㉠과 같은 방법으로 결론을 이끌어 낸 것은? [3점]

- ① 나는 지금까지 너를 믿고 너에게 모든 것을 말해 주었어. 그런데 네가 어떻게 나를 배신할 수 있단 말이야.
- ② 이 자동차는 전 세계 150여 개국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자동차는 성능이 뛰어난이 분명합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구입하십시오.
- ③ 가랑비라도 오래 맞으면 옷이 젖는다. 작은 규모의 소비를 우습게 여겨서는 안 된다. 이러한 소비가 계속되면 재정에 엄청난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 ④ 강아지는 오줌을 누어서, 하마는 물 속에 똥을 풀어서, 곰은 나무에 상처를 내어서 자신의 영역을 주장한다. 이로 보아, 동물들은 영역 수호의 본능을 가지고 있다.
- ⑤ 언어는 그 사회상을 반영한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에는 거친 표현이 늘어가고 있다. 이로 보아 현재 우리 사회가 거칠어져 가고 있음이 분명하다.

[13~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간평! 소작료! 농민들에게는 이 말이 무엇보다도 무섭고 또 분했다. 그러나 그날 절은 소작인으로서는 물론 하나도 출타를 않고 기다렸다. 농사 조합의 평의원이 되어 있는 진수도 그날은 면소 일을 제쳐놓고 중들을 맞이하였다.

그래서, 진수의 집 사랑에서는 일찍부터 술상이 벌여졌다. 미리 마련해 두었던 밀주와 술안주가 이내 모자랐는지, 머슴 놈이 보광리 상점으로 종종걸음을 치고 쇠고기 굽는 냄새가 흐뭇이 새어 나오는 통에, 대문밖에 죄인처럼 쭈그러뜨리고 앉은 소작인들은, 괜히 헛침만 꿀떡꿀떡 삼키었다.

작인들은 간평원들의 미움이나 받을까 저어했음인지 차례로 안으로 들어가서는 오시느라고 수고했다고 공손히 수인사를 하고 나왔다. ㉠고 서방은 지난 여름 당한 일을 생각하면 이가 절로 갈렸지만 그래도 시봉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었다.

“에헬, 에헬, 에---헬!”

치삼 노인도, 듣는 사람의 가슴까지 걸릴 기침 소리를 연거푸 뿜으면서 기다란 지팡이를 끌고 대문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자식 같은 사람들 앞에 절을 하고서는, 그러지 말라던 아들의 말을 듣지 않고서, 그에 자기 집농사 사정을 여쭙어 보려고 했다.

“여보 노인, 그런 소리는 할 필요 없소. 메밀을 갈았으면 메밀을 간 세만 내면 되지 않겠소?”

이시봉은 거만스런 반말로써 사정없이 쏘았다.

치삼 노인은 다시 말해 볼 여지가 없었다.

“여보, 그런 말은 이런 데서 하는 법이 아니오. 괜히 남 술맛 떨어지게!”

곁에 앉은 중 하나가 뒤를 따라 편잔을 하는 바람에, 화가 더 치밀었으나 진수의 권하는 말에 치삼 노인은 다행히 (!) 무사하게 밖으로 나왔다. 그러나 ‘허 참, 복 받겠다고 멀쩡한 자기 논 시주해 놓고 저런 설움을 받다니 온!’하는 젊은 사람들의 말도 들은 채 만 채, 뼈만 왈왈 떨리는 다리를 끌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다른 사람들은 그래도 진수네 집 대문 밖에, 노 우거지 상을 하고 앉아서 어서 술이 끝나기를 기다렸다. 그러다가 더러는 투덜거리며 돌아가고, 잠담이나 하고 고누나 두던 늙은 친구들도 나중에는 역시 불평이 나왔다.

“제예기, 간평을 나온 겐가, 술을 먹으러 나온 겐가? 아무 작정을 모르겠군.”

머리끝이 희끔희끔한 친구가 이렇게 불통하니깐, 곁에 있던 까만 딱지가,

“글쎄 말야, 이것들이 또 눈을랑 둘러보지도 않고 앉아서만 소작료를 정할 것 아닌가?”

“제예기, 우, 우리 눈에는 또 안---가겠군. 자---작년에 도 앉아서 세만 자---자 잔뜩 매더니…….”

봉구란 놈도 한 마디 보태었다.

“설마 자기들도 사람인 이상 금년만은 무슨 생각이 있을 테지!”

한 시절 보천교에 미쳐서 정감록이 어머니 하고 다니던 최 서방의 말이다. 삼십을 겨우 지난 놈이 아직도 상투를 달고, 거짓말 싱거운 소리라면 ‘소진장의(蘇秦張儀)’라도 못 따를 것이고, 한동안 보천교에 반했을 때는 ‘육조판서’가 곧 된다고 허풍을 치던 위인이다.

“이 사람 판서, 설마가 사람 죽이는 걸세. 생각은 무슨 생각! 자네 판서나 마찬가지로 뭐.”

투 쏘는 놈은, 일본서 탄광밥 먹다 온 까만 딱지 또쭈어 있었다.

이윽고 술이 끝났다. 모가지 째까지 별경도록 취해서 나서는 간평원들! 금테 안경을 쓴 진수 아내가 사립 밖까지 나와서 배웅을 하자, 그들은 인도하는 진수의 뒤를 따라서 단장과 함께 비틀거렸다. 그러한 그들의 뒤에는, 얼굴이 노랗고 여윈 소작인들이 마치 유행수(流刑囚)처럼 묵묵히 따라왔다.

술취한 양반들에게 옳은 간평이 될 리 없었다.----그거 작인들의 말은 마이동풍 격으로, 눈두렁에도 바투이 들어서 보는 법도 없이 다만 진수하고 알아듣지도 못할 왜말을 주절거리면서, 그야말로 치삼촌 산소 별초하듯이 흐지부지 지나갈 뿐이었다. 그러면서도 짐짓 성실한 듯이 이따금 단장을 쳐들어 여기저기를 가리키기도 하고, 혹은 수첩에 무엇인가를 적어 넣으면서.

그렇게 허수아비처럼 흐느적거리며 들개의 눈 곁을 지날 때였다.

“왜 메밀을 갈았소?”

시봉은 들개의 수인사 대담으로 이렇게 물었다.

“헬 수 있어야죠. 마른 모포기 기다렸댔자 열음 앓을 게고……”

들개는 한 손에는 룡대, 한 손에는 낫을 든 채 열 적게 대답했다.

㉡“메밀은 잘 됐구먼.”

“필요. 이것도 늦게 뿌려서……”

들개는 시봉의 다음 말을 두려워하는 태도였다.

- 김정환, <사하촌>

13. 윗글을 읽을 때 상상할 수 있는 장면이 아닌 것은?

[2점]

- ① 술상과 고기 안주를 두고 얼큰하게 취한 중들의 모습
- ② 진수가 중들의 눈치를 보면서 소작인들을 위로하는 모습
- ③ 소작인들이 대문 밖에서 눈치를 보며 불만을 터뜨리는 모습
- ④ 소작인들이 술 마시는 간평원들 앞에 가서 인사를 하는 모습
- ⑤ 간평원들이 술에 취해 대충대충 눈을 둘러보며 지나가는 모습

(다) 1993년 저명한 물리학 저널에는 모래시계가 일정한 속도로 내려가기 위해서는 모래 알갱이의 크기와 모래시계의 직경이 적당한 비율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논문이 발표되었다. **물리학자**인 샤오룬 위 교수는 이 논문에서 모래시계의 목을 중심으로 위쪽과 아래쪽의 기압이 1만 분의 1이라도 차이가 나면 모래가 일정하게 떨어지지 않고 불규칙적으로 똑똑 떨어진다는 것을 실험적으로 보여주었다. 가축을 키우는 곳에는 곡물이나 사료를 저장하는 ‘사일러’라는 원뿔 모양의 창고가 있다. 이곳에서도 곡물이 한꺼번에 무너지지 않고 필요한 만큼 일정하게 떨어지게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여서, **농업 관련 학자**들은 모래시계의 연구에 큰 관심을 가졌다.

(라) 모래 알갱이들이 만들어내는 패턴의 복잡성을 연구하는 물리학자들에게 모래시계가 주목을 받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우선 첫 번째는 모래 알갱이들이 만들어내는 패턴은 주변 조건이 조금만 바뀌어도 전혀 다른 형태의 패턴들을 만들어 낸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모래 알갱이들의 패턴이 비선형 방식으로 기술된다는 얘기다. 아직 모래 알갱이들을 기술할 수 있는 일반적인 방정식은 존재하지 않지만 제안된 물리적인 모델들은 모두 비선형 방정식의 형태를 띠고 있다. 두 번째는 모래 더미 스스로가 일정한 각도의 모래 더미를 유지하려는 ‘자기 조직화’의 특성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복잡계’의 가장 중요한 특성으로서, 구성 요소의 특성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새로운 특성을 전체 시스템이 갖게 된다는 ①‘**창발 현상(創發現象)**’을 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모래 알갱이로서의 고유한 특성은 잃지 않으면서도 모래 알갱이만의 특성으로 설명하는 수 없는 새로운 특성을 모래 더미가 갖게 된다는 점이 주목받게 되는 것이다.

(마) 마지막으로, 스스로 자기 조직화하려는 성질에도 불구하고 그 상태가 상당히 ‘불안정한 상태’라는 점이다. 대부분의 경우 모래 알갱이들을 모래 더미에 떨어뜨리면 경사면을 타고 흘러내려 모래 더미는 자연스럽게 제 형태를 유지한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한 알의 모래 알갱이가 큰 산사태를 만들 수 있다. 이것은 ‘연쇄 반응’ 때문이다. 한 알의 모래 알갱이는 경사면을 타고 흘러내리면서 다른 알갱이들을 건드리게 된다. 이 알갱이도 따라 흘러내리면서 주위의 알갱이를 건드리게 되고 이런 연쇄 반응은 큰 산사태를 초래하게 된다. 모래 더미가 멈춤각보다 큰 각도로 쌓여 있을 경우 한 알의 모래 알갱이도 큰 산사태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이나 정교한 실험으로 여러 차례 증명된 바 있다. 이를 이용해 **지질학자**들은 산의 모양이나 지형만으로 산사태의 가능성을 짐작 수도 있게 되었다.

18. 각 문단의 성격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3점]

- ① (가) - 가정을 통해 화제를 도입하고 있다.
- ② (나) - 화제가 지니고 있는 특성을 밝히고 있다.
- ③ (다) -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논의를 펴고 있다.
- ④ (라) - 화제가 주목 받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 ⑤ (마) - 새로운 내용으로 논제를 전환하고 있다.

19.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것은? [2점]

- ① 모래시계는 기원전부터 발명되어 사용되고 있다고 추정된다.
- ② 물이나 다른 액체를 넣으면 모래시계로서의 기능을 할 수가 없다.
- ③ 멈춤각보다 경사각이 작은 모래 더미는 작은 충격에도 쉽게 허물어진다.
- ④ 모래시계의 위 아래 압력이 다르게 되면 모래가 일정하게 내려가지 않는다.
- ⑤ 모래 알갱이와 모래 더미의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모래시계를 만들 수 있다.

20. 윗글에 관한 기사문을 작성한다고 할 때, 윗글의 논지를 가장 잘 반영한 표제와 부제는? [2점]

- ① 물리학계의 개가
 - 산사태 예측 시스템 개발
- ② 신비의 베일 벗은 모래시계
 - 모래시계의 원리 해명
- ③ 지질학계, 모래시계의 도입
 - 컴퓨터 시뮬레이션의 활용
- ④ 모래의 복잡성 패턴 발견
 - 지질학계의 한계 극복
- ⑤ 해결되지 않은 모래시계의 비밀
 - 물리학적 측면에서의 남은 문제점

21. 윗글을 바탕으로 하여 ‘물리학자’와 ‘농업 관련 학자’와 ‘지질학자’가 만나서 ‘모래시계’에 관해 대화를 나누는다고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물리학자 : 모래시계는 다른 분야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 ㉠ 농업학자 : 농업에서는 모래시계와 똑같은 원리를 가족에게 일정하게 사료를 공급하는데 사용하고 있지요.
- ㉡ 지질학자 : 저희는 산사태 연구하는데 있어 모래시계의 원리를 잘 응용하고 있지요.
- ㉢ 물리학자 : 그러면 모래시계의 원리가 실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군요.
- ㉣ 농업학자 : 그렇죠. 사료 저장 창고인 사일러를 만들 때 모래시계의 원리에 따라 사료 크기에 맞게 사일러의 직경을 제작하고 있거든요.
- ㉤ 지질학자 : 저희 경우는 주로 산사태가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모래시계의 원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 ① ㉠ ② ㉡ ③ ㉢
- ④ ㉣

22. 밑줄 친 ㉠의 구체적인 사례로 볼 수 있는 것은? [3점]

- ① 사람들은 여러 가지 건축 자재를 사용하여 거주할 수 있는 건축물을 만든다.
- ② 프로 구단에서는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 뛰어난 선수를 거액으로 스카웃한다.
- ③ 특수 목적고는 특수한 능력이 있는 학생을 선발하여 교육시킨 뒤에 배출한다.
- ④ 집 지을 지능이 없는 흰개미가 집합체가 되면 탑 모양의 정교한 집을 만든다.
- ⑤ 액체 상태에 있던 물이 섭씨 0℃ 이하로 내려가면 딱딱하고 차가운 얼음이 된다.

[23~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광문은 비렁뱅이인데 다른 비렁뱅이들에게 꽤두로 추대되어 그들의 보금자리인 구멍집을 지키게 된다. 추운 어느 날 한 아이가 병에 걸려서 구걸하러 나가지 못하게 되었다. 광문은 아이가 가엾어 밥을 빌어오나, 아이는 결국 숨이 끊어지고 만다. 이윽고 못 비렁뱅이들이 돌아와 아이가 죽은 것을 보고

광문이 죽었다고 오해하고 광문을 두들겨서 쫓아낸다. 광문은 도망가다 남의 집에 숨게 된다. 집주인은 처음엔 도둑으로 알고 광문을 묶었으나 오해를 풀고 광문을 풀어주게 된다. 광문은 거적대기를 얻어가서 죽은 아이의 버려진 시체를 공동묘지에 묻어주고 슬퍼한다. 이 광경을 목격한 집주인은 광문을 가혹하게 여겨 약방 부자에게 추천하여 고용살이를 시켰다.

어느 날 부자가 문 밖에 나섰다가 자꾸만 돌아와서 다시 금 방에 들어 자물쇠를 보살피고 문밖을 나서면서도 그의 얼굴엔 편안치 않은 기색을 띠었다. 그는 이윽고 돌아와서 깜짝 놀라더니, 광문이를 의심스런 눈으로 보며 무엇을 말할 듯하다가 얼굴빛이 변한 채 그만 그치고 말았다.

광문이는 왜 그러는지 이유조차 모르는 채 날마다 잠자코 일만 했을 뿐 감히 하직하고 떠나버리지도 못했다. 그런지 며칠이 지났다. 부자의 처조카가 돈을 갖고 와서 부자에게 드리며,

“앞서 제가 아저씨께 돈을 꾸러 왔더니 마침 아저씨께서 계시지 않으시기에 제 스스로 방에 들어가서 갖고 왔습니다. 아마 아저씨께선 모르셨겠죠.”

한다. 그제야 부자는 광문이에게 크게 부끄럽게 여겨 광문 이더러,

“나는 소인이야. 이 일로 부질없이 점잖은 사람의 뜻을 수고롭게 하였네그러. 내 이제 무슨 낫으로 자네를 대하겠나.”

하고 사과하였다. 그리고 부자는 그의 모든 친구들에게는 물론이요, 다른 부자와 큰 장사치들에게까지,

“광문이야말로 정의를 지닌 인간이지.”

하고 널리 칭도하였다. 그는 또 그의 모든 종실(宗室)의 손님과 공경(公卿)의 문하(門下)에 다니는 이들에게 이르는 곳마다 선전하였다. (중략)

이때 성안엔 돈놀이꾼이 많았다. 그들은 대체로 수식품(首飾品)이나 구슬·비취옥 따위 또는 옷가지·그릇·주택·농장·비복 등의 문서를 갖고 밑천을 계산해서 전당 잡히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었다. 그러나 광문이는 유독 남의 보증(保證)을 해주되 전당의 유무를 묻기 전에 천냥이라도 대변에 승낙해 버렸다.

(가) 광문이의 위인을 말한다면 그의 꼴은 몹시 더럽고, 그의 말은 남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으며, 입이 특히 넓어서 두 주먹이 한꺼번에 여유 있게 들락날락하였다. 그는 또 만석(曼碩)중놀이, 첩피춤에 능수였다. (중략)

광문이 길에서 싸움하는 이들을 만나면 자기도 역시 옷을 훌훌 벗어 짓히고는 함께 싸움에 가담하는 체한다. 그러나 그는 무슨 말을 지껄이는지 머리를 숙여 땅을 그으면서 마치 그들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듯했다. 그러는 꼴을 본 저자 사람들은 모두 웃음보를 터뜨렸다. 그러면 싸우던 이도 역시 웃지 않을 수 없어 모두 흠어져 버리고마는 것이었다.

광문이는 나이가 마흔을 넘었음에도 총각머리를 땀았다. 남들이 장가가기를 권하면 그는 곧,

“도대체 예쁜 아가씨는 누구든지 그리워하는 거야. 그러나 이는 사내만이 그런 것은 아니요, 저 여인들도 역시 그런 거야. 그러므로 나처럼 못생긴 놈이 어떻게 장가를 들 수 있단 말이야.”

했다. 남들이 혹시 그에게 살림살이를 차려 주려 하면 그는,

“나는 부모도 아니 계시고, 형제 처자마저 없는 인간이니 무엇으로 살림살이를 한단 말이야. 뿐만 아니라, 아침나절이면 노래 부르며 저자로 들어갔다가 해가 저물면 저 부귀가(富貴家)의 문턱 밑에 피로한 몸을 쉬지 않으우. 그리고, 서울의 호수(戶數)가 팔만에 날마다 그 처소를 옮기는 만큼 내 나이를 아무리 많이 산다 하더라도 골고루 다니지 못할 게 아니우.” 하고 사양했다. (후략)

- 박지원, <광문자전>

(※) 배두(牌頭) : 우두머리, 두목

*만석(曼碩)중놀이 : 음력 4월 초파일에 연희되던 무언의 인형극 놀이.

23. 윗글에 나타난 사건과 그 속에 그려지는 주인공의 인간적 특성이 알맞게 짝지어지지 않은 것은? [3점]

- ① 남의 싸움을 말린 일 - 지혜
- ② 남에게 보증을 서준 일 - 용기
- ③ 결혼을 하지 않으려는 이유 - 겸손
- ④ 남의 물건을 훔치지 않은 일 - 정직
- ⑤ 어린 거지의 주검을 묻어준 일 - 인의

24. (가) 부분의 기능을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점]

- ① 바람직한 인간상의 필요 요건 제시
- ② 인물의 외양 묘사를 통한 성격의 간접 제시
- ③ 개성 있는 생김새를 통한 독자적 존재성의 부각
- ④ 외양과 관련된 앞으로의 사건 전개에 대한 단서 제시
- ⑤ 인물 됴됨이와 외양이 부합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암시

25. (나)에 담긴 인물의 태도를 표현하고 있는 한자 성어는? [2점]

- ① 풍찬노숙(風餐露宿)
- ② 자업자득(自業自得)
- ③ 사필귀정(事必歸正)
- ④ 안분지족(安分知足)
- ⑤ 역지사지(易地思之)

26. 구술 면접 시험에서 ‘이 소설의 문학사적 의의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받았다. 이에 대한 대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과거의 문어체에서 벗어나 일상적인 언어를 문학으로 끌어어들여 언문일치의 문체를 확립한 점이 높이 평가할 만합니다.
- ② 서술을 지양하고 묘사를 위주로 하여 세부적인 측면을 상세하게 드러낸 것이 소설사적으로 볼 때, 하나의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 ③ 이전의 소설과 다르게 권선징악의 주제를 드러낼 수 있는 전형적 인물을 보통 이하의 인물로 제시하여 표현하고 있는 점이 독특합니다.
- ④ 새 시대가 요구하는 인간적인 덕성과 근대적인 사고 방식을 갖춘 새로운 인간형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과거의 소설들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 ⑤ 비현실적 배경이 아닌, 구체적인 시간과 공간을 사건 전개 배경으로 삼아 개연성이 높은 사건들을 통해 이야기를 전개한 점이 뛰어납니다.

[27~3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세 번째 밀레니엄을 시작한 현대인에게 역사는 멀티미디어 정보통신 기술을 선사했다. 섬세한 상황제어 능력을 과시하며 세상을 매혹적인 시각적 이미지와 가상현실로 채색하는 이 현란한 테크놀로지는 실로 인간 존재의 우울을 ①마비시킬 수 있는 구원의 기술인 것처럼 보인다. 더구나 그것은 폭력적이고 위협투성이인 실제 현실로부터 환상과 희열로 가득 찬 가상현실로 우리의 삶을 탈출시키는 단계로 발전하고 있는 중이다. 이 과정이 완속되면 아마도 죽음에 대한 불안으로 상처받은 우리 영혼은 불안한 현실을 망각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도 왜 현대인은 그토록 불안해하는가. 그들의 영혼이 잠식될 수밖에 없었던 불안의 원천은 무엇인가. 매우 역설적이게도, 불안을 장악하고 마비시키는 그 최첨단 기술에 오히려 그 불안을 증폭시키는 원인이 ②잠복하고 있다.

우선 정보화 시대에는 천문학적 양의 정보가 생산되고 저장된다. 더구나 이러한 정보의 파장 효과는 이제 우리 삶의 대응 속도와 예측 능력을 엄청난 격차로 추월해 버렸다. 급격한 변동 속에 위협을 ③제어할 수 없는 상황에 빠져들면서 사람들의 불안감은 증폭되는 것이다. 또한 정보화가 진행될수록 우리가 삶에서 느끼는 허무감은 점점 깊어지고 있다. 정보를 광속으로 유통시키는 정보통신 기술의 시장 침입으로 시장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변하고 있다. 이 변화의 물결은 전 삶의 영역이 시장화되는 과정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결과 존재하는 모든 것은 상품으로서만 가치를 지니며, 그 가치는 팔릴 때만 결정된다.

이러한 환경에서 존재자의 지속적 가치, 존재와 삶의 본질은 불필요하다. 전지구적으로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처한 삶이 근거할 수 있는 진리를 찾는 것은 허망하고 비효율적인 행위다. 그것은 변화에 순발력 있게 대응해야만 존재할 수 있는 현실의 구조를 외면하는 도태과정일 뿐이다. 이제 가치는 없고 가격만이 있을 뿐이다. 또 진리는 없고 순간적으로 검색 가능한 정보만 있을 뿐이다. 이처럼 오늘날 삶의 의미와 방향이 사회적 담론의 주제로서 가치를 상실했다면, 그리하여 결국 삶이 어떠한 진리와 근원에 대해서도 사색하지 않는 허무주의로 방치되고 있다면, 삶의 심연에 드리워진 원초적 허무의 불안은 방향상실의 좌절 속에서 더욱 더 짙어지고 그 고통의 비명은 한층 더 증폭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 기술이 만들어내는 가상공간 속에서 자아가 해체의 위협에 ㉠직면하게 된다는 사실이, 다가올 시대를 더욱 불안하게 한다. 실제 현실에서 지금 여기에 있는 나의 유일한 육체는, 가상현실에서는 어떤 가상현실 게임의 상황 속에 있을 수 있다. 이와 같이 나의 신체가 존재하는 현실이 다수로 파편화되면 나의 자아 역시 파편화될 수밖에 없다. 이처럼 자아가 해체될 때 우리의 육체는 통제력의 몰락을 경험하며 무절제한 방임 속으로 빠져든다. 이제 정보화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현대인은 점차 가상 공간으로 이주(移住)할 수밖에 없다. 그 과정에서 현대인은 자아의 파편화란 상처를 ㉡감수해야만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초적 불안은 더욱 증폭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과연 이 ㉢용납할 수 없는 역설로부터 탈출구는 있는가. 인간 존재가 원초적 불안으로 채워져 있다면 그 불안으로부터 영원히 탈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불안을 추방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만들어 낸 최첨단 수단 때문에 그것이 증폭되고 있다면, 그 증폭된 만큼의 불안은 우리의 태도에 따라 진정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허무주의에 방치된 삶의 의미를 사색하고 파멸의 위기 속에 처해 있는 자아를 보듬음으로써 불안을 다스리고 진정시키는 반성력을 회복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압울한 불안의 먹구름은 더욱 짙어질 것이다.

27. 윗글의 내용으로 보아 <보기>의 현상에 대한 글쓴이의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점]

<보 기>

최근 아바타 시장이 급속도로 팽창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들 사이에 아바타가 폭발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 이들은 사이버 공간에서 자신의 아바타를 만들어 놓고 이를 꾸미고 치장하며 자신의 대리인으로 가상공간에서 활동하게 함으로써 대리 만족을 얻고 있다.

- ① 이전의 인형 놀이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가상공간으로 옮겨온 것일 뿐이야.
- ② 청소년들의 정서를 이해하기 위해서 성인들도 아바타에 익숙해지도록 노력해야 할 거야.
- ③ 유행은 언제나 일시적이기 때문에 청소년기를 벗어나면 자연스럽게 관심이 멀어질 거야.
- ④ 청소년들의 취미 생활을 위해 다양한 아바타를 만들 수 있도록 시장을 활성화시켜야겠어.
- ⑤ 아바타에 지나치게 몰두하여 정체성을 상실하는 청소년들이 없도록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거야.

28. <보기>는 윗글과 관련하여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온 글들이다. 윗글에 나타난 글쓴이의 관점에 가장 가까운 것은? [3점]

<보 기>

정보화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현명할까요?

- ↳ RE : 정보화 시대는 빠른 변화를 요구합니다. 그렇기에 시대의 변화에 빨리 적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경쟁력에서도 우위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①
- ↳ RE : 그렇습니다. 정보화 시대는 인류에게 장미빛 미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변화에 따른 사소한 부작용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 인류 사회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②
- ↳ RE : 정보화 사회가 주는 표면적인 이점에만 주목하는군요. 하지만 정보화 사회가 주는 부작용도 만만치 않기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폭넓은 인문적 교양을 쌓아야 하고 열린 사고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③
- ↳ RE : 정보화 사회로의 진행은 브레이크가 과열된 기관차의 질주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사회가 발전하면서 인간이 얻은 것보다는 잃는 것이 훨씬 많다는 것을 간과하신 것 같습니다. 잘못된 것을 알았다면 과감히 돌아설 수도 있어야 합니다.-----④
- ↳ RE : 정보화 사회에 대해 지나치게 두려움을 느끼시는군요. 기계는 인간처럼 복잡하지도 않고, 거짓말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간의 변화무쌍한 판단보다는 더 정확히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⑤

29. ㉠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인간이 만든 최첨단 기술이 발전할수록 인간 자유에 대한 구속은 심해지고 있다.
- ②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믿었던 것이 오히려 불안의 원인이 되고 있다.
- ③ 인간의 불안은 원천적인 것이어서 벗어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벗어나려 하고 있다.
- ④ 인간은 자신이 만든 기술에 대해 훤히 알 수 있을 것이라 믿었는데 아무것도 모른다.
- ⑤ 인간은 가상현실에서 벗어나야 하는 줄 알면서도 가상현실에 점점 더 집착하고 있다.

30. ㉡의 함축적 표현에 담긴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삶을 허무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다.
- ② 자아의 파편화를 겪는 개인들이 많아질 것이다.
- ③ 현실에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다.
- ④ 주어진 운명을 거역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다.
- ⑤ 삶에서 방향상실감을 겪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다.

31. ㉢~㉤와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점]

- ① ㉢ 근원적으로 없앨
- ② ㉣ 곁으로 드러나지 않고 숨어
- ③ ㉤ 적절히 조절할
- ④ ㉢ 맛따뜨리게
- ⑤ ㉤ 고스란히 받아들여야만

[32~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보슬보슬 ㉠봄비는 못에 내리고 春雨暗西池
 ㉡찬 바람이 장막 속 스며들 제 輕寒襲羅幕
 뜬시름 못내 이겨 병풍 기대니 愁依小屏風
 송이송이 ㉢살구꽃 담 위에 지네. 牆頭杏花落
 - 허난설헌, <비>

(나)
 년넉희 밥 싸 두고 반찬으란 장만 마라
 단 드러라, 단 드러라.
 靑篋筩(청약립)은 싸 잇노라. 錄蓑衣(녹사의) 가져오나.
 至匆忽(지국충) 至匆忽(지국충) 於思臥(어사와)
 無心(무심)한 ㉣白鷗(백구)는 내 좃는가, 제 좃는가

水國(수국)의 ㄴ을히 드니 고기마다 슬져 인다.
 단 드러라 단 드러라
 萬頃澄派(만경딩파)의 슬크지 容與(용여)흐자.
 至匆忽(지국충) 至匆忽(지국충) 於思臥(어사와)
 人間(인간)을 도라보니 머도록 더욱 도타.

간 밤의 눈 갠 後(후)의 景物(경물)이 달랏고야.
 이어라 이어라
 압희는 萬頃琉璃(만경유리) 뒤희는 千疊玉山(천첩옥산),
 至匆忽(지국충) 至匆忽(지국충) 於思臥(어사와)
 仙界(선계)ㄴ가 佛界(불계)ㄴ가 人間(인간)이 아니로다.
 - 윤선도, <어부사시사>

(다)

東風(동풍)이 건듯 부러 ㉢積雪(적설)을 헤터 내니,
 窓(창) 밧긔 심근 梅花(미화) 두세 가지 띄어세라.
 𣵵득 冷淡(냉담)흔디 暗香(암향)은 브스 일고.
 黃昏(황혼)의 돌이 조차 벼마티 비최니,
 늦기는 듯 반기는 듯, 님이신가 아니신가.
 더 미화 것거내여 님 겨신 더 보내오져.
 님이 너를 보고 었더타 너기실고.
 꽃 디고 새 님 나니 綠陰(녹음)이 질렸는디,
 羅幃(나위) 寂寞(적막)흐고 繡幕(슈막)이 뷔여 있다.
 芙蓉(부용)을 거더 노코 孔雀(공작)을 둘러 두니,
 𣵵득 시름 한터 날은 었디 기듯딩고.
 鴛鴦錦(원앙금) 버혀 노코 五色線(오식선) 플터내여,
 금자희 견화이셔 님의 옷 지어내니,
 手品(슈품)은크니와 制度(제도)도 ㄴ줄시고.
 珊瑚樹(산호슈) 지게 우희 白玉函(백옥함)의 다마 두고,
 님의게 보내오려 님 겨신 더 바라보니,
 山(산)인가 구름인가 머호도 머홀시고.
 千里(천리) 萬里(만리) 길힐 님라셔 츠자 갈고.
 니거든 여러 두고 날인가 반기실가.
 흐르밤 서리김의 기러기 우러 넬 제,
 危樓(위루)에 혼자 올라 水晶簾(슈정렴) 거든말이,
 東山(동산)의 돌이 나고 北極(북극)의 별이 비니,
 님이신가 반기니 눈물이 절로 난다.
 淸光(청광)을 뷔여내여 鳳凰樓(봉황루)의 붓티고져.
 樓(누) 우희 거러 두고 八荒(팔황)의 다 비최여,
 深山窮谷(심산궁곡) 점나ㄴ티 밍그쇼셔.
 乾坤(건곤)이 閉塞(폐식)흐야 白雪(백설)이 흐 빗친 제,
 사람은크니와 놀새도 𣵵쳐 있다.
 瀟湘南畔(쇼상남반)도 치오미 이러커든,
 玉樓高處(옥누고쳐)야 더욱 님너 무소흔리.
 ㉣陽春(양춘)을 부쳐내여 님 겨신 더 쏘이고져.
 - 정철, <사미인곡>

32. (가) ~ (다)에 대한 공통된 설명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3점]

- ① 과거 회상을 중심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② 주어진 현실 상황에 대하여 체념하고 있다.
- ③ 꿈과 현실의 교차를 통해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 ④ 계절적 배경이 화자의 정서를 고조시키고 있다.
- ⑤ 자연물에 대하여 친화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33. (가)와 (다)의 시적 화자가 대화를 나누는다고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2점]

- ① (가) : 당신은 이별한 님을 만나기 위해 무진 애를 쓰고 계시는군요.
- ② (다) : 하지만 마음 뿐이지 현실적으로 만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 ③ (가) : 그래도 당신이 지은 옷을 님에게 보낼 수 있으니 좋겠습니다.
- ④ (다) : 그러는 당신은 외로움과 시름에 잠겨 아무 일도 못하고 있군요.
- ⑤ (가) : 예, 저는 허망하게 지나가는 젊은 날을 안타까워할 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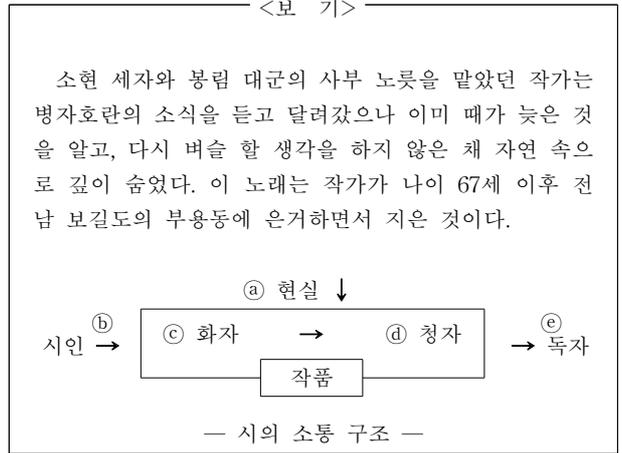
34. ㉠~㉣ 중 다음 설명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2점]

<보 기>

어떤 정서나 사상을 나타내려 할 때, 이를 나타내주는 어떤 사물이나 정황, 일련의 사건을 통하여 표현하기도 한다. 이러한 사물, 정황, 사건을 가리켜 객관적 상관물(客觀的 相關物)이라고 한다.

- ① ㉠ ② ㉡ ③ ㉣
- ④ ㉢ ⑤ ㉤

35. <보기>는 (나)의 창작 배경을 나타낸 것이다. 시의 소통 구조에 따라 (나)를 감상한다고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 : 농촌과 바닷가에서 볼 수 있는 서민의 일상적 삶을 반영해 현실성을 높여 준다.
- ② ㉡ : 자연 속에서 살고 있는 시인의 모습이 시적 화자의 모습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 ③ ㉢ : 자연 속에서 한가롭게 살아가는 마음을 노래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 ④ ㉣ : 자연을 마음껏 즐기자고 말을 하고는 있지만 구체적인 청자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아님을 느낄 수 있다.
- ⑤ ㉤ : 도시와 기계 문명의 그늘에서 벗어나 자연을 벗하며 살고 싶은 생각을 불러일으킨다.

36. <보기>는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이다.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어머니'에 관한 시를 쓴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겨울 속에 봄을 불러내고 있다는 것으로, 인위적으로 조작할 수 없는 자연의 질서를 시적 자아가 자기 뜻대로 바꾸고 있는 것이다. 임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양춘(陽春)을 부쳐 내어 임 계신 곳에 비치게 하겠다는 말로 표현하고 한다. 아직 봄이 되지 않았으니 봄별이 있을 수 없으나 지극한 사랑은 이러한 자연적 질서를 초월해서는 그 자연적 질서를 자기의 주관대로 바꾸고자 하는 열망으로 발전한 것이다.

- ① 오월 하늘에 비둘기 멀리 날고
오늘처럼 출출히 비가 내리면
어머니의 정다웠던 목소리가 더욱 그리워지네.
- ② 산 그림자처럼 말없이 세상을 사셨던
안으로 다스리는 청자빛 맑은 향기
오늘도 어머니의 향기가 그리워 눈물 흘리네.
- ③ 함박눈을 맞으며, 아기들이 놀고 있다.
아기들은 매우 즐거운 모양이다.
어머니도 아이들을 보시며 한없이 즐거워하시네.
- ④ 무심히 흐르는 세월의 옷자락을 붙잡아
다홍치마 초록저고리 만들어
고왔던 어머니의 젊음을 되돌리고 싶네.
- ⑤ 답답하고 고달프게 사는 것을 원통해 할 때
어머니가 남겨 놓은 단풍잎 하나
물끄러미 나를 들여다보면 부끄러워 얼굴이 다네.

[37~4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매스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것으로 대중 예술이 있는데, 이것은 특히 주도 면밀하게 만들어진다. 대중 예술 역시 수신자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는 의사 소통의 일종으로, 주로 참여자들에게 즐거움을 제공하거나 그 자체로서 의미 있는 경험이 되도록 고안된 것들이다. 대중 예술은 간단히 말해 비슷한 경험, 흥미, 가치 또는 취향을 공유하는 다수의 사람들이 향유하는 예술 형식이다. 시, 그림, 조각, 희곡, 교향악 그리고 발레와 같은 것들이 보통 순수 예술로 간주되는 반면에, 영화, 만화, 텔레비전 쇼나 댄스뮤직 등은 대중 예술로 간주된다.

그러나 순수 예술과 대중 예술 사이에 차이가 크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어떤 예술 작품들은 처음 등장했을 때는 대중적이었다. 예를 들어 셰익스피어의 희곡들은 극장에서 공연되어 그 당시 사회의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즐겼고, 찰스 디킨스의 소설들은 잡지에 연재되었던 것들이다. 이 희곡과 소설들은 시간의 시련을 견뎌냄으로써 오늘날 순수 예술의 본보기로 여겨지고 있다. 이러한 예는 20세기의 산물인 영화에서도 볼 수 있다. 한때 영화는 그저 대중적인 오락물로 간주되었지만, 그 중에서 점차 그 예술성을 인정받아 본격 소설이나 희곡과 같은 고급 예술로 대접받는 작품도 생겨나게 되었다. 또, 단순히 현실을 기록하는 수단으로만 생각되었던 사진도 지금은 예술로서 인식되고 있으며, 뛰어난 사진 작품들은 예술적인 그림이나 조각을 전시하던 ③박물관에서 전시되고 있다. 반대로 바흐나 모차르트, 베토벤, 리스트, 그리고 슈트라우스의 음악은 오랫동안 대중적이지 않은 것으로 여겨졌지만, 바흐의 음악이

⑥전자음 합성 장치에 의해 녹음되었을 때나, 모차르트, 리스트, 슈트라우스의 음악이 ‘엘비라 마디간’이나 ‘2001년 스페이스 오딧세이’ 같은 영화의 사운드 트랙으로 삽입되었을 때에는 더 이상 순수 예술의 범주에 남겨 둘 수 없게 되었다.

결국, 진정한 대중성이란 대중에 얼마나 폭넓게 전달되느냐에 의해서만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폭넓은 전달은 매스 미디어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영화나 텔레비전을 통해 대중에게 전달됨으로써 셰익스피어의 희곡들은 순수 예술로서의 품위를 유지하면서도 대중 예술의 영역으로 복귀할 수 있었다. 처음 연주되었을 때는 대중적인 인기를 끌었지만, 오랫동안 소수의 재즈 팬들 사이에서만 그 가치가 평가되던 조플린(Scott Joplin)의 음악도, 영화 ‘스팅’의 주제 음악으로 사용되어 ⑤음반으로 재생산되고 라디오로 방송되면서 예전의 인기를 되찾았다.

물론, 모든 대중 예술이 셰익스피어의 희곡들이나 조플린의 재즈 음악처럼 우수하거나 영속적인 것은 아니다. 매스 미디어는 단지 우리를 즐겁게 해 주기 위해 평범한 예술을 널리 퍼뜨리는 경향이 있다. 또한, 매스 미디어는 소수의 열광적인 팬들 외에는 금방 잊어버릴 것 같은 사소하고 걸만 번지르르한 예술도 제공한다. 그러나 모든 대중 예술이 단지 그것이 대중적이기 때문에 열등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이다. 이러한 허위의식은 잠재적으로 삶을 풍요롭게 하고, 즐겁게 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차단해 버린다.

매스 미디어는 대중 예술을 대중적이게 만든다. 더 본질적인 수준에서는 대중 예술 자체가 존재할 수 있게 해준다. 사진은 ④카메라나 필름이 없었다면 예술 형태로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다. 영화 또한 마찬가지이다. 게다가 사진은 기계적이고 전자적인 수단들에 의해 대량으로 생산된 후에야 대중성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한 수단들은 파리나 암스테르담, 그리고 시카고에 있는 미술관을 방문해 본 적이 없는 수백만의 사람들이 모나리자나 네덜란드 거장들, 그리고 아메리카 고딕 같은 그림들을 친숙하게 느끼도록 만들었다. 작가가 자신의 고독한 작업실에서 쓴 소설도, 만약 수많은 대중들이 그것을 읽을 수 있도록 책으로 만들 수 있는 ⑥인쇄 기술이 없었다면, 단지 몇몇 소수의 부유한 애호가들의 서재에 필사본으로서만 존재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매스 미디어와 대중 예술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로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⑦매스 미디어는 창조적인 표현을 위해 새롭고 향상된 기술을 끊임없이 제공하면서 대중 예술을 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예술 그 자체를 대중적으로 확산한다. ④대중 예술은 그 맞은 편에서 다양한 형식으로 새롭고 세련된 매체에 대한 수요를 창출하고, 대중들은 이 두 영역의 상호작용으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

37. 밑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것은? [2점]

- ① 대중 예술 중에는 높은 예술성을 가진 것들도 있다.
- ② 대중 예술은 매스 미디어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 ③ 대중 예술은 소수에 의해서 향유될 때 순수 예술로 바뀌게 된다.
- ④ 대중 예술은 수신자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는 의사 소통의 일종이다.
- ⑤ 순수 예술도 대중 예술이 될 수 있고, 대중 예술도 순수 예술이 될 수 있다.

38. ㉠~㉣중 문맥상의 의미가 다른 것은? [2점]

- ① ㉠ ② ㉡ ③ ㉢
- ④ ㉣

39. ㉠ : ㉡의 관계와 가장 유사한 것은? [2점]

- ① 나무 : 숲
- ② 연설자 : 청중
- ③ 생산자 : 소비자
- ④ 희곡 : 연극 배우
- ⑤ 하드웨어 : 소프트웨어

40. 밑글의 중심 주장을 들어 <보기>의 글을 비판할 때 가장 알맞은 것은? [3점]

— <보 기> —

음악에는 많은 장르가 있지만 그 중 어떤 것은 다른 것보다 예술적으로 뒤진다고 생각한다. 대중 음악은 분명 서양의 고전 음악 또는 우리의 아악이나 판소리에 비해 그 예술성이 뒤진다. 마치 만화가 수채화보다 예술성을 덜 생각하듯 말이다. 이런 이유로 인해 성악가와 가수의 사회적 지위도 달라진다.

- ① 음악에서 즐거움을 빼면 무엇이 남겠어.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기호에 맞는 음악을 찾아서 즐기면 되는 게 아닌가.
- ② 대중 가요도 예술성이 높다면 고급 예술이 될 수 있어. 특정 장르의 모든 작품을 예술성이 낮거나 높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 ③ 성악과 대중 가요는 수요 계층이 다르잖아. 예술성이 높은 작품을 선호하는 수요 계층은 아무래도 성악을 즐기는 쪽이 아닐까?
- ④ 서양의 고전 음악과 우리의 판소리는 각기 호소하는 방식이 다르잖아. 이 점에서 분명 차이가 있는데 같이 생각할 수 있을까?
- ⑤ 성악가는 대중 매체와 거리가 있어 희소성 면에서 높이 평가되고 가수는 대중 매체에서 쉽게 접하기 때문에 폄하되는 것이 아닐까?

2004학년도 육군사관학교 1차시험

언어 영역 정답표

문항 번호	정 답						
1	②	11	④	21	⑤	31	①
2	⑤	12	③	22	④	32	④
3	④	13	②	23	②	33	③
4	②	14	①	24	①	34	⑤
5	⑤	15	③	25	④	35	①
6	②	16	①	26	④	36	④
7	③	17	⑤	27	⑤	37	③
8	⑤	18	⑤	28	③	38	①
9	③	19	③	29	②	39	⑤
10	①	20	②	30	④	40	②



2003학년도 육군사관학교 1차시험 문제지

제 1 교시

언어 영역(국어)

공	통
---	---

성명	
----	--

수험번호							
------	--	--	--	--	--	--	--

1 쪽

- 먼저 문제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히 기입하십시오.
- 답안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컴퓨터용 수성 사인펜으로 정확히 기입하십시오.
- 문제는 40문항이며, 문제지는 17쪽입니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르니,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고하십시오. 2.2점과 2.8점 문항에만 점수가 표시되어 있고, 나머지는 모두 2.5점입니다.
- 문제지와 답안지의 해당란을 정확히 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
- 답안지의 표기가 끝나면 재확인하여 답안지는 오른쪽, 문제지는 왼쪽에 얹어 놓으시오.

[4~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산새도 날아와
우짚지 않고,

구름도 떠 가곤
오지 않는다.

인적이 끊긴 곳
홀로 앉은
가을 산의 어스름.

호오이 호오이 소리 높여
나는 누구도 없이 불러 보나.

울림은 헛되이
먼 골 골을 되돌아 올 뿐.

산 그늘 길게 늘어지며
붉게 해는 넘어가고

황혼과 함께
이어 별과 밤은 오리니.

삶은 오직 갈수록 쓸쓸하고
사랑은 한갓 괴로울 뿐.

그대 위하여 나는 이제도 이
긴 밤과 슬픔을 갖거니와.

이 밤을 그대는, 나도 모르는
어느 마을에서 쉬느뇨.

- 박두진, <도봉>

(나) 한때 그 가슴에 호랑이를 기르고
한양 도읍 오백 년 산자락에 펼치고
서울의 슬픔과 기쁨

㉠소꿉장난처럼 내려다 보던
장엄한 인왕산

아득한 할아버지의 고향
어린날 올라가고 싶었던

현철한 미끄럼바위의
민음직한 얼굴 어디로 갔나

맑은 물 돌 사이로 흐르던
가파른 골짜기 소나무 숲에 오늘은

깨어진 유리 조각 비닐 봉지 나뒹굴고
석유 냄새 풍기는 잿빛 아지랑이

큰 산을 가리고 아른거린다
그 억센 지맥도 이제는
동서남북 아스팔트길로 모두 끊기고
8백 만 인구의 한가운데 간혀
멀지않아 쓰러질 듯
가쁜 숨 헐떡인다
비쩍 마른 옆얼굴과
혈뺏은 뒷모습 드러낸 채
종로구와 서대문구 변두리에 주저앉아
늘그막에 셋방살이를 하는
불쌍한 인왕산

- 김광규, <인왕산>

(다) 성북동 산에 ㉡번지가 새로 생기면서
본래 살던 ㉢성북동 비둘기만이 번지가 없어졌다.
새벽부터 ㉣돌 깨는 산울림에 떨다가
가슴에 금이 갔다.

그래도 성북동 비둘기는
하느님의 광장 같은 새파란 아침 하늘에
성북동 주민에게 축복의 메시지나 전하듯
성북동 하늘을 한 바퀴 휘 돈다.

성북동 메마른 골짜기에는
조용히 앉아 ㉤콩알 하나 짝어 먹을
넒직한 마당은커녕 가는 데마다
채석장 포성이 메아리쳐서
아침 구공탄 굴뚝 연기에서 향수를 느끼다가
산 1번지 채석장에 도루 가서
금방 따낸 돌 온기(溫氣)에 입을 닦는다.

예전에는 사람을 ㉥성자(聖者)처럼 보고
사람 가까이
사람과 같이 사랑하고
사람과 같이 평화를 즐기던
사랑과 평화의 새 비둘기는
이제 산도 잃고 사람도 잃고
사랑과 평화의 사상까지
놓지 못하는 쫓기는 새가 되었다.

- 김광섭, <성북동 비둘기>

4.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가), (다)는 자연의 장엄함을 노래하고, (나)는 인간의 위대함을 찬양하고 있다.
- ② (가), (나)는 인간의 메마른 삶을 다루고, (다)는 자연의 황폐함을 고발하고 있다.
- ③ (나), (다)는 문명 비판적 성격을 띠고, (가)는 개인적 정서 표현에 치중하고 있다.
- ④ (나), (다)는 인간 욕망의 위험성을 보여 주고, (가)는 자연의 영원함을 노래하고 있다.
- ⑤ (가), (나)는 자연에 대한 인간의 의무를 강조하고, (다)는 자연의 가치를 칭송하고 있다.

5. (가)를 내용의 흐름에 따라 네 부분으로 나눌 때,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1, 2, 3연 — 4, 5연 — 6, 7연 — 8, 9, 10연
- ② 1, 2, 3연 — 4, 5, 6연 — 7, 8연 — 9, 10연
- ③ 1, 2, 3, 4연 — 5, 6연 — 7, 8연 — 9, 10연
- ④ 1, 2연 — 3, 4연 — 5, 6, 7연 — 8, 9, 10연
- ⑤ 1, 2연 — 3, 4, 5연 — 6, 7연 — 8, 9, 10연

6. ㉠과 표현법이 가장 유사한 것은? [2.2점]

- ①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 ② 바람아 나는 알겠다. / 네 말을 나는 알겠다.
- ③ 님은 갔습니다. 아아,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갔습니다.
- ④ 내 그를 맞아 이 포도를 따 먹으면, / 두 손을 함뱍 적셔도 좋으련.
- ⑤ 산(山)골에서는 집터를 쓰고 달케를 닦고 / 보름달 아래서 노루고기를 먹었다.

7.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인간의 욕망이 낳은 이기적인 공간이다.
- ② ㉢ : 본래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던 사랑과 평화의 새이다.
- ③ ㉣ : 자연에 대한 인간의 폭력을 잘 드러낸다.
- ④ ㉡ :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는 무욕의 자세를 상징한다.
- ⑤ ㉣ : 인간이 자연과 공존하기 어렵다는 점을 내포한다.

[8~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우리나라에서는 ‘노인 현상’이라고 하면 곧 노부모 모시는 문제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아직 시대의 중요한 현상을 ‘사회화(社會化)’하기보다는 가정의 테두리 안에서 보고자 하는 전통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노인 현상’을 효도의 맥락에서 다루려는 경향이 매우 강하다.

하지만 노인에 대한 효도를 강조하면서도 방송에서 노인을 희화화(戲畫化)하는 데 주저하지 않는 것 역시 우리 사회의 특별한 현상 중 하나다. 노인의 이상한 말투와 몸짓을 개그 소재로 삼기도 하고, 심지어 노인들을 출연시켜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고는 배꼽을 잡고 웃는다. 더 큰 문제는 그런 방송을 바로 노인들이 많이 보게 된다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노인들은 여가의 상당 시간을 방송 시청에 할애하기 때문이다.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 등 사회적으로 소외되기 쉬운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점점 증가되고 있다. 그들을 위한 자원 봉사 활동도 늘고 있다. 방송에서 장애 때문에 나타나는 장애인의 이상한 행동을 희화화한다면 아마 그 방송사는 문을 닫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노인들에 대해서는 왜 허용되는가? 그리고 노화에 따른 각종 ‘장애’를 느끼는 노인들에 대한 사회적 배려는 어디 있는가?

나이가 들면서 크고 작은 신체 장애가 오는 것은 동서고금의 진리이고 어쩔 수 없는 사실이다. 노화로 인한 신체 장애는 사십대 중반의 갱년기를 넘기면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다. 원시가 된다는가, 치아가 약해진다는가, 높은 계단을 빨리 오를 수 없다는가, 귀가 잘 안 들려서 자신도 모르게 큰 소리로 이야기한다는가, 기억력이 감퇴하는 것 등이 그 현상이다. 노인들에게 ‘당신들도 젊은이들처럼 할 수 있다.’라고 헛된 자존심을 부추길 것이 아니라, ㉠

우리가 장애인들에게 특별한 배려를 하는 것은 그들의 인권을 위해서이다. 그것은 건강한 사람과 동등하게

그들을 인간으로 대하는 태도이다. 늙음이라는 신체적 장애를 느끼는 노인들에 대한 배려도 그들의 인권을 생각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집안의 어르신을 잘 모시는 것을 효도의 관점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인권의 관점에서 볼 줄도 알아야 한다. 노부모에 대한 효도가 좀더 보편적 차원의 성격을 갖지 못한다면, 앞으로의 세대들에게 설득력을 얻기 어려울 것이다. 나는 장애인을 위한 자원 봉사에는 열심인 한 젊은이가 자립 능력이 없는 병약한 노부모 모시기를 거부하며, 효도의 ㉡시대착오적 측면을 적극 비판하는 경우를 보았다. 이렇게 인권의 사각 지대는 가정 안에도 있을 수 있다.

보편적 관점에서 보면, 노부모를 잘 모시는 것은 효도의 차원을 넘어선 인권 존중이라고 할 수 있다. 인권 존중은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고, 인권은 그것이 누구의 인권이든, 언제 어디서든 존중되어야 한다.

인권은 21세기의 ‘화두(話頭)’이다. 우리가 인권을 정치적 맥락에서만 보고자 하는 20세기적 사고의 틀을 벗고, 인권을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차원적 고려의 대상으로 확대할 때, 우리나라의 인권은 신장될 것이며 인권 국가로서 모범이 될 것이다. 더 나아가 국제 사회에서 인권 문제를 독창적이고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는 위치에 설 수도 있을 것이다.

8. 이 글의 대전제가 되는 명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2.8점]

- ① 인권은 누구의 인권이든 존중되어야 한다.
- ② ‘노인 현상’은 효도의 맥락에서 다루어야 한다.
- ③ 국제적 인권 국가로서의 위상을 획득해야 한다.
- ④ 인권 신장은 노인 문제 해결에서 출발해야 한다.
- ⑤ 인권은 정치적 맥락에서 강력하게 보장해야 한다.

9. 글쓴이의 주장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인권을 정치적 맥락에서만 보아서는 안 된다.
- ② 최근 우리나라는 장애인보다 노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
- ③ 노인들이 젊은이들처럼 활력 있게 생활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어야 한다.
- ④ 신체적 장애를 느끼는 노인들에 대한 배려는 인권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⑤ 우리나라는 ‘노인 현상’을 가정의 테두리 안에서 해결하려는 전통이 남아 있다.

10.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글쓴이가 취할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전통적 관습에 어긋나지 않는 해결 방법을 모색할 것이다.
- ② 먼저 그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을 모색할 것이다.
- ③ 반드시 해결할 수 있다는 강한 신념으로 문제를 이해할 것이다.
- ④ 그 문제의 심각성과 해결 가능성을 예리한 직관으로 판단할 것이다.
- ⑤ 그 문제에 대처하는 방식이 어떤 고정 관념에 사로잡혀 있는지 점검할 것이다.

11.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모든 노인들을 가족처럼 공경해야 한다.
- ② 노인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 ③ 노인들에게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도움을 주어야 한다.
- ④ 노인들의 장애로 인한 부담을 사회가 나누어 가져야 한다.
- ⑤ 노인들이 한계를 인정하고 스스로 물러날 수 있도록 한다.

12. ㉡의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정민주 씨는 투표할 때마다 반드시 입후보자들의 출신 고교를 확인한다.
- ② 차사랑 씨는 직장에서 승진하였기에 자가용 자동차를 고급 차로 바꾸었다.
- ③ 한지방 씨는 가족의 건강을 위해 매일 패스트푸드 음식점에서 저녁 식사를 한다.
- ④ 서행복 씨는 재산 증식을 위해 주거 환경보다 투자 가치를 고려하여 주택을 구입했다.
- ⑤ 장부장 씨는 직원의 창의적 업무 수행을 위해 근무 복장을 단정하고 통일된 정장 차림으로 할 것을 사장에게 건의하였다.

[13~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강호(江湖)에 너름이 드니 초당(草堂)에 일이 없다.

유신(有信)한 강파(江波)는 보내느니 바람이라.

이 몸이 서늘히움도 역군은(亦君恩)이샀다.

- 맹사성, <강호사시가>

(나) 흰 구름 브흰 煙霞(연하) 프로니는 山嵐(산람)이라. 千巖(천암) 萬壑(만학)을 제 집을 삼아 두고 나명성 들 명성 일히도 구는지고. 오르거니 느리거니 長空(장공)의 썩나거니 廣野(광야)로 건너거니 프르락 불그락 여트락 디트락 斜陽(사양)과 섯거디어 細雨(세우)조차 쓰리난다.

籃輿(남여)를 비야 타고 술 아릭 구븐 길노 오며 가며 흥는 적의 綠楊(녹양)의 우는 黃鶯(황앵) 嬌態(교태) 겨워 흥는고야.

나모 새 크즈지어 綠陰(녹음)이 일린 적의 百尺(백척) 欄干(난간)의 긴 조으름 내여 퍼니 水面(수면) 涼風(양풍)이야 굿칠 줄 모르는가. 즌서리 싸딘 후의 산 빗치 錦繡(금수)로다. 黃雲(황운)은 또 엇디 萬頃(만경)의 퍼겨디오. 漁笛(어적)도 흥을 계워 돌돌 싸와 브닌다.

草木(초목) 다 진 후의 江山(강산)이 므물켜늘, 造物(조물)리 현스하야 氷雪(빙설)로 꾸며내니, 瓊宮瑤臺(경궁요대)와 玉海銀山(옥해은산)이 眼底(안저)에 ㉡버려세라. 乾坤(건곤)도 ㉢가을열샤 간 대마다 경이로다.

人間(인간)을 썩나와도 내 몸이 겨를 업다. 이것도 보러 호고 저것도 드르려코 바람도 허려 호고 돌도 마즈려코, 밤으란 언제 줍고 고기란 언제 낙고 柴扉(시비)란 뉘 다드며 딴 곳츠란 뉘 쓸려노. 아츰이 ㉣낫브거니 나 조희라 슬흠소냐. 오늘리 不足(부족)커니 來日(내일)리라 有餘(유여)하라. 이 뉘히 안자 보고 더 뉘히 거러 보니 煩勞(번로)흔 므움의 바릴 일이 아조 업다. 쉼 사이 업거든 길히나 전히리야. 다만 흥 靑藜杖(청려장)이 다 므되여 가노미라.

㉤술이 닉어거니 벗지라 업슬소냐. 불니며 툃이며 혀

이며 이아며 온가짓 소리로 醉興(취흥)을 비야거니 근 심이라 이시며 시롭이라 브트시라. 누으락 안즈락 구브락 저즈락 을프락 프람하락 노혜로 놀거니 天地(천지)도 넘고넘고 日月(일월)도 흥가하다. 羲皇(희황) 모를러니 이적이야 괴로고야. 神仙(신선)이 엇더턴지 이 몸이야 괴로고야.

江山風月(강산풍월) 거늘리고 내 百年(백년)을 다 누리면 岳陽樓(악양루) 상의 李太白(이태백)이 사라오다 浩蕩(호당) 情懷(정회)야 이에서 더흠소냐.

이 몸이 이렇굼도 亦君恩(역군은)이샀다.

- 송순, <면양정가>

(다) 유상 앵비(柳上鶯飛)는 편편금(片片金)이요, 화간 접무(花間蝶舞)는 분분설(紛紛雪)이라. 삼춘 가절(三春佳節)이 좋을씨고. 도화만발 점점홍(桃花滿發點點紅)이로구나. 어주축수 애삼춘(漁舟逐水愛三春)이어든 무릉도원(武陵桃源)이 예 아니냐. 양류세지 사사록(楊柳細枝絲絲綠)하니 황산곡리 당춘절(黃山谷裏當春節)에 연명오류(淵明五柳)가 예 아니냐.

제비는 물을 차고, 기러기 무리져서 거지 중천(居之中天)에 높이 떠서 두 나라 ㉥월선 펴고, 펄펄펄 백운간(白雲間)에 높이 떠서 천리 강산 머나먼 길을 어이 갈꼬 슬피 운다.

원산(遠山)은 첩첩(疊疊), 태산(泰山)은 ㉦주출하여, 기암(奇岩)은 층층(層層), 장송(長松)은 낙락(落落), 에이 구부러져 광풍(狂風)에 흥을 겨워 우줄우줄 춤을 춘다.

층암 절벽상(層岩絕壁上)의 폭포수(瀑布水)는 팔팔, 수정렴(水晶簾) 드리운 듯, 이 골 물이 주루루룩, 저 골 물이 쌀쌀, 열에 열 골 물이 한데 합수(合水)하여 천방저 지방저 소쿠라지고 평퍼져, 넉출지고 방울져, 저 건너 병풍석(屏風石)으로 으르렁 팔팔 흐르는 물결이 은옥(銀玉)같이 흩어지니, 소부 허유(巢父許由) 문답하던 기산 영수(箕山潁水)가 예 아니냐.

- <유산가>

13. (가)~(다) 화자의 태도상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연을 벗삼는 삶에 만족하고 있다.
- ② 자연을 은둔과 도피의 세계로 설정하고 있다.
- ③ 이상 세계를 설정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있다.
- ④ 현실로부터 탈출하고자 하는 강한 욕구를 드러내고 있다.
- ⑤ 현재와 같은 삶을 부여한 절대적 존재에 대해 감사하고 있다.

14. ㉠과 정서적으로 잘 어울리는 구절을 (나)에서 찾으시오?

- ① 斜陽(사양)과 ㅅㅅ거디어 細雨(세우)조차 ㅅㅅ리난다
- ② 綠楊(녹양)의 우는 黃鶯(황앵) 嬌態(교태) 거워 ㅎㄷ고야
- ③ 百尺(백척) 欄干(난간)의 긴 조으름 내어 ㅅㅅ니
- ④ 瓊宮瑤臺(경궁요대)와 玉海銀山(옥해은산)이 眼底(안저)에 버려세라
- ⑤ 羲皇(희황) 모를러니 이적이야 기로고야

15. ㉡과 발상 과정이 가장 유사한 것은? [2.8점]

- ① ㅅㅅ은 눈 소소리바람 불 제 ㅅㅅ 한 잔 먹자 ㅎㅇ.
하물며 무덤 우헤 ㅅㅅ납이 ㅅㅅ람 불 제 ㅅㅅ우친들 ㅅㅅ지리.
- ② 대초 불 붉은 ㅅㅅ에 ㅅㅅ은 어이 ㅅㅅ드르며,
벼 ㅅㅅ 그루에 ㅅㅅ는 어이 나리는고.
술 익자 ㅅㅅ장사 지나가니 아니 ㅅㅅ고 어이리.
- ③ 잔 들고 혼자 ㅅㅅ아 먼 산을 바라보니,
그리던 ㅅㅅ이 오다 반가움이 이리하랴.
말삼도 우웁도 아녀도 못내 좋아하노라.
- ④ ㅅㅅ방석 내지 마라 낙엽엔들 못 ㅅㅅ으랴.
술불 ㅎㅅ지 마라 어제 ㅅㅅ 달 돌아 온다.
아희야, ㅅㅅ주 산첼망정 ㅅㅅ다 말고 내어라.
- ⑤ ㅅㅅ ㅅㅅ여 ㅅㅅ은 술을 葛巾(갈건)으로 ㅅㅅ타 노코,
ㅅㅅ나모 가지 ㅅㅅ거 수 노코 먹으리라.
和風(화풍)이 건듯 부러 綠水(녹수)를 건너오니,
清香(청향)은 잔에 지고 落紅(낙홍)은 옷새 ㅅㅅ다.

16. ㉢~㉤의 문맥적 의미로 바르지 않은 것은?

- ① ㉢ : 펼쳐져 있도다
- ② ㉣ : 풍요롭구나
- ③ ㉣ : 부족한데
- ④ ㉤ : 보다 더
- ⑤ ㉤ : 우뚝 솟아

[17~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북한에서는 어휘 정리 문제를 민족 발전을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우선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른바 ‘말다듬기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이 결과, 남한의 표준어와 북한의 문화어는 어휘 분야에서 이질적인 점이 가장 많이 드러나게 되었다. 이는 목적성이 강한 ㉠북한의 언어 정책으로 말미암아 생긴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어휘 면에서 보이는 북한말의 특징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남한에서 사용하는 말과 형태는 같은데 의미가 다르게 사용되는 단어가 많다. ‘동무, 인민’ 등의 단어가 남한에서와는 다른 의미로 사용된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는 일이거니와, 가령 ‘아가씨’ 같은 말도 좋은 의미로는 사용되지 않고 봉건 사상이 담긴 부정적인 의미가 첨가되어 사용된다. ‘빨치산’은 원래 게릴라를 의미하는 말이었지만, 혁명적 영웅을 가리키는 뜻으로 사용된다. ‘어버이’란 말도 친부모 대신 김일성을 가리키는 상징적인 낱말이 되었다. ‘궁전’은 ‘어린이들이나 근로자들을 위하여 여러 가지 교양 수단들과 체육·문화 시설 등을 갖추고 정치·문화·교양 사업을 하는 크고 훌륭한 건물’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며, ‘천리마’는 ‘인민들의 혁명적 기상’이라는 새로운 정치 사상적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예술’이라는 말도 본래의 의미 외에 ‘기술과 수련’이라는 뜻으로 확대 사용된다. 이러한 현상은 사회 제도의 차이에 따른 언어관 및 언어 정책의 차이로 말미암아 나타난 현상으로서, 문화어 정책 수립 이후 더욱 심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반대로, 같은 의미를 다른 형태의 단어로 나타내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는 주로 어휘 정리 사업을 펼친 결과로 나타난 언어의 이질화 현상이다. 가령, 북한에서 ‘로터리’를 ‘도네네거리’, ‘샤워실’을 ‘물맞이칸’, ‘커피’를 ‘주름막’으로 바꾼 것은 외래어를 고유어로 다듬은 경우이다. ‘빼빼’는 ‘주머니종’이라고 한다. 그러나 ‘산책길’을 ‘유보도(遊步道)’, ‘대중 가요’를 ‘군중 가요(群衆歌謠)’로 표현하는 것들은 말다듬기와는 관련이 없으며, 중국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북한에서 많이 사용되는 어휘 중에는 공산주의 체제가 등장하면서 만들어진 정치, 경제, 사회 분야의 어휘가 많은데, 이 또한 남한 사람들에게는 매우 생소한 단어들이다. ‘군중 로선, 로동 교양소, 농촌 테제, 동의학, 만가동, 밥 공장, 속도전, 인민 배우, 집체 담화, 후비대’ 등과 같은 예가 그것인데, 이 말들은 특별한 설명이 없을 경우에 남한 사람들은 그 정확한 뜻을 이해할 수 없다.

이와 함께 북한말 어휘의 특징으로 가장 두드러진 점은, 말다듬기 사업의 결과 고유어를 사용하여 만들어진 단어들에 남한에 비해 비교적 많다는 점이다. 가령, ‘마사버리다, 우등불, 불무지, 토스레, 흔들레판’과 같은 단어들은 남한 사람들에게는 모두 낯선 말들이다.

한편, 문화어라는 것이 평양말을 중심으로 만들어지다 보니 평안도, 함경도의 방언 어휘가 많이 수용되어 ‘망들(맷들), 부루(부추), 아즈럽다(애처롭다), 게사니(거위), 인차(곤)’ 등과 같은 말들이 사용되고 있다. 외래어의 경우는 남한이 영어의 영향을 받은 것과는 달리 북한에서는 러시아 말의 영향을 받아서, ‘꼼무나(공동 집단), 그루빠(그룹), 트락또르(트랙터)’ 등과 같은 모습으로 사용되고 있다. 또, 의성어·의태어처럼 쉽게 변하지 않는 말들도 남북한이 다른 경우가 있다. 가령, ‘알랑질랑 방울소리, 씨엉씨엉 배를 물았습시다, 아글타글 예를 쓰면서, 속이 바질바질 탄다, 우줄우줄 춤을 춥니다’ 등과 같은 의성어·의태어 표현들은 남한 사람들에게는 생소한 것이다.

이 같은 어휘의 차이는 현재 남북 대화를 할 경우에는 물론, 장차 통일이 되었을 때에도 상호간의 의사 소통에 지장을 주는 가장 커다란 장애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같은 단어인데 의미가 다른 경우, 남한 사람과 북한 사람이 대화를 나누더라도 각각 다른 뜻으로 이해하거나 심지어는 오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면, 이는 원만한 의사 소통을 위해서는 커다란 문제가 아닐 수 없을 것이다.

17. 밑글의 서술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 ① 주장을 먼저 내세우고 그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였다.
- ② 대상을 분석적으로 설명한 다음 다시 이를 종합하였다.
- ③ 일반적 진술을 한 다음 이에 대한 풍부한 사례를 열거하였다.
- ④ 개념을 정의한 다음 사례를 분석하고 상세한 설명을 덧붙였다.
- ⑤ 문제 상황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18. 밑글의 내용으로 미루어 짐작한 것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북한의 언어 정책은 통일 후를 대비하여 수립되었다.
- ② 언어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사상과 감정을 반영한다.
- ③ 북한에서는 언어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사상성을 매우 중시하였다.
- ④ 사회 제도나 정책의 변경으로 언어를 의도한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 ⑤ 북한에서 사용되는 외래어 중 영어계 외래어는 남한보다 그 수가 적을 것이다.

19. 글쓴이의 궁극적 의도로 가장 알맞은 것은?

- ① 남북 대화의 필요성 강조
- ② 국어 순화의 구체적 방안과 방향 모색
- ③ 사회 제도의 변화와 언어 변화와의 관계 연구
- ④ 남북한의 언어 비교를 통한 바람직한 언어 정책의 수립
- ⑤ 통일 후 남북한의 언어 이질화가 초래할 문제에 대한 대비

20. ㉠에 대한 독자의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2점]

- ① 언어 정책을 통해 사상을 강화하겠다는 생각은 억지 춘향이에 불과해.
- ② 목적성이 지나치다고는 하지만, 고유어를 살리려는 정신만은 본받을 만해.
- ③ 북한의 문화어 정책이 오히려 북한어의 발달을 가로막은 결과를 가져온 것은 아닌지?
- ④ 러시아어를 중심으로 외래어 정책을 편 것을 보면, 그들의 언어 정책은 일관성이 없어.
- ⑤ 평안도, 함경도 방언을 문화어에 많이 수용한 것은 북한의 개방화와 관련이 있는 것 같아.

[21~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대추나무 뒤편 하늘은 벌써 짙은 보라색이다. 나는 보라색을 싫어한다. 손톱에 들이는 봉숭아물도, 닭벼슬 같은 맨드라미꽃도, 코스모스의 보라색 꽃도 다 싫다. 어머니 젖꼭지 빛깔까지도 싫다. 보라색은 어쩐지 아버지의 하는 일을 떠올리게 해 주고, 어머니의 피멍 든 얼굴을 생각나게 한다. 보라색은 또 말라붙은 피와 같고, 캄캄해질 징조를 보이는 빛깔이다. 열은 보라에서 짙은 보라로, 그래서 야금야금 어둠이 모든 것을 잡아먹다가 끝내 캄캄한 밤이 온다는 사실이 참으로 무섭다. 이 세상에 ㉠빛이 없는 곳이 있다면 나는 늘 그곳에서 살고 싶다. 나는 빛 속에 끼어 놀고 싶고, 또 빛 속에서 자고 싶다. 그러나 아버지는 어둠 속에서 총살당할 것이다.

<중 략>

이모부가 나를 조용히 부른다. 나의 눈물 젖은 눈에 이모부의 침통한 표정이 흔들린다. 이모부는 뿌드득 이빨을 간다. 무엇인가를 결심한 듯 빠르게 말한다.

㉡“가자, 니 아버지 보여 주꾸마.”

이모부는 내 손을 끌고 지서 뒷마당으로 간다. 다리를 절며 이모부는 성큼성큼 걸어 들어간다. ㉢잎순이 터지려는 느릅나무의 잔가지가 바람에 잔잔히 떨리고 있는 뒷마당은 조용하다. 오직 달빛만 비치고 있다.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든다. 그러나 이모부는 말이 없다. 어둠 속에서 나는 무엇인가 찾으려고 두리번거린다. 가슴 속이 마구 방망이질을 한다. ㉣쫄쫄한 눈을 닦고 아버지의 모습을, 죽은 아버지의 몸뚱이를 찾기 위해 이곳 저곳을 더듬어 본다.

느릅나무 밑, 거기에 가마니에 덮인 것이 눈에 들어온다. 이모부가 걸음을 멈춘다. 가마니 밑으로 발목과 함께 닳아빠진 농구화가 비어져 나와 있다. 그러나 정강이 부근부터 머리까지 가마니에 덮여 있다. 나는 숨을 멈추고 이모부의 허리를 꼭 잡는다. 온몸이 와들와들 떨린다.

“이거다. 이게 니 아버지의 시체다. 똑똑히 보았제. 앞으로는 절대로 아버지를 찾아서는 안 된다. 알겠제?”

이모부는 말한다. 내 손을 놓더니 가마니를 훌쩍 뒤집는다.

㉤아, 나는 볼 수 있었다. 달빛 아래 희미하게 드러나는 아버지의 처참한 얼굴을. 반쯤은 피에 가려 있고, 나머지 부분은 하얗게 바래 버린 찌그러진 얼굴. 죽은 아버지의 눈은 부릅뜨고 있었다. 턱은 툭툭 부어 있고, 입은 커다랗게 벌어져 있었다. 아버지가 저렇게 되다니. 나는 믿을 수가 없다. 아버지가 아닌, 다른 사람인 것만 같다. 검은 국방복의 저고리 단추가 풀어진 사이로 보이는 아버지의 가슴, 나는 어릴 때 그 가슴에 안겨 얼마나 재롱을 떨었던가! ㉥그런데 이제 아버지의 가슴은 그 무서운 보랏빛으로 변하고 말았다. 축 늘어진 어깨와 아무렇게나 내던져진 두 팔을 보니 아버지는 분명 잠을 자고 있지 않다. 나는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없다.

“죽다니, 저렇게 죽어 뿌리고 말다이!”

나는 흐느낀다. 이모부가 내 팔을 잡는다. 나는 사납게 뿌리친다. 내닫기 시작한다. 나의 눈에는 이모부도, 보조를 선 순경도 보이지 않는다. 아버지인 거짓부렁이야. 거짓말만 하다 죽고 말았어. 아니야, 아니야. 죽지 않았어. 거짓말처럼 죽은 체하고 있을 따름이야. 나는 헐떡거리며 집과 반대인 낙동강 쪽으로 달린다. 숨이 턱에 닿는다. 달빛에 뿌옇게 드러난 강둑이 보인다. 강둑에 올라서자 나는 숨을 가라앉힌다. 강물이 흐르고 있다. 언제 보아도 강물은 쉬지 않고 흘러가고 있다. 달빛을 받은 강물이 잉어 비늘처럼 번뜩인다. 강 건너 서 있는 키 큰 포플라가 아버지 모습 같으다. 나를 오라고 손짓하는 것 같으다. 어릴 적, 아버지와 나는 강둑을 거닐며 많은 이야기를 했다. 쉬지 않고 흐르는 이 강처럼 너도 쉬지 않고 자라야 한다. 마음도 그렇게 늠름하게 자라야 한다. 아버지는 이런 말도 했다. ㉦그러자 아버지가 죽었다는 실감이 비로소 나의 가슴에 소름을 일으키며 아프게 파고든다. 나는 갑자기 떨기 시작한다. 서른일곱으로 연기처럼 사라져 버린 아버지. 청개구리처럼 제 멋으로 그렇게 뛰다 어머니와 우리 오누이들을 남겨 두고 가 버린 아버지. 이제 내가 죽기 전 영원히 만날 수 없게 된 아버지. 어린 나에게 너무나 큰 수수께끼를 남기고 죽어 버린 아버지의 일생을 더듬을 때, 나는 알 수 없는 두려움 때문에 사시나무처럼 떠난다. ㉧그와 더불어 나는 무엇인가 깨달은 느낌을 가지게 되었다. 그 느낌을 꼬집어 내어 설명할 수는 없었으나, 이를테면 살아가는 데 용기를 가져야 하고 어떤 어려움이나 슬픔도 이겨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었다.

- 김원일, <어둠의 혼>

21. 밑글에서 ‘어린이의 눈’을 통하여 서술함으로써 얻는 효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8점]

- ① 현실에 대한 비판 정신을 강도 높게 드러내 준다.
- ② 사건을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게 하고, 이야기에 몰입하게 한다.
- ③ 암울한 배경을 더욱 돋보이게 하고, 독자의 상상력을 풍부하게 해 준다.
- ④ 작중 인물에 대해 친근감을 가지게 하고, 인물 묘사의 사실성을 높여 준다.
- ⑤ 작중 화자의 체험에 대한 신뢰감을 높이고, 화자의 아픔을 절실하게 느낄 수 있게 한다.

22. 밑글로 미루어 볼 때, ‘이모부’의 성격적 특성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학식이 많아 주위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이다.
- ② 평소에는 과묵하며 결정적일 때는 행동으로 표출하는 사람이다.
- ③ 부당한 처사에 대해서는 사리를 분명히 따질 줄 아는 사람이다.
- ④ 무뚝뚝하고 인정이 메말라 가족이나 세상 일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이다.
- ⑤ 매우 친절하고 자상하여 어린이들에게도 세상의 이치를 잘 가르쳐 주는 사람이다.

23. ㉠과 ‘밭’의 상징적 의미가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달은 나의 뜰에 고요히 앉아 있다. / 달은 과일보다 향그럽다. // 동해 바다 물처럼 / 푸른 / 가을 / 밭
- ② 밭중만 어매 그늘 세 번이나 나린다네 / 게서 자라날 제 어인 줄을 몰랐고여 / 님의 꿈 깨닫고 보니 님은 밭서 머서라.
- ③ 밭에 홀로 유리를 닦는 것은 / 외로운 황홀한 심사이어니, / 고운 폐혈관이 찢어진 채로 / 아아, 너는 산새처럼 날러갔구나!
- ④ 달 가고, 밭 가고, 눈물도 가고, 티어 올 밝은 하늘 빛난 아침 이르면, 향기로운 이슬밭 푸른 언덕을, 총총총 달려도 와 줄 불이 고운 사람.
- ⑤ 3월(三月)에 눈이 오면 / 사갈의 마을의 쥐똥만한 겨울 열매들은 / 다시 올리브 빛으로 물이 들고 / 밭에 아낙들은 / 그 해의 제일 아름다운 불을 / 아궁이에 지핀다.

24. ㉡에 내포된 의미를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것은?

- ① a ② b ③ c ④ d ⑤ e

25. ㉢의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작중 화자의 내면 심리 상태를 반영하고 있다.
- ② 작중 화자의 삶에 대한 의지가 강하게 내포되어 있다.
- ③ 작중 화자에게 뜻밖의 일이 벌어질 것을 암시하고 있다.
- ④ 작품의 분위기를 특정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 ⑤ ‘잎순이 터지려는 느릅나무’는 작중 화자를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6~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스포츠는 도시 문화의 일부이다. 시골 사람도 걷고, 뛰고, 무거운 짐을 옮긴다. 여름이면 해엄을 치고, 겨울이면 썰매를 탄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몸놀림을 스포츠라 하지 않는다. 스포츠는 특정한 규칙에 따르는 운동과 경기이다. 또한 특정한 예식과 장식, 그리고 도구를 거느린다. 시골 사람의 몸동작이 어떤 자연스러운 운동이라면 스포츠는 어떤 규약에 따라 학습된 인위적 운동이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학교에서 스포츠를 배운다. 우리는 학교라는 근대적 제도를 통해 체조, 수영, 축구, 배구 등을 접하고 익힌다. 제도를 통해서 전파되고 재생산되는 운동, 그것이 스포츠이다. 그래서 어릴 적 냇가에서 미역감을 때 하는 ‘개해업’은 스포츠로서의 수영이 아니다. 개꿈이 무의미한 꿈이듯이 ㉠개해업은 무의미한 해업이다. 의미는 규칙과 코드가 있을 때 성립한다. 규칙과 코드가 있는 몸동작, 의미 있는 몸동작, 그것이 스포츠이다.

스포츠는 근대화의 이념 안에서 탄생·발전해 왔다. 근대성은, 여러 가닥의 역사적 흐름이 한 장소에 모이면서 형성된 어떤 역사 전개의 논리적 특성이다. 그 특성을 낳는 주요한 역사적 흐름으로, 과학과 기술의 발전, 표준화와 제도적 질서의 확충, 분업화와 전문화의 심화를 들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스포츠는 과학적 사유의 연장으로 볼 수 있다. 스포츠가 신체 사용의 기술을 고안하고 실행하는 영역이라면, 이 기술은 신체에 대한 객관적 관찰에 근거한다. 의학은 신체를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일을 전업으로 한다.

이렇게 개발된 신체 사용의 기술은 표준화를 지향하며, 이런 표준화된 기술과 규칙이 질서로 자리잡는다. 육상 경기를 배우면서, 축구와 농구를 배우면서 아이의 신체는 근대성을 띠게 된다. 표준화된 규칙과 규율을 내면화하는 것이다.

스포츠는 근대적 분업화와 전문화의 산물이다. 스포츠가 전문적 직업의 영역으로 발돋움함에 따라 어떤 양극화 현상이 뒤따른다. 한쪽에는 스포츠를 통해서 어떤 장면을 연출하는 사람들이 있게 되고, 다른 한쪽에는 그 장면을 관람하는 사람들이 있게 된다. 스포츠가 발전함에 따라 ㉡장면 생산자와 장면 소비자 사이의 거리는 점점 커진다. 규칙과 코드가 복잡해지고 전략과 작전이 정교해지면서 소비자는 생산된 장면을 완전히 이해하기가 어려워진다.

이런 문제는 곧 사라진다. 해설자가 등장해서 선수들의 동작을 설명해 주기 때문이다. 이런 역할은 스포츠가 상품화될수록 점점 커진다. 선수들이 연출한 장면을 대중이 만끽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도우미 역할이 있을 때만 고도의 전문성을 띠어 가는 스포츠가 대중으로부터 유리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스포츠를 대중에게 가깝게 만드는 것은 무엇보다 미디어의 힘이다. 미디어를 통해서 스포츠는 비로소 광범위한 대중이 소비할 수 있는 스펙터클, 스펙터클로서의 상품이 될 수 있었다.

스포츠는 오늘날 수많은 직업과 생업을 창출하는 거대 규모의 사업 영역이 되었다. 다양한 종류의 기업이 스포츠의 영역에 자리잡고 있고, 전문가와 아마추어를 위한 관련 상품들을 생산하고 있다. 운동 선수들은 쇼비즈니스에 동원된 연예인과 같은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근대성의 필연적 귀결이다. 스포츠는 근대성의 빛과 그림자가 그 어느 곳보다 강렬한 대비를 이루면서 동시에 드러나는 장소이다.

26. 윗글의 내용을 일반화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스포츠는 근대성의 특성을 잘 보여 준다.
- ② 스포츠는 근대적 학교 교육을 통해 생성되었다.
- ③ 스포츠는 몸의 생태와 조화를 이루어야만 한다.
- ④ 스포츠는 상업화와 전문화로 대중과 유리될 것이다.
- ⑤ 스포츠는 인간의 신체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자 했다.

27. ㉠과 ‘개’의 의미가 같은 것은?

- ① 개떡
- ② 개살구
- ③ 갯바람
- ④ 개구쟁이
- ⑤ 개다리소반

28. 밑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2.2점]

- ① 근대적 스포츠는 보통 학교 교육을 통하여 접하게 된다.
- ② 규칙을 따르지 않는 운동은 근대적 스포츠로 보기 어렵다.
- ③ 일부 운동 선수들은 연예인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 ④ 스포츠와 대중을 가깝게 만드는 가장 큰 힘은 해설자의 전문성이다.
- ⑤ 아이의 신체는 표준화된 규칙과 규율의 내면화를 통해 근대성을 지니게 된다.

29. ㉡의 ‘거리’를 좁히는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경기 중 심판 판정에 대한 전문적 해설
- ② 위성을 이용한 주요 경기의 텔레비전 중계 방송
- ③ 한국 국가 대표 축구팀 수준에 적합한 고도의 전문적 전술 개발
- ④ 메이저 리그에서 활약하는 강속구 선수의 동정에 대한 상세한 기사
- ⑤ 국가 대표팀간 축구 경기에서 두 팀의 전형과 전술에 대한 예리한 분석

30. 글쓴이가 2002년 월드컵의 ‘붉은 악마 신드롬’을 설명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스포츠의 상업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 사례이다.
- ② 관중이 미디어에 의해 유도되는 현상의 전형적인 사례이다.
- ③ 자본에 의해 정교하게 계산된 행위의 위력을 보여 주는 사례이다.
- ④ 관중이 스포츠가 주는 감동의 원천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사례이다.
- ⑤ 관중이 스펙터클의 수동적 소비자로서의 기능을 다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사례이다.

[31~3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산야 사람이 대승상께 뵈나이다.”

승상이 이인인 줄 알고 황망히 답례 왈,

“사부는 어디로써 오신고?” 호승이 소왈,

“평생 고인을 몰라 보시니 귀인이 잇음 혈탄 말이 옳도 소이다.”

승상이 다시 보니 과연 낮이 익은 듯하거늘, 홀연 깨쳐 능과 낭자를 돌아보며 왈,

“소유, 전일 토번을 정벌할 제 꿈에 동정 용궁에 가 잔 치하고 돌아올 길에 남악에 가 노니, 한 화상이 법좌에 앉 아서 경을 강론하더니 노부가 노화상이냐?”

호승이 박장대소하고 가로되,

① “옳다, 옳다, 비록 옳으나 몽중에 잠깐 만나 본 일은 생 각하고 십 년을 동처하던 일을 알지 못하니 뉘 양 장원을 충명타 하더뇨?”

승상이 망연하여 가로되,

“소유, 십오륙 세 전은 부모 좌하를 떠나지 아녘고, 십육 에 급제하여 연하여 직명이 있으니, 동으로 연국에 봉사하 고 서로 토번을 정벌한 맑은 일찍 경사를 떠나지 아녘으 니, 언제 사부로 더불어 십 년을 상종하였으리요?”

호승이 소왈,

“상공이 오히려 춘몽을 깨지 못하였도소이다.”

승상 왈, “사부 어찌면 소유로 하여금 춘몽을 깨게 하리 요?”

호승 왈, “이는 어렵지 아니하니이다.”하고, 손 가운데 석 장을 들어 석난간을 두어 번 두드리니,

홀연 네 널 뒤편에서 구름이 일어나 대상에 끼이어 지척을 분변치 못하니, 승상이 정신이 아득하여 마치 취몽 중에 있는 듯하더니 오래게야 소리질러 가로되,

“사부가 어이 정도로 소유를 인도치 아니하고 환술로 서 로 희롱하나뇨?”

말을 맞지 못하여서 구름이 걷히니 호승이 간 곳이 없고, 좌우를 돌아보니 팔 낭자 또한 간 곳이 없는지라 정히 경

황하여 하더니, 그런 높은 대와 많은 집이 일시에 없어지 고 제 몸이 한 작은 암자 중의 한 포단 위에 앉았으며, 향 로에 불이 이미 사라지고, 지는 달이 창에 이미 비치었더라.

스스로 제 몸을 보니 일백여덟 날 염주가 손목에 걸렸 고, 머리를 만지니 갓 깎은 머리털이 가칠가칠하였으니 완전히 소화상의 몸이요, 다시 대승상의 위의 아니니, 정신이 황홀하여 오랜 후에 비로소 제 몸이 연화 도량 성진 행자인 줄 알고 생각하니, 처음에 스승에게 수책하 여 풍도로 가고, 인세에 환도하여 양가의 아들 되어 장 원 급제 한림 학사 하고, 출장 입상하여 공명 신퇴하고, 양 공주와 육 낭자로 더불어 즐기던 것이 다 하룻밤 꿈 이라. 마음에 이 필연 사부가 나의 염려를 그릇함을 알 고, 나로 하여금 이 꿈을 꾸어 인간 부귀와 남녀 정욕이 다 허사인 줄 알게 함이로다.

급히 세수하고 의관을 정제하며 방장에 나아가니 다른 제자들이 이미 다 모였더라. 대사, 소리하여 물되,

“성진아, 인간 부귀를 지내니 과연 어떠하더뇨?”

①성진이 고두하며 눈물을 흘려 가로되,

“성진이 이미 깨달았나이다. 제자 불초하여 염려를 그릇 먹어 죄를 지으니 마땅히 인세에 윤회할 것이어늘, 사부 자비하사 하룻밤 꿈으로 제자의 마음 깨닫게 하시니, 사부 의 은혜를 천만 겁이라도 갚기 어렵도소이다.”

대사 가로되,

“네, 승흥하여 갔다가 흥진하여 돌아왔으니 내 무슨 간에 함이 있으리요? 네 또 이르되 인세에 윤회할 것을 꿈을 꾸 다 하니, 이는 인세와 꿈을 다르다 함이니, 네 오히려 꿈을 채 깨지 못하였도다. ②‘장주가 꿈에 나비가 되었다가 나비 가 장주 되니’ 어니 거짓 것이요 어니 진짓 것인 줄 분변 치 못하나니, 어제 성진과 소유가 어니는 진짓 꿈이요 어 니는 꿈이 아니뇨?”

성진이 가로되,

“제자, 아득하여 꿈과 진짓 것을 알지 못하니, 사부는 설 법하사 제자를 위하여 자비하사 깨닫게 하소서.”

- 김만중, <구운몽>

31. <보기>는 '조신의 꿈'의 줄거리이다. 밑글에 대응시킬 때 잘못된 것은? [2.2점]

<보 기>

신라 때 스님 조신이 명주 태수 ㉠김혼의 딸을 보고 훌쩍 반했는데, 얼마 후 그녀가 딴 사람에게 출가했으므로 조신은 울면서 그녀를 못내 그리워했다. 하루는 ㉡분처를 원망하다가 피곤해서 낮잠이 들었는데, 김랑이 부모의 영을 못 이겨 결혼했지만 당신을 사랑한다며 돌아왔다. ㉢조신은 기뻐하며 고향에 돌아가 함께 살았는데, 자식을 다섯이나 두도록 살림은 찢어지게 가난하여 끼니를 풀일 조 한 되 없고 입을 옷도 없어, 하는 수 없이 자식을 서로 나누어 헤어지는 찰나에 잠을 깬다. ㉣박은 ㉤이미 어스름한 어둠이 되었고, 인생의 덧없음을 깨우친 그 후로는 김랑에게 반했던 마음도 씻고 ㉥불도에 진력하였다.

- ① ㉠ : 염려를 그릇함
- ② ㉡ : 스승에게 수책함
- ③ ㉢ : 양공주와 육남자로 더불어 즐겁
- ④ ㉣ : 지는 달이 창에 이미 비치었더라
- ⑤ ㉤ : 제자를 위하여 자비하사 깨닫게 하소서

32. <보기>는 ㉠을 요약적 제시 방식으로 고친 글이다. 고쳐 쓰는 과정에서 내용상 오류가 생긴 부분은?

<보 기>

일일은 한 호승이 찾아와 승상을 뵈기를 청하더니, ㉠그 인물이 비범해 보이더라. 호승이 전일 승상을 만난 바 있다고 말하였으되 잘 기억치 못하더니, 문득 생각하니 토번 정벌 시 ㉡동정 용궁에서 만났던 남악의 노화상이 분명하더라. ㉢어렵פות이 자신의 정체를 짐작하는 양승상에게 ㉣지난날의 더 깊은 인연을 말하였으되, 승상은 자기의 살아온 삶을 돌아 보며 ㉤꿈 속의 만남밖에 알지 못함을 말하더라. 호승이 승상의 깊은 춘몽을 깨우기 위해 석장을 들어 석난간을 두어 번 두드리니,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33. 밑글에서 **대사**의 말하기 방식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 ① 자신의 주장에 대한 일정한 근거를 제시하면서 상대를 설득하려고 한다.
- ② 말의 효과를 얻기 위해 특별한 행동을 취하며, 달래듯이 이야기하고 있다.
- ③ 이야기의 핵심을 직접 언급하지 않고 상대가 스스로 깨우치도록 유도하고 있다.
- ④ 사교적인 말로 먼저 상대의 마음을 사로잡고 본 이야기에 접어드는 방식을 취한다.
- ⑤ 상대의 말을 일부 긍정하면서 모순점을 지적하여 자신의 주장의 정당성을 획득하려 한다.

34. ㉠에 나타난 성진의 심적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허망함
- ② 괴로움
- ③ 비참함
- ④ 고마움
- ⑤ 부끄러움

35. ㉡를 통해 대사가 성진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 ① 제행무상(諸行無常)
- ② 생자필멸(生者必滅)
- ③ 회자정리(會者定離)
- ④ 천려일득(千慮一得)
- ⑤ 권불십년(權不十年)

[36~4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슈퍼마켓에서 혹은 현금 자동 인출기 앞에 길게 늘어선 줄들을 보고 ‘어느 줄에 설까’를 고민해 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순간적인 눈굴림과 조잔한 잔머리를 동반해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거는’ 고민 끝에 제일 빨리 줄어들 것 같은 줄 뒤에 서지만, 늘 다른 줄들이 먼저 줄어든다. 도대체 그 이유는 무엇일까? 다른 줄에 섰으면 지금쯤 계산이 끝났을 텐데 말이다.

이 문제는 조금만 생각해 보면 ㉠당연한 결과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약, 슈퍼마켓에 열두 개의 계산대가 있다고 가정해 보자. 공교롭게도 내가 선 줄의 계산대가 말뚝을 일으킨다거나 사람들이 물건을 많이 사서 유독 계산이 느리게 진행될 수도 있겠지만, 평균적으로는 다른 줄과 별 차이가 없다고 가정할 수 있다. 다른 줄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으니까. 또, 사람들은 늘 가장 짧은 줄 뒤에 서려고 할 것이므로, 줄의 길이도 대개 비슷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경우 평균적으로 내가 선 줄이 가장 먼저 줄어들 확률은 얼마일까? 그것은 당연히 1/12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다른 줄들이 내가 선 줄보다 먼저 줄어들 확률이 11/12이나 된다는 얘기다. 아주 운이 좋지 않다면, 어떤 줄을 선택하든 결국 나는 다른 줄이 먼저 줄어드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

늘 일기 예보를 챙겨 듣는 것은 아니지만, 우연히 라디오를 듣다 보니 오늘은 비가 온다는 일기 예보가 흘러 나온다. “난 정말 운이 좋지. 일기 예보를 못 들었으면 어떡할 뻔했어.” 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우산을 챙겨 집을 나서지만, 이런 날이면 어김없이 하루 종일 햇볕이 쨍쨍하다. 더욱 억울한 상황은 집에 도착하고 나면, 그제서야 비가 오는 경우이다. 일기 예보의 적중률이 80%가 넘는 이 시대에 도대체 이런 일은 왜 생기는 것일까? 날씨가 저런 나를 배신하는 걸까?

좀 엉뚱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로버트 매튜스의 계산에 따르면,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더라도 우산은 안 가져가는 것이 좋다. 일기 예보의 적중률이 평균 80%가 넘는 것은 사실이지만, 좀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정은 달라

진다. 만약, 기상청에 근무하는 기상 통보관이 집에서 잠만 자면서 일 년 내내 무조건 비가 안 온다고 예보를 한다고 가정해 보자. 그렇다면, 이 경우 일기 예보 적중률은 몇 퍼센트나 될까? 우리나라의 경우, 일 년 중에 비가 오는 날이 많아야 100일. 결국 당신은 아무런 계산 없이 무조건 비가 안 온다고 우기기만 해도 265/365, 즉 72.6%는 맞는 꼴이 된다. 문제는 비가 오는 날보다 비가 오지 않는 날이 훨씬 많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영국 기상청의 일기 예보 자료를 들여다보자. 24시간 정확한 일기 예보를 자랑하는 영국 기상청은 매시간 비가 올 확률을 전해 준다. 영국 기상청의 일기 예보 적중률은 83%이다. 그러나 실제로 시간당 비가 올 확률은 8% 정도이다. 따라서 무조건 비가 안 온다고 우겨도 92%는 맞는다. 최근 몇 년간 통계를 보면, 영국 기상청이 비가 안 온다고 예보를 했을 때, 실제로 비가 안 온 경우는 98.2%나 되지만, 비가 온다고 예보를 했는데, 비가 온 경우는 30%도 채 안 된다. 다시 말해, ㉡비가 온다는 예보는 그다지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는 것이다.

로버트 매튜스가 약간의 수학적 증명으로 머피의 법칙들은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들려 주고 있는 걸까? 세상에는 되는 일보다 생각대로 안 되는 일이 훨씬 더 많다. ㉢일이 안 될 때마다 우리는 머피의 법칙을 떠올리며, ‘나는 굉장히 재수가 없구나’라고 생각하지만, 로버트 매튜스의 계산은 그것이 ‘재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 준다. 더 나은 상황이란 언제든지 있기 마련이다. 어쩌면 우리가 바라던 것들이 이 세상에게는 상당히 무리한 요구였는지도 모른다.

36. 윗글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로 가장 알맞은 것은?

- ① 머피의 법칙을 따라야 하는가?
- ② 머피의 법칙은 증명될 수 있는가?
- ③ 머피의 법칙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 ④ 머피의 법칙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가?
- ⑤ 머피의 법칙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

37. 글쓴이의 의도에 따라 반응하고 있는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내가 응원하는 팀은 늘 지더라. 오늘은 상대방을 응원하겠어. 그러면 우리 팀이 이길지도 몰라.
- ② 어제 밤에 나쁜 꿈을 꾸었어. 어쩐지 예감이 좋지 않아. 운동장에 가는 대신 집에서 TV나 볼까 해.
- ③ 내가 응원할 때마다 우리 팀이 지곤 했지만, 운동장에 가서 열심히 응원하겠어. 나 하나의 힘이라도 보태야지.
- ④ 지난밤에 홍남보 선수가 선발 출장해서 우리 팀이 이기는 꿈을 꾸었어. 감독에게 홍남보 선수를 출장시키라고 해야겠어.
- ⑤ 박지국 선수가 선발 출장하면 늘 이겼어. 몸 상태가 썩 좋은 편은 아니지만, 중요한 게임이니만큼 불가불 출장시켜야 하지 않겠어.

38. 문맥상 ㉠과 바꾸어 쓰기에 적합한 말은?

- ① 필연적인
- ② 계산적인
- ③ 결정적인
- ④ 필수적인
- ⑤ 운명적인

39. ㉡에 대한 비판적 발언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2.8점]

- ① 기상청 사람들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감정적 발언은 지양되어야 해.
- ② 과학에 대해 잘 모르는 일반인들을 선동하는 언사로 비난을 면치 못할거야.
- ③ 다수가 신뢰하는 것을 혼자만 믿지 못한다는 것은 합리적인 처사가 아니야.
- ④ 과학적인 자료를 근거로 한 것을 믿을 게 못 된다고 하는 것은 독선이 아닐까?
- ⑤ 뚜렷한 근거도 없이 그런 말을 한다면, 이는 일반인들을 현혹시키는 궤변에 지나지 않아.

40. ㉢의 경우를 잘 나타내 주는 속담은? [2.2점]

- ① 쪽박 쓰고 벼락 피할까.
- ② 흥조가 들려면 장맛부터 변한다.
- ③ 개가 짖는다고 다 도둑은 아니다.
- ④ 도마 위의 고기가 칼을 무서워하랴.
- ⑤ 안 되는 놈은 꿈을 잡아도 응답이 없다.

2003학년도 육군사관학교 1차시험

언어 영역 정답표

문항 번호	정 답						
1	⑤	11	④	21	⑤	31	②
2	③	12	④	22	②	32	②
3	⑤	13	①	23	④	33	③
4	③	14	③	24	⑤	34	④
5	①	15	②	25	②	35	①
6	②	16	④	26	①	36	②
7	⑤	17	③	27	⑤	37	③
8	①	18	①	28	④	38	①
9	③	19	⑤	29	③	39	④
10	⑤	20	②	30	④	40	⑤



2002학년도 육군사관학교 1차시험 문제지

제 1 교시

언어 영역(국어)

공 통

성명

수험번호

1 쪽

- 먼저 문제지에 성명과 수험번호를 정확히 기입하십시오.
- 답안지에 성명과 수험번호를 컴퓨터용 수성 싸인펜으로 정확히 기입하십시오.
- 문제는 40문항이며, 문제지는 16쪽입니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르니,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고 하시오. 2.2점과 2.8점 문항에만 점수가 표시되어 있고, 나머지는 모두 2.5점씩입니다.
- 문제지와 답안지의 해당란을 정확히 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
- 문제지와 답안지는 함께 제출합니다. 답안지의 표기가 끝나면 재확인하여 답안지는 오른쪽, 문제지는 왼쪽에 얹어놓으시오.

[4~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푸른 하늘에 닿을 듯이
세월에 불타고 우뚝 남아 서서
차라리 봄도 꽃피진 말아라.

낮은 거미집 휘두르고
끝없는 꿈길에 혼자 설레이는
마음은 아예 뉘우침 아니라.

검은 그림자 쓸쓸하면
마침내 호수 속 깊이 거꾸러져
차마 ㉠바람도 흔들진 못해라.

- 이육사, <교목(喬木)>

(나)

내 가슴에 독(毒)을 찬 지 오래로다.
아직 아무도 해(害)한 일 없는 새로 뽑은 ㉡독
벗은 그 무서운 독 그만 흠어 버리라 한다.
나는 그 독이 선뜻 벗도 해할지 모른다 위협하고.

독 안 차고 살아도 머지않아 너 나 마저 가 버리면
억만세대가 그 뒤로 잠자코 흘러가고
나중에 땅덩이 모지라져 모래알이 될 것임을
'허무한디!' 독은 차서 무엇하느냐고?

아! 내 세상에 태어났음을 원망 앓고 보낸
어느 하루가 있었던가, '허무한디!' 허나
앞뒤로 덤비는 ㉢이리 승냥이 바야흐로 내 마음을
노리매
내 산 채 짐승의 밥이 되어 찢기우고 할퀴우라
내맡긴 신세임을

나는 독을 차고 선선히 가리라
막음 날 내 외로운 혼 건지기 위하여.

- 김영랑, <독(毒)을 차고>

(다)

나의 지식이 독한 회의(懷疑)를 구(救)하지 못하고,
내 또한 삶의 애증(愛憎)을 다 잡지 못하여
병든 나무처럼 생명이 부대길 때,
저 머나먼 ㉣아라비아의 사막(砂漠)으로 나는 가자.

거기는 한 번 뜬 백일(白日)이 불사신같이 작열하고
일체가 모래 속에 사멸한 영겁(永劫)의 허적(虛寂)에
오직 알라의 신(神)만이
밤마다 고민하고 방황하는 열사(熱砂)의 끝.

그 열렬한 고독(孤獨) 가운데
옷자락을 나부끼고 호올로 서면
운명처럼 반드시 '나'와 대면(對面)케 될지니.
하여 '나'란 나의 생명이란
그 원시의 본연한 자태를 다시 배우지 못하거든
차라리 나는 어느 사구(砂丘)에 회한 없는 ㉤백골을
쪼이리라.

- 유치환, <생명(生命)의 서(書)>

4. (가)와 (나)의 시적 화자가 대화를 나눈다고 할 때, 작품에서 드러난 태도와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가) :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 ② (나) : 하지만 언젠가는 죽고 말면 그뿐이라는 인생의 허무함이 때로는 의지를 약하게 만들기도 하는군요.
- ③ (가) : 그런 유혹을 이겨내야 합니다. 비록 외롭고 험난한 길일지라도 불의에 굽히지 않는 삶이 진정 가치가 있습니다.
- ④ (나) : 온갖 위협이 도처에 깔린 상황에서, 그래도 나 자신을 이겨내는 것은 죽는 날 내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지요.
- ⑤ (가) : 그러나 너무 강하게 고집을 부리면 부러진다고 합니다. 때로는 상황에 따라 융통성을 발휘할 필요도 있습니다.

5.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② 일정한 호흡을 유지하여 율격이 표면에 드러나고 있다.
- ③ 강한 어조로 자신이 지향하는 삶의 자세를 드러내고 있다.
- ④ 자연물의 외양을 통해 자신의 강한 의지를 암시하고 있다.
- ⑤ 불의의 현실을 타개하고자 하는 적극적 의지가 드러나 있다.

6. (가)의 시적 화자와 가장 유사한 유형의 인물은? [2.2점]

- ① 경성 학교 영어 교사인 이형식은 고아 출신으로 일본 유학을 했다.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갈등하던 그는 조선인에게 과학과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를 직접 배우기 위해 유학을 떠난다. (이광수, <무정>)
- ② 철학과 대학생 이명준은 남한, 북한 사회를 모두 체험하고는 어느 곳에도 만족하지 못한다. 전쟁 포로가 된 상황에서 그는 중립국을 선택한다. 하지만 인도로 가는 배 위에서 그는 바다에 투신하여 자살하고 만다. (최인훈, <광장>)
- ③ 이인국 박사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그에 맞게 끊임없이 변신을 거듭하면서 생존을 도모해 나간다. 그리고 그는 이런 자신의 가치관에 확신을 가지고 있다. 그는 몇 번의 위기를 겪기도 하지만, 항상 사회의 기득권을 유지한다. (전광용, <꺼삐딴 리>)
- ④ 김 첩지는 가난한 인력거꾼으로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 그는 아내가 아파서 앓고 있는데도 병에게 약을 주면 재미를 붙여 자주 찾아온다고 약 한 첩 쓰지 않는다. 어느 날 그가 일을 마치고 돌아오니 그의 아내는 죽어 있었다. (현진건, <운수 좋은 날>)
- ⑤ 조마이 섬에 살고 있는 갈발새 영감은 불의를 참지 못한다. 홍수가 나서 독을 허물지 않아 섬 전체가 위험하게 되자 앞장서서 독을 파헤친다. 이때 엉터리 독을 쌓아 섬을 통제로 차지하려던 유력자의 하수인들이 방해하자 이에 대항하다 경찰서에 끌려간다. (김정환, <모래톱 이야기>)

7. (나)의 화자가 []에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한다고 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난이야 한낱 남루(襤褸)에 지나지 않는다. / 저 눈부신 햇빛 속에 갈매빛의 등성이를 드러내고 서 있는 / 여름 산(山) 같은 / 우리들의 타고난 살결, 타고난 마음씨까지야 다 가릴 수 있으랴.
- ② 아아, 나의 이름은 나의 노래. / 목숨보다 귀하고 높은 것. // 마침내 비굴한 목숨은 / 눈을 에이고, 땅바닥 옥엔 / 무쇠 연자를 돌릴지라도 / 나의 노래는 / 비도(非道)를 치레하기에 맞기지는 않으리.
- ③ 자네는 나에게 휴식을 권하고 생(生)의 외경(畏敬)을 가르치네. / 그러나 자네가 내 귀에 속삭이는 것은 마냥 허무 / 나는 지그시 눈을 감고, 자네의 / 그 나직하고 무거운 음성을 듣는 것이 더없이 흐뭇하네.
- ④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 봄 한철 / 걱정을 인내한 / 나의 사랑은 지고 있다. // 분분한 낙화…… /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에 싸여 / 지금은 가야 할 때.
- 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준 것처럼 /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 다오. / 그에게로 가서 나도 / 그의 꽃이 되고 싶다. // 우리들은 모두 / 무엇이 되고 싶다. /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

8. ㉠~㉥의 함축적 의미를 추리하는 과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차마’, ‘못헤라’의 표현으로 보아, 시적 화자의 의지를 굽히려는 외부적인 세력이나 압력으로 볼 수 있다.
- ② ㉡ : ‘새로 뽑은 독’임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아, 그만큼 내면의 순수함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철저함을 알 수 있다.
- ③ ㉢ : 앞뒤에서 내 마음을 노리는 존재이므로, 현실 속에서의 부정적 세력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 ④ ㉣ : ‘생명이 부대길 때’ 찾는 곳으로, 이국적인 정서를 풍기는 현실 도피의 장소이다.
- ⑤ ㉥ : 참된 ‘나’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차라리 죽고 말겠다는 비장함을 엿볼 수 있다.

[9~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법률가라는 직업인을 일반적으로 ‘고지식한’ 사람이라고 평가하며, 또 어떤 면에서는 훌륭한 법률가가 되려면 약간 고지식해야 된다고 말하기도 한다. 이때 ‘고지식’이라는 어휘가 구체적으로 어떤 성향을 의미하는지 다른 말로 풀이해 볼 필요가 있다.

만약 이 말이 인간적인 편협함을 의미한다면 법실무는 창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지극히 기계적인 행위라는 전제 아래, 이러한 기계적인 업무를 업으로 삼는 사람은 사고의 틀과 행동 양식이 편협해질 수밖에 없다고 내린 결론일 것이다. 이렇게 성급한 결론은 사실인즉, 우리 나라 법률가 대다수를 상대로 검증해 보면 그다지 틀린 말이 아닐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 나라 법률가들이 일반적으로 편협하다고 해서, 법 실무가 기계적인 행위에 불과하다거나 이상적인 법률가는 사고의 폭이 협소해야 된다는 것은 물론 아니다. 법과 법률가의 보다 본질적인 역할은 현실을 바탕으로 미래를 향해 공동체의 가치관을 제시하는 데 있다. ㉠법의 기능은 건전한 질서를 깨뜨리는 사람을 규제하는 것인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정당한 보호를 받아야 할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다. 전자를 통제의 기능이라고 한다면 후자는 권리 보호와 복리 증진의 기능이라고 말할 수 있다. 법의 기능이 통제의 수단에서 복리 증진의 수단으로 그 중심이 이동해 온 과정을 우리는 역사의 발전이라고 부른다.

‘고지식’이라는 단어의 또 다른 함의(含意)는 이처럼 인간적으로 편협하다는 것이 아니라 업무의 집행에서 원칙을 고집한다는 것이다. 흔히 소신대로 원칙을 고집하면서 법률가의 일생을 살고 있는 인물을 일러 ‘대쪽 같은’ 사람이라고 한다. 법률가에 대한 최고의 찬사인 듯하다. 어느 나라에서나 마찬가지로 우리 나라에서도 법률가는 업무와 관련하여 각종 압력을 받고 산다. 판·검사가 누구에 대해서나 일관되게 원칙과 소신을 지키기란 힘든 일이다. 따지고 보면 법의 운영 그 자체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축성이 있어야만 한다. ‘형평’이라는 것 자체가 곧바로 엄격한 원칙에 대한 예외이기도 하다. 그러나 형평이라는

법의 또 다른 이념을 표면에 내세우다 보면 결과적으로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집행하여 정의를 유린하기 십상이다. ㉡법의 여신이 안대로 눈을 가리고 있는 이유를 알 법도 하다. 소집단 의식이 특히나 강한 우리 사회에서 판·검사는 엄청나게 많은 압력을 받는다. 혈연, 지연, 학연 등 각종 ㉢끈을 불모로 한 온갖 형태의 청탁과 압력이 가해진다. 어느 판사의 표현을 빌리자면 ‘대학 나온 놈 하나 잡아넣자면’ 여간 힘들지 않다고 한다. 사방에서 걸려오는 전화, 찾아오는 사람들 때문에 하루도 편할 날이 없다고 한다. 오랫동안 소식이 없던, 결코 친하다고 할 수 없는 중학교 동창생이 찾아오는 날이면, 그는 어김없이 뭔가 청탁거리를 들고 나타난다. 그를 상대로 원칙론을 뒀다가는 몹시도 섭섭한 표정으로 돌아서는 뒷모습에 괜히 언짢아진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일차적인 기준도, 사건을 담당할 재판부와 사건의 성격에 따라 어떤 변호사가 전문적인 실력을 갖추고 있는지가 아니라 누가 재판부와 ‘잘 통하느냐’이다. 이러한 사회에서 다소 고지식하지만 원칙을 고집하면서 사는 것은 정말이지 크나큰 미덕이다.

9. 윗글에 나타난 글쓴이의 태도와 입장을 바르게 파악한 것은?

- ① 법률가의 애환을 토로하여 법 실무의 기계적인 성격을 옹호하였다.
- ② 법률가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을 검토하여 바람직한 법률가의 자세를 제시하였다.
- ③ 일반인들의 부당한 선입견을 반박하여 법률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호소하였다.
- ④ 청탁이 만연된 법조계의 현실을 비판하여 역사 발전의 올바른 방향을 보여 주었다.
- ⑤ 법률가의 인간적인 편협함을 지적하여 사안에 따른 신축성 있는 대처를 권장하였다.

10. 밑글의 논지를 요약할 수 있는 비유적 표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깊은 물은 소리를 내지 않는다.
- ② 나무가 없는 산은 메아리가 없다.
- ③ 사자는 굶주려도 풀을 먹지 않는다.
- ④ 휘어지지 않는 나무는 부러지기 쉽다.
- ⑤ 참새는 방앗간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

11. ㉠을 '사관생도 모집 요강'에 적용할 때, 성격이 다른 것은?

- ① 임관 후 5년이 지나면 사회 진출의 기회를 부여한다.
- ② 재학 중 성적 우수자에게 해외 연수 기회를 부여한다.
- ③ 졸업과 동시에 문학사, 이학사, 공학사의 학위를 수여한다.
- ④ 생도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할 경우 퇴교를 명(命)할 수 있다.
- ⑤ 재학 중 교육, 피복, 숙식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액 국비로 지원한다.

12. ㉡을 통해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 ① 법은 엄정하게 집행되어야 한다.
- ② 사안에 따라 형평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 ③ 때로는 눈감아 줄 수 있는 융통성이 필요하다.
- ④ 통제된 생활 속에서 전문적인 실력을 배양해야 한다.
- ⑤ 원칙의 적용보다 인간적인 배려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13. ㉢의 기능과 가장 가까운 것은? [2.2점]

- ① 끈 없는 신발이 요즘 유행이다.
- ② 그의 말은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한다.
- ③ 한 땀씩 수를 놓으면서 내 마음도 실을 따라 정리되었다.
- ④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를 만났다.
- ⑤ 전자기기에서 선(線)을 없앤 것이 정보통신 혁명의 시작이다.

14. (가)~(다)의 공통점을 바르게 지적한 것은?

- ① 지나간 역사를 되돌아보고 있다.
- ② 임과의 이별을 아쉬워하고 있다.
- ③ 보다 나은 미래를 기약하고 있다.
- ④ 대상의 유래(由來)를 살피고 있다.
- ⑤ 지나온 삶에 대한 반성이 드러나 있다.

15. (다)의 내용을 토대로 역사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자 한다. 연출자가 구상한 메모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8점]

㉠ 공간적 배경 : 병선(兵船) 위 - 주위의 푸른 바다가 약간씩 보이게 카메라 앵글 조정

㉡ 분위기 : 시청자가 전운(戰雲)을 느끼도록 배 위에 칼과 창이 나열된 모습을 long take* - 긴장감을 주는 배경 음악 준비

㉢ 인물 : 나이가 든 무인(武人)풍의 배우 캐스팅

㉣ 장면 1 : 주인공이 바다 건너 일본을 쳐다봄 - 적개심이 드러나도록 표정 연기 강조

㉤ 장면 2 : 주인공이 현원씨(軒輗氏)를 그리워하는 모습 - 이때 흘리는 눈물을 클로즈업

* long take - 긴 시간 동안 찍음

- ① 가
- ② 나
- ③ 다
- ④ 라
- ⑤ 마

16. 발상 및 표현이 ㉠과 유사한 것은?

- ① 괴로웠던 사나이, /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 처럼 /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 ② 관(棺)이 내렸다. / 깊은 가슴 안에 밧줄로 달아 내리듯. / 주여 / 용납하옵소서.
- ③ 끊임없는 광음(光陰)을 / 부지런한 계절(季節)이 피어선 지고 /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
- ④ 겨울 문의(文義)에 가서 보았다. / 거기까지 닿은 길이 / 몇 갈래의 길과 / 가까스로 만나는 것을.
- ⑤ 어제도 하로밤 / 나그네 집에 / 가마귀 가왓가왓 울며 새었소. // 오늘은 또 몇 십 리 / 어디로 갈까.

17. ㉠~㉤ 중, ㉠과 가장 유사한 정서를 환기시키는 것은?

- ① a
- ② b
- ③ c
- ④ d
- ⑤ e

18. (다)의 ㉠에 들어갈 알맞은 구절은?

- ① 늘고 病(병)든 몸을 舟師(주사)로 보내실새
- ② 晝夜(주야)의 흘너 내여 滄海(창해)에 니어시니
- ③ 天地間(천지간) 男子(남자)몸이 날만한 이 하건마는
- ④ 大洋(대양)이 茫茫(망망)하여 天地(천지)에 둘러시니
- ⑤ 天上(천상) 白玉京(백옥경)을 엇디하야 離別(이별)하고

[19~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半萬年(반만년) 歷史(역사)의 權威(권위)를 仗(장)하여 此(차)를 宣言(선언)함이며, 二千萬(이천만) 民衆(민중)의 誠忠(성충)을 肅(합)하여 ㉠此(차)를 佈明(포명)함이며, 民族(민족)의 恒久如一(항구 여일)한 自由發展(자유 발전)을 爲(위)하여 此(차)를 主張(주장)함이며, ㉡人類的(인류적) 良心(양심)의 發露(발로)에 基因(기인)한 世界改造(세계 개조)의 大機運(대기운)에 順應并進(순응 병진)하기 爲(위)하여 此(차)를 提起(제기)함이니, 是(시) | 天(천)의 明命(명명)이며, 時代(시대)의 大勢(대세) | 며, 全人類(전 인류) 共存同生權(공존 동생권)의 正當(정당)한 發動(발동)이라, 天下何物(천하 하물)이던지 此(차)를 沮止抑制(저지 억제)치 못할지니라.

(나) 學者(학자)는 講壇(강단)에서, 政治家(정치가)는 實際(실제)에서, 我(아) 祖宗世業(조종 세업)을 植民地視(식민지시)하고, 我(아) 文化民族(문화 민족)을 土味人遇(토매인우)하여, 한갓 征服者(정복자)의 快(쾌)를 貪(탐)할 뿐이오, ㉢我(아)의 久遠(구원)한 社會基礎(사회 기초)와 卓犖(탁락)한 民族心理(민족 심리)를 無視(무시)한다 하여 日本(일본)의 少義(소의)함을 責(책)하려 안이 하노라. 自己(자기)를 策勵(책려)하기에 急(급)한 吾人(오인)은 他(타)의 怨尤(원우)를 暇(가)치 못하노라. ㉣現在(현재)를 綢繆(주무)하기에 急(급)한 吾人(오인)은 宿昔(숙석)의 懲辦(징변)을 暇(가)치 못하노라.

(다) 當初(당초)에 民族的(민족적) 要求(요구)로서 出(출)치 안이한 兩國併合(양국 병합)의 結果(결과)가, 畢竟(필경) 姑息의(고식적) 威壓(위압)과 差別의(차별적) 不平(불평)과 統計數字上(통계 숫자상) 虛飾(허식)의 下(하)에서 利害相反(이해 상반)한 兩(양) 民族間(민족 간)에 永遠(영원)히 和同(화동)할 수 업는 怨溝(원구)를 去益深造(거익 심조)하는 今來實績(금래 실적)을 觀(관)하라. 勇明果敢(용명 과감)으로 써 ㉤舊誤(구오)를 廓正(확정)하고, 眞正(진정)한 理解(이해)와 同情(동정)에 基本(기본)한 友好的(우호적) 新局面(신국면)을 打開(타개)함이 ㉥彼此間(피차간) 遠禍召福(원화 소복)하는 捷徑(첩경)임을 明知(명지)할 것 안인가.

(라) 今日(금일) 吾人(오인)의 朝鮮獨立(조선 독립)은 朝鮮人(조선인)으로 하여금 正當(정당)한 生榮(생영)을 遂(수)케 하는 同時(동시)에, 日本(일본)으로 하여금 ㉦邪路(사로)로서 出(출)하여 ㉧東洋(동양) 支持者(지지자)인 重責(중책)을 全(전)케 하는 것이며, 支那(지나)로 하여금 夢寐(몽매)에도 免(면)하지 못하는 不安(불안), 恐怖(공포)로서 脫出(탈출)케 하는 것이며, 또 東洋平和(동양 평화)로 重要(중요)한 一部(일부)를 삼는 世界平和(세계 평화), 人類幸福(인류 행복)에 必要(필요)한 階段(계단)이 되게 하는 것이다. 이 엇지 區區(구구)한 感情上(감정상)의 問題(문제) | 리오.

(마) 新春(신춘)이 世界(세계)에 來(내)하여 萬物(만물)의 回蘇(회소)를 催促(최촉)하는도다. 凍水寒雪(동빙 한설)에 呼吸(호흡)을 閉蝟(폐집)한 것이 彼一時(피 일시)의 勢(세) | 라 하면, 和風暖陽(화풍 난양)에 ㉨氣脈(기맥)을 振舒(진서)함은 此一時(차 일시)의 勢(세) | 니, ㉩天地(천지)의 復運(복운)에 際(제)하고 世界(세계)의 變潮(변조)를 乘(승)한 吾人(오인)은 아모 躊躇(주저)할 것 업스며, 아모 忌憚(기탄)할 것 업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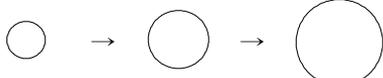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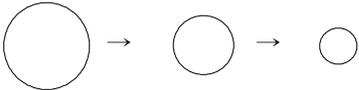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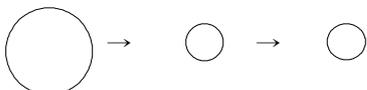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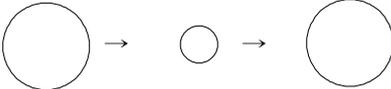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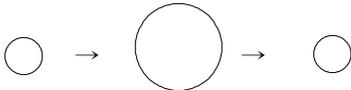
19.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2.8점]

- ① 중국은 일본에 대해 위기감을 갖고 있다.
- ② 조선의 독립은 전 인류가 함께 살아갈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다.
- ③ 우리는 일본이 우리에게 행한 과거의 잘못을 꾸짖지 않을 것이다.
- ④ 조선의 학자는 조선의 강단에서 문화 민족의 역사를 가르쳐야 한다.
- ⑤ 조선의 독립으로 일본은 동양을 떠받치는 중요한 책임을 다할 수 있다.

20. 윗글을 읽은 학생들이 나눈 대화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 ① 주혁 : 오늘날의 글과 맞춤법 상에 차이가 있어서 읽기가 어려웠어.
- ② 창동 : 실용어(實用語)로만 쓰여 있어서 정서적 색채는 찾아볼 수가 없네.
- ③ 상면 : 국한문혼용체(國漢文混用體)의 글이라서 한문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이해할 수 있겠군.
- ④ 수형 : 이 글 속의 정신을 본받아 일본의 역사 왜곡에 항의하는 편지를 써서 일본 대사관에 보내야지.
- ⑤ 영덕 : 거사 당일의 분위기를 생각하면서 힘차게 낭독해야 이 글이 갖고 있는 기개를 느낄 수 있을 거야.

21. (라)의 주된 논지 전개 방식을 그림으로 나타냈을 때, 옳은 것은?

- ① 
- ② 
- ③ 
- ④ 
- ⑤ 

22. ㉠~㉣ 중, 의미하는 바가 이질적인 것은?

- ① ㉠ ② ㉡ ③ ㉢ ④ ㉣ ⑤ ㉤

23. 다음은 어떤 책의 광고문이다. ㉠~㉣ 중, 이 광고문의 내용과 상통하는 것은?

등잔 밑이 밝다 ?

가장 가까이 있으나 우리가 가장 모르는 나라.
 이제 어둠기만 했던 서로의 등잔 밑을 밝혀자.
 다가오는 2002 한일(韓日) 월드컵의 성공 예감 !
 일본 이해의 길잡이서 마침내 출간 !

- ① ㉠ ② ㉡ ③ ㉢ ④ ㉣ ⑤ ㉤

[24~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봄이 오면 온갖 초목이 물이 오르고 싹이 트고 한다. 사람도 아마 그런가 부다, 하고 며칠 내에 부쩍(속으로) 자란 듯 싶은 점순이가 여간 반가운 것이 아니다.

㉠이런 걸 멀쩡하게 안죽 어리다구 하니까…….

우리가 구장님을 찾아갔을 때 그는 짜리문 밖에 있는 돼지 우리에서 죽을 퍼 주고 있었다. 서울엘 줌 갔다 오더니, 사람은 점잖아야 한다구 웃침이 ㉡(얼른 보면 지붕 위에 앉은 제비 꼬랑지 같다.) 양쪽으로 뽕죽이 뽕치고 그걸 애햐, 하고 늘 쓰다듬는 손버릇이 있다. 우리를 멀뚱히 쳐다보고 미리 알아챘는지,

“왜 일들 허다 말구 그래?”

하더니 손을 올려서 그 애햐를 한 번 후딱 했다.

“구장님! 우리 장인님과 춤에 계약하기를…….”

먼저 덤비는 장인님을 뒤로 떼다 밀고 내가 허둥지둥 달겨들다가 가만히 생각하고,

“아니 우리 빙장님과 춤에.”

하고 첫번부터 다시 말을 고쳤다. 장인님은 빙장님, 해야 좋아하고 밖에 나와서 장인님, 하면 댄스레 곱을 났라구 든다. 뺨두 뺨이래야 좋냐구, 창피스러우니 남 듣는 데는 제발 빙장님, 빙모님, 하라구 일상 말조심을 받아 오면서 난 그것두 자꾸 잊는다. 당장두, 장인님, 하다 옆에서 내 발등을 꼭 밟고 결눈질을 흘기는 바람에야 겨우 알았지만…….

구장님도 내 이야기를 자세히 듣더니 펍 딱한 모양이었다. 하기가 구장님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다 그럴 게다. 길게 길러 둔 새끼손톱으로 코를 후벼서 저리 탁 튀기며,

“그럼 봉필씨! 얼른 성렐시켜 주구려. 그렇게까지 제가 하구 싶다는 걸…….”

하고 내 짐작대루 말했다. 그러나 이 말에 장인님이 샷대질로 눈을 부라리고,

“아, 성례구 뭐구, 기집애 년이 미쳐 자라야 할 게 아닌가!”

하니까, 고만 멀쭉룩해서 입맛만 짹짹 다실 뿐이 아닌가…….

“그것두 그래!”

“그래 거진 사 년 동안에도 안 자랐다니 그 킨은 제 자라지유? ㉢다 그만두구 사경 내슈…….”

“글쎄, 이 자식아! 내가 크질 말라구 그랬니, 왜 날 보구 떼냐?”

“빙모님은 참새만한 것이 그럼 어떻게 엘 낫지유?” ㉣(사실 장모님은 점순이보다 컷배기 하나가 작다.)

장인님은 이 말을 듣고 꺽꺽 웃더니 ㉤(그러나 앞만해두 들 씹은 상이다.) 코를 푸는 척하고 날 은근히 꿰리려구 팔꿈치로 옆 갈비뼈를 퍽 치는 것이다. 더럽다, 나두 종아리의 파리를 쫓는 척하고 허리를 구부리며 어깨로 그 궁둥이를 콧 떼밀었다. 장인님은 앞으로 우쭐우쭐하고 짜리문께로 쓰러질 듯하다 몸을 바루 고치더니 눈총을 몹시 쏘았다. 이런 쌍년의 자식, 하곤 싶으나 남의 앞이라서 차마 못하고 쫓는 그 꼴이 보기에 퍽 쟁그러웠다.

그러나 이 말에는 별반 신통한 귀정을 얻지 못하고 도루 논으로 돌아와서 모를 부었다. 왜냐하면 장인님이 뭐라구 킷속말로 수군수군하고 간 뒤다, 구장님이 날 위해서 조용히 데리구 아래와 같이 일러 주었기 때문이다. ㉥(몽태의 말은 구장님이 장인님에게 땅 두 마지기 얻어 부치니까 그래 피였다구 하지만 난 그렇게 생각 않는다.)

“자네 말이 하기가 옳지, 암 나이 찼으니까 아들이 급하다는 게 잘못된 말은 아니야. 허지만, 농사가 한창 바쁠 때 일을 안 한다든가 집으로 달아나든가 하면 손해죄루 그것두 징역을 가거든! ㉦(여기에 그만 정신이 번쩍 났다.) 왜 요전에 삼포 말서 산에 불 좀 놓았다구 징역간 거 못 봤나. 제 산에 불을 놓아두 징역을 가는 이 댄테 남의 농사를 버려 주니 죄가 얼마나 중한가. 그리고 자넨 정장을(사경을 받으러 정장가겠다 했다.) 간대지만 그러면 댄스레 쥘 쓰고 들어가는 걸세. 또 결혼두 그렇지 법률에 성년이란 게 있는데 스물하나가 왜야지 비로소 결혼을 할 수가 있는 걸세. 자넨 물론 아들이 늦을 걸 염려하지만 점순이루 말하면 이제 겨우 열여섯이 아닌가. 그렇지만 아까 빙장님의 말씀이 올 갈에는 열 일을 제치고 라두 성례를 시켜 주겠다 하시니 좀 고마울 쟁가, 빨리 가서 모 붓든 거나 마저 붓게. 군소리 말구 어서 가…….”

그래서 오늘 아침까지 깍소리 없이 왔다.

<중 략>

그런데 점순이가 그 상을 내 앞에 내려 놓으며 제 말로 지껄이는 소리가,

“구장님한테 갔다 그냥 온담 그래!”

하고 엇그제 산에서와 같이 되우 종알거린다. 짠은 내가 더 단단히 텅비지 않고 만 것이 좀 어리석었다. 속으로 그랬다. 나도 저쪽 벽을 향하여 외면하면서 내 말로,

“안 된다는 걸 그럼 어떡헌담!”

하니까,

“침을 잡아채지 그냥 뒤, 이 바보야!”

하고 또 얼굴이 빨개지면서 성을 내며 안으로 썰죽 하니 튀들어 가지 않느냐.

- 김유정, <봄·봄>

24.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장인과의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 ② 장인에 대한 분노가 잘 나타나 있다.
- ③ 사물에 대한 주인공의 관찰력이 잘 나타나 있다.
- ④ 주인공과 점순이의 성례가 다가오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 ⑤ 점순이의 키가 자라지 않는 데 대한 실망감이 잘 나타나 있다.

25. ㉡에 나타난 ‘나’의 솔직한 심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사경’을 받아 가지고 미련없이 떠나 버리고 싶다.
- ② ‘사경’을 받아냄으로써 물엿치한 장인에게 복수하고 싶다.
- ③ 업포로 해 본 소리일 뿐, 점순이에게 빨리 장가들고 싶다.
- ④ ‘사경’을 받아 가지고, 점순이와 함께 멀리 달아나고 싶다.
- ⑤ 앞으로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으며 일을 열심히 하고 싶다.

26. ㉢~㉤의 기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해학적 효과를 높여 준다.
- ② ㉣ : 설명이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 준다.
- ③ ㉤ : 앞으로 전개될 사건을 구체적으로 보여 준다.
- ④ ㉢ : 주인공의 성격적 특성을 제시해 준다.
- ⑤ ㉤ : 주인공의 심리적 반응을 보여 준다.

27. 윗글의 ‘성례’를 중심으로 역할극을 할 때, 인물들 사이의 대사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8점]

- ① ‘나’ : “동네 사람들, 내 말 좀 들어 보소! 이런 억울한 일이 세상에 어디 있단 말이오? 답답해 죽겠네.”
- ② 장인 : “누가 성례를 안 시켜 준다고 했어? 때가 올 때까지 잠자코 기다릴 것이지. 창피스럽게 동네 방네 외치고 다녀?”
- ③ 구장 : “하긴 그렇기도 하지. 성례를 시켜 준다고 했으면 시켜야지. 그런데 말이지……. 조금 더 참고 기다리면서 먼저 일이나 묵묵히 해야지.”
- ④ 몽태 : “사람들이 저렇게 표리부동하기는……. 내 참, 저런 거짓말쟁이들이 다 있다. 야, 바보 같은 놈아! 자꾸 졸라대지 않으면 너는 장가도 못 들고 일만 죽도록 하게 될 테니, 알아서 해!”
- ⑤ 점순 : “야, 어디다 대고 외치고 다녀? 나도 다 맘먹고 있는 게 있으니까, 잠자코 있으란 말이야. 그렇게 외치고 돌아다니면 너만 바보가 돼! 알았어? 내가 되려 답답해 죽겠네.”

[28~3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우리 악기는 소리의 본질음을 중시하기 때문에 만든 재료에 따라 분류된다. 그리고 우리 악기는 본질음의 색깔이 존속되는 정도의 공명만 사용한다. 말하자면 공명을 극대화하여 크고 멀리 가는 소리를 만든다든지 각 악기의 음이 거의 같은 성질의 음이 되도록 발달시킨 서양 악기들과는 달리 공명을 최소한으로 하고 오히려 악기를 만든 재료의 소리가 분명히 울리도록 발달했다는 것이다.

(나) 우리 음악에서는 음과 음이 연결될 때, 피아노 소리처럼 같은 높이의 음만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음 자체가 생명력의 분출로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그것들이 연결될 때에는 밀기도 하고 당기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끌어올리거나 끌어내리기도 한다. 음의 흐름은 계속 변화하면서 흐르기 때문에 거기에 강유(剛柔)가 생길 수도 있고 농담(濃淡)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음과 음의 연결에 있어서는 시김새* 사투리에 따라 나타나는 소리 현상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때문에 악기를 전공하는 분들은 자기 악기의 독특한 시김새를 터득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고 그 시김새만 통달하면 간단한 악보를 놓고도 그 악기로 표현할 수 있는 최상의 음악을 만들 수 있는 것이다.

(다) 우리 음악은 선율 자체가 생명이다. 선율 하나로 모든 감정을 다 표현해야 한다. 그래서 색깔도 다양해야 하고 ㉠극적 표현력도 있어야 한다. 물론 장단과 결합하여 음악을 만들어 가는 것이지만 선율 자체의 인상은 가장 강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음악 선율의 구절법은 서양 음악의 그것과 좀 다른 것 같다. 우리 음악은 처음은 불쑥 질러내듯이 강하게 내고 끝 음은 아주 희미하게 여민다.

(라) 서양 음악의 박자에 해당하는 것이 우리 음악의 장단이다. 24박짜리 느린 진양장단, 16박 혹은 10박짜리 가곡장단, 또 12박 단위의 중모리나 중중모리 등 우리 나라의 장단에는 빠르기와 리듬의 형태를 함께 나타내는 많은 종류가 있다. 이러한 장단들은 선율하고도 관계가 있고 가사하고도 관계가 있다. 더 거창하게 말하면 우리 삶의 방식인 문화하고도 관계가 있다. 특히 장단을 통한 생명력의 흐름은 서양의 박자에서와는 다르다. 흔히 말하는 민속악 장단의 치고[起], 달고[景], 맺고[結], 풀고[解]와 관계 있는 흐름이다. 우리 음악은 불쑥 강박으로 시작하면서도 이내 뚝을 들이듯이 차차 긴장시켜서 4분의 3부분쯤에 가서 ‘딱’ 하고 맺어 주고 그 다음 짧게 푼다.

(마) 우리의 가곡 한바탕은 10여 곡에 2시간 정도는 불러야 하고 산조 한바탕도 40분 이상 걸려야 한다. 관소리 공연은 보통 3시간~7시간쯤 걸리고 굿판을 벌이면 하루 종일 불러야 한다. 그런데 이런 형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얼마든지 연장할 수 있는 반복 형식이 묘하게 발달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농요(農謠) 한 꼭지만 보더라도 한 곡조를 가지고 온종일 부를 수도 있게 되어 있다. 그런데 이런 큰 형식의 전체적인 짜임새는 느린 장단에서부터 차츰 차츰 빠른 장단으로 진행된다. 그래서 맨 마지막은 아주 빠르게 몰아서 맺어놓고 그 다음 짧게 풀고 마친다. 이러한 흐름은 우리의 감정 변화를 그대로 반영한 형식이어서 흥미롭다.

* 시김새 : 골격음의 앞이나 뒤에서 그 음을 꾸며주는 장식음

28. 밑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우리 음악은 우리의 문화와 감정을 반영한다.
- ② 우리 음악의 장단은 서양 음악의 박자에 해당된다.
- ③ 우리 음악에서는 선율이 주는 인상이 가장 강렬하다.
- ④ 우리 음악에서 처음 음은 강하게 소리를 내고 끝 음은 희미하게 여민다.
- ⑤ 우리 음악에서는 음과 음을 연결시킬 때 같은 높이의 음을 사용하지 않는다.

29. 밑글을 바탕으로 '우리 음악의 현대적 경향'에 대한 비판적인 글을 쓰려고 한다. 각 문단과의 연결이 자연스럽지 않은 것은?

- ① (가) : 옛날의 명창들은 오물을 마신다거나 폭포 밑에서 수련하여 목청을 단련시키는 훈련을 했지만 요즘 수련생들은 그와 같은 노력을 한다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
- ② (나) : 근래의 국악 작품들 중에는 악기의 특성을 적절하게 살리는 시김새를 무시한 채 곡을 쓰는 경우가 많아서 국악을 위한 작곡인가 의심하게 된다.
- ③ (다) : 요즘의 신국악 중에는 양악식의 구절법을 쓰는 작품이 많고 특히 강한 박자로 마치는 종지(終止)를 즐겨 쓰고 있어서 국악다운 맛이 없다.
- ④ (라) : 근래에 국악에서 우리의 장단을 배제하고 4분의 4박자나 8분의 6박자로 작곡하는 것이 자주 발견되는데, 그러한 서양식 박자로는 우리 음악의 멋을 실어 낼 수가 없다.
- ⑤ (마) : 요즘 국악은 짧게 짧게 변화를 주려고 하고 대비의 효과를 노리는 테에만 치중하지 전통 음악처럼 거창한 형식을 척척 만들어 나가지 못한다.

30. ㉠을 (라)에 적용시킨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2.8점]

- ① 판소리는 대부분 짜여진 가사와 곡조 중심으로 공연을 해 나가지만 현장성이 중시되기 때문에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상당 부분 다르게 연창할 수 있다.
- ② 판소리는 사실 내용을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성악이다. 바람 소리는 '우루루루' 하는 식으로 표현하고 물가에 빠질 때에는 '물가에 풍' 하면서 목소리로 실감나게 표현해야 한다.
- ③ 판소리에서 가사의 발음은 음가 하나하나가 완전히 살아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가사 중에 '가슴'은 '가삼'으로 발음하고 '-에'나 '-의'는 '-으'나 '-어'로 발음하는 것이 보통이다.
- ④ 동편제 판소리는 기교보다는 소리 자체를 통성으로 깨끗하고 튼실하게 내며 소리의 끝이나 아니리의 끝을 여운 없이 탁 그치며 맺는다. 한편 서편제는 기교를 중시하고 소리도 애절하며 소리의 꼬리도 길다.
- ⑤ <춘향가>에서, 이도령이 광한루에 올라 먼 경치를 바라보는 대목은 느리게 진행되는 것이 어울리고, 마지막 암행어사 출도 장면은 급박한 상황에서 허둥대는 서리나 역졸들을 실감나게 표현할 수 있도록 빠르게 몰아쳐야 어울린다.

31. <보기>의 서양 음악의 특징에 대비되는 우리 음악의 특징을 설명한 문단은? [2.2점]

<보기>

서양 음악은 두 마디가 합쳐서 이루어지는 '동기'를 기본 단위로 하며 이것을 발전시켜 곡이 완성된다. 이 '동기 발전식' 음악의 원리는 벽돌을 쌓아서 건물을 만드는 것과 같아서 이러한 음악은 일정한 틀을 가지며 얼마만큼의 벽돌을 쌓으면 더 이상 높일 수 없는 것처럼 규모에도 제약을 받는다.

- ① (가)
- ② (나)
- ③ (다)
- ④ (라)
- ⑤ (마)

[32~3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허생은 나라 안을 두루 돌아다니며 가난하고 의지 없는 사람들을 구제했다. 그러고도 은이 십만 냥이 남았다.

“이건 변씨에게 갚을 것이다.”

허생이 가서 변씨를 보고

“나를 알아보시겠소?”

하고 묻자, 변씨는 놀라 말했다.

“그대의 안색이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으니, 혹시 만 냥을 실패 보지 않았소?”

허생이 웃으며,

“재물에 의해서 얼굴에 기름이 도는 것은 당신들 일이요. ㉠만 냥이 어찌 도(道)를 살찌게 하겠소?”

하고, 십만 냥을 변씨에게 내놓았다.

“내가 하루 아침의 주립을 건디지 못하고 글읽기를 중도에 폐하고 말았으니, 당신에게 만 냥을 빌렸던 것이 부끄럽소.”

변씨는 대경해서 일어나 절하여 사양하고, 십분의 일로 이자를 쳐서 반갚노라 했다. 허생이 잔뜩 역정을 내어,

“㉡당신은 나를 장사치로 보는가?”

하고는 소매를 뿌리치고 가 버렸다.

<중 략>

이 대장이 방에 들어와도 허생은 자리에서 일어서지도 않았다. 이 대장은 몸둘 곳을 몰라하며 나라에서 어진 인재를 구하는 뜻을 설명하자, 허생은 손을 저으며 막았다.

“밤은 짧은데 말이 길어서 듣기에 지루하다. 너는 지금 무슨 벼슬에 있느냐?”

“대장이요.”

“그렇다면 너는 나라의 신임받는 신하로군. ㉢내가 와룡 선생(臥龍先生) 같은 이를 천거하겠으니, 네가 임금께 아뢰어서 삼고 초려(三顧草廬)를 하게 할 수 있겠느냐?”

이 대장은 고개를 숙이고 한참 생각하더니,

“어렵습니다. 제이(第二)의 계책을 듣고자 하옵니다.”

했다.

“나는 원래 ‘제이’라는 것은 모른다.”

하고 허생은 외면하다가, 이 대장의 간청에 못 이겨 말을 이었다.

“㉣명(明)나라 장졸들이 조선은 옛 은혜가 있다고 하여, 그 자손들이 많이 우리 나라로 망명해 와서 정

쳐 없이 떠돌고 있으니, 너는 조정에 청하여 종실(宗室)의 딸들을 내어 모두 그들에게 시집 보내고, 훈척(勳戚) 권귀(權貴)의 집을 빼앗아서 그들에게 나누어 주게 할 수 있겠느냐?”

이 대장은 또 머리를 숙이고 한참을 생각하더니, “어렵습니다.”

했다.

“㉤이것도 어렵다, 저것도 어렵다 하면 도대체 무슨 일을 하겠느냐? 가장 쉬운 일이 있는데, 네가 능히 할 수 있겠느냐?”

“말씀을 듣고자 하옵니다.”

“무릇, 천하에 대의(大義)를 외치려면 먼저 천하의 호걸들과 접촉하여 결탁하지 않고는 안 되고, 남의 나라를 치려면 먼저 첩자를 보내지 않고는 성공할 수 없는 법이다. 지금 만주 정부가 갑자기 천하의 주인이 되어서 중국 민족과는 친근해지지 못하는 판에, 조선이 다른 나라보다 먼저 섬기게 되어 저들이 우리를 가장 믿는 터이다. 진실로 당(唐)나라, 원(元)나라 때처럼 우리 자체들이 유학 가서 벼슬까지 하도록 허용해 줄 것과 상인의 출입을 금지하지 말도록 할 것을 간청하면, 저들도 반드시 자기네에게 친근하려 함을 보고 기뻐 승낙할 것이다. ㉥국중의 자체들을 가려 뽑아 머리를 깎고 뒤늬의 옷을 입혀서, 그 중 선비는 가서 빈공과(賓貢科)에 응시하고, 또 서민은 멀리 강남(江南)에 건너가서 장사를 하면서, 저 나라의 실정을 정탐하는 한편, 저 땅의 호걸들과 결탁한다면 한번 천하를 뒤집고 국치(國恥)를 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 명나라 황족에서 구해도 사람을 얻지 못할 경우, 천하의 제후(諸侯)를 거느리고 적당한 사람을 천거한다면, 잘 되면 대국(大國)의 스승이 될 것이고, 못 되어도 백구지국(伯舅之國)의 지위를 잃지 않을 것이다.”

이 대장은 힘없이 말했다.

“사대부들이 모두 조심스럽게 예법(禮法)을 지키는데, 누가 변발(辮髮)을 하고 호복(胡服)을 입으려 하겠습니까?”

허생은 크게 꾸짖어 말했다.

“ [] ㉦

너 같은 자는 칼로 목을 잘라야 할 것이다.”

하고 좌우를 돌아보며 칼을 찾아서 찌르려 했다. 이 대장은 놀라서 일어나 급히 뒷문으로 뛰쳐나가 도망쳐서 돌아갔다.

이튿날, 다시 찾아가 보았더니, 집이 텅 비어 있고, 허생은 간 곳이 없었다.

32. 허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2점]

- ① 세상일에 관심이 없는 은둔자
- ② 집단에 소속되지 못하는 주변인
- ③ 사회 개혁안을 제시하는 개혁가
- ④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는 지식인
- ⑤ 합리적인 이윤 추구에 능한 상업 자본가

33. ㉠~㉣의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만 냥’이 ‘물질적 부’라면 ‘도(道)’는 ‘윤리적 가치’를 가리킨다.
- ② ㉡ : 허생의 지향점이 이윤 추구에 있지 않음을 부각시킨다.
- ③ ㉢ : 인제가 초야에 묻혀 지내는 것을 개탄하고, 인재 등용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 ④ ㉣ : 명나라의 옛 은혜를 갚아야 한다는 이 대장의 의견에 허생도 동의한다.
- ⑤ ㉤ : 극적인 효과를 높이고 주제를 강조하기 위해 질문이 반복된다.

34. ㉠의 주장을 두고 토론을 벌인다고 할 때, 찬성하는 쪽의 논거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신라 말기 육두품 지식인들은 지방 호족과 결탁하여 중앙 정부에 반기를 들었다.
- ② 고려 후기에 지배 계층이 받아들이기 시작한 몽고의 풍속 중 몇 가지는 완전히 우리의 것으로 굳어졌다.
- ③ 구한말 집권층은 다른 분야는 손대지 않고 서양의 기술만 받아들임으로써 근대화에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 ④ 일제 강점기에 민족주의자들은 국내외에서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우리 민족의 실력을 양성하여 독립에 대비하였다.
- ⑤ 한문, 산스크리트, 아랍어, 라틴어 등 공동 문어로 묶인 문명권 중에서 가장 열등했던 라틴어 문명권이 근대 이후에는 선두에 서게 되었다.

35.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무엇을 예법이라 하는가?
- ② 사대부가 무엇이란 말인가?
- ③ 네가 신임받는 신하란 말인가?
- ④ 아무 것도 행할 수 없단 말인가?
- ⑤ 우리라고 대국(大國)이 되지 못하겠는가?

[36~4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과학은 생산력과 직결되는 ㉠도구적 이성으로서의 특성과 그 생산력의 사회적 의미까지도 천착(穿鑿)할 수 있는 ㉡비판적 이성의 성격을 갖는다. 유전자 구조와 그 속에 담겨 있는 정보를 밝혀내는 것도 과학의 몫이지만, 그 지식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또는 이용해서는 안 되는지를 파악하는 것도 과학의 소임이다. 도구적 이성으로서의 힘이 커지는 만큼 비판적 이성으로서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진다. 오늘날의 과학은 인류의 말살만이 아니라 지구상의 생태계를 교란·파괴할 힘을 갖게 되었고, 가까운 미래에 프랑켄슈타인과 복제 인간의 제조까지 가능하게 하였다. 그러므로 과학의 힘을 제어할 비판적 이성은 필수적이다. 이러한 이성은 필시 윤리적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으며 윤리성은 ‘윤리적 인간’에서 비롯된다. 자신의 좁은 전문 영역에만 관심을 가질 뿐, 그것의 사회적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는 과학자는 일상적 삶과 전문 과학자로서의 삶에 아무리 충실하다 할지라도, 윤리적 이성을 가진 과학자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면 과학자가 어떻게 자신이 하는 일의 사회적 의미와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가? ㉢해분열에 관한 자신의 순수한 연구가 원자 폭탄 제조로 연결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단 말인가? 과학자 개인으로서는 도저히 해결 불가능한 숙제일지도 모른다. 개인적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면 사회적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다. 그리고 어차피 이런 문제는 그 자체가 개인적 차원이 아니라 사회적 것이기도 하다.

과학 기술의 사회적 관리에 관해 두 가지 길을 생각할 수 있다. 하나는 여태까지 주로 해왔던 엘리트적 방법으로 소수 관계자가 모든 것을 장악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을 것이며, 설사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 귀결은 철저한 관리 사회와 독재 사회일 수밖에 없다. 다른 한 가지는 과학 기술 정보의 공개와 사회적 토론 및 검증을 통한 관리이다. 공개를 통해 과학 기술의 내용만이 아니라 그 사회적 의미를 그때그때 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인류의 지적 자원인 정보를 사회 구성원들에게 알려야 한다는 당위적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인류의 생존을 위해서 불가피한 전략으로 생각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인 간은 물론 선진 과학 기술의 국가 간 이전과 공유(共有)의 장치도 마련되어야 한다.

과학 기술의 공개 및 공유와 더불어 행해져야 할 것은 과학 교육의 쇄신이다. 지금까지는 대부분 도구적 이성으로서의 과학을 가르쳐 왔다. 그러나 이제는 비판적 이성으로서의 과학 교육이 확대되어야 한다. 거기에서는 과학과 사회와의 관련 영역이 한 가지 중심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성격의 과학 교육은 전문 과학 기술인에 대해서 특히 철저히 시행되어야 하고, 국민 일반의 교육 과정에서도 시행되어야 한다.

과학 문명이 통제력을 잃고 비대해지기만 해서 마침내 인류와 생태계, 그리고 과학 자체를 파탄시킬 미래가 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인류는 그리고 현장의 과학 기술인들은 새로운 윤리적 이성을 갖추어 나가야 할 것이다. 이것은 여러 가지 답안 가운데서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지의 문제가 아니라, 유일한 답안을 어떻게 실천해 나갈 수 있느냐의 문제이다.

36. 글쓴이의 의도를 가장 잘 실천하고 있는 과학자의 모습은?

- ① 순수 학문을 연구하여 응용 학문에 다양한 토대를 마련해 준다.
- ② 객관적인 관찰과 실험의 방법으로 진리를 규명하기 위해 노력한다.
- ③ 실용 과학을 연구하여 인간의 삶에 도움이 되는 산물을 만들어 낸다.
- ④ 연구 성과를 공개하여 사회의 비판을 수용한 후 이를 연구에 반영한다.
- ⑤ 생명 공학과 같은 최첨단 분야를 연구하여 과학 기술계를 이끌어 나간다.

37. 밑글의 핵심 내용을 표어로 나타낸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2점]

- | | |
|---------------|--------------|
| ① 과학 기술 이제 그만 | 자연으로 돌아가자! |
| ② 과학 교육 쇄신하여 | 과학 영재 양성하자! |
| ③ 막강 권력 과학 기술 | 통제하면 발전 없다! |
| ④ 과학 기술 발전시켜 | 개인 성공 국가 만족! |
| ⑤ 너와 나의 윤리 의식 | 인류 위한 과학 기술! |

38. ㉠, ㉡의 특징을 올바르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 ① ㉠은 사람들 모두에게, ㉡은 과학자에게 요구된다.
- ② ㉠은 지식의 측면이, ㉡은 윤리의 측면이 강조된다.
- ③ ㉠은 실천이 요구되지만, ㉡은 아는 것 자체로 충분하다.
- ④ ㉠은 인류의 생존을 위해서, ㉡은 개인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
- ⑤ ㉠은 사회적인 차원에서, ㉡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관리가 가능하다.

39. ㉢을 통해 강조하는 바를 가장 적절하게 나타낸 것은?

- ① 개인의 연구 결과에 대해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
- ② 개인의 연구 결과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
- ③ 개인의 연구 과정에서 시행착오는 과학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
- ④ 분명한 결과가 예측되지 않는 개인의 연구는 금지되어야 한다.
- ⑤ 개인적 차원이 아니라 집단적인 차원의 연구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40. ㉣에 대해 비판적인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 ① 국가들 간에 과학 기술 결과를 공유하게 되면, 모든 나라들이 잘 살게 되지 않겠는가?
- ② 개인의 과학 기술 업적을 공개해야 한다면, 어느 누가 힘들게 기술을 연구하려고 노력하겠는가?
- ③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과학 기술을 공유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는가?
- ④ 선진 과학 기술을 보유한 나라가 이 방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를 제재하거나 강요할 수 있겠는가?
- ⑤ 지적 재산권이 분명히 인정되고 있는데, 개인의 연구 산물을 공유하라는 것은 재산권 침해로 볼 수 있지 않겠는가?

2002학년도 육군사관학교 1차시험

언어 영역 정답표

문항 번호	정 답						
1	①	11	④	21	①	31	⑤
2	②	12	①	22	④	32	③
3	②	13	④	23	③	33	④
4	⑤	14	①	24	①	34	④
5	③	15	⑤	25	③	35	⑤
6	⑤	16	③	26	③	36	④
7	②	17	③	27	⑤	37	⑤
8	④	18	④	28	⑤	38	②
9	②	19	④	29	①	39	②
10	③	20	②	30	⑤	40	①

※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